

# 노동과건강

2021 여름

the 100 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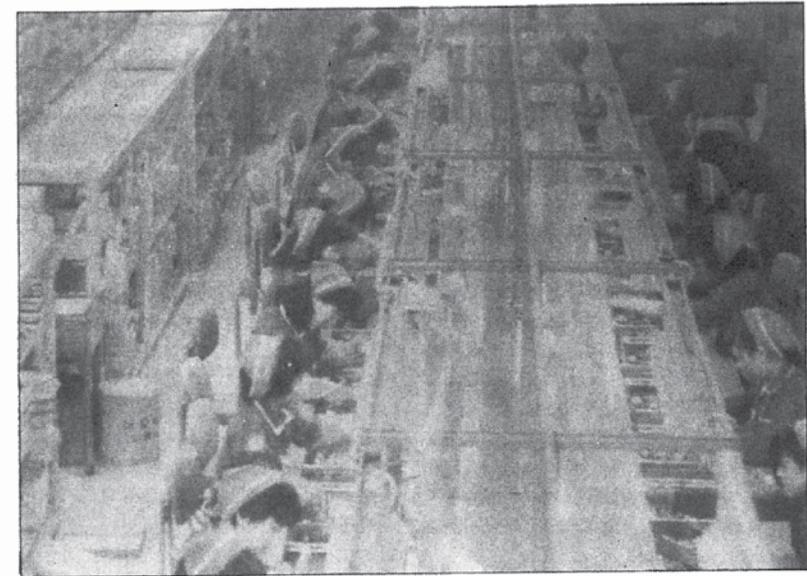
# 노동과건강

1988년 창간호

발행인 : 노동과 건강연구회

발행일 : 1988. 5. 15

주소 : 구로구 구로4동 731-6    전화 : 868-2856/865-0664



## 목 차

|                        |                             |
|------------------------|-----------------------------|
| 취지문 .....2             | 연재기획                        |
| 창간사 .....3             | - 직업병에 대해 알아본다 .....14      |
| 노동과 건강연구회에 바란다.        | 산재소식                        |
| 산업재해노동자연맹 .....4       | - 그린힐 봉제공장 집단참사 사건 .....18  |
| 신광기업노동조합 .....4        | - 코리아크라운의 T.C.E. 중독 .....18 |
| 진폐연구소 .....5           | 단체동정                        |
| 창립총회 기념강연 요약           | 노동과 건강연구회소식/활동부서소개 .....19  |
| - 한국의 산업보건 실태 .....7   |                             |
| 사례를 통해 본 산업재해의 현실      |                             |
| - 성광 집단수은중독 사례 .....10 |                             |

노동과건강  
2021 여름  
the 100th

『노동과건강』의 안정적인 발간을 위해  
노동건강연대를 후원해주세요!

『노동과건강』은 노동건강연대 후원자들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만들어집니다.  
사무국을 운영하기만 해도 빠듯한 재정이지만  
현실의 복잡하고 다양한 노동자 건강권 문제에 대해  
독자 여러분의 개입과 연대를 바라며 발행하고 있습니다.

『노동과건강』은 특히  
노동자 인권, 사회권, 건강권에 관심이 많은 노동자,  
보건의료운동과 노동운동에 관심이 많은 전문가,  
사회운동에 관심이 많은 학생, 젊은 연구자에게 권합니다.

후원 안내  
www.laborhealth.or.kr/donate

전화 및 이메일 문의  
02-469-3976 | laborhealthh@hanmail.net

C O N T E N T S



편집위원회 인사말 · 6

창립20주년 축하의 말들 · 8

특집 01\_ 노동건강연대의 의제와 현장

노동건강연대가 한국사회에 던진 문제의식과 의제 · 18  
: '안전'이 아니라 '정치'가 중요하다

스무 해 활동의 조각들 · 24

- : I 여성노동자의 건강에 대한 노동건강연대의 초기활동
- : II 서울 성수동 영세사업장 '노동자건강센터' 건립을 위한 활동
- : III 삼성·LG 스마트폰 하청공장의 청년 파견노동자 메탄올 실명 사고
- : IV 기업살인운동, 기업의 시간을 기록하다

기업살인운동 작은 인터뷰 : 조선소 하청노동자가 사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 · 77  
- 전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동자 하창민



특집 02\_ 노동자건강의 정치경제학 2021

불평등과 건강 정치\_ 김창엽 · 82

21세기 한국의 노동 현실과 과제\_ 신광영 · 86

문제는 플랫폼 노동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의 권리\_ 남재욱 · 93

코로나19와 한국 내 이주노동자들의 건강\_ 이주연 · 97

100호 특별 인터뷰

오래된 활동가의 호기심과 연결 · 100  
: 백도명, 어떤 차이와 어떤 공감



2001-2021 연보

노동건강연대 걸어온 길 · 110

대표의 편지 · 146



부록\_ <노동과건강> 창간호 ~ 99호 목차 · 148

## 1호부터 99호까지의 〈노동과건강〉 편집위원들을 대신하여

### 100호 편집위원회

〈노동과건강〉 100호입니다. 〈노동과건강〉은 팔리지도 않고, 읽히지도 않는 변방의 글 뭉치 같다고 생각해 왔습니다만, 한 호 한 호 책이 나올 때마다 ‘나오긴 나오는구나.’ 안도하면서, 귀하게 여기면서 세상에 내보낸 것도 사실입니다.

〈노동과건강〉을 처음 발간한 것이 1988년 5월, 발행처는 ‘노동과건강연구회’입니다. ‘노동과건강연구회’에서 1998년까지 50호를 만들었습니다. 그 후 ‘노동과건강연구회’가 사무처 역할을 했던 ‘산재추방운동연합’의 이름으로 잠시 발행처가 바뀌었다가 2003년 ‘노동건강연대’가 〈노동과건강〉 복간호로 65호를 펴냈군요. 노동건강연대는 2001년 6월 30일 문을 열었는데 바로 〈노동과건강〉을 펴내지는 못하고 잠시 쉬었습니다. 100호가 만들어지기까지 발행주기도 3개월간, 격월간, 계간, 부정기 발행 등 부침을 겪어 왔습니다.

기획부터 청탁, 집필, 편집을 함께해 온 활동가, 회원들이 얼마나 될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1호부터 99호까지의 고정 꼭지들도 늘 같지는 않았습니니다. 그렇지만 한결같은 분위기는 있습니다. 동시대 노동과 건강에 대한 정치적, 정책적 이슈와 노동자들의 생생한 이야기, 해외와 국내의 연구 동향이 충실하게 담겨 있습니다.

〈노동과건강〉 100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건강연대 창립 20년의 해에 100호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1호에서 99호까지의 시간과 노동건강연대 스무 해의 기록을 함께 담았습니다. 1호에서 99호와 창립 20주년은 각자 큰 줄기를 이루고 있는 다른 기록물로 나와야 했을 것입니다. 책 발간과 기록 정리의 여력을 따로 두지 못하여 부득이 하나로 펴내게 되었습니다.

특집1에 노동건강연대 20년, 한국 사회에 던진 의제와 의미를 짚고, 일부 활동에 대하여 지난 시간을 짚어가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겨우 조각 몇 개를 보여드릴 수밖에 없어서 아쉬운 마음입니다. 특집2는 지난 봄, 온라인 강좌로 진행한 ‘노동자건강의 정치경제학 2021’을 지면에 담았습니다. 관점을 재확인하고, 현재의 노동이 직면한 문제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독자 여러분과 가장 나누고 싶은 100호 특별 인터뷰가 있습니다. 노동건강연대의 두 젊은 활동가가 백도명 전 대표를 찾아갔습니다. 백도명 전 대표는 늘 세상을 탐구하고 실천하는 운동가이기에 서로 통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책의 막바지, 노동건강연대 걸어온 스무 해를 간략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분량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이 기회가 아니면 나누기 어려울 것 같아 책에 담았습니다. 이어지는 이상윤 대표의 편지를 함께 보시면 노동건강연대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록으로 담은 〈노동과건강〉 총목차도 지금이 아니면 담기 어려운 기록입니다. ‘노동’과 ‘건강’을

둘러싼 현실과 이를 보는 관점이 1호부터 99호까지의 목차에 들어있습니다.

너무 많은 필자가 원고료 없는 간행물에 —심지어 독촉을 받아가면서— 기꺼이 원고를 써주셨습니다. 한 분 한 분 모든 필자에게 감사드립니다.

〈노동과건강〉 100호는 지난 시간을 기록하는 의미가 커 보이지만, 기록을 돌아보는 일은 새로운 시간으로 도약하는 디딤돌이 되기도 합니다.

100호의 편집위원 전수경, 김명희, 유성규, 이상윤, 변수지, 안현경, 박한솔이 창간호에서 99호까지의 편집위원을 대신하여 〈노동과건강〉을 읽어주시는 독자에게 감사 인사드립니다.

〈노동과건강〉 편집위원회는 또한, 인쇄를 맡아주신 서울경인지역인쇄노조 조합원들, 디자인을 함께해 주신 조완웅 디자이너, 김미란 편집디자이너, 책을 발송해주는 산재노동자자활공동체 식구들께 감사드립니다. 

- ☆ 요즘 어떻게 지내나면,
- ♡ 노동건강연대와 언제 만나게 되었나면,
- ◎ 20주년에 해주고 싶은 말?

## 창립20주년 축하의 말들

# “고마워! 같이 살자.”

노동건강연대가 스무 해를 걸어오는 동안 무수한 인연을 맺었습니다. 노동건강연대 활동에 오래 몸담았던 사람, 사건이나 일 때문에 만났다가 진득하게 엮인 단체, 연락을 주고받지 못한 채 수년이 흘러 아쉬운 사람, 안부를 묻는 게 오히려 낯간지러운 사람. 노동건강연대의 오늘을 만들어주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긴 여정에 함께 해주셨던 분들에게 받은 축하말을 나눕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김성희  
만화가



〈문밖의 사람들〉을 출간한 이후는 저는 로드워커 게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인지 설명하기 모호한데, ‘미지수에 나를 열어두고 도시 수렵채집 활동하기’입니다.



반올림 연대에서 첫 인연을 마주했고, 기업살인법 입법 활동에 관심을 가지다가, 메탄올 사건을 〈문밖의 사람들〉 만화로 만드는 인연까지 이어졌습니다. 활동가와 노동인권에 대해서 열린 질문과 고민을 나눌 수 있었던 소중한 인연이었습니다.



자기 조직 없는 노동자들,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20년이 고맙고 다행입니다. 노건연은 관성화되지 않고, 생생한 활동으로, 조직이 먼저이지 않았던 유연함으로 기억합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지치지 말고 활동하세요.

김미란  
인쇄디자인공



똑!똑!똑! 반갑습니다^^ 노동건강연대 20주년을 축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현재 인쇄물 디자인·제작 일을 주 업으로 살고 있습니다. 멀티적인 생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인생 2막에는 ‘단순 유쾌 건강히’ 살고픈 게 희망인데 말이죠...ㅋ



노동건강연대는 인쇄노조에서 조합원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되었고요, 2003년(?) 상근활동을 할 적에는 한 지방 아래 살기도 했어요. 총무로·을지로 영세사업장들이 밀집된 지역에 사무실이 있었죠. 이후 노건연이 성수동으로 터전을 옮겼던가요?ㅎ 떠오르는 노건연 식구들, 영세사업장노동자들을 위한 실태조사며, 건강권 사업 등, 다양한 일들과 함께 성동지역에서의 연대 활동 등이 퐁퐁! 비눗방울처럼 떠오르네요. ㅋ



30주년이 아니고요? 단체명처럼 ‘노동건강연대’가 노동자들과 가까운 곳에 있으려 하고, 함께 연대사업을 실천했던 것 같아서 내공 100단이라고 생각했는데... ㅋ 20년밖에 안 되었다고 해서요. ^^ 지난 날 함께했던 동지들이 옆에 없더라도, 새 동지들과 함께 곳곳하게 노동자들 곁에서 힘이 되어주세요!!! ‘노동건강연대’ 영원하러! 30주년 가자~ ^~

김순구  
산업잠수사



해양환경과 관련된 자그마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의 수족자원 남획과 기후변화로 인해 나날이 황폐해져 가는 바다를 되살리기 위해 바닷속에 해조류를 심고 수중폐기물을 수거하고 해양생태계를 조사 분석하는 업체입니다.



2014년 9월 27일 월성원전의 냉각수 취수구를 청소하던 잠수사 한 분이 작업 중 가동된 취수펌프에 빨려 들어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고인의 시신 극히 일 부만을 수습할 수 있었던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사고를 당하신 분이 저에게 아버지 같고 친구 같은 동료였습니다. 거대 공기업을 상대로 힘겹게 싸우던 중 언론사에서 도 외면받아 낙담하고 있을 때에 저희에게 손을 내밀어 준 분들이 노동건강연대의 전수경, 박혜영 활동가셨습니다.

김철주

회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



안녕하세요. 노동건강연대 회원 김철주입니다. 코로나 19 발생 이후 얼굴 본지 다들 오래된 것 같네요. 다들 잘 지내시는지요.

저는 늘 똑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특수건강검 진을 하면서 늘 무력감을 느끼고 있고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서울시 민간역학조사관으로 나를 열심히 활동했던 것이 기억이 남네요. 늘 첩보통으로 생각하고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았던 보건소, 지방자치 공무원들이 국난을 맞아 나라를 지키는 것을 큰 감명을 받았습니 다. 물론 그 과정에 무차별적인 초과노동이 있긴 했죠.



노동건강연대 회원이 된 지도 오래되었네요. 2009년 한 립대 직업환경의학과 전공의가 되면서 강제로(?) 회원가

입을 마치고 우체국 근골 교육 사업을 시작으로 여러 일 을 수행한 것 같습니다. 제일 기억나는 일은 내방역 사무 실이 있을 때 회의는 짧게 하고 뒤풀이를 길게 하면서 노 동자의 건강을 위해 토론하던 시절입니다. 하루는 이상 윤 대표님 댁 아이 출산 소식을 듣고 봉투에 10만 원을 들고 회의에 참석했는데 이 대표님이 그날 안 오셨더군요. 그래서 그 돈을 활동가를 위해 쓰기로 했습니다. 돈 도 많아 낙지를 시켰을 때 혜영샘이 좋아하던 표정이 지 금도 생각나네요.



어느덧 노동건강연대도 20주년이 되었네요. 축하드립니다. 메탄올 투쟁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과정 등 우리 노 건연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제가 그 회원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하지만 갈 길은 먼 것 같습니다. 어쩌다 보니 제가 하는 일이 우리 사회 모순의 한 가운데 있습니다. 쿠팡 노동자의 검진을 하면서 이 잔인한 자본주의를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이 대표님 표현대로 노동자가 건강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계약을 맺고 그걸 이행하는 날까 지 열심히 전진했으면 합니다.

박두용

전 대표·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요즘 산재, 안전 문제 들이 붓물 터지듯 쏟아져서 그 물길 속에 떠내려가는 중 이다. 사람들의 요구수준과 눈높이는 계단식으로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데 문제의 구조나 해결은 이를 못 따라 가고 있다. 어려운 점은 누구 한 명의 잘못이 아니라 오랫동안 누적되고 꼬여있어 쉽게 풀리지 않는다는 것이

다. 한국 사회의 오랜 문제들이 안전이라는 윈도우를 통 해 터져 나오는 것 같기도 하다. 그렇다고 지금의 물길을 거슬러 갈 수는 없지 않나. 정신 차리면서 잘 헤엄쳐 나가려고 노력 중이다.



노건연 생길 때가 1인당 1만 불을 막 넘어가던 시점이다. 이전에는 '수질오염'이라고 하면 법에서 정한 오염만 피 해서 가면 되었지만, 「대기환경보전법」처럼 환경의 보전 과 증진까지 시각이 확대되고, 산재 문제도 조금 더 일 반적이고 폭넓은 시각으로 보자는 흐름이 있었던 것 같 다. 산추련 시절부터 회원이었던 건 아니고 외부 전문가 로 세미나에서 발제하고 토론에 참여하곤 했는데 어쩌 다보니 휩쓸려가서 같이 활동하게 되었다. 개미지옥이라 고 해야하나? ㅋㅋ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많이 배우기도 했다.



산추련이 해체되고 노건연으로 전환하던 시기가 하나의 변곡점이라면, 지금이 또 한 번 변혁의 시기가 아닐까 싶 다. 스무 해면 이제 성인으로 접어든 시기다. 앞으로 시 민사회운동을 어떻게 펼쳐나갈지 깊이 고민할 시기이다. 이제 기술적·법리적 쟁점들이 더 복잡하고 교묘해져서, 분명한 책임 여부나 선악의 이분법으로 접근하는 게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안전보건문제를 과 거의 방식으로 해결하거나 운동으로 만드는 것은 더욱 어려울 것이다. 어떻게 한 차원 높은 노동자, 아니, 사람 들의 안전을 지키는 운동으로 호흡을 맞출 것인지, 어려운 숙제지만 열심히 하길 기대한다.

백도명

전 대표·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정년퇴직을 앞두고 정리, 마무리를 하는 중이다. 물리적 공간도 그렇고 하던 일도 그렇고, 정리하며 골라내는 일 이 엄청난 거 같다.



노건연에 대한 맨 처음 기억은 8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 다. 당시 미국에서 박사학위 공부를 하던 중에 잠깐 한 국에 들어왔는데 '노동과건강연구회'에서 일본분들과 같이 과로사 모임을 서강대에서 한다고 해서 가본 것이 시작인 거 같다. 이후 산추련 해체 과정에 대해 당시에는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했고, '현장에서 문제를 푸는 것 이 쉽지만은 않구나' 생각했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 닿 을 수 있는 운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2001년 임 상혁, 주영수 선생들이 새롭게 노건연 문을 연다고 할 때 본격적으로 같이 하게 되었다. 이전까지 산업보건 분야 가 중요하게 바라보지 않던 파트를 들여다볼 수 있는 활 동이 좋았다.



삶이 노동을 통해 의미를 찾지만, 또 노동 때문에 삶을 잃어버리는 지점도 있다. 노건연은 그 부분이 어디인가 를 가장 앞에서 바라보았던 단체 아닐까 싶다. 가장 앞 에 서 있으면 지금 있는 곳이 어디인지 잘 안 보이고 깜 깜하기도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우리 사회에서 그 자리 를 지켜가는 사람들이면 좋겠다.

### 시민건강연구소



〈노동과건강〉 100호, 노동건강연대 20주년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노동건강연대와 시민건강연구소는 그 어떤 단체보다 각 별한 연대와 우정, 그리고 사랑과 열정을(!) 나누고 서로를 응원하며 오늘까지 함께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노동건강연대가 서울혁신파크의 아주 세~련된 사무실을 쓰고 있지만, 한동안은 시민건강연구소와 겨울엔 몹시 추운 사무실을 나눠 쓰며 활동가들이 동고동락하던 시절도 있었지요. (그때를 생각하니 갑자기 짝해지네요...) 그리고 아직도 시민건강연구소는 노건연이 남기고간 비품들을 쓰고 있어서 농담처럼 우리 두 단체를 자매 단체라고 소개하는 말이 아주 빈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ㅎㅎ 그래서 오늘 이 순간이 너무나도 내 일처럼 기쁘고 감격스럽네요.



노동건강연대가 건강하지 못한 일터를 바꾸기 위해 현장을 지켰던 지난 20년과 〈노동과건강〉 100호에 담아낸, 안전하고 사람답게 일할 수 있는 현장에 대한 고심들은 한국 사회의 소중한 역사입니다. 계절에 맞춰 나오기로 했던 그 작은 소식지는 가끔 계절을 훌쩍 넘어 예기치 않은 순간에 도착하기도 했는데, 그 이유는 활동가들이 도저히 책을 만드는 데 집중할 수 없을 만큼 현장에서 노건연 활동가들을 많이 불렀기 때문이었죠. 소식지가 늦어지는 만큼 노동건강연대 활동가들이 과로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옆에서 지켜봤기에 〈노동과건강〉 100호에 대해서 축하와 기쁨만큼 감사와 연민의 마음도 큼니다. 모든 노건연 활동가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통해 건강한 일터,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노동건강연대의 활동을 변함없이 지지하며

앞으로도 그 여정에 시민건강연구소가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 선대식

오마이뉴스 기자



올해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어요. 이때다 싶어 육아휴직을 신청했어요. 어느덧 육아휴직 5개월째, 아이가 좋아할 저녁 식사를 고민하고 만드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2016년 봄이었어요. 메탄올 중독 사건이 벌어진 때였습니다. 취재를 위해 피해자들을 돕고 있는 박혜영 노무사에게 연락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이듬해 노동건강연대와 함께 뜨거운 1년을 보냈습니다. 메탄올 중독 사건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스토리펀딩을 진행했습니다. 피해자들을 만나고, 토크콘서트를 열고, 전국 곳곳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도 했습니다. 1,740만 원의 후원금이 모였습니다. 그때 노동건강연대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회원에 가입했습니다. (강요에 의한 게 아니었어요!)



앞으로 일하다 다니거나 죽는 사람이 없는 세상이 온다면, 그건 지난 20년 동안의 노동건강연대 활동가, 회원의 활동 덕분일 것입니다. 언젠가 노동건강연대의 활동이 필요 없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노동건강연대를 주변에 많이 알리고, 후원도 하고, 응원도 계속할게요!

### 이정현

청년을 위한 사회적 협동조합 일하는학교 사무국장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성남에 있는 '일하는학교' 사무국장 이정현이라고 합니다. 일하는학교는 가족이라는 배경이 없거나 취약한 '학교 밖 청소년', '1인가구 청년'의 진로·취업·자립을 돕는 청년진로학교입니다. 제도권 밖 청년·청소년과 관련된 연구나 정책들이 너무 미비해서, 최근 박사과정에 들어가서 연구·정책 실력을 키워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박혜영 활동가와 오래전 야학활동을 함께 했던 인연으로 노동건강연대를 알게 되었어요. 일하는학교 청년 대부분이 부모가족의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생계형 알바 청년들이어서, 노동상담이나 교육을 부탁했던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마음씨 좋으신 노무사님들 소개도 많이 받고, 노건연이 진행하는 사업이나 활동에 대한 자료와 정보제공도 받고, 후원자 소개도 받고,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학교를 안정적으로 다니기 어려웠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청(소)년들이 가장 어려운 것은 자신의 상황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노건연이 꼭 노동과 건강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힘든 시절을 견디고 있는 청년들의 삶 이야기 전반에 귀를 기울이고 애정을 표해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보니 노건연도 이제 스무 살 청년이 되었네요, ㅎㅎ 축하드립니다. 멋져요 노건연.

### 이장욱

회원·동국대 일산 병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고양에 위치한 동국대 일산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이장욱입니다. 일터를 새로 옮긴 지 벌써 4개월째이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이 낯설고 부족한 부분이 많아 언제나 배우는 자세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와중에 박한솔 선생님의 뜻하지 않은 전화 연락을 받고 무척 반가웠습니다.



학부생일 때 선택 실습으로 처음 연을 맺게 되었던 노동건강연대에서 2주간의 짧은 기간 동안, '산재가 장애와 같은 신체적인 문제에만 고착된 것이 아니라 여러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노동자를 말 그대로 갇아먹고 있는 현장의 모습과 문제'를 열정적으로 알려주셨던 전수경 선생님, 박혜영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께 뒤통스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지금도 언론에 노출되는 '일부' 산재 사례를 보며 의제를 놓치지 않으려 하지만, 생업에 몰두하느라 매번 오는 계간지를 읽어보고, 정기 회비를 내는 것 외에 특별히 참여하는 일은 없는 나일론 회원인 탓에 최전선에서 분투하고 계신 활동가 선생님들을 볼 때마다 늘 죄송한 마음이 앞섭니다.



노동 건강 연대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더는 피를 흘리지 않고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그날이 올 때까지, 저 역시 제가 발 딛고 선 곳에서 역할을 선명하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싸워오신 모든 선생님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 임상혁

전 대표·녹색병원 원장



현재 녹색병원 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우리 병원은 원진 레이온 직업병 환자들의 직업병 인정투쟁 성과로 2003년 설립되었고, 가치 중심의 노동자 병원, 주민 병원 역할을 해왔다. 올해는 '전태일 병원'을 선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운영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고, 그래서 원장이 해야 할 일도 너무나 많다. 그야말로 장난이 아녀...



과거 산추련이 해체되면서 안전보건단체 공백기가 있었다. 사실 민주노총도 있고, 꼭 안전보건단체가 있어야만 하는 건 아니겠지만, 당시 사회적 상황은 안전보건 문제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고 있었다. 여전히 소수의 문제였고, 사회적 의제로 이슈화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면서 과거 노동과건강연구회 멤버 중심으로 다시 모여 노동건강연대를 만들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함께 했다. 사실 IMF 이전에는 노조 중심 노동운동이 어느 정도 성장세에 있었고, 노동안전보건 측면에서도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하지만 IMF 이후 신자유주의가 급속히 강화되고 노동이 양극화되면서, 취약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조직 노동자들이 이것까지 챙기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있었다.



더 많은 활동가, 더 많은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산재피해자와 연대, 시민사회와 연대, 지역과 연대, 민주노총과 연대... 우리는 '연대'를 통해 성장해야 한다. 20년이 되었으니

이제는 최소 서너 개의 지역 지부도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어쨌든 노건연의 핵심은 '연대'에 있다. 다양한 사람들과 '연대'해서 활동을 이어가면 좋겠다.

### 임준

전 <노동과건강> 편집위원·전 대표,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



인천에 위치한 가천의대 교수로 있다가 2018년 1월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으로 직장을 옮겼다. 그즈음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장도 맡아 지금도 겸임하고 있다. 예전에는 노동자건강권, 산재보험에 대한 연구와 활동을 많이 했지만, 요즘은 보건의로 정책, 특히 공공의로 정책에 더 집중하고 있다.



노동건강연대와의 인연은 의대 본과 3학년인지 4학년이었는지 기억조차 가물가물한데, 1993년 '노동과건강연구회'에서 김은희 선생님, 이경우 변호사와 같이 활동한 것이 시작이다. 복학해서 학생운동 너머 사회운동에 대한 전망을 고민하고 있을 때, 간호학과 선배 손에 끌려 처음 오게 되었다. 그때만 해도 노동자건강에 특별한 관심이 있지는 않았다. 다만 1988년 문송면 장례식에 갔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다. 학생이었는데 혼자 신문 보고 무작정 찾아갔다. 비가 오는데 너무 비참했던 기억이 여전히 있다. 현재의 노건연은, 노조 중심의 노동자 건강권 운동이 아니라 훨씬 취약한 전체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하자는 생각으로 2002년에 시작하게 되었다. 중간에 노건연 대표도 했었다는데 기억이 없다. ㅋㅋㅋ 대표 정체성이 없는 사람이다. 우리가 노건연을 시작하던 때, 운동의 방향성은 좋았으나 매우 어려운 조건이었다. 산자유주의가 득세하고 노동자들은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분열되고, 여전히 전문가 중심의 운동이 강했다. 그에 비하면 지금 운동은 훨씬 대중화된 것 같고, '직장갑질119' 같은 새로운 방식도 출현했다. 저변이 넓어진 것 같아 부듯하고 현재 활동하는 이들에게 감사한다. 그러면서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도 느낀다.



지금 당장의 성과에 연연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우리 운동의 방향성 맞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 변화에 따라 연대의 힘이 훨씬 커질 수 있다는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라!(비장한 톤)" 후배들의 정서적 정신적 지지를 위한 소소한 지원활동을 계속 이어가겠다.

### 정해명

회원·노무법인 상상 대표



저는 경기도 안산에서 노무사를 하는 정해명 회원입니다. 안산과 경기도에서 여러 회사와 노동자들을 만나며 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억에 남는 일은 경기도 화성에 중국동포 산재사망사건을 진행했는데, 유족분들에게 평택항 이선호 군 장례식장에 가보자고 권하여 평택 안중의 이선호 군 장례식장에 다녀온 일이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장례식장에 가서 조문하고 이선호 군 아버님도 만나 뵙고 인사드렸는데, 유족분들이 큰 힘을 얻고 망인의 잘못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믿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노동건강연대와 연을 맺은 것이 벌써 14년이 지났네요. 그때 사회초년생 수습노무사 시절 "여성비정규직 노동자, 건강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교육홍보사업"에 함께 했던 것이 노동건강연대와의 첫 인연이었습니다.



노동건강연대와 첫 인연을 맺은 14년 전과 지금. 노동을 둘러싼 새로운 환경과 변화, 제도들도 많이 바뀌고 있는 데요. 노동자건강과 생명에 관심을 가지고 지나치지 않는 것이 노동건강연대가 걸어온 길이 아닌가 합니다. 제도와 환경은 바뀌어도 처음 마음 잃지 않고 우리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모습 기대합니다.

"노건연 20주년, 당신이 걸어온 삶이 어느 누구의 삶보다 더 아름답다."

### 조완웅

그래픽 디자이너



안녕하세요, 그래픽, 영상 디자인을 하는 조완웅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가 비대면 사회를 만들어 요즘에는 회의나 행사를 라이브로 중계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관련 디자인이나 행사도 늘어났고요. 초기에는 행사, 세미나, 모임 등이 모두 조심스러워 어려운 시간도 있었는데, 이제는 모두들 적응하고 새로운 생활방식에 익숙해져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덕분에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노동건강연대는 처음에 계간지 표지를 디자인하는 일로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활동에 필요한 디자인 지원을 하거나 기획하는 일에 간간이 참여하게 되어 보람찬 일이 되었는데 바빠져서 함께한 지 좀 되었네요. 조만간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고 미력이나마 참여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간지 표지를 만들 때 역사가 짧지 않은 단체이며, 그만큼 큰 역할을 하는 단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20주년'이라 하니 새삼 대단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하루가 멀다고 일어나는 수많은 사고와 힘든 이야기들이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일상이 되는 걸 보면서, 늘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었습니다. 부디 지치지 않고 힘차게 일하실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계란으로 바위 치기 같은 일처럼 보이지만, 활동가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 힘이 되어주신 노고에 감사를 넘어 존경을 표합니다. 힘차게 박수를 드립니다.

이런 거 오랜만에 써서 맘이 다 안 담겨요. x10000 해주세요.

**주영수**

전 대표·국립중앙의료원



요즘 근황은 말 그대로 태평성대라 할 수 있다. 작년에 너무 정신없던 것에 비하면 ㅋㅋ 작년 3월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일터를 옮겨서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기획조정 실장을 하며 코로나19 대응에 정신이 없었다. 정말 맛이 갈 만큼 일했다. 이후 공공의료본부로 돌아와 공공의료 정책, 코로나19 대응 뒷정리를 고민하는 상황이다.



오래된 다른 회원들과 달리 노동과건강연구회 시절부터 같이 한 것은 아니었다. 원래 정치운동이나 정파조직에 속해서 활동한 게 아니라 종교(기독교청년)활동을 주로 했었다. 당시 유명했던 임상혁 선생님이나 노동자건강 운동을 하는 분들하고 그다지 친하지도 않았다.ㅋ 그런데

1999년 '노동과건강연구회'가 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충격받아서, 이 운동이 사라지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노동건강연대 첫모임부터 참여했다. '이 운동이 사라지면 나라 망한다' ㅋㅋ 이런 생각을 했었다. 이렇게 매우 자발적으로 시작했는데 바로 일 년 있다가 대표를 맡게 되었고 상당히 오랫동안 대표를 했다.



더 잘 버텨보자. 모두 다 힘든 시기 아닌가. 조직 노동자야 어찌 되었든 노조가 버텨준다 해도 미조직 노동자들이 함께할 곳은 같이 많지 않다. 같이 버텨보자.

**천주교노동사목**

박신안 선임팀장



노동자의 건강권 회복과 일터의 안전을 위해 활동해오신 노동건강연대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저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박신안 선임팀장입니다. 저희 단체의 지향을 한마디로 정의한 '양질의 노동(Decent Work)을 하는 존엄한 노동자'에서 알 수 있듯이 교회 가치에서도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은 '양질의 노동'을 위한 기본과제라 여기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노동건강연대의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2017년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미사'(2017. 5. 25)에 이상윤 대표님을 모셔 메탈알코올 실명 피해 노동자의 상황을 통해 유해 화학물질의 심각성을 알리고, 리플렛도 자체 제작하여 배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2018년에 노동사목에 관심있는 전국의 신학생들과 함

께 노동건강연대를 방문했을 때에는 노동자 건강권에 대한 말씀을 사제가 될 신학생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노동자의 실제적인 문제와 전문적 지식을 알리는 데 큰 도움을 얻었습니다.



쉽지 않았을 20년간의 꾸준한 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올바른 시행과 나아가 안전한 일터와 노동자들의 건강권 향상에 노동건강연대가 큰 몫을 해주시리라 믿으며 함께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허환주**

프레스시안 기자



기자 연차가 쌓여서 요즘은 데스크를 주로 보고 있는데요. 후배 기자들 기사를 검토하고, 기사 지시를 내리는 일이 주 업무라고 보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전처럼 현장에서 취재하는 시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듯해요. 그래도 관심 있는 주제는 계속 취재하는 중입니다. 요즘은 플랫폼노동 관련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배달앱 속 노동자의 실태와 구조적 문제점 등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언제 처음 인연을 맺은 지는 기억도 이제 나지 않는 듯해요. 전수경 선생님이 사회를 보는 산업재해 좌담회를 프레스시안에서 주최했는데, 그때 처음 인연을 맺은 게 아닌가 싶네요. 가장 기억에 남는 노동건강연대의 협업은 2014년 현대중공업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13명의 하청 노동자를 공동기획으로 기사화했을 때네요. 그때 기사를 노동건강연대는 영문으로 번역해 소책자로 만들어 해외 선주사 등에 배포하기도 했죠.



그냥 그렇게, 지금처럼 그 자리에서 계속 있어주길 바랄 뿐이네요.

**강송구·박용식**

산재노동자 자활공동체



※ 삼겹살집에서 나는 대화를 전수경 활동가가 녹음해 왔습니다.

노동건강연대 대표 이상윤 아냐?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님하고 건강하고,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열심히 가자!  
코로나 지나면 다 같이 놀러 가자.

**- 강송구**



유성규, 전수경, 이서치경, 정우준 잘 지내냐? 건강해라!  
쫘 내려 놓으면 건강할 거야. 싸우지 말고.  
너네들이 있어서 우리가 크다.  
산재노협이 너네가 있어서 보탬이 많이 됐어. 고마워!  
사는 날까지 같이 살자. 열심히 하자!

**- 박용식**

노동건강연대의 의제와 현장

# 노동건강연대가 한국사회에 던진 문제의식과 의제

‘안전’이 아니라 ‘정치’가 중요하다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

노동건강연대는 1988년 창립한 ‘노동과건강연구회’의 정신과 자산을 이어받은 조직이다. 하지만 노동과건강연구회는 1998년 해산하였고 노동건강연대는 2001년 창립하였으므로 엄연히 다른 조직이기도 하다. 조직을 이끌어 간 사람 중심으로 보자면, 노동과건강연구회 상근 활동가들 다수는 대부분 노동건강연대로 이어졌다. 하지만 상근 활동가들과 함께 운동을 만들어 온 소위 비상근 ‘전문가’는 대부분 바뀌었다. 노동과건강연구회 활동을 활발히 했던 많은 전문가들은 나이가 들어 대학교수가 되거나, 원진직업병관리재단에서 만든 노동환경건강연구소를 중심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노동건강연대 창립 시에 함께 한 이들은 당시 20~30대에 불과했던, ‘활동가’ 정체성이 강했던 신진 전문가들이었다. 전문가로서

경력이 짧은 이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사실 ‘전문가’ 정체성보다는 ‘활동가’ 정체성이 강했던 젊은 의사, 변호사, 노무사, 연구자들과 노동과건강연구회 상근 활동가들이 의기 투합해 만든 조직이 노동건강연대라고 할 수 있다.

노동건강연대가 창립했던 2001년 즈음은 한국의 사회운동이 많은 변화를 겪고 있던 시기였다. 노동운동은 1997년 IMF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후 전열을 정비해 나갔고, 시민사회는 2000년 부패정치인 낙천낙선 운동의 성공 이후 그 영향력이 커지고 있었다. 정치적으로는 1998년 김대중 대통령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이후 김대중 대통령의 임기 후반에 접어들었다.

당시 노동자 건강 및 안전 운동에 있어 가장 큰 이슈는 근골격계질환 산재 인정 투쟁과 더불어 그를 매개로 한 노동 현장 노동강도 완화 및 인력 충원 투쟁이었다. 노동건강연대는 그 운동과 연대하되 그 운동에 전력으로 투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결의 운동을 만들고자 했다.

근골격계질환 집단 산재 인정 투쟁과 그를 매개로 한 현장 권력 강화 투쟁은 당시 매우 전투적으로 이루어졌고, 여러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운동이었다.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 그 운동은 여러 가지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했다. 첫째, 정규직 중심의 운동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야 했다. 둘째, 개별 현장을 넘어 한국 사회 전체 노동자 문제를 건드려야 했다. 이에 노동건강연대는 창

립 초기 ‘사회보험으로서 산재보험 개혁’의 가치를 내걸고 다양한 활동을 했다.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적용, 선보장 후평가, 산재보험 보장성 강화, 근로복지공단 체질 개선 등의 요구가 당시 노동건강연대에 의해 만들어졌고, 이를 중심으로 전체 노동자 건강권 운동 진영이 모여 산재보험개혁공동대책위원회 활동을 벌였다.

이는 한국 사회 정치경제적 상황과 사회운동 흐름에 조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기도 했다. 당시에는 김대중 정부 출범과 더불어 기초생활보장 제도 도입, 의료보험 통합, 건강보험 제도 도입 등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다양한 사회보장 제도 개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던 때였다. 개별 노동자, 개별 질환의 산재 인정 여부를 넘어 한국의 사회보장 제도, 사회 안전망 제도 내에 산재보험을 위치시킬 필요가 있었다. 큰 틀에서 노동자의 건강 보장, 소득 보장, 고용 보장 차원에서 산재보험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시의 요구와 운동은 2005

년 노무현 정부 때 이루어진 산재보험 제도 개혁에 기반이 되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인 산재보험 이용 장벽 문제는 큰 제도 개선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변화된 상황에서 고용형태,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가 평등하게 건강 보장, 소득 보장, 고용 보장을 받기 위한 제도로써 산재보험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 것인가는 아직 남은 숙제라고 할 수 있다.

창립 초기부터 노동건강연대는 기존 운동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기초로 몇 가지 운동의 원칙과 방향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노동자 생명과 건강 문제를 기술적, 전문적 이슈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경제적 이슈로 접근하고자 했다. 노동자의 사고와 질병 문제를 의학적, 공학적, 법제도 문제로 치환해 해결하고자 하는 접근 방식과는 거리를 두었다. 노동자의 사고와 질병을 한국 사회 정치경제적 모순과 연결 지어 해석하고 정치적 해결 방식을 모색했다. 둘째, 노동조합이 포괄하지 못하거나 대응하기 힘든 문제들에 천착하고자 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며

대규모 사업장 노동조합은 이미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었다. 꼭 노동건강연대가 아니라도 연대하거나 함께 할 조직, 전문가, 역량이 많았다. 문제가 더 심각한데 드러나지 않고, 드러나지 않으니 개선도 어려운 문제에 천착하고자 했다. 셋째, 한국사회의 총체적 정치경제 상황 및 노동운동, 사회운동 전략과 조응하는 운동을 펼치고자 했다. 같은 문제를 다루더라도 그 문제의 맥락을 어디에 위치 지어서 어떻게 프레임하여 더욱 많은 사람과 공감과 연대 속에 운동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며 활동했다.

이러한 원칙과 방향 속에서 활동함에 따라 비정규직, 소규모 사업장, 여성, 이주노동자 안전과 건강 문제 조사연구 사업과 당사자 역량 강화 사업이 주요한 일상 사업이 되었다. 고용형태에 따라,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자의 성별과 국적에 따라 불평등한 상황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한국사회의 노동시장 구조가 가장 큰 ‘노동자 생명·건강 위해요인’이라고 보았고, 이들의 권리 보장, 차별 철폐, 역량 강화가 문제의 근본적 해법이라

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노동건강연대는 창립 초기부터 비정규직, 여성, 이주노동자 건강권 조사 사업과 더불어 당사자 교육, 역량 강화, 투쟁 연대에 많은 역량을 투여해 왔다. 지금은 많은 이들이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어느 조직보다 앞서 드러내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된 노동자뿐만 아니라 계약직, 단시간, 아르바이트 노동자 등 직접고용되었지만 권리가 제약된 노동자들의 건강이 어떻게 파괴되고 착취되는지 알리고 투쟁에 연대했다. 노동건강연대는 연구소가 아니고 활동가 조직이었기에 부족한 조사연구 역량은 당시 노동건강연대 활동의 원칙과 방향에 동의하고 함께 해주었던 신진 연구자들과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원청 책임 강화, 위험작업 외주화 금지, 특수고용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 등의 이슈를 제기했고 구체적 정책 과제를 제시해 노동조합과 함께 투쟁을 이끌었다.

2016년에는 파견 노동자 메

탄을 실명 사고와 관련된 활동을 하면서 파견노동의 문제점뿐 아니라 다국적 기업의 생산 공급망 내 노동자의 인권과 건강권 문제를 이슈화했다. 20, 30대 청년 노동자 6명의 시력을 앓아간 비극적 사고의 대응 과정에서, 핸드폰 생산 공정의 열악함을 드러내고, 제품의 생산 공급망 내 노동자 인권에 대한 대기업의 책임을 물었다. 당시 박근혜 정부가 파견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에 맞서 파견노동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공론화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2005년부터 2011년에 이르는 기간에는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했다. 지역운동과 연대해 지역 사회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서울 성수동 지역을 중심으로 노동운동과 지역운동을 결합해 당사자가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 노동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성수동 지역에서 그 운동을 지속하지는 못했지만, 지역운동을 하는 이들에게도,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운동을 하는 이들에게도, 노동건강연대의 활동은 적지 않은 활동의 계기를 제공하였다. 당시 가장 큰 문제의식

은 소규모 사업장 밀집지역에서 당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지역 노동자 안전 및 건강센터’를 만들어 문제 해결 계기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노동건강연대의 문제의식은 다양한 형태의 정부 중심의 ‘근로자 건강센터’가 설립되도록 했지만, 노동자의 참여, 역량 강화가 중심이 되지 못하는 정부 중심의 ‘근로자 건강센터’ 운영은 이후 많은 개혁이 필요하다.

노동건강연대가 한국 사회 운동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기업살인 대응 운동’의 프레임 개발이고 해당 운동에 초기부터 역점을 기울인 것이다.<sup>1)</sup> ‘기업살인 대응 운동’은 사회경제적 문제로서 한국의 산재사망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중적인 방식으로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던 운동이다. 노동건강연대는 2002년부터 “산재사망은 기업의 살인이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대중캠페인을 시작했다. 2003년 5월에는 기업살인법률을 만들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초기 형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살인법’<sup>2)</sup> 논의를 시작하였다.

이 운동은 시작 초기부터 많은 이들의 관심과 지지 속에 외연을 넓혔다. 2005년 4월에 민주노총, 한국노총, 매일노동뉴스, 노동건강연대가 함께 ‘산재사망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을 결성할 수 있었던 것도 노동사회 내에서 이 운동에 관심과 지지를 보냈기 때문이다. 2006년부터는 매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진행하며 관련 사업을 본격화하였다. 정치적 상황과 주체적 조건에 따라 부침이 있었지만, 운동은 꾸준히 이어져 2021년 1월 26일 법 제정에 이르렀다.

노동건강연대는 운동의 초기부터 형벌법으로서 기업살인법에 대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 왔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했다. 여러 가지 한계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여러 주·객관적 상황 속에서 문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하기 위해 이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은 산재사망 문제를 다루는 지배적 프레임에 균열을 내고 새로운 프레임으로 산재사망 문제

를 들여다보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운동이었다. 한국에서 산재사망 문제를 다루는 지배적 프레임은 산재사망을 개인의 부주의와 불운, 기업 활동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부수적 피해로 보는 관점이다. “사망한 노동자의 잘못이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라는 표현으로 대표되는 지배적 프레임 내에서 산재사망 문제는 사회경제적 문제, 구조적 문제가 되기보다는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안전 문제, 기업과 유족 간 손해배상 문제로 취급되어 왔다. 이 프레임 내에서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찾는 이상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 그래서 법 제정 운동은 “산재사망은 (개인의 부주의와 불운, 기업 활동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부수적 피해가 아닌) 기업의 살인이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지배적 프레임에 균열을 내고 새로운 프레임으로 전환하고자 했다. 산재사망 문제를 ‘사고’나 ‘재해’ 프레임에서 ‘살인’ 프레임으로 전환하고자 한 것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은 의식적, 전략적으로 ‘기업살인’ 프레임을 적용함으로써 산

1) 이하 기업살인 대응 운동 및 기업살인법 관련 논의는 <이상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운동의 성과와 과제.” 시민과세계 (2021): 233-242.>를 축약한 것이다.

2) 법의 명칭과 관련하여 노동건강연대는 초기부터 출간 이 법을 ‘기업살인법’으로 명명하여 왔다. 이는 이 법의 아이디어를 얻은 영국 법의 명칭이 “기업의 과실치사 및 살인에 관한 법(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산재사망에 대한 논의 프레임 변화를 위해 ‘기업살인’이라는 개념을 대중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식적 판단 때문이기도 했다. 운동과 별개로 20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이 법의 명칭은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약칭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으로 변화했고, 최종적으로는 21대 국회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 처벌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되었다.

재사망 문제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었고, 불완전하지만 법 제정에 이를 수도 있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은 노동 문제를 노동운동의 문법이 아닌 인권 운동의 문법으로, 진보정당을 통한 경로가 아닌 대중적 진보정치 연합을 형성함으로써 해결하려 한 운동이었다. 한국의 산재사망 문제 해결이 더딘 것은 기업에 우호적인 이데올로기적 지반의 문제도 있지만,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주체 역량이 튼튼하지 못해서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이러한 전략은 현실적 조건 속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선택지 중 하나였다.

서구 유럽에서 산재 사망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노동조합과 진보정당이었다. 산재사망 문제는 노동 문제이고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조건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에 역사적으로 서구 유럽의 노동조합은 강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단체 교섭으로 기업을 압박하고, 진보정당과 함께 기업을 강하게 규제하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산재사망을 줄일 수 있

었다. 노동조합은 작업장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노사 협상의 틀에 머무르지 않고 작업장 담벼락을 넘어 국가의 개입을 강력히 요구했고, 이러한 요구를 진보정당이 받아 안아 기업에 대한 사회적 개입 전통을 마련한 것이 유럽의 '사회국가' 전통의 기틀이 되었다고 평가하는 의견도 존재한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지 않고,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노동자도 대기업, 정규직 비율이 높아 대표성과 역량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의 산재사망은 비정규직,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등 노동조합이 포괄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에게 주로 발생하는데, 이들은 사회적으로 보면 자원이 없고 발언권도 없으며 영향력도 없는 이들이다. 한국의 노동조합이 의지와 뜻은 있더라도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을 하기 힘든 부분도 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노동조합과 더불어 노동조합 외부에서 운동의 주체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했다. 한국의 진보정당 역시 서구 유럽에 견줘 미약한 상

황에서 정치적 역량 역시 진보정당을 넘어 문제 해결을 위한 광범위한 진보정치 연합을 구성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은 방법론적으로 인권 운동의 문법을 차용하였고, 광범위한 대중적 진보정치 연합 형성을 통해 문제를 정치화하려 노력했다.

지난 20년간 노동건강연대는 많은 일을 했고, 성과도 적지 않았다. 사회보험으로서 산재보험을 자리매김해 적어도 법제도적으로는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최소화해왔다. 비정규직 노동자 건강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생명안전 업무 노동자의 정규직화, 위험 업무의 외주화 금지 등을 슬로건으로 투쟁함으로써 관련 제도가 부분적으로 포함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쟁취했다.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안전과 건강 문제를 제기하며 지역 중심, 당사자 역량 강화 중심의 문제 해결의 방향을 제시했고, 그 결과 다양한 지역 근로자 건강센터의 설립과 활동을 견인했다. 노동자 죽음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문제 삼아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거시적 측면에서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애초에 노동자 생명과 건강의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 간주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던 '고용형태, 사업장 규모, 성별에 따른 노동시장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할 일이 많다. 기업과 인권 측면에서 기업에 의해 행해지는 노동자 건강권 침해 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 조사, 구제, 처벌 과정을 제도화하는 문제도 아직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플랫폼노동이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고용 형태와 원인에 따라 좌우되는 사회보험 체계가 아니라, 문제의 성격과 결과에 따라 차별 없이 적용되는 노동자 건강보장, 소득 보장, 고용 보장 체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노동자 생명과 건강이라는 '공공의 가치'를 지키고 증진하기 위해, 기업과 시장에 대한 국가와 정부의 책임과 개입력을 강화하기 위한 운동 역시 노동자 생명과 건강 보장을 위한 새로운 행정기구의 설립 논의와 더불어 더 많은 논의와 투쟁이 필요하다.

운동의 주체 측면에서는 역량

있는 상근 활동가들의 지속적인 총원과 더불어 건강이나 안전과 관련된 일부 영역 전문가, 연구자가 협업하는 구조를 넘어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와 연구자들이 함께 하는 기획이 필요하다. 노동자 생명과 건강 문제는 일부 전문 영역에 국한된 전문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노동건강연대 활동가들은 우스갯소리로 "노동건강연대는 조직의 발전적 해소를 목표로 활동하는 사회운동 단체"라고 말해왔다. 실제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노동조합 활동이 힘 있는 산별노조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이루어지더라도 전체 사회운동 의제를 포괄하지 못하는 미국이나 일본 등의 나라 외에 노동건강연대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활동하는 단체는 거의 없다. 한국의 산별노조 운동이 활성화되어 산별노조가 제 역할을 하게 된다면 노동건강연대 같은 단체는 필요 없게 되는 시절이 올 것이다.

전문성을 가진 연구소 혹은 연구 단체를 지향하지 않으면서 정치적 이슈 메이킹 및 파이팅

역량과 더불어, 조사 연구 역량, 정책기획 역량까지 갖춘 노동건강연대의 단체 성격 역시 애매하기는 마찬가지다. 노동자 시각으로 노동자의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 역량이 강화되고, 노동 정치를 중심에 두고 효과적으로 활동하는 진보정치 역량이 강화된다면 노동건강연대 같은 단체는 필요 없게 되는 시절이 올 것이다.

한국의 노동운동, 진보정치의 발전이 더딜수록 노동건강연대라는 조직이 사회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하나의 역설이다. 노동건강연대는 그러한 모순, 역설 속에서 20년을 지내왔지만, 늘 그랬듯 향후 그 모순이 해결될 것을 믿고 바라며 더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 조직이 있고 조직이 활성화되어야 운동을 할 수 있지만, 조직의 안정적 운영이 운동의 목표였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노동건강연대는 또 다른 20년도 처음처럼, 함께, 오래, 연대할 것이다. 

노동건강연대의 의제와 현장

# 스무 해 활동의 조각들

100호 편집위원회

〈노동과건강〉 100호를 맞아 우리가 함께한 ‘활동의 조각들’을 모아보았습니다. 조각 크기에 상관없이 최대한 모든 조각을 모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역시 쉽지 않은 작업이었네요. 스무 번의 여름이 이토록 긴 시간이었다는 걸 실감합니다. 욕심을 덜고, 조각들을 네 개의 주머니에 나누어 담아 보여드리기로 했어요. 여성노동자 건강권 활동, 성수동 사업으로 대표되는 영세사업장 및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 건강권 활동, 메탄을 실명 사건 관련 활동, 기업살인법 운동까지. ‘노동건강연대’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지나온 시간을 다시 걸어봅시다.

## I 여성노동자의 건강에 대한 노동건강연대의 초기 활동

여성노동자 건강권에 대한 노동건강연대의 초기 활동을 돌아봅니다. 어떤 노동의 역사를 이야기하기 위해선 많은 이야기를 들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노동자들의 노동과 건강권의 실태는 슬프고 화가 나기도 하지만, 이를 위해서 활동한 노동조합과 노동건강연대 회원들의 연대는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노동건강연대가 막 문을 열고 활동을 시작한 초기 학교급식, 골프장경기보조원 여성노동자들과 함께 한 활동을 돌아보고 이 두 직종 노동자들의 현재를 함께 돌아보고자 합니다.

### 1.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노동건강연대는 계약직 노동자, 파견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노동조합이 없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함께해왔다. 골프장 경기보조원(이하 캐디 노동자) 조사를 시작한 것도 캐디 노동자가 임금을 고객에게 직접 받는다는 이유로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기 때문이었다. 캐디 노동자의 건강 문제는 오랜 기간 방치되었다. 1989년 캐디 노동 경력을 가진 여성이 잇달아 기형아를 출생하고, 1993년에는 양주CC에서 업무 중 한 노동자가 쓰러져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2001년, 노동건강연대는 캐디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건강실태 조사를 시작했고, 토론회를 열어 결과를 공유했다.

| 활동시기            | 주요 활동 내용                                  |
|-----------------|---|
| 2001-08-2001-09 | 경기보조원 건강실태 조사                             |
| 2001-10-29      | 경기보조원의 업무상재해 실태 및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토론회 |

#### (1) 캐디 노동자 건강실태 조사

캐디 노동자의 건강 문제와 관련된 체계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설문지를 만드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직업관련 위험요인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해를 파악하기 위해 ‘골프 경기보조원의 직업관련 건강장해에 관한 조사’ 설문지를 만들었고, 이 작업에는 전국여성노동조합이 힘을 보탰다. 노동조합이 결성된 골프경기장 한 곳을 현장 조사하여 설문지 초안을 만들고, 예비조사와 노동조합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설문지를 완성했다. 조사는 노동조합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2곳의 골프경기장에서 120부의 설문을 수거했다.

#### (2) 경기보조원의 업무상재해 실태 및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토론회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97.4%가 입사 후 근육과 관절통증을 경험했고, 이 중 66.7%가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캐디 노동자가 업무 중 취급하는 물품을 담은 수동카트의 평균 무게는 55~60kg에 육박하여 허리·무릎·발목·손목·어깨 등에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응답자의 74%가 ‘업무중 사고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나, 치료를 자비로 해결했다는 응답이 74%에 달하여 캐디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보여주었다.

위와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같은 해 10월에는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산재보험의 보호를

#### 【실태조사】

- 기간 :**  
2001년 8~9월
- 대상 :**  
골프경기장 2곳의 캐디 노동자 120명
- 목적 :**
- 캐디 노동자 직업관련 위험요인 조사
  - 캐디 노동자 직업관련 위험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장해 파악



[매일노동뉴스] "경기보조원, 업무 중 재해 위험 매우 높다" 기사 사진 갈무리

받지 못하는 캐디 노동자의 현실을 지적하고, 기본적인 노동권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제발제자인 권영준 교수는 캐디 노동자의 업무로 인한 질병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발표하며, 대책으로 △산재보상법 적용 △단체협약을 통한 사업장별 캐디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한 노력을 제시했다.

| 토 / 론 / 회 |  |
|-----------|--|
| 일 시       | : 2001년 10월 29일 10:30~13:00                                  |
| 장 소       | : 국회 헌정기념관 1층 회의실  |
| 주 최       | : 비정규노동자 기본권 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 주 관       | :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노동건강연대                          |
| 사 회       | : 박석운 (비정규공대위 운영위원장)   |
| 주제발표      | : 권영준 (한림대학교 산업의학과 교수)                                       |
| 사례발표      | : 김은정 (전국여성노동조합 88CC분회 회계감사)                                 |
| 지정토론      | : 강승화 (대한노무법인 노무사)<br>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br>박승흠 (비정규노동센터 소장) |

| 토 / 론 / 회 / 자 / 료 / 집 |   |
|-----------------------|---|
| 1. 토론회를 개최하며          | 비정규노동자 기본권 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 2. 주제발표               | 경기보조원의 직업관련 건강실태 조사결과<br>- 권영준 (한림대학교 산업의학과 교수)   |
| 3. 사례발표               | 경기보조원 업무상 산업재해 사례와 산재처리 과정<br>- 김은정 (전국여성노동조합 88CC분회 회계감사)                                      |
| 4. 지정토론               |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에 대한 법률적 검토<br>- 강승화 (대한노무법인 노무사)<br>- 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br>- 박승흠 (비정규노동센터 소장) |

## 2. 학교급식 조리노동자

가정에서 음식을 만드는 일은 '엄마'의 사랑과 정성으로 포장되기 마련이라서 '노동'의 관점에서는 잘 거론되지 않는다. 급식을 만드는 조리노동자도 비슷하다. 무거운 조리도구와 식재료를 운반하고, 환기도 제대로 되지 않고, 땀이 쏟아지는 환경에서 학생이 먹을 음식을 만든다. 급식 조리노동자는 대표적인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로, 대부분 중장년 여성이다. 임금과 고용 측면에서 겪는 열악함은 물론이고,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조차 쓰기 쉽지 않다. 산재보험료는 꼬박꼬박 내지만 일 때문에 아파도 산재보험 적용은 제대로 받지 못한다. 학교 급식을 만드는 조리노동자의 노동환경을 파악하고,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건강연대 비정규팀은 2003년 8월부터 전국여성노동조합과 함께 학교급식 조리노동자의 건강실태와 작업환경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는 보도자료와 토론회를 통해 공유되었고, 조리노동자 관련 활동은 2007년까지 이어져 <일하는 여성의 건강이야기> 조리노동자편을 발간하기도 했다.

| 활동시기              | 주요 활동 내용                     |
|-------------------|------------------------------|
| 2003-09 ~ 2003-10 | 학교급식 조리노동자 건강실태 및 작업환경 조사    |
| 2004-02-24        | 학교급식 조리노동자의 건강 및 작업환경 개선 토론회 |
| 2007-02           | <일하는 여성의 건강이야기> 조리노동자편 출간    |

### (1) 학교급식 조리노동자 건강실태 조사

학교급식 조리노동자 실태조사를 위해 노동건강연대 비정규팀에서 설문지를 직접 제작했다. 질문지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전국여성노동조합 학교 비정규직 간부수련회에 이상윤, 정최경희 선생이 참석하여 인터뷰를 진행했다. 조사 과정에 조리노동자 당사자의 이야기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 썼다는 걸 느낄 수 있다.

정최경희 선생을 중심으로 하여 2003년 8월 한 달간 설문지 구성 작업이 진행되었다. 문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건강실태와 노동환경, 산재보험

#### [인터뷰]

**일시 :**  
2003년 7월 26일  
오후 6시

**장소 :**  
합정동 마리스타 수녀원

**대상 :**  
부천 원미초,  
서울 서교초, 공진초교  
급식조리원 8명

**【실태조사】**

- 기간 :**  
2003년 9~10월
- 대상 :**  
전국 초등학교급식 조리종사원 407명
- 목적 :**
- 근골격계 질환 및 피부질환, 생리장애, 재해 실태 1차 파악
  - 노동조건 및 작업환경과 근골격계 질환, 피부질환, 생리장애, 재해와의 관계 파악
  - 급식 조리노동자의 산재보험에 대한 인지도, 가입여부, 산재발생시 처리 방법 파악

관련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전국여성노동조합에 설문지 검토를 요청하는 동시에 설문지와 조사계획서를 홈페이지에 올려 다른 회원들에게도 의견을 받았다. 수일에 걸쳐 세미나, 온라인 등 다양한 창구로 여러 의견을 취합한 뒤 수정하는 작업을 거쳐, 최종 설문지가 완성된 이후 9월부터 10월까지 전국 학교급식 조리노동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했다.

**(2) 학교급식 조리노동자의 건강 및 작업환경 개선 토론회**

실태조사 결과, 급식 조리노동자 10명 중 3명이 근골격계 질환 관련 즉각 조치가 필요한 상태였다. 응답자의 34.2%가 지난 1년간 사고를 경험했고, 그 중에서 9.1%만이 산재보험 처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응답자의 54.3%가 근골격계 자각증상을 호소했고, 실제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노동자도 26.2%에 달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동건강연대는 2004년 2월에 보도자료 배포하고, 학교급식 조리노동자의 건강 및 작업환경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노동건강연대는 학교급식 조리노동자의 건강권 보장 대책으로 △필요인력 수준으로 인력을 충원하여 노동강도를 낮출 것 △병가 사용 보장 및 치료권 보장을 위한 산재인정체계 개선 △급식 조리노동자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및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 토 / 론 / 회    |   |
|--------------|---|
| <b>일 시 :</b> | 2004년 2월 24일 화요일 14:00~17:00  |
| <b>장 소 :</b>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2  |
| <b>주 최 :</b> | 전국여성노동조합, 노동건강연대  |
| <b>사 회 :</b> | 최상림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
| <b>발 제 :</b> | 정최경희 (노동건강연대 비정규팀)  |
| <b>토 론 :</b> | 하영숙 (전국여성노조 서울지부 학교급식지회장)<br>이복임 (노동부 환경보건과 전문위원)<br>조혜영 (교육인적자원부 사무관)<br>강동목 (부산대학교 산업의학과) |

토 / 론 / 회 / 자 / 료 / 집

- 1. 발제**  
학교급식 조리노동자의 건강실태 조사 결과  
- 정최경희 (노동건강연대 비정규팀)
- 2. 지정토론**  
건강한 몸으로 일하고 싶습니다  
- 하영숙 (전국여성노조 서울지부 학교급식지회장)  
조리노동자들이 좋은 여건에서 일할 때 질 좋은 학교급식을 아이들에게 먹일 수 있다  
- 안승문 (서울특별시 교육위원)
- 3. 부록**  
조리 노동자들의 노동강도와 근골격계질환의 위험요인에 대한 평가  
- 인천대학교 노동과학 연구소  
학교급식 조리종사원의 직업관련 사고 및 질병 사례  
조리종사원 건강 보호 관련 외국의 제도

**(3) <일하는 여성의 건강이야기> 조리노동자편 발간**

급식 조리노동자에 대한 노동건강연대의 관심은 2007년에도 이어졌다. 관심의 결과는 <일하는 여성의 건강 이야기—조리노동자 편>을 낳았다. 총 4종의 책자로 구성된 <일하는 여성의 건강 이야기>는 각각 대형마트 캐셔(계산원), 급식 조리노동자, 의류제조업 종사 노동자, 간병노동자를 위한 안전건강 매뉴얼이 담겨있다. 당시 사회적으로 비정규직 노동 문제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발맞추어 대다수가 비정규직 노동자인 조리노동자의 건강을 지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작했다. 책자는 조리노동자가 '식당 아줌마'라는 호칭 아래 '노동자'로서의 정체성마저 잃고 있다는 언급과 함께 운을 댄다.





**이 책을 만든 이유**  
**일하는 여성 이야기**  
 근골격계질환 | 근골격계질환은 무엇일까요?  
 근골격계질환은 왜 생길까요?  
 근골격계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근골격계질환, 어떻게 예방하면 좋을까요?

**사고**  
 조리노동자에게 많이 발생하는 사고는 화상 사고의 발생원인은 위험한 환경과 고된 노동 사고를 예방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방광염**  
 방광자극 정의 및 원인  
 방광염은 어떻게 치료할까요?

**당뇨병**  
 당뇨병이란? | 당뇨의 증상  
 합병증 | 치료 방법 | 감염 | 발관리

**고혈압**  
 고혈압이란? | 증상 | 원인  
 혈압이 높다면?  
 고혈압 조절과 치료

**잘못 알려진 건강상식**

**법 알기**  
 비정규 여성노동자의 노동법상 권리

**부록**  
 이곳에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하는 여성의 건강이야기〉 목차**

### 3. 마치며

학교급식 조리노동자와 골프장 캐디 노동자. 업종·직종·계약방식 등 다른 점이 많아 보이는 노동이지만, (중장년)여성 노동자의 몫으로 주어진 노동이라는 커다란 공통점이 있습니다. 불안정하고 건강하지 못한 노동이지만, 그동안 한국 사회는 중장년 여성에게 노동이 주어졌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라는 식의 태도를 고수해왔다.

학교급식 조리노동자는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정규직화'를, 골프장 캐디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을 주장했습니다. 투쟁과 연대 끝에 2021년 현재 학교급식 조리노동자는 무기계약 교육공무직으로, 캐디노동자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받아 노동조합을 만들고,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제도 안으로 들어가야 노동환경이 개선되리라 희망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우리의 노동환경은 외곽에 위치할수록 법적 안전망이 헐거워지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캐디 노동자와 급식 조리노동자 모두 법적 안전망의 바깥에서 시작된 노동이었기에 권리를 찾아가는 일 역시 험겨웠고,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러나 많은 관심과 연대 속에서 조금씩이나마 건강한 변화를 만들어왔다. 높은 산을 오르다 무심코 산 아래를 내려다볼 때 즐거운 마음이 드는 것처럼, 잠시 멈춰서 뒤를 돌아보는 이 순간만큼은 지금을 이루기 위해 달려온 모든 분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

## II 서울 성수동 영세사업장 '노동자건강센터' 건립을 위한 활동<sup>1)</sup>

서울 성수동은 지금 카페와 갤러리, 예술가들이 모여드는 핫플레이스이지만, 노동건강연대의 성수동은 오랫동안 사무실이 있었고 골목골목 작은 공장들을 돌며 건강상담을 하던 활동의 현장이었다. 성수동에서 노동건강연대는 꽤 넓고 쾌적한 사무공간과 교육장을 갖추고 활동을 했었다.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임대료가 폭등하기 전에 성수동에서의 활동은 중단되었다. 부동산 시장에 눈 밝은 회원이 있었다면 건물을 사 두었어야 했다는 농담을, 성수동을 떠난 후 한 적도 있다. 농담에 웃으면서도 마음 한쪽이 싸해지는 기억을 준 곳이 성수동이다.

노동건강연대는 성수동 지역노조와 함께 하는 노동안전보건활동(일명 '성수동사업')을 2002년부터 2011년경까지 10여 년간 진행했다. 노동건강연대는 지역에 국한하지 않는 정책사업과 캠페인을 펴면서 동시에 지역 노동운동과 연계하는, 영세사업장 밀집 지역을 현장으로 '성수동사업'을 추진했다. 사업을 제안하고 기획하면서, 회원, 재정 등에서 책임성을 갖고 서울 성수동에서 노동자건강 사업을 폈다. 노동건강연대는 지역 노동자건강센터 설립을 목표로 끈질기게 지역 사업을 뿌리내리고자 힘썼으나, 지역 노동운동의 변화와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부침을 겪었다. 10여 년의 활동 끝에 사업을 중단했으나, 당시 함께 했던 민주노총서울본부, 서울지역제화노조, 서울경인지역인쇄노조, 서울동부금속노조,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 성동건강복지센터와 성수동의 빈민운동단체들과의 연대를 기억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1) 이 글은 노동건강연대가 성수동 영세사업장 노동자 노동안전보건활동을 한 기록을 정리해서 2003년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에서 주관한 '제1회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풀뿌리 지역 시민운동 사례공모'에 제출한 보고서(중간보고서)를 수정·보완한 글이다. 이때 노동건강연대는 특별성을 수상한바 있다. 기록 시점이 2003년이기엔 통계, 노동실태 등이 당시에 맞춰져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1. 2002년 당시의 활동 배경

### (1) 지역적 배경

지하철 2호선 독섬역에서 성수역 사이를 걸으면 수많은 제화공장과 작은 금속가공공장, 인쇄소가 모여 있는 모습에 놀라게 된다. 사람도 많고, 거리도 많고, 없는 게 없는 서울이지만, 거대도시 서울 한 구석에 잿빛 공장들이 늘어서 있는 풍경은 좀 살벌하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하다. 도시 임금노동자들의 각박한 삶의 현장이다. 성수동 지역은 서울에서는 드문 준공업지역으로 약 1,350개의 작은 공장들이 있다.<sup>2)</sup> 성수동 지역은 저소득노동자 뿐 아니라 이주노동자가 밀집해 있는 대표적 지역이기도 하다.

성수동에는 구두공장이 많다. 정확한 수는 알지 못하나 수 백 개의 공장과 수 천 명의 노동자가 있다. 이들은 주로 백화점에 납품하는 고급 수제화를 만든다. 가죽으로 신발 모양을 만들고, 장식하고, 본드로 붙이는 모든 공정을 손으로 한다. 백화점에서는 고급브랜드로 비싸게 팔리지만 이들 손에 주어지는 돈은 구두값의 7%도 안 된다. 이들은 월급제가 아닌 개수제로 돈을 받는다. 당연히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해 화장실도 못 가고, 밥은 본드칠 하던 손으로 그 자리에서 먹는다. 계절을 많이 타기 때문에 성수기에는 집에 안 가고 며칠을 공장에서 버티기도 한다.

인쇄골목으로 유명한 서울의 을지로, 충무로 일대에는 책자, 팸플릿, 봉투 등을 찍는 작은 인쇄소가 몰려있고, 성수동에는 포장지, 박스 등을 찍는 큰 인쇄소가 많다. 인쇄노동자들은 일이 들어오면 시간을 맞추기 위해 잔업, 야근, 철야를 반복하고, 토요일에도 늦게까지 일한다. 잉크와 기계세척제를 쓰면서 화학물질을 많이 다루고, 기계를 돌보고, 종이뭉치 나르는 일을 반복한다.

공장 안에 휴게실이나 식당 같은 건 아예 없다. 하루의 반 이상, 깨어있는 시간 대부분을 공장에서 보내지만, 휴식이나 쾌적한 식사, 퇴근 전 샤워 같은 건 남의 나라 얘기다. 반복되는 장시간 노동 때문에 피로를 풀 수 없어 아픈 데도 많다. 환기시설도 없는 공장에서 본드와 잉크 증기를 마시면서 일한다. 일하다 다치거나 직업병을 의심하는 노동자들은 많지만, 공장의 지불능력이나 사장과의 관계 때문에 건강검진이나 산재보험 같은 건 아예 기대를 안 한다.

작은 공장들이 천 개가 넘게 모여 있는 성수동이지만 보건소나 응급의료시설이 없다.<sup>3)</sup> 공장 문을 나서면 다른 공장만이 보일 뿐 나무와 꽃도 없고, 벤치도 없다. 사람이 일만 하며 살 수 있다. 그러나 성수동 거리에 서면 ‘그렇게 살아도 돼’라고 이 사회는 말한다.

### (2) 일반적 배경

#### 1) 장시간노동에 저임금, 산재

1년에 일어나는 산재의 1/5은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다친 노동자가 차지한다.<sup>4)</sup> 조금 규모가 있는 50인 미만의 소기업까지 치면 이들 노동자가 전체 산재의 2/3를 차지한다. 기계, 시설이 낡아 많이 다치고, 저임금, 장시간노동으로 건강을 돌볼 여유가 거의 없는데도 이들은 산재보험이나, 의료혜택을 받을 기회를 갖지 못한다. 사업주는 지불능력이 안되고, 노동자들은 권리를 찾을 마음의 여유가 없다.

#### 2) 정부정책

영세사업장 산재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해마다 수백억의 돈을 쓴다. 민간위탁과 공공근로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1년 목표량을 5,000개소로 잡고 CLEAN 사업장 조성사업을 하고, 금연지도 성공률 12명 중 58%, 당노병지도 후 식습관 개선자 10명중 40% 개선예정자 10명중 50%라는 보고서도 낸다.

서비스제공자 관점에서 실적은 뽑아내지만,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영세공장에서 일하는 이들의 노동과 삶은 제자리이거나 뒷걸음질이다. ‘CLEAN’해지지 않았다. 2002년, 산재는 더 늘어났다.

### (3) 운동적 배경

성수동에는 가난한 사람들, 영세노동자, 이주노동자와 함께하려는 지역운동이 끊임없이 있었다. 노동건강연대도 성수동 지역에서 산재직업병, 사회보

2) 성동구 통계자료 ‘산업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2018)’에 따르면, 2018년 성수동 사업체수는 12,419개 종사자수는 3,068명이었고, 이중 제조업 체수는 3,073개 제조업 종사자수는 21,498명이었다.

3) 성동구는 2019년 3월 성수동 1가에 성수보건지소를 개소하여 한방, 재활,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성수보건지소가 있는 성수동1가는 제화공장 밀집해 있는 곳(수제화거리)에서 도보로 20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서울숲역 근처)에 있기 때문에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이용하기에는 거리적으로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4) 2021. 2. 22. 언론보도(뉴스한국)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산업재해로 9467명이 사망했다. 이들 가운데 5인 미만 규모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산재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2176명으로 전체의 23%에 이른다. (…생략…) 5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재해 사망자는 2016년 412명, 2017년 416명, 2018년 479명, 2019년 494명, 2020년 9월까지 375명 발생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망한 노동자의 수가 점점 늘고 있다.”고 한다. 성수동 사업이 진행되었던 20년 전의 상황에서 달라진 것 없이, 여전히 5인 미만 사업자에서는 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

협의 권리를 교육하고 관심을 가질 사업이나 모임을 수년간 해왔다. 이런 시도는 주로 단체가 지역노조에 제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임이란 교육과 상담, 구체적 도움을 주고받는 동네 노동자, 지역노조 활동가, 단체활동가, 전문가의 상설적 네트워크였다.

사람도 돈도 늘 부족하기만 한 지역노조와 모임을 시도하다 깨지는 시행착오가 몇 해 이어졌다. 지역노조에게도 평일에도 주말에도 일만 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을 만나고 모으는 일은 늘 어려운 과제였다. 조건이 나아지지 않기에 지역노조와 단체 사이에 피로도가 높아졌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준비기간을 길게 두고 다시 시도하기로 했다. 스스로를 돌보고, 가꾸는 작은 공장 노동자의 힘을 보여야 했고, 영터리 실적을 위해 돈을 쓰는 정부에게도 대안을 말할 수 있어야 했다.

## 2. 사업내용 및 특징

### (1) 사업내용

#### 1) 활동가모임 : '성수동식구들'<sup>5)</sup>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활동가가 안정적으로 모이는 것이다. 활동가는 모든 사업의 전제조건이지만 이 사업에서는 사업의 성패가 달려있는 핵심이기도 하다. 지역노조와 단체가 지속적 모임을 꾸려간 경험이 없기 때문에 모임의 성사와 지속화 자체가 큰 사업이 되었다.

#### 2) 교육 : 노동자가 참여하는 교육프로그램

① 일본「POSITIVE(Participation Oriented Safety Improvement by Trade Union Initiative)」프로그램<sup>6)</sup>을 활용, 성수동 특성에 맞게 재구성

이 프로그램의 트레이너인 도쿄노동안전센터 활동가의 관심과 지원으로 성수동에서 한 번의 활동가 프로그램과 한 번의 노동자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이 프로그램의 제안자인 노동건강연대는 물론 성수동식구들 모두에게 흥미로운 경험이었다.

5) 노동건강연대 / 민주노총서울본부 / 서울지역제화노조 / 서울경인지역인쇄노조 / 성동건강복지센터

6) 일본 국제노동재단과 노동과학연구소가 영세노동자를 염두에 두고 개발한 POSITIVE 프로그램은 대안형 체크리스트(일명 action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노동자가 자기 일터의 위험을 평가한다. 체크리스트가 위험에 대한 대안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구체적, 실제적이고, 작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기 때문에 노동자가 사장을 설득해 작업장 환경을 개선하는 예가 일본과 동아시아의 영세사업장에 축적되고 있다.

1차 프로그램은 2차 프로그램의 준비를 위한 활동가 사전 프로그램의 성격으로 진행했다. 강의와 질의응답 정도가 우리가 경험한 교육의 전부였다면, 1차 프로그램에서 맞본 참여형 교육방식은 입체적이고 구체적이었다. 일본과 베트남, 몽골, 파키스탄 등에서 영세노동자들은 어떤 활동을 하는지 보았다. 그룹토론은 토론방식과 정리방식을 아주 구체적으로 요구하여 토론이 뜨는 것을 막았다. 성수동 지역을 사전에 답사한 일본인 진행자의 열정적 진행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 1차 프로그램  |
|--|
| <p>* 일시 : 2003. 2. 27(목) 오후 2시</p> <p>* 장소 : 성수동 공공연맹 회의실</p> <p>* 제목 : '노동자의 손으로 작업장을 바꾼다!'<br/>- 지역노조와 함께 하는 작업장개선 노동안전보건활동<br/>: 일본 영세사업장 활동가와 함께 하는 하루 모임</p> <p>* 진행 : 토야마 나오키(도쿄 노동안전위생센터)</p> <p>* 통역 : 스키 아키라(노동건강연대)</p> <p>* 진행순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참여형 교육의 배경과 의미 : 도쿄의 활동경험과 (일본, 동아시아의) 구체적 사례 돌아보기</li> <li>② 그룹토론 : (노동자건강과 작업환경에 대해) 노동조합이 조합원과 함께 할 수 있는 - 참여하는 - 활동은 무엇이 있나</li> <li>③ 성수동 방문 후기 : 성수동의 작업환경과 활동제안</li> <li>④ 질의응답</li> </ol> <p>* 참석 : 18명</p> |

2차 프로그램은 지역의 조합원이 직접 실행해본 프로그램이었다. 체크리스트를 갖고 공장에 들어가 일하는 조건과 환경을 꼼꼼히 체크하고, 그룹토론을 하면서 이후 할 일을 찾는다. 이 활동의 가장 큰 특징은 잘된 점, 긍정적인 점을 찾아내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아무리 나쁜 조건의 일터에서도 좋은 점을 찾아내도록 유도해 사람들의 시각을 바꾸어 놓는다. 그 요구를 듣고 그대로 해보기 위해 사람들은 꼼꼼한 눈으로 공장을 돌아보고, 작은 시도로 공장을 바꿀 수 있겠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다.

2차 프로그램

- \* **일시** : 2003. 5. 17(토) 오후 5시  
(토요일 늦게까지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잡은 시간)
- \* **장소** : 성수동 성동건강복지센터 교육실
- \* **제목** : '노동자의 손으로 작업장을 바꾼다!'  
- 지역노조와 함께 하는 노동안전보건활동 하루프로그램
- \* **진행** : 토야마 나오키 (도쿄 노동안전위생센터)
- \* **통역** : 스키즈 아키라 (노동건강연대)
- \* **진행순서**
  - ① 현장방문 : 내가 일하는 작업장 정확히 보기 - 제화노동자가 일하는 작업장을 방문,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살펴봄
  - ② 강의 : 돌아본 작업장에서 주의 깊게 볼 점은 무엇인가 - 점검할 사항을 제안함
  - ③ 그룹토론 : 무엇을 바꿀 것인가 - 내 작업장에서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토론함
- \* **참석** : 26명

'POSITIVE' 프로그램을 해보면서 얻은 가장 큰 소득은 내 일터, 내 공장을 새롭게 보고 문제를 발견하는 눈, 바꾸어보려는 눈을 갖게 한 것이다. 'POSITIVE' 프로그램을 하면서 나온 이야기를 예시해 보면 아래와 같다.

[일터에서 내가(노동자가) 해온 활동 세 가지]

1. 의자높이 조정 및 통풍 잘되는 의자 만들기
2. 산재보험 전사업장 적용 등 제도개선투쟁
3. 국소배기장치 및 환기시설 개선

[사장에게 제안할 활동 세 가지]

1. 점심시간 확보 및 작업장에서 식사 공간 분리
2. 보호구 착용홍보 활동 및 보호구 선정 시 노조가 참여하도록
3. 국소배기장치 설치 및 평면카(골 운반할 때) 확보

[방문한 제화 공장에서 좋았던 점 세 가지]

1. 공구대마다 바뀌 달려 있던 점
2. 작업의자가 '나름대로' 편해 보임
3. 3단 수납장의 경우 높이에 따른 차이를 둠

[사장에게 제안한 활동 세 가지]

1. 자연환기개선 (창문, 문을 열어놓자)
2. 음식물(식사, 식수, 담배 등) 섭취를 작업장 밖에서
3. 작업장 정리정돈 철저 - 쓰레기봉지설치, 공구정리 등

② 게시판세미나 : 자신의 언어로 일터와 내 몸의 건강을 이야기하기  
POSITIVE 프로그램과 함께 게시판세미나를 병행했다. 게시판세미나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 ① 질문1 : 내가 일하는 곳에서 가장 불편한 것, 또는 해롭다고 생각하는 것 한 가지를 적으세요.
- ② 질문에 대해 함께 분류하기
- ③ 질문2 : 내 몸에서 가장 건강이 안 좋은 곳, 또는 불편한 것 한 가지를 적으세요.
- ④ 질문에 대해 함께 분류하기
- ⑤ 모두 모아 : 우리의 노동환경과 건강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기
- ⑥ 질의응답

하나의 질문에 한 명의 노동자가 두세 개의 답을 적어 냈는데, 색지에 자기 생각을 적고, 색지를 하나하나 함께 읽어가며 분류하는 방식에 대해 조합원들은 매우 재미있어했다. 다른 동료의 생각과 같거나 다른 점을 확인하면서 흥겨워하고, 공장에서 서로 말하지 못하던 이야기를 하면서 즐거워했다. 게시판 세미나는 노동자의 입을 틔우고, 동료와의 연대감을 키우는데 유용한 도구가 되었다.

- \* **제화노동자들과 게시판세미나** : 2003. 3. 24 제화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 \* **의류노동자들과 게시판세미나** : 2003. 4. 19 봉제노동자들의 건강문제  
→ 성수동사업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으나 게시판세미나를 한 제화노조의 추천으로 하게 되었다.
- \* **인쇄노동자들과 게시판세미나** : 2003. 5. 13 인쇄노동자의 건강  
→ 꼼꼼한 인쇄노조의 요청으로 노조집행부와 게시판세미나 시연을 사전에 한 후 진행하였다.

3) 실태조사 : 공장안 환경조사 계획에서 영세노동자의 복지, 건강조사로 확대

성수동 제화공장과 인쇄소 안의 노동환경과 노동자들의 건강상태를 조사하기로 하였다. 어디에도 영세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담긴 실태는 나온 적이 없고, 사업을 하는 우리조차도 정확한 자료가 없어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1차 설문지까지 작성했다.

그러나 고민이 좀 많아졌다. 한 연구소가 인쇄노조에 설문조사를 의뢰

하여 영세노동자의 빈곤실태와 이 사회에 대한 의식을 조사해 갔다. 생활 수준, 사회적대감 등을 물었는데, 공장 내부의 환경과 건강뿐 아니라 영세 노동자의 총체적 건강을 생각하게 만들었다. 여기에 신빈곤, 급증하는 자살 등을 보며 우리가 함께하는 조합원을 돌아볼 수밖에 없었다. 성수동식구들은 실태조사에 앞서 영세노동자의 총체적 건강 척도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공부하고, 토론했다.

① 서울일반노조 제화지부 실태조사(2004)

2004년 서울일반노조 제화지부는 제화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는데, 실태조사에서 노조는 다음 네 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첫째, 제화 노동자들의 심각한 장시간노동, 둘째, 개인사업자 신분에서 파생되는 문제, 셋째, 제화업종의 공동화 문제, 마지막으로 열악한 작업환경과 장시간 노동 속에서 제화 노동자들에게 발생하는 노동안전보건문제를 지적했다.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았다.

- \* 제화 노동자 인구는 17,000명이고 대부분 10명이하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데(중앙고용정보원,2002), 성수동에서는 20~30명 규모의 사업장이 많다는 점,
- \* 설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재정 상태는 수입이 적고 부채가 많다는 상황인 점,
- \* 도급제의 경우 성수기(224만원)와 비수기(116만원)에 임금이 1/2 차이가 생긴다는 점,
- \* 주당 초과근로시간은 성수기는 36.8시간이고 비수기에도 17.4시간 일하고 있는 점,
- \* 직장 생활 만족도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대한 불만이 많다는 점,
- \* 건강 검진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은 74.3%이고, 부상당한 사람은 51%, 질병증상 호소는 근골격계 42.3%, 유기용제 15.4%인 점,
- \* 산재처리는 7.7%에 불과하고 35.9%가 개인의 의료보험으로 치료하고 있다는 점 등이었다.

노동건강연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정책토론회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책적 과제로 제시했다.

- \* 제화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을 위해서는 제화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함으로써 사업주의 노동안전보건 책임을 명확히 할 것
- \* 사업주의 책임하에서 작업환경 및 노동조건을 개선시킬 것(유기용제 및 먼지에 대해 적절한 환기시설의 설치 및 활용, 소음에 대한 방음대책 및 인간공학적 작업대 및 도구의 마련, 근로시간 단축, 적정 임금 보장)
- \* 건강검진 및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산재보상을 받도록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재정적 지원을 할 것

② 영세노동자 노동복지 실태와 복지요구도 조사(2005)

노동건강연대는 제화지부에서 실시한 실태조사에 대한 정책적 과제를 제시한 이후, 성수동 식구들과 성수동 영세사업장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성수동 일대는 금속, 제화, 인쇄, 의류 등 중소 영세업종이 많은 곳이고 의류업종을 제외하고 3개의 지역노조가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 사업장은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 노동안전등 노동복지에서 소외되어있어 그동안 지역노조에서 노동조건개선, 노동상담, 노동권 옹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었지만 노동조합 조직이 힘든 상황이었다. 게다가 서울시에서 성수일대를 첨단 산업단지로 만들겠다고 나서 지금의 영세한 사업장들은 모두 타지로 밀려날 예정이라 업주와 종사자는 생존위기에 직면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서 현장과 노동자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단체와의 간담회도 진행하고, 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노조와 지역에 있는 사회단체, 복지단체로 구성된 “영세노동자 복지를 위한 공동 실태조사단”이 구성되었다.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노동실태와 복지수요를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노동복지 정책을 제안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조사는 사업장을 직접방문하고 주요 거점에서 거리 캠페인을 통해 설문을 진행했다.

준비기간을 더하면 7개월 동안 영세노동자의 노동실태, 노동안전건강 실태, 고용정책, 노동복지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 \*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2005년 7월 현재 받고 있는 월평균 임금은 142만이며,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52시간, 토요일 전일근무 비율이 3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8%의 노동자만이 연차휴가를, 24%의 노동자만이 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4%의 노동자들은 연장근로수당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 또한 최근 1년 이내에 이직한 적이 있는 32%의 노동자들 가운데, 38%가 장시간노동, 열악한 근로조건과 저임금을 이직사유로 들었으며, 사업장 폐업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비자발적 이직도 3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처한 어려움으로 1순위 '경제적 어려움'에 이어 '자녀양육, 보육문제', '일자리 불안'을 꼽았다.
- \* 이 결과는 지난 6~7월, 영세사업장 밀집지역인 서울 성수동 일대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4백78명을 조사하여 드러난 것으로, 최근 사회문제가 되는 사회양극화 현상, '일하는 빈곤층'의 확산을 여실히 보여주는 지표로 볼 수 있다.
- \* 이들의 작업환경과 건강문제 또한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60% 이상의 노동자가 분진, 소음, 반복 작업 등 전통적으로 건강상의 유해인자가 많은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43%의 노동자는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서' 병의원 이용에 어려움을 느끼며, '치료비가 부담돼서' 병원에 가지 못한다고 답한 비율도 33%에 이르렀다.

2005년 10월 2번의 실태조사 결과 보고를 했다. 1차 결과 보고는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진행했다. '10명중 7명이 50인 미만 사업체에서 일하는 현실과, 구조적 고용불안 속에 갈수록 피해를 가는 영세노동자의 삶의 질을 봤을 때, 정부의 노동정책이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과 기업복지를 뛰어넘는 노동복지의 전환을 촉구했다. 또한 대통령 공약인 근로감독관 증원과 체불임금에 대한 임금시효 10년 연장' 등 제도개선책도 제시했다.

2차 결과 보고는 성수동에서 마을잔치를 하듯이 열었다. 실태조사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조사결과를 보고하고, 참여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담아 먹거리와 영상 상영을 성수동 근린공원에서 진행했다.

### ③ 영세사업장 유해물질 실태조사(2006)

2006년 8월 성수동 영세사업장 100여 곳을 방문하여 유해물질 사용 실태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실태조사 실시 전에는 사전 단계로 지역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조사 사업에 대한 내용홍보, 유해물질에 대한 안내 홍보물 배포 등을 겸한 캠페인도 진행 했다.

### 4) 상담과 건강검진 :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

건강문제, 환경과 직업병에 대한 상담은 지역노조 홈페이지와 전화, 거리상담을 통해 진행했다. 교류를 통해 노동자의 관심이 높아졌고, 공장 안의 유해환경, 불편한 작업조건 등에 관한 관심과 자각도 확산되었다. 노조가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자료나 답변을 요구하는 걸 보면서 힘을 얻고, 사업 방향성에 대한 신뢰도 생겼다.

노동건강연대가 보건, 의료인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에서 건강검진을 시행하자는 계획은 사업의 구상단계부터 가장 기본적인 계획 가운데 하나였다. 실행되기 어려운 이유는 노동자들의 작업시간과 의료인 업무시간과의 조율, 장소 등이 지역노조의 여건과 잘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직접적인 활동으로 건강검진은 상시사업이든, 기획사업이든 꼭 필요한 사업이었다. 당시 성수동에는 작은 공장들이 천 개가 넘게 모여 있었지만, 보건소나 응급의료시설이 없었다. 노동자들은 공장에서 하루 대부분을 보내지만,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시간을 낼 수는 없었다. 건강검진 프로그램은 노동건강연대 보건의료인 회원들의 자원활동으로 진행되었다.

#### ① 무료특수건강검진

노동건강연대는 2003년부터 무료특수건강검진을 실시했다. 2004년 10월에는 성수동, 을지로 등 인쇄, 제화, 금속 영세사업장 밀집지역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는데, 이들은 유기용제를 많이 사용하면서 일하지만, 이에 맞는 특수건강검진을 거의 받아본 적이 없는 상태였다.

#### ② 무료특수건강검진 결과설명회

건강검진은 검진에서 끝나지 않았다. 사업장에서 검진 기회를 갖지 못하는 노동자에게 건강검진을 제공하면서 자기 건강과 작업환경을 생각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결과설명회를 개최했다. 검진은 결과에 대한 의료진의 설명과 검진을 받은 당사자의 이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의사의 설명을 듣고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5) 센터설립 활동

① 영세사업장 노동복지연대

2005년 실시한 공동실태조사에서 '성수동 식구들'은 영세사업장노동자의 복지 요구를 파악하고 현장 프로그램을 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냈다. 이러한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 일시적이었던 '공동조사단'은 '영세사업장 노동복지연대'로 발전하게 됐다. 영세사업장 노동복지연대는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복지정책요구안을 마련하고, 요구안 실현을 위한 활동, 노동자들이 주체로 나서는 활동을 목표로 삼았다.

② 성수노동자건강센터

노동건강연대는 성수노동자건강센터 건립을 위해 성수동지도그리기(성수동 일대의 제조업체, 식당 등 영세업체들의 현황 파악 목적), 간담회, 워크숍 등을 진행했고, 2008년 성수노동자건강센터가 만들어지게 됐다. 성수노동자건강센터는 노동건강연대가 재정을 마련하여 독자적인 공간을 만들고, 건강검진, 교육, 상담 활동을 진행했다. 2009년에는 건강검진, 정신과상담, 노동자요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2010년에는 노동건강연대 산업의학과 의사 회원들이 정기적으로 센터에 와서 상담을 하였다. 공장 현장방문, 월례강좌를 진행했고, 지역 노동자와 함께하는 노래자랑 같은 문화 행사도 성수동의 단체들이 함께 했다.

(2) 내용적 특징

공장안 환경이 좋아지는 것은 동네 환경이 좋아지는 것과 통한다. 공장 안 금속가루와 본드 증기, 화학약품은 문밖을 나서면 아이들에게, 여성들에게, 노인들에게로 간다. 작은 공장은 환경과 복지를 개선하려는 시도를 하지 못한 채 존재해왔다. 작은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공장안에서 하루의 반 이상을 보낸다. 기계를 돌리는 그 자리, 구두를 만드는 그 자리가 식탁이고, 흡연실이고, 휴게실이다. 공장이 바뀌지 않으면 건강도 생활도 나아질 수가 없다.

정부도 공장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공공근로를 주어 노동자밀집지역을 방문하고, 개별노동자의 혈압, 당뇨, 흡연, 음주 등을 '관리' 한다. 그런데 노동

자는 자기 일터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일터는 그대로이다. 성수동 식구들은 공장 안 환경에 대해 더 정확히 알기 위해 공부하고, 토론하고, 행동으로 바꿀 방법을 찾았다. '관리대상'이 아닌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주체'가 되어야 공장안 산재가 줄어들 방안도 나온다.

기획 단계부터 열린 상태로 함께 의논하고, 공동 결정하는 방식이 성공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지역노조는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원이 있고, 조합원이 원하는 것부터,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것부터 일을 한다. 작은 공장은 산재도 심각하지만 부도, 임금체불, 불투명한 전망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환경이나 건강문제는 부도나 임금체불에 비하면 배부른 걱정이 되기 쉽이다. 실제로 생존에 필요한 최소의 조건은 일자리와 임금이다. 노동자들이 건강과 작업환경문제가 급한 문제가 아니라거나 필요하지 않다고 말할 때는 더 기다리는 방식으로 일을 하게 되었다.

노동건강연대는 이 사업을 위해 상근활동가 2인과 회원활동을 하는 의료인들이 교육과 상담, 건강검진, 실태조사 등에 전문적 지원을 하고, 노동조합은 이 네트워크를 활발하게 이용하였다. 조직체계 안에서 지역노조를 포괄하고 지원하는 민주노총 서울본부 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성수동식구들의 일원으로 함께 했다는 것도 중요하다. 상급조직이 사업을 정식으로 채택하고 지원하는 것은, 노동조합에 힘도 주고 성과를 내라는 뜻도 있는 것이다.

### 3. 주요 사업 및 활동 경과 <sup>7)</sup>

| 활동시기             | 주요 활동 내용   |
|------------------|--|
| 2002-01월<br>~10월 | 성수동사업(성수동지역 저소득노동자들의 노동안전을 위해 성수동 지역노조와 함께하는 노동안전보건활동)기획·추진<br><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노동조합에 제안 : 실태파악, 노동자들의 의식, 관련자료 수집</li> <li>• 도쿄노동안전센터와 연락, 사업 준비</li> <li>• 지역 의료인, 병원과 만남 : 성수의원</li> </ul>  |
| 2002-10-31       | 성수동 식구들 첫 모임<br>(노동건강연대, 민주노총서울본부, 서울지역제화노조, 서울경인지역인쇄노조, 성동건강복지센터)   |
| 2003-02-27       | 노동자의 손으로 작업장을 바꾼다! - 현장노동자와 함께하는 작업장 개선활동<br><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노조와 함께하는 작업장 개선 노동안전보건 : 일본 영세사업장 활동가와 함께하는 하루모임'</li> </ul>  |
| 2003-03-24       | 제화노동자의 작업환경과 건강에 대한 게시판세미나   |
| 2003-04-19       | 의류노동자의 작업환경과 건강에 대한 게시판 세미나  |
| 2003-04-22       | 인쇄노조 상집간부 대상 설명회   |
| 2003-04-24       | 제화노조위원장과 제화 노동환경 및 건강에 대한 인식도/요구도 조사 설문지 검토  |
| 2003-05-13       | 인쇄노동자의 작업환경과 건강에 대한 게시판 세미나  |
| 2003-05-17       | 노동자의 손으로 작업장을 바꾼다! - 현장노동자와 함께하는 작업장 개선활동<br><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노조와 함께하는 노동안전보건활동 하루 프로그램'</li> </ul>   |
| 2003-06-20       | 작업장 개선활동 보고서 노사에 보고  |
| 2003-12-04       | 성수동사업 1년 결산 워크샵  |
| 2003-12-29       | 고용허가제 실시와 이주노동자의 건강권과 노동권 토론회<br>- 성수동 영세사업장 이주노동자 실태조사 발표   |
| 2004-02-26       | 성수동식구들 수련회<br>- "2003년 활동을 바라보고 2004년 활동을 준비하는 좌담회"<br><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성수동지역 영세사업장 현황 - 보고</li> <li>2. 2003년 사업을 돌아다보자 - 기억을 환기하기 위한 발제</li> <li>3. 2004년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 각 단체별 활동요구</li> </ol> |
| 2004-05-16       | 성수동 작은 워크샵<br><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세사업장노동자 대상 건강검진 진행 논의</li> <li>• 개별사업장 아닌 지역적으로 노동자건강권을 보장하는 방향 논의</li> <li>• 노조가 주도하는 작업환경개선활동 계속 진행</li> </ul>   |

7) 주요 사업 및 활동 경과는 홈페이지 등에 기록이 남아있는 활동 중, 주요 내용만을 모은 것이기 때문에, 실제 진행했던 수많은 활동 중 누락된 활동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활동시기          | 주요 활동 내용  |
|---------------|---|
| 2004-09-01    | "현장을 중심으로! 이윤을 넘어 생명열! 2004노동안전보건활동가 전국대회"<br><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안전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전국의 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간의 활동들을 총화하고 안전활동의 과제 등을 짚어보는 자리</li> <li>• 노동건강연대 가판대 활동 : 계간지 노동과건강, 기업살인뉴스레터, 성수동활동자료집, 기업살인저지버튼 등을 판매하면서 노건연의 활동과 문제의식홍보</li> </ul> |
| 2004-09-20    |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센터에 관한 간담회  |
| 2004-10-16~17 | 영세사업장 노동자 무료특수건강검진<br><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검진 외에 유기용제 특수검진 함께 실시</li> <li>• 대상 : 성수동과 을지로 등의 인쇄, 제화, 금속 등의 노동자(특히 인쇄, 제화업 종사노동자들은 본드, 톨루엔 등의 유기용제 사용이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특수검진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한 실정이라 이번 무료특수검진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li> </ul>                |
| 2004-10-29    | 영세사업장 노동자 무료 특수건강검진 결과 통지 및 교육  |
| 2004-11-20    | 서울일반노조제화지부 정책토론회<br><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일반노조제화지부 실태조사 결과발표</li> <li>• 노동건강연대 정책적 과제 제시</li> </ul>  |
| 2005-02-22    | 성수동 회의  |
| 2005-03-25    | 성수동 영세사업장노동자 실태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간담회  |
| 2005-04-12    | 영세사업장 실태조사를 위한 실무회의2차<br><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태조사 문항점검(기본문항, 각 단위 요구사항) 및 역할분담</li> </ul>  |
| 2005-05-12    | 성수동 영세노동자 실태조사사업 자문 및 설명회<br><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태조사 사업에 대한 계획과 그간의 경과보고</li> <li>• 설문지 초안과 자문단의 생각 논의</li> </ul>   |
| 2005-06-10    | 성수동 영세사업장 노동자 실태조사 조사원 교육<br><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뷰 문항에 대한 점검</li> <li>• 직접 성수동 일대를 돌며 노동자들을 만나 설문작업을 할 활동가들과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터뷰 방법 교육 진행</li> </ul>   |
| 2005-06-28    | 성수동 영세사업장 노동자 실태조사 캠페인  |
| 2005-07-29    | 성수동 영세사업장 노동자 실태조사 설문지수거 마무리  |
| 2005-08-10    | 2005 보건의료학생여름캠프 영세노동자 건강문제 강연   |
| 2005-10-05    | 영세노동자 노동복지실태와 복지요구도 조사결과 발표회(국회)<br><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임금, 건강권, 복지, 생활 등 다양한 영역의 조사결과 발표</li> <li>• 성수동, 독섬 일대 지역에 대한 문제와 함께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논의</li> </ul>   |
| 2005-10-26    | 성수동 영세사업체 노동자 노동복지 실태조사 결과 보고회(성수동 근린공원)<br><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자, 지역사람들을 위한 영상 보고회(잔치 형식)</li> <li>• 조사결과를 신문으로 제작하여 사업장에 배포</li> </ul>   |

| 활동시기             | 주요 활동 내용   |
|------------------|--|
| 2005-11-25~26    | 영세사업장 노동자 건강검진<br>• 다양한 업종에서 생산직, 사무직으로 일하는 노동자<br>• 유기용제를 취급하는 노동자에게는 별도의 검사 실시   |
| 2005-12-13       | 영세사업장 노동자 건강검진 결과설명회 개최  |
| 2006-03-27       | '영세사업장 노동복지연대' 발족식 개최  |
| 2006-08-08~31    | 영세사업장 유해물질 실태조사<br>• 성수동 영세사업장 100여 곳을 방문하여 유해물질 사용 실태조사<br>• 실태조사 실시 전 사전 캠페인 : 지역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조사사업 내용 홍보, 유해물질에 대한 안내홍보물 배포 등  |
| 2006-09-16       | 현장노동자와 함께하는 작업장 개선활동<br>• 전문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터를 가장 잘 아는 현장노동자가 작업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활동   |
| 2006-11-03       | 영세사업장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  |
| 2007-03-09       | 서울동부비정규센터 창립대회   |
| 2007-04-25       | 성수동 소규모사업장, 비정규노동자와 함께 하는 비빔밥 나눔잔치   |
| 2007-04-27       | 2007 소규모작업장 종사자를 위한 무료건강검진   |
| 2007-05-29~06-15 | 건강검진 결과설명회와 노동안전보건교육   |
| 2008-02-25~28    | <성수노동자건강센터>를 위한 '성수동지도그리기'작업<br>• 성수동 일대의 제조업체, 식당 등 영세업체들의 현황 파악 목적   |
| 2008-04-22       | 성수노동자건강센터 건립을 위한 1차간담회<br>• 성수 지역 노동자 건강을 위한 '성수노동자건강센터'를 만들기 위한 배경 공유 및 지역 역사 확인  |
| 2008-04-23       | 태국 치앙마이 대학 학생들 성수동 영세사업장 현장답사<br>성수동 급속, 제화거리 답사 후 노건연 사무실 방문  |
| 2008-04-26       | 제5차 차별없는 서울 만들기 성수동행진  |
| 2008-05-23~24    | 2008 제5차 소규모사업장, 비정규노동자와 함께하는 무료건강검진<br>• 대상 : 5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및 사업주, 비정규노동자, 이주노동자<br>• 전문의 상담 코너마련(내과, 재활과, 부인과, 정신과)  |
| 2008-06-20       | 검진결과 설명 및 건강교육   |
| 2008-07-16       | 성수노동자건강센터 추진단 워크숍<br>• 추진단 활동 중간점검 및 방향 논의<br>1) 의료생협운동의 현황과 과제<br>2) 노동조합운동의 현황과 과제<br>3) 부산반송지역에서의 주민건강사업 영상 보고<br>4) 지역노동자건강센터의 해외사례와 문헌검토<br>5) 성수노동자건강센터 어떻게 만들것이고 무엇을 할것인가 |

| 활동시기          | 주요 활동 내용  |
|---------------|---|
| 2008-08-13    | 구두 만드는 사람들의 축제 - "신데렐라 구두를 누가 만들었을까?"<br>• 성수동의 제화노동자들과 동부비정규센터, 노동건강연대<br>• 건강부스에서 사상의학체크, 발마사지, 무료구두수선  |
| 2009-06-09    | <노동건강연대 6월 특강><br>• 노동의 꿈이 사라진 시대를 건너는 법(하종강/한울노동문제연구소)   |
| 2009-09-25    | 성수노동자건강센터 자원활동가를 위한 교육<br>• 자원활동가 교육, 성수동 사업장 현장 탐방   |
| 2009-09-26    | 찾아가는 건강검진<br>• 다미제화 노동자<br>• 본드 등의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제화노동자들의 유해요인 검사 목적<br>• 기본적인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빈혈, 소변 등의 검사와 신경검사 진행 및 의사 상담   |
| 2010-01-29    | 성수노동자건강센터 2010 사업 간담회<br>• 2009년 사업 정리 및 2010년 사업 방향 논의   |
| 2010-03-22    | 2010성수노동자건강센터 3월 월례강좌<br>• 석면 전문가 노동건강연대 스키야키라 활동가<br>• 부산 MBC 50주년 기념다큐멘터리 <아스베스토스> 시청 (일본과 한국의 석면 문제, 특히 석면을 다룬 노동자들이 맞게 되는 비극적인 암투병과 죽음에 대한 내용)<br>• 석면에 대한 이론적 학습 및 주거시설, 학교, 공장 등 우리의 생활공간 곳곳에 숨어있는 석면의 위험성에 대한 강의 |
| 2010-04-13    | 성수동 공장지역 선전전진행 - 의사, 지역노동조합들과 함께 진행<br>• 노동건강연대와 지역노동조합 격주로 선전전 진행<br>• 산업의학전문의와 함께 노동자들을 만나 유기용제의 독성과 건강에 대해 홍보하고, 작업환경에 대해 노동자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하는 활동   |
| 2010-05-13    | 2010차별없는 서울대행진 '성수지역'<br>• 성수노동자건강센터 <건강마당> - 석면 위험 홍보, 건강보험료 체납 탕감 안내, 건강상담진행<br>• 성수동에서 사망한 건설노동자2명 추모와 시공사 '코오롱건설' 규탄  |
| 2010-05-25    | 일하는 사람의 건강지킴이<br>• 공장과 사무실에 장시간 노동을 하며 병원 검진도 받기 힘든 노동자들, 검진을 받아도 의사와 충분한 상담하기 힘든 노동자들을 위한 간이검진 및 상담진행  |
| 2010-10-14~15 | 노동자와 함께하는 성수동 가을밤 노래자랑<br>• 산업의학전문의와 함께하는 건강상담<br>• 노무사와 함께하는 노동상담<br>• 지역노동조합과 노동단체 홍보<br>• 성수동 공장 현장 사진전<br>• 구두수선, 여성화 굵같이<br>• 스티커설문<br>• 노동뉴스  |

## 4. 사업효과 및 지역사회 반응

### (1) 사업효과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관심이 높았다.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저임금에 장시간노동으로 건강, 쾌적한 환경에 무관심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이 사업은 노동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했다. 참여하는 주체로, 일터의 주인으로, 토론하면서 배우고 발전하는 것, 한 걸음씩 전진하고 있다는 느낌은 이 사업이 준 보람이었다.

재정부족, 활동가 부족이 노동조합의 어려움이다. 노동권에 대한 교육은 하지만, 조합원들이 필요로 하는 산재나 노동환경에 대한 정보는 엄두를 내지 못하던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건강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보았다.

노동조합 활동가들은 성수동에서 활동해도 지역과 밀착할 계기를 갖기는 어려웠다. 지역노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지역사회의 문제를 보면서 책임감이 생기고, 노조가 할 일을 생각하게 마련인데, 노조의 역량은 늘 이를 어렵게 했다. 지역주민으로서 노동자와 노동자가족의 건강을 위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고민하는 네트워크가 만들어진 것이었다.

성수동사업을 통해 현장과 만나게 되는 전문가들은 지식과 경험이 실천적으로 쓰이는 것,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로 하는 곳에서 쓰인다는 것은 지식의 생산적 쓰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 (2) 지역사회의 반응

제화공장과 인쇄소 사업주들을 만나 활동을 소개하고, 공장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 교섭을 하기도 했다. 많은 사업주가 지역사회 단체들의 방문을 꺼렸다. 노동자가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는 곳은 사업장의 문을 열기도 했지만, 그럴 여력이 안 되는 사업장들이 많았기에 공장 관리자들은 방문을 거부했다.

사업주와의 마찰, 인간적 관계, 체념 등이 노동자들의 노조활동을 막는 장애물이다. 교육이나 프로그램 중간에 포기하기도 하고, 공장을 방문하면 귀찮아하기도 하였다. 사회복지, 노동환경 등에 대해 별 기대가 없기 때문이다. 숙박교육을 하고 싶어도 노동자들이 월차나 휴가는 생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토요일 저녁 늦게 시작하는 짧은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활동주체가 노조 안에 만들어져야 사업을 계속하고, 이끌 수 있지만,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참여를 어렵게 한다.

## 5. 에필로그

영세사업장노동자에 대해서는 노동건강연대가 재정과 역량을 투여하여 10년 이상을 활동하였다. 거점이 되었던 서울 성수동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중단하고 공간을 옮긴 이후로 다시 10년이 흘렀다. 노동건강연대는 이주노동자를 교육과 교재개발 활동에 역량을 투여하고, 특수고용자의 산재보험적용을 위한 정책제안과 현장에 대한 연대 활동, 알바노동자, 현장실습생과 같은 노동자이면서 노동자의 경계에 있다고 불리는 이들에 대한 지원, 역량을 투여해 왔다. 경계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생산하기 위한 집필, 간행물 발간 작업을 노동건강연대가 활발히 할 수 있었던 데에는 현장에 대한 지원, 연대 활동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노동자들의 투쟁이 집중적으로 진행되던 시기에는 고공농성 노동자들에 대한 긴급진료, 노숙농성 중인 노동자들에 대한 건강상담과 진료활동을 직접 진행하기도 하였다.

배달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사회적 이슈로 만드는 데 가장 큰 계기가 된 라이더유니온의 초기 활동에도 노동건강연대가 최대한 지원, 연대하였다. 배달노동자의 산재사고, 폭염과 혹한에서의 노동실태를 알리고, 산재보험을 적용하도록 정부의 제도 개선을 촉구하였다.

노동건강연대가 생각한 것은 ‘가려져 있는 노동, 보호가 필요하나 눈에 보이지 않는 노동은 무엇인가’였다. 건강권에 대한 조사연구, 자문, 발언요청 등에 대해서, 노동조합이 없거나 작은 곳, 정부 감독이 없는 곳에 대한 지원을 우선으로 하였다. 이러한 노동건강연대의 방향성은 2018년 ‘직장갑질

119'를 여는 문제의식을 제공했다.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들, 권리의 사각지대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노동자들의 건강권에 대하여 노동건강연대가 가진 관심과 활동방향은 코로나19 이후의 노동과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다.

위와 같은 의미에서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들을 위해 노동건강연대가 펴냈던 작은 책자들을 소개한다.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들을 위해 노동건강연대가 발간한 간행물 목록]**

| 제목   | 발간연도 |
|--|------|
| 주머니 속의 진료실   | 1993 |
| '건강하게 일할 노동자의 권리' 교육자료   | 2001 |
| 영세사업장 노동자 노동복지 실태조사 보고서  | 2005 |
| 일하는 여성의 건강이야기<br>• 계산원노동자 편<br>• 조리노동자 편<br>• 의류노동자 편<br>• 간병노동자 편 | 2007 |
| 일하는 청소년의 건강과 기본권<br>• 현장실습생 편<br>• 아르바이트 편                         | 2007 |
|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건강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 2007 |
| '일하는 사람의 인권'을 생각하는 의사를 위한 열 개의 진료실 가이드                             | 2013 |
| 청년노동자 건강생활 가이드 - 알아두면 쓸모 있는 노동과 건강                                 | 2017 |
| 청년 노동 서바이벌 직장에서 살아남는 법   | 2019 |
| 첫노동 공략집 '알아야 지킨다'  | 2020 |

### III 삼성·LG 스마트폰 하청공장의 청년 파견노동자 메탄올 실명 사고

메탄올 실명 사고는 강렬한 사회적 충격을 준 사건이었다. 21세기의 한국에서 '알바'를 하러 갔다가 시력을 잃게 된 이야기는 그야말로 믿기지 않는 이야기이다.

2015년 초부터 시작된 이야기는 2021년의 여름이 되어서야 '본편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마무리되었다. 메탄올이 손상한 시신경은 노동자들에게 중증의 시각장애인이라는 정체성을 주었다. 실명의 원인을 찾고 사회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데에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순서대로 하면 되는 일에 가까웠다. 사업주들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까지 마무리된 2021년 여름, 노동자들에게는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야 할 인생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 노동건강연대가 메탄올 실명 노동자들을 만나서 함께한 5년을 짧게 돌아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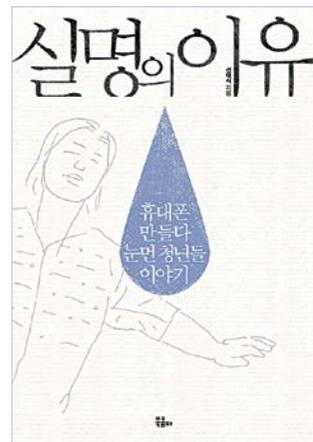
#### 1. 일지

| 날 짜          | 내 용                                  |
|--------------|--------------------------------------|
| 2015. 02. 02 | 김○○ 부천 다니엘병원 응급실(덕용ENG) 88년생 실명      |
| 2015. 12. 30 | 양○○ 아주대병원 응급실(덕용ENG) 91년생, 실명, 뇌손상   |
| 2016. 01. 16 | 전○○ 인천 길병원 응급실 (BK테크) 82년생, 실명       |
| 2016. 01. 16 | 이○○ 이대목동병원 응급실 (YN테크), 88년생, 실명, 뇌손상 |
| 2016. 01. 22 | 방○○ 부천성모병원 응급실(YN테크) 88년생, 실명        |
| 2016. 02. 03 | 박근혜대통령, '파견확대' 지시                    |
| 2016. 02. 05 | 노동건강연대, 보도자료 배포                      |
| 2016. 02. 17 | 1명의 피해자 추가 발생 확인                     |
| 2016. 02. 18 | 국회 토론회 <삼성전자 하청업체 메탄올중독사건의 시그널>      |
| 2016. 02. 28 | 이○○ 산재신청 (의사가 TV를 보고 연락함)            |

|                                |  |
|--------------------------------|--|
| 2016. 03. 02                   | 박근혜정부와 삼성·LG 규탄 기자회견   |
| 2016. 03. 16                   | 노동건강연대 긴급 토론회 <파견노동의 뒷안가 시스템의 부재인가>  |
| -                              | 언론보도: 신동호 시선집중/뉴스룸/시사매거진2580   |
| 2016. 09. 10                   | 부천에서 피해당사자 방○○, 이○○, 이□□ 첫 만남  |
| 2016. 09. 30                   | 김○○ 제보   |
| 2016. 10. 01                   | 김○○ 면담   |
| 2016. 10. 04                   | 전○○ 제보   |
| 2016. 10. 05                   | 전○○ 면담   |
|                                | 보도자료 배포 '삼성전자 핸드폰 부품공장 메탄을 중독으로 인한 실명 추가 확인'                               |
| 2016. 10. 12                   | 국회 기자회견 <카나리아의 울음, 메탄을 실명 추가 산재 신청>  |
| 2016. 10. 14                   | 전○○ 산재 승인  |
| 2016. 10. 17                   | 김○○ 산재 승인  |
| 2016. 10. 20                   | 이○○ 산재 승인  |
| -                              | <스마트폰 제조 하청사업장에서의 메탄을 급성중독 직업병 환자군 추적조사 및 사후관리 방안 연구보고서> 발간                |
| 2017. 04. 17 ~<br>2017. 06. 18 | '누가 청년의 눈을 멀게 했나' 다음 스토리펀딩 진행 (63일간 목표 금액 1,500만 원의 116%인 17,453,900원이 모임) |
| 2017. 06. 09                   | 유엔 인권이사회에 김○○ 노동자와 박혜영 참석  |
| 2017. 07. 16                   | 토크콘서트 <누가 청년의 눈을 멀게 했나>  |
| 2017. 12. 05                   | 2014년 4월에 반원공단에서 발생한 피해자 확인, 노동부 장관 고발 기자회견                                |



메탄을 실명 사고를 발굴하고 사회운동으로 펼친 노동건강연대 박혜영 활동가의 이야기를 그린 김성희 작가의 <문밖의 사람들>



메탄을 실명 사고의 발생과 전개를 다룬 오마이뉴스 선대식 기자의 <실명의 이유>

## 2. 사고의 발생과 전개

사고의 발생일부터 현재까지 실명노동자들과 노동건강연대는 함께 하고 있다. 6명의 노동자는 건강한 청년에서 1급 시각장애인으로 신분이 바뀌었다. 일상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이동하기 위한 모든 것을 다시 배워야 했다. 노동건강연대는 이를 지원하고자 사회복지 제도의 연결망을 찾았다. 산재보험의 재할정책에 큰 기대를 걸지 않았지만, 시각장애인이 된 노동자에 대한 재할은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지원방안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도 없었다. 산재노동자들은 일반 사회복지의 서비스대상이 아니다. 요양, 일상생활, 심리적 문제 등 실명 이후 안게 된 문제를 피해자들과 노동건강연대가 함께 찾아나가는 수 밖에 없었다. 노동자들은 점자를 배우고, 시각장애인용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장애인으로서의 사회적 삶을 준비해나갔다. 물론 여전히 병상에 누워있는 노동자도 있다.

### (1) 메탄을실명 사고의 개요

2015년 2월에서 2016년 2월. 삼성전자, LG전자 스마트폰 부품을 제조하는 3차, 4차 하청기업에서 6명의 노동자가 메탄을 급성중독으로 시력을 잃었다. '불법 파견' 일자리였다. "공장에 간 날 바로 일을 시작했어요." "작업 두세 번 지켜보고 바로 따라가는 식이었어요."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취업한 일자리가 '불법 파견'이라는 정보도 인식도 없었다. '메탄을 중독에 의한 급성 시신경 손상' '독성 뇌병변' 진단을 받고 시력을 잃은 노동자들의 나이는 20대가 5명, 30대가 1명이었다. 공장에서 일한 기간은 5일, 8일...오래 일한 노동자도 5개월이 안 되었다.

메탄을 중독으로 쓰러지고 병원에 실려 가고 실명이 일어나는 동안 노동자 6명 중 3명은 원인을 바로 찾지 못하고 수개월을 보냈다.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기 전 상태가 안 좋았던 노동자들은 감기몸살인 줄 알고 약을 먹고 일하거나, 눈앞이 흐려져서 안과에 가기도 하였다. 노동자들이 찾았던 의료기관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물질을 다루는지 묻거나 확인하지 않았다. 공장에서, 집에서, 쓰러져서 병원 응급실에 갈 때까지 공장의 환경과 노동조건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았다.

6명의 노동자는 CNC공정에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부품을 절삭, 가공하는 작업을 하였다. 제품이 가공되는 순간 ‘메탄올’이 계속 분사되고, 알루미늄 제품에 남아있는 메탄올을 제거하기 위해 에어건을 사용한다. 노동자들은 보안경, 보호장갑, 방진마스크 등을 쓰지 않고 일했다. 메탄올이 눈과 피부에 튀고, 공기 중에 유증기 형태로 남아있는 메탄올을 호흡하면서 흡입하게 되었다. 메탄올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법은 6개월마다 작업환경을 측정하고, 12개월마다 특수건강진단을 하라고 한다. 대체물질로 ‘에탄올’을 사용하라고 하지만 에탄올은 메탄올보다 3배 정도 비싸다.

파견노동자는 인력파견업체(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지만, 업무지휘는 일하는 작업장(사용사업주)에서 받게 된다. 파견법은 작업하는 공간에서의 안전교육, 특수건강진단에 대한 책임을 사용사업주가 지고, 산재보험가입, 일반건강진단은 파견사업주가 진다고 정하고 있다. 노동자 한 사람에 대한 책임을 분할하여 두었다. 공장 직원으로 직접 채용되었다면 사업주가 노동자들의 상태를 확인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공장은 노동자들에 대한 기록도 갖고 있지 않았다. 파견업체를 통해서 공장으로 온 이들이니 예고 없이 결근해도 ‘또 그만둔다’고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대응한다.

[표1] 메탄올 실명 사고 노동자들의 근무 기간과 실명 원인 확인 시간

| 이름             | 근무 기간   | 첫 병원방문     | 실명 원인(메탄올중독) 확인 |
|----------------|---------|------------|-----------------|
| 이○○<br>(27세 여) | 3개월 27일 | 2016.1.16  | ~ 1.22          |
| 방○○<br>(27세 남) | 4개월 20일 | 2016.1.22  | ~ 1.23          |
| 양○○<br>(25세 남) | 8일      | 2015.12.30 | ~ 2016.1.28     |
| 이○○<br>(28세 여) | 5일      | 2016.2.17  | ~ 2.22          |
| 김○○<br>(27세 남) | 21일     | 2015.2.2   | ~ 2016.10.1     |
| 전○○<br>(33세 남) | 4개월 5일  | 2016.1.16  | ~ 10.5          |

※ 6명의 노동자 가운데 메탄올에 의한 실명이 밝혀지기까지 수개월이 걸린 노동자들이 있다. 공장 일이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채 퇴사한 노동자들은 뉴스를 본 친척, 지인 등의 제보로 뒤늦게 원인을 찾게 되었다.

CNC공정은 작업이 단순하고 반복적으로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경력이 없어도 일할 수 있는 일자리로 선호된다. ‘공장 알바’ 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들이 수시로 바뀐다. 대기업의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 제품디자인 변경 등에 대응하면서 일거리가 가변적이기 때문이다. 일은 인터넷을 통해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노동자들의 노동시간과 작업량을 보면 일시적인 일자리가 맞는지 의문이 든다. 하루 12시간 이상을 일하고 한 달에 하루밖에 쉬지 않은 이들도 있었다. 초과노동 수당 같은 것은 없었다.

[표2] 메탄올 실명노동자 6인의 실명 사고 진단 상황

| 이름             | 실명사고 직전 상황                                   | 최초 방문한 의료기관   | 메탄올에 의한 실명 진단                                     |
|----------------|--|---|---|
| 이○○<br>(27세 여) | 출근길 버스 번호가 안 보임. 야간업무 중 속이 안 좋아 조퇴하고 집에서 쓰러짐 |   |   |
| 방○○<br>(27세 남) | 감기기운이 있어서 약국에서 구입한 약을 먹었으나 증상 나아지지 않음        |   | 새벽에 눈의 통증과 시력감소로 부천성모병원 응급실 통해 진단                 |
| 양○○<br>(25세 남) | 야간근무 후 일어나지 못함                               |   | 원광대학교 산본병원 아주대학교 응급실 통해 진단                        |
| 이○○<br>(28세 여) | 야간조 출근 후 몸이 안 좋아 인근 병원 방문 후 회사에 복귀 야간근무      | 인근 병원 방문 시 혈액검사 시행했으나 원인을 찾지 못함   | 야간근무 후 아침, 눈이 잘 보이지 않음. 이대목동병원 응급실 통해 중환자실 입원, 진단 |
| 김○○<br>(27세 남) | 야간근무 후 호흡곤란과 앞이 안 보이는 증세 호소                  | 부천 인근 병원으로 갔으나 안과진료 없었음. 업무를 다시 하다 조퇴 후 다른 병원 방문하였으나 시신경염으로 안과적으로 이상 없고, 치료된다고 설명 들음. | 여의도 성모병원 방문 후 메탄올 중독 진단                           |
| 전○○<br>(33세 남) | 몸이 피곤해서 일찍 잤는데도 눈이 침침함. 출근 후 조퇴하여 집에 와서 쓰러짐  |   | 길병원 응급실 통해서 입원, 진단                                |

노동자를 파견한 업체들은 사건을 덮으려고 하고,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에 '그런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한 공장도 있었다. 메탄을 중독으로 쓰러진 것을 알고도 (피해자가) '술을 많이 먹는다'고 말한 파견업체의 관리자, '자살기도를 한 것이 아닌가'라며 의심스럽다고 말한 공장주도 있었다. 사고 직후 한 파견업체는 몇백만 원의 보상금을 입금하기도 하였다.

6명의 피해자 가운데 사고 발생이 가장 빠른 이는 2015년 2월에 실명한 김○○이었다. 그런데 이보다 한해 앞선 2014년 3월 이미 메탄을 중독으로 실명한 노동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2017년에 밝혀졌다. 안산 공단에서 일하던 '조선족 노동자'가 메탄을 중독으로 실명하였으며 피해노동자는 병원 요양 후 한국을 떠나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2014년 당시 고용노동부는 이 사건을 공개하지 않았다. 2014년에 정부의 조치가 있었다면 2015년에서 2016년에 발생한 6명의 실명을 막을 가능성이 컸을 것이다.

노동건강연대와 실명 노동자들은 2017년 12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 안산에서의 실명노동자 발생과 은폐에 대하여 2014년 당시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과 이기권을 직무유기로 고발하였다.

2015~2016년 박근혜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언급한 '노동개혁' 정책 가운데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 파견법은 32개 직종에서 노동자파견을 허용하지만, 그 밖의 업종에서는 노동자를 파견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박근혜 정부는 중고령 노동자의 일자리를 늘린다는 명분으로 금형, 주조, 용접 같은 제조업의 기본적인 일자리까지 파견노동자가 취업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지속해서 보였다. 기업의 정규직고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비정규직을 쉽게 고용할 수 있도록 만들려는 정책이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 '노동개혁'이었다.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파견법이 통과되면 일자리와 투자가 증가한다면서 파견법 통과를 촉구하고,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파견 일자리가 정규직 일자리를 줄이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파견법'은 다른 정치적 이슈에 밀려 처리되지 못하였다.

메탄을 중독이 발생한 부품공장은 제조업 생산라인으로 노동자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곳이지만 불법파견이 만연해있는 상황이었다. 2016년 당시 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메탄을 중독 실명사고를 알리면서 피해자들이 '불법 파견'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이었다는 사실은 누락하여 발표했다.

사고 후 고용노동부는 '삼성, LG가 1차 협력사에 메탄을 사용금지 조치'를 하고 '3차까지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 한다고 하면서 기업에 대하여 '사회적 책임 강화 지도'를 하지만 '정부의 직접 감독 정책에 한계'가 있다고 말하였다.

다국적기업으로서 삼성전자, LG전자는 환경문제, 소비자권익 등 국제적인 CSR요구에 부응하는 활동을 하면서도 기업 책임의 핵심인 공급망에 대한 책임을 외면했다.

고용노동부는 2016년 1월 25일부터 작업공정이 유사한 곳으로 보이는 8개의 공장에 대해서 근로감독을 하고 185명의 노동자에 대해서는 건강진단을 명령했다고 발표했다. 88명의 노동자가 일하는데 54명이 파견노동자인 회사,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고, 유해물질을 다루기에 특수건강진단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공장, 안전교육을 하지 않은 업체들이 드러났다. 일시적인 개입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평소 정부의 근로감독이 없는 것이 문제였다. 근로감독관이 부족하여 노동자의 권리침해가 방치되거나 개입이 늦어지는 것은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들에게 특히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한 공장에서 일한다고 하여도 인력소개업소(파견사업주)가 서로 다른 노동자들이 섞여서 일한다. 작업장의 위험, 노동환경에 대하여 소통하지 않는다. 여기서 위험이 누적된다. 공장의 사장(사용사업주)에게 불만을 제기하거나 해결을 모색할 가능성이 작다. 노동부는 메탄을을 취급하는 전국 3천100여 개의 공장에 대하여 일제 점검을 한다고 발표했다. 2016년 2월 17일, 노동부가 일제점검으로 다녀간 공장에서 노동자가 다시 쓰러졌다. 위 6명의 피해자 가운데 마지막으로 발생한 사고다.

실명만큼 치명적인 사고가 더 있었던 것일까? 어떤 공장들이 언제부터 메탄을 사용했었고, 그 공정을 거쳐 간 노동자는 몇 명이었던고 말할 수 있을까? 감기인 줄 알고, 과로인 줄 알고 병원에 가본 노동자는? 시력에 약간의 이상이라도 왔거나 장애가 남은 이들은 없는 것일까?

정부는 불법 파견으로 인해 노동자 추적이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자원을 최대한 투입하여 조사하지 않았다. 건강보험 자료 활용, 공단 지역의 병원 이용 현황, 직업병 의심 진료 현황 등 정부가 조사할 방법이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 사고 당시 노동건강연대에는 시력을 잃은 노동자가 더 있다. 공장에서 일한 후 시력이 나빠졌다는 제보들이 오기도 하였다. 노동건강연대가 제보노동

자를 만나보기도 하였지만 일한 기록이 없고, 일을 한 공장에서 사용하던 물질을 알 수가 없었다.

법적 처벌은 미미하였다. 노동자들이 일하던 공장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과 사회봉사, 파견업체들은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만 원~6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표3] 사업주들에 대한 형사처벌 결과

| 구분           | 회사명(피고인)    | 범죄사실                |                    | 최종 판결 결과                          |
|--------------|-------------|---------------------|--------------------|-----------------------------------|
| 사용 사업주       | YN테크 (석00)  | 산업안전보건법<br>파견근로자보호법 | 실명·뇌손상 책임<br>불법 파견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br>80시간 사회봉사        |
|              | BK테크 (안00)  | 산업안전보건법<br>파견근로자보호법 | 실명·뇌손상 책임<br>불법 파견 | 징역 1년 6월·<br>집행유예 3년<br>80시간 사회봉사 |
|              |             | 파견근로자보호법            | 불법 파견              | 벌금 100만원                          |
|              | 덕용ENG (조00) | 산업안전보건법<br>파견근로자보호법 | 실명·뇌손상 책임<br>불법파견  |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
|              |             | 파견근로자보호법            | 불법 파견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
|              | 파견 사업주      | 누리잡 (이00)           | 파견근로자보호법           | 불법 파견                             |
| 파견근로자보호법     |             |                     | 불법 파견              | 벌금 100만원                          |
| 드림아웃소싱 (원00) |             | 파견근로자보호법            | 불법 파견              | 벌금 600만원                          |
| 플랜HR (이00)   |             | 파견근로자보호법            | 불법 파견              | 벌금 400만원                          |
| 대성컴퍼티 (갈00)  |             | 파견근로자보호법            | 불법 파견              | 벌금 200만원                          |
| 세울솔루션 (이00)  |             | 파견근로자보호법            | 불법 파견              |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처벌받지 않았다. 3차, 4차 하청기업에 대하여 원청의 책임을 법으로 묻는 것은 현행 법제도에서 가능하지 않다. 삼성은 공급망 내 화학물질 관리를 통해 제품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책임을 지는 공급망은 '1차 협력업체까지'라고 말했다.

“이번에 문제가 발생한 업체들은 3차 협력사로, 직접 안전관리 및 모니터링

의 대상이 아님. 안전관리와 모니터링의 대상인 1차 협력사를 통해 2차 업체와 3차 업체를 계도하도록 하고 있지만, 3차 업체는 2차 업체와의 거래 관계가 수시로 변경되고 있어 모니터링은 물론 실제 파악 자체에 어려움이 있음” 노동건강연대의 질의에 삼성이 보낸 답변이었다.

### (2) 피해 노동자들의 노력

정부는 사고 발행 후 피해 노동자들에게 '상태를 알고 싶다'고 전화를 해왔을 뿐, 실명이라는 위증하고 치명적 상황에 대하여 사과도 지원도 없었다. 아무리 큰 산재사고여도 피해자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산재보험은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 실명 노동자들 역시 산재보상, 휴업급여, 병원에서 치료하는데 필요한 모든 급여를 직접 신청해야 했다. 메탄올로 인한 실명을 뒤늦게 확인한 두 노동자는 더 어려웠다. 그 공장에서 일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했다. 실명 이후 파견업체 이름이 3번이 바뀌었다. 사무실 위치가 그대로여도 회사 이름들을 찾고 등기부등본을 떼어 같은 파견회사라는 것을 피해노동자들이 증명해야 했다.

피해자들은 실명한 노동자들이 더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언론 인터뷰 요청을 마다하지 않고 정부와 원청 기업의 책임을 묻고자 했다.

2017년 6월 9일, 실명노동자 김○○씨가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인권이사회 본회의장에서 “삼성과 LG 핸드폰을 만들다 시력을 잃었다. 파견이 불법인지 메탄올이 위험한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 한국정부도 책임을 져야 한다. 사람의 목숨은 기업의 이익보다 중요하다” 고 발언하여 한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유엔에서의 발언은 원청 대기업의 책임에 대한 시민사회의 관심과 압력을 불러왔다. 김○○은 노동건강연대, 국제연대 활동가들과 함께 유엔 회의에 참석하여 다른 발언자들의 양보와 각국 대표단의 격려 아래 2분간의 발언시간을 얻은 것이었다.

### 3. 맺으며

실명의 원인을 알지 못한 채 개인의 불운으로 묻힐 수도 있었다. 6명의 노동자들은 사회적 연결망이 없었다. '작업환경이 안 좋다'며 물을 생각도 하지

않았고, 확인할 곳도 알지 못하였다. 인터넷에는 ‘아웃소싱’ 사무소에서 바로 공장으로 갈 수 있다는 체험담이 많다. ‘아웃소싱’ 업체들은 소개비를 떼고, 상여금도 떼어가는 식으로 ‘공장알바’가 받아야 할 돈을 갈취한다. ‘공장알바’들은 이 시스템을 인정하고 초과근무를 해서 부족분을 다 메꾼다. 작업환경이나 안전, 건강의 자리는 아예 없다.

메탄올 실명 사고 이후 노동건강연대는 국가에 대하여 ‘중간착취의 매커니즘을 팔짱끼고 구경만 해온 것’, ‘기업들의 불법, 탈법을 묵인하고 방조한 것’에 대하여 인정하고 실명노동자들에게 사죄할 것’을 요구하였다. 사고의 실체와 규모를 파악하는 데 역량을 투여하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불법파견이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얼마나 큰 혼란을 주는지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와 함께 가장 위험이 큰 집단이 산재보험을 적게 이용하고 사회적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산재를 숨기지 않고 신고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 가운데 해결된 것은 아직 없다.

## IV 기업살인운동, 기업의 시간을 기록하다

일간지 기자가 전화를 해왔다. “기업이 살인을 한다는 겁니까? 참 심하게들 하시네.”

2006년부터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해오면서 많은 언론사가 노동건강연대에 연락했는데, 여전히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이다. 1년에 한 번 하는 작은 이벤트이지만 후보군에 있는 기업들로서는 민감한 일이기 때문에 기업명을 선정식 사전에 유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사전에 순위를 알고 싶어 기업 측에서 연락해오거나, 시상식을 하고 난 후에 ‘왜 우리 회사가 일등이냐, 집계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항의를 해오기도 하였다. 1회 선정식 때, 상을 받는 GS건설 앞에 상장을 들고 찾아가자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기업에서 명예 훼손으로 걸면 어떡할 거냐’고 걱정하기도 하였지만, ‘살인기업’이란 말은 차차 익숙한 시사 용어가 되어갔다. 2012년 롯데월드타워 공사현장에서 노동자사망이 이어지자 보수일간지가 사설을 실어 기업살인법을 언급하여 화들짝 놀랐던 적도 있다.

청계천 소라광장으로 선정식 기자회견 장소를 옮긴 후에는 당시 한류스타였던 이영애 배우가 광고모델을 하는 GS자이 브랜드 광고를 대형 피켓으로 제작하였는데, GS건설이 살인기업 1위에 선정된 것을 알 리 없는 외국 관광객들이 반가워하며 사진을 찍던 장면도 남아있다.

2001년 노동건강연대가 활동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의제로 논의한 산재사망 문제를 운동으로 만들기 위하여 2001년 8월 ‘산재사고처리에 관한 특별법’ 아이디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기 시작하였다. 2002년부터 산재사망사고 처리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토론회를 시작으로 내부 논의를 거쳐 기업살인법

운동(현재 법률명 「중대재해처벌법」)이 시작되었다.

2003년 11월, 노동건강연대는 <산재사망 해결방안은 없는가?> 토론회를 열면서 '왜 노동자가 산재로 희생되어야 하는가'를 기업과 국가를 향해 묻기 시작하였다. 기업살인 운동 초기에 노동건강연대는 STX조선, 현대중공업, 현대제철 같은 대기업의 하청·비정규노동자가 올린 현장속보, 집회소식, 추모사, 요구안 등을 그대로 게시하여 노동자 사망을 기록하였다.

2004년 당시 1월 한 달 현대중공업에서 4명의 노동자가 잇달아 사망하자 현대중공업의 안전담당 이사가 구속되었다. 경총은 '사법권남용', '기업의 경영활동 위축'을 거론하며 '기업 중역을 구속한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공식 입장을 발표하였다. 경총은 대규모 사업장과 중소사업장을 구분하지 않고 구속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항변하였다. 노동건강연대는 당시 경총에 대한 반박 입장을 냈지만, 어디에도 보도되지 않았다. 백도명 노동건강연대 대표는 경총을 향해 '후진국에서나 벌어지는 현실을 부끄러워할 줄부터 알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하는 글을 한겨레 신문에 기고하였다.

노동건강연대의 기업살인운동에서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들과의 연대는 특별하게 기록되어야 할 만큼 지속되었다. 하청노동자 사망과 관련하여 현대중공업의 기관투자자인 노르웨이, 네덜란드 연기금에 서한 발송, 울산지방경찰청에 탄원서 발송, 노동자 사망에 대해서 고발과 기자회견, 정몽준 현대중공업 대주주의 서울시장 출마와 FIFA회장 출마 등에 대하여 대응하는 등 기업감시 활동으로서 할 수 있는 많은 직접행동을 하였다.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들의 활동은 노동자 사망에 대한 원청기업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활동으로 상징성을 갖고 원·하청 관계에서의 사망의 구조적 원인을 공론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2005년 4월, 노동건강연대가 민주노총, 한국노총, 매일노동뉴스와 함께 전경련 회관 앞에서 산재사망대책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5월 노동자대회에서 부스를 운영하고 선전물을 배포하였다. 2006년 4월, 서울역광장에서 '노동자사망사고 최다사업장 명단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GS건설이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되었다. 2007년 현대건설이 '최

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되고 다수 건설사에서 노동자들이 사망하면서 서울 노현동 건설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2년 12월, 한라건설의 울산신항 북방파제 공사현장에서 7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5명이 실종되는 대형 사고가 발생하였다. 실종자 중에는 현장실습 중인 고등학생 홍○○ 학생도 있었다. 당시 한라건설은 덤핑수주라고 불릴 만큼 저가에 공사를 수주하여 다단계 하도급, 무리한 작업 강행 등 논란이 있었다. 홍○○ 학생의 아버지는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원청 한라건설에서 얼굴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한라건설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당시 사고는 주요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채, 한라건설의 이름조차 찾기가 어려운 상태로 조용히 묻혔다. 발주처인 국토해양부 울산해양항만청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었다. 그 후로도 대기업에서, 대기업이 원청인 일터에서 실습생들의 죽음은 이어졌다.

2014년 10월 월성원전. 원전시설의 빨을 제거하기 위해 펌프 밑으로 들어간 권○○ 잠수사가 펌프가 켜진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가 펌프의 날개에 빨려 들어가 사망하였다. 당시 원청 한전KPS 관리자들은 펌프를 멈춰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작업을 강행하였다. 유족과 잠수사 동료들은 봉고차에 시위용품을 싣고 서울로 왔다. 직접 써넣은 플래카드와 대자보를 들고, 아내와 고3 아들이 검은 상복을 입고, 서울 강남의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본사 정문 앞에 서 있었다. 기자도 없었지만 경찰도 없었다. 노동건강연대가 동료의 SNS로 소식을 접하고 한수원 본사 앞으로 달려갔다. 행인들이 눈길도 주지 않는, 물리적 충돌도 없는 빌딩 숲 아래의 시위는 쓸쓸하였다. 유족과 동료들은 발주사 한수원에 시신수습과 사과를 요구하고 있었으나 빌딩 안에서는 답이 없었다.

노동건강연대가 언론사에 국회에 사고를 알리면서 한수원 사장이 국회 국정감사에 불려 나갔지만 법제도적인 변화는 없었다. 공기업이 발주한 공사에서 하청노동자들의 사망은 계속되었다. 당시 권○○ 잠수사의 아내는 '국민을 위한 기업이 선량한 국민을 살인하고 책임을 회피한다'고 절규하였으나 정치, 언론, 시민사회도 이 말에 반응하지 않았다. 잠수사의 동료들이 노동건강연대의 후원자가 된 것이 성과라면 성과라고 할 수도 있겠다.

2012년 5월 성수역에서 방음벽 설치작업을 하던 하청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사망하고, 2013년 1월 성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노동건강연대는 서울메트로 사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공기업 경영자가 하청노동자 사망으로 고발당한 첫 번째 사례라고 알려져 있다. 2015년 8월 29일 강남역 스크린도어 수리를 하던 28세 노동자가 진입하는 지하철에 치여 사망했다. 토요일 저녁, 서울 강남역이었다. 2013년 성수역 사고에 대해서 노동건강연대가 서울메트로를 고발한 건은 무혐의처리가 되었지만 2015년 노동건강연대는 서울메트로를 다시 고발하였다. 1년 후 2016년 6월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19세 김 군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2012년 11월, 현대제철이 충남 당진에 고로3호기를 건설하는 중에 노동자사망이 잇따랐다. 3개월 사이 5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였는데 하청노동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무조건 빨리 끝내야 한다'는 압력을 받는다고 말하였다. 발주처와 원청기업이 가하는 공기단축의 압박은 대부분의 산재사고에서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한다. 당시 현대제철은 노동자의 사망 와중에도 고로의 외형 완성을 축하하면서 '연와정초식'을 열어 '안전'과 '만수(萬壽)'를 연와에 적어 넣었다고 철강업계 신문이 보도하고 있다. 하청노동자의 사망으로 얼룩진 고로를 두고 원청기업이 '만수(萬壽)'를 기원하는 간극에 대하여 노동건강연대는 철강산업 업계 신문의 기사를 모니터링하여 홈페이지에 기록해두었다.

2011년 이마트 탄현점에서의 냉동창고 수리 하청노동자 4명 사망에 대하여 이마트 대표이사를 고발하였으나 사망과 관계없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을 받았을 뿐 4명의 노동자 사망에 대하여 발주처의 책임은 물을 수 없었다.

2012년 9월 전북의 LS그룹계열사에서 20대 노동자 2명이 용광로사고로 사망하였다. 기업의 이름은 언론에 나오지 않았고, 대표이사 구속영장은 기각되었다. 노동건강연대는 서울 인근 LS그룹 계열사에 가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면서 기업 이름을 SNS로 알리고자 했다.

2011년 9월 공항철도 계양역에서 철로 보수작업을 하던 하청노동자 5명이

열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노동건강연대는 코레일 대표이사를 고발하였다.

2013년 현재제철은 노동자 죽음 공장이었다. 5월 하청노동자 5명이 가스 질식으로 사망했다. '대국민사과문'을 냈다. 11월 26일 질식사고가 다시 일어났다. 12월 5일, 현대제철은 일간지에 '대국민사과문' 광고를 다시 냈다. 노동자와 유가족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언론 홍보를 위한 사과였다. 동시에 현대제철은 '근로자들이 왜 시운전을 하기 전에 아르곤 가스를 주입하게 됐는지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은 이미지를 위해서는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하청 노동자들의 부주의로 책임을 전가하는 프레임을 만들어 왔다. 12월 6일에 현대제철 하청노동자가 현장에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간 후 사망했다. 당시 현대제철 홈페이지에 '연탄나눔', '희망의 집수리' 홍보기사는 게재되어 있었지만, 노동자의 사고 소식을 찾을 수 없었다. 일간지에 광고한 '대국민 사과문' 자체도 올라가 있지 않았다.

2013년 6월, 47세의 김○○ 노동자가 롯데월드타워 건설현장에서 거푸집이 추락하면서 사망했다. 롯데는 사고원인을 '작업자의 과실'이라고 발표했다.

2013년 8월 5일 문경 회룡저수지에서 저수지 배수관을 점검하던 만 19세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사망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재하청 업체의 일용직 알바생이었다. 유가족은 노동건강연대, 알바노조, 청년유니온 등과 함께 책임을 회피하는 공공기관을 고발하고 장례를 미루고 싸웠다.

2015년 11월 10일, 노동건강연대는 홈페이지에 '재벌 대기업 현장에서 3명의 하청 노동자가 죽고 9명의 노동자가 다쳤다'면서 한진중공업이 인천공항 2청사를 짓는 현장, 거제도 대우조선 현장, 영암의 현대삼호중공업에서 하루 사이에 일어난 사망의 소식을 전했다. 전국 곳곳 재벌 기업의 생산 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한 것이 이날만은 아니지만, 노동자의 사망이 역사적, 정치·경제적 연원을 갖고 있음을 말하고자 하였다. 2021년의 노동건강연대가 여전히 말하는 것들이기도 하다. 

[노동건강연대 산재사망에 대한 원청 대기업 고발과 결과]

| 날짜         | 사건  | 피고발인(고발이유)  | 고발인                  | 처분결과  |
|------------|---|---|----------------------|---|
| 2004-04-28 | SK건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집단고발                                      | SK건설 14개 건설현장(산안법 위반)                               |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노동건강연대 | 미확인   |
| 2011-07-02 | 이마트 탄현점 냉매가스질식사 (4명 사망)                                   | 이마트 탄현점장 (산안법 위반)                                   | 노동건강연대               | 이마트 탄현점장 벌금 100만원(산안법 위반), 이마트 벌금 100만원   |
| 2012-08-13 | 국립현대미술관 공사현장 화재 (4명 사망, 4명 중상 등 28명 사상)                   | GS건설 및 하청업체 (업무상과실치사상)                              | 노동건강연대               |   |
| 2012-08-23 | LG화학 청주공장 폭발사고(8명 사망)                                     | LG화학 대표 (업무상과실치사상)                                  | 노동건강연대               | LG화학 대표 무혐의, LG화학 벌금 3000만원 (산안법 위반), 재료담당 상무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업무상과실치사상, 산안법 위반), 재료생산 팀장 금고1년 집행유예2년 (업무상과실치사상), 재료생산 계장 금고6월<br>• 집행유예2년 (업무상과실치사상)   |
| 2012-09-10 | 캐스코(주) (LS그룹 계열 자동차 엔진 주물업체)에서 용광로 쇳물이 쏟아지는 사고 (2명 사망)    | 캐스코(주) 대표이사 (산안법 위반)                                | 노동건강연대               | 캐스코(주) 대표이사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무혐의   |
| 2012-09-27 |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누출 [5명 사망, 18명 경상(인근 주민, 사고현장 출동 소방관, 경찰관 등)] | 휴브글로벌 대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2년 (산안법 위반)                    | 민주노총, 노동건강연대 등 8개 단체 | 노동부장관 등 5명(미확인)   |
| 2013-01-28 | 삼성전자 화성공장 불산누출사건(1명 사망)                                   | 삼성전자, STI, 삼성전자 임직원4명, STI 임직원3명 (업무상과실치사상, 산안법 위반) |                      | 삼성전자 무죄,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센터장(전무) 무죄, 삼성전자 캐미컬파트장 벌금500만원 (업무상과실치사상 인정), 삼성전자 캐미컬파트 담당자 벌금700만원 (업무상과실치사상 인정), 삼성전자 유독물관리자 벌금300만원 (업무상과실치사상 인정), STI 벌금1000만원 (산안법 위반 인정), STI전무 벌금700만원 (업무상과실치사상, 산안법 위반 인정), STI 안전관리자 벌금500만원 (업무상과실치사상 인정), STI 안전담당자 벌금400만원 (업무상과실치사상 인정) |

|                         |  |                                      |                          |   |
|-------------------------|--|--------------------------------------|--------------------------|---|
| 2013-01-19              | 성수역 스크린도어 점검 중 스크린도어와 열차에 끼여 사망 (1명 사망)  | 서울메트로 대표(산안법 위반)                     |                          | 서울메트로 대표 무혐의, 서울메트로 무혐의, 은성PSD 대표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명령200시간 (업무상과실치사, 산안법 위반 인정), 은성PSD 벌금3000만원, 성수역 역무원(부역장) 벌금500만원(업무상과실치사 인정), 성수역 역무원(과장) 벌금500만원 (업무상과실치사 인정), 서울메트로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등에 관한 사항 총괄관리담당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추정) 벌금500만원, 서울메트로 기술본부 A부서 팀장 벌금800만원, 서울메트로 기술본부 A부서장 벌금1000만원(업무상과실치사 인정), 서울메트로 업무전반총괄자 벌금1000만원(업무상과실치사 인정) |
| 2013-02-15 ~ 2013-03-07 |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2명 연속 사망, 컨테이너선에 블록 탑재 작업 중 대형 블록이 떨어져 노동자를 덮쳐 사망 (1명 사망), 해치 커버 닫는 작업 중 떨어져 사망 (1명 사망) | 대우조선해양 대표(산안법 위반)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노동건강연대        | 미확인   |
| 2013-05-10              | 현대제철 아르곤가스 중독 하청노동자 사망(5명 사망)  | 현대제철, 현대제철 대표이사, 현대제철 임직원6명 (산안법 위반) | 충남노동인권센터, 노동건강연대 등 4개 단체 | 현대제철 벌금5000만원, 현대제철 대표 2명 무혐의, 현대제철 생산본부장(부사장) 징역2년 집행유예3년, 현대제철 제강기계팀 팀장 금고1년6월 집행유예2년, 현대제철 제강기계팀 차장 금고1년6월 집행유예2년, 현대제철 제강1부주임 금고1년6월 집행유예2년, 현대제철 제강기계팀 대리 금고1년 집행유예2년, 현대제철 제강기계팀 사원 금고1년 집행유예2년   |
| 2014-01-21              | 우체국 집배원 사고 사망 고발 (2명 사망, 2명 중상)  | 우정사업본부장,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산안법 위반)          | 노동건강연대                   | 미확인   |

|   |   |               |   |
|---|---|---------------|---|
| <p>현대제철 5명 연속사망 [2013-10-29 당진공장 건설현장 노동자 추락하여 사망 (1명 사망), 2013-11-26 당진공장 가스 질식 (1명 사망, 8명 병원에 후송), 2013-12-02 공장 지붕이 무너지면서 추락하여 사망(1명 사망), 2013-12-06 방열복도 지급받지 못한 채 용광로 점검을 하던 노동자 탈진하여 사망(1명 사망), 2014-01-19 당진공장 냉각수 점검 노동자 냉각수에 빠져 병원에 후송된 후 사망 (23일, 1명 사망)]</p> | <p>현대제철 공동 대표(산안법 위반)</p>                             | <p>노동건강연대</p> | <p>현대제철 공동 대표 무혐의 처분</p>  |
| <p>현대중공업 그룹 하청노동자 6명 연속 사망 [2014-03-07 현대삼호중공업 하청노동자 철판에 깔려 사망(1명 사망), 2014-03-20 현대삼호중공업 하청노동자 작업계단 설치하다 추락하여 사망(1명 사망) / 2014-04-07 현대미포조선 하청노동자 추락하여 사망(1명 사망) / 2014-03-25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바다에 떨어져 사망(1명 사망), 2014-04-21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화재로 사망(2명 사망)]</p>                 | <p>현대삼호중공업 대표이사,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현대미포조선 대표이사 (산안법 위반)</p> | <p>노동건강연대</p> | <p>현대삼호중공업 100만원 벌금(2건의 사망 사고 중 한건에 대한 벌금) / 현대중공업 벌금1500만원, 현대중공업 대표 무죄, 현대중공업 조선사업 본부장 징역8월 집행유예2년, 현대중공업 건조3부장 금고6월 집행유예2년, 현대중공업 조선안전1부 직원 금고6월 집행유예2년, 현대중공업 1야드 기술관리부장 금고4월 집행유예2년, 현대중공업 조선안전2부장 금고4월 집행유예2년, 하청업체2 벌금1000만원, 하청업체2 대표 징역6월 집행유예2년, 하청업체2 현장소장 금고6월 집행유예2년, 하청업체2 작업반장 금고6월 집행유예2년, 하청업체3 벌금1000만원, 하청업체3 대표 징역8월 집행유예2년, 하청업체3 현장소장 금고8월 집행유예2년, 하청업체4 대표 징역8월 집행유예2년, 하청업체4 현장책임자 금고6월 집행유예2년, 하청업체5 대표 징역6월 집행유예2년, 하청업체5 현장소장 금고6월 집행유예2년, 하청업체5 작업반장 금고6월 집행유예2년 / 현대미포조선 벌금500만원, 현대미포조선 대표 징역4월 집행유예1년, 하청업체1 벌금500만원, 하청업체1 대표 징역6월 집행유예2년</p> |

|   |  |   |  |  |
|---|--|---|--|--|
| <p>2014-04-26</p>   | <p>현대중공업에서 샌딩작업을 하던 하청노동자가 에어호스에 목이 감긴 채 사망. 산재사망을 자살로 은폐하려 했던 사건(1명 사망)</p> | <p>현대중공업 안전경영부관리자 및 사건현장출동 경찰관(산안법 위반)</p>                      | <p>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건강연대</p> | <p>현대중공업 안전경영부관리자 및 사건현장출동 경찰관 무혐의(증거불충분)</p>  |
| <p>2015-07-29</p>   | <p>산재 사고를 은폐하려 구급차를 돌려보내고, 회사차로 회사 지정 병원으로 옮기다 과다출혈로 사망 (1명 사망)</p>          | <p>에버코스, 에버코스 대표이사 등 [(부작위에 의한)살인, 업무상과실치사, 증거인멸, 산안법 위반 등]</p> | <p>노동건강연대</p>                                | <p>에버코스 벌금700만원, 에버코스 대표 벌금700만원, 구매팀장(현장지휘자) 금고8월 집행유예2년, 지게차 운전자 금고10월 집행유예2년</p>  |
| <p>2015-08-29</p>   | <p>강남역 스크린도어 점검 중 스크린도어와 열차 사이에 끼어 사망(1명 사망)</p>                             | <p>서울메트로 대표, 서울메트로, (주)유진메트로컴 대표, (주)유진메트로컴 (산안법 위반)</p>        |  | <p>서울메트로 대표 무죄, 서울메트로 무죄, (주)유진메트로컴(하청) 벌금1000만원, (주)유진메트로컴 대표 벌금2000만원, (주)유진메트로컴 기술본부장 벌금1000만원, 서울메트로 강남역부역장 무죄, 서울메트로 지하철CM센터장 (강남역총괄관리자) 무죄</p> |
| <p>2017년 이전</p>   | <p>메탄올 중독으로 인해 실명한 피해자 추가 발생 (6명 실명 확인)</p>                                  | <p>노동부 장관 2명, 노동부 안산지청장 (직무유기)</p>                              |  | <p>미확인</p>   |
| <p>2018-08-06 C.J 대한통운 대전서부 물류센터에서 택배 상하차 업무를 하던 노동자 감전 사고 (8-16 1명 사망), 2018-10-29 트레일러에 치임 사고 (1명 사망)</p> |  | <p>CJ 대한통운 공동 대표(산안법 위반)</p>                                    | <p>아르바이트노동조합, 노동건강연대</p>                     | <p>CJ 대한통운 공동 대표 무혐의(증거불충분), CJ 대한통운 과태료 650만원</p>   |
| <p>2018-12-11</p>   | <p>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1명 사망)</p>                                      | <p>한국서부발전, 한국서부발전 대표, 한국발전기술, 한국발전기술 대표 등 16명 (살인죄, 산안법 위반)</p> | <p>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조합, 노동건강연대 등</p>            | <p>• 피고발인 전원 살인죄 무혐의, 한국서부발전 대표 및 한국발전기술 대표 등 7명 업무상과실치사죄 무혐의,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본부장 등 7명 업무상과실치사 기소의견 송치<br/>• 2021. 7월 현재 사건 진행 중</p>                  |

[역대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 선정식           | 날짜        | 장소         | 최악의 살인기업 | 살인기업 명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2006.4.26 | 서울역광장      | GS건설(주)  | <b>7대 노동자사망사고 최다 사업장 명단</b><br><table border="1"> <tr><td>GS건설(주)</td><td>9명</td><td>1건</td></tr> <tr><td>현대중공업(주)</td><td>4명</td><td>4건</td></tr> <tr><td>시온클럽</td><td>4명</td><td>1건</td></tr> <tr><td>현대자동차(주) 울산공장</td><td>3명</td><td>3건</td></tr> <tr><td>두산중공업(주)</td><td>3명</td><td>3건</td></tr> <tr><td>포스코</td><td>3명</td><td>3건</td></tr> <tr><td>나눔건설(주)</td><td>3명</td><td>1건</td></tr> </table>   | GS건설(주) | 9명  | 1건 | 현대중공업(주) | 4명 | 4건 | 시온클럽 | 4명 | 1건 | 현대자동차(주) 울산공장 | 3명 | 3건 | 두산중공업(주) | 3명 | 3건 | 포스코  | 3명 | 3건 | 나눔건설(주) | 3명 | 1건 |        |    |    |          |    |    |
|               | GS건설(주)   | 9명         | 1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대중공업(주)      | 4명        | 4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온클럽          | 4명        | 1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대자동차(주) 울산공장 | 3명        | 3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두산중공업(주)      | 3명        | 3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포스코           | 3명        | 3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눔건설(주)       | 3명        | 1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2007.4.26 | 대한건설협회 앞   | 현대건설     | <b>살인기업 명단 - 기업별</b><br><table border="1"> <tr><td>현대건설</td><td>10명</td><td>8건</td></tr> <tr><td>대림산업</td><td>8명</td><td>8건</td></tr> <tr><td>SK건설</td><td>8명</td><td>8건</td></tr> <tr><td>삼성물산</td><td>7명</td><td>7건</td></tr> <tr><td>GS건설(주)</td><td>7명</td><td>7건</td></tr> <tr><td>롯데건설</td><td>6명</td><td>6건</td></tr> <tr><td>풍림산업</td><td>6명</td><td>6건</td></tr> <tr><td>현대산업개발</td><td>6명</td><td>6건</td></tr> <tr><td>현대중공업(주)</td><td>6명</td><td>6건</td></tr> </table><br><b>살인기업 명단 - 단일 현장별</b><br>• 에이스종합건설: 에이스하이테크 신축공사 단일현장에서 4명 사망<br><b>최악의 협회상</b><br>• 대한건설협회: 사망재해 최악의 기업 9개 중 8개가 속한 협회 | 현대건설    | 10명 | 8건 | 대림산업     | 8명 | 8건 | SK건설 | 8명 | 8건 | 삼성물산          | 7명 | 7건 | GS건설(주)  | 7명 | 7건 | 롯데건설 | 6명 | 6건 | 풍림산업    | 6명 | 6건 | 현대산업개발 | 6명 | 6건 | 현대중공업(주) | 6명 | 6건 |
|               | 현대건설      | 10명        | 8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림산업          | 8명        | 8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SK건설          | 8명        | 8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삼성물산          | 7명        | 7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GS건설(주)       | 7명        | 7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롯데건설          | 6명        | 6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풍림산업          | 6명        | 6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대산업개발        | 6명        | 6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대중공업(주)      | 6명        | 6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2008.4.28 | 한국타이어 본사 앞 | 한국타이어    | <b>최악의 살인기업</b><br>• 한국타이어: 2006년부터 약 1년 6개월 동안 15명의 노동자가 사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9.4.27 | 서울 청계광장    | 코리아2000  | <b>최악의 살인기업</b><br>• 코리아2000: 이천 화재사고 원청 기업. 40명 사망<br><b>특별상 '니들이 고생이 많다~'</b><br>• 노동부 이영희 장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2010.4.27 | 서울 청계광장 | GS건설(주) | <b>살인기업 명단 - 건설업</b><br><table border="1"> <tr><td>GS건설(주)</td><td>14명</td></tr> <tr><td>대림산업</td><td>9명</td></tr> <tr><td>경남기업</td><td>8명</td></tr> <tr><td>서희건설</td><td>8명</td></tr> <tr><td>쌍용건설</td><td>8명</td></tr> <tr><td>현대산업개발</td><td>8명</td></tr> </table><br><b>살인기업 명단 - 제조업</b><br>• 대우조선해양: 6명 사망  | GS건설(주) | 14명 | 대림산업    | 9명  | 경남기업    | 8명 | 서희건설    | 8명 | 쌍용건설    | 8명 | 현대산업개발  | 8명 |       |    |             |    |       |    |         |    |         |    |
|             | GS건설(주)   | 14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림산업        | 9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남기업        | 8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희건설        | 8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쌍용건설        | 8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대산업개발      | 8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 2011.4.25 | 서울 청계광장 | 대우건설    | <b>살인기업 명단 - 건설업</b><br><table border="1"> <tr><td>대우건설</td><td>13명</td></tr> <tr><td>현대건설(주)</td><td>11명</td></tr> <tr><td>GS건설(주)</td><td>9명</td></tr> <tr><td>포스코건설</td><td>8명</td></tr> <tr><td>대림건설</td><td>7명</td></tr> </table><br><b>살인기업 명단 - 제조업</b><br><table border="1"> <tr><td>대우조선해양</td><td>5명</td></tr> <tr><td>현대제철</td><td>5명</td></tr> <tr><td>삼호조선</td><td>4명</td></tr> <tr><td>동국제강</td><td>4명</td></tr> </table><br><b>특별상</b><br>• 이명박 대통령<br>• 4대강 공사에서 2009년 8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총 20명의 노동자가 사망.  | 대우건설    | 13명 | 현대건설(주) | 11명 | GS건설(주) | 9명 | 포스코건설   | 8명 | 대림건설    | 7명 | 대우조선해양  | 5명 | 현대제철  | 5명 | 삼호조선        | 4명 | 동국제강  | 4명 |         |    |         |    |
|             | 대우건설      | 13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대건설(주)     | 11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GS건설(주)     | 9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포스코건설       | 8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림건설        | 7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우조선해양      | 5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대제철        | 5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삼호조선        | 4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동국제강        | 4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 2012.4.26 | 서울 청계광장 | 현대건설(주) | <b>살인기업 명단 - 건설업</b><br><table border="1"> <tr><td>현대건설(주)</td><td>10명</td></tr> <tr><td>GS건설(주)</td><td>7명</td></tr> <tr><td>롯데건설(주)</td><td>7명</td></tr> <tr><td>SK건설(주)</td><td>6명</td></tr> <tr><td>(주)대우건설</td><td>6명</td></tr> </table><br><b>살인기업 명단 - 제조업</b><br><table border="1"> <tr><td>STX조선해양</td><td>5명</td></tr> <tr><td>TK케미칼</td><td>5명</td></tr> <tr><td>트레인코리아(이마트)</td><td>4명</td></tr> <tr><td>세진중공업</td><td>4명</td></tr> <tr><td>현대제철(주)</td><td>3명</td></tr> <tr><td>임천공업(주)</td><td>3명</td></tr> </table><br><b>특별상</b><br>• 삼성<br>• 삼성 반도체에서 독성 화학물질과 방사선에 노출된 노동자들이 암과 희귀질환에 걸린 사실이 알려짐. 삼성은 반도체 공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함. | 현대건설(주) | 10명 | GS건설(주) | 7명  | 롯데건설(주) | 7명 | SK건설(주) | 6명 | (주)대우건설 | 6명 | STX조선해양 | 5명 | TK케미칼 | 5명 | 트레인코리아(이마트) | 4명 | 세진중공업 | 4명 | 현대제철(주) | 3명 | 임천공업(주) | 3명 |
|             | 현대건설(주)   | 10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GS건설(주)     | 7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롯데건설(주)     | 7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SK건설(주)     | 6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대우건설     | 6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STX조선해양     | 5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TK케미칼       | 5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트레인코리아(이마트) | 4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진중공업       | 4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대제철(주)     | 3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임천공업(주)     | 3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 2013.4.25 | 서울 청계광장 | 한라건설        | <p><b>살인기업 명단 - 건설업</b></p> <table border="1"> <tr><td>한라건설</td><td>14명</td></tr> <tr><td>GS건설(주)</td><td>8명</td></tr> <tr><td>포스코건설</td><td>7명</td></tr> <tr><td>(주)대우건설</td><td>6명</td></tr> <tr><td>태영건설</td><td>6명</td></tr> </table> <p><b>살인기업 명단 - 제조업</b></p> <table border="1"> <tr><td>LG화학</td><td>8명</td></tr> <tr><td>휴브글로벌</td><td>5명</td></tr> <tr><td>아미코트</td><td>4명</td></tr> <tr><td>포스코</td><td>3명</td></tr> </table> <p><b>네티즌이 뽑은 특별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삼성</li> <li>• 삼성이 70.1%의 득표율로 특별상에 선정됨.</li> </ul> | 한라건설 | 14명  | GS건설(주) | 8명   | 포스코건설 | 7명   | (주)대우건설          | 6명  | 태영건설  | 6명  | LG화학        | 8명  | 휴브글로벌 | 5명  | 아미코트  | 4명  | 포스코  | 3명 |      |    |
|                  | 한라건설      | 14명     |             |   |      |      |         |      |       |      |                  |     |       |     |             |     |       |     |       |     |      |    |      |    |
| GS건설(주)          | 8명        |         |             |   |      |      |         |      |       |      |                  |     |       |     |             |     |       |     |       |     |      |    |      |    |
| 포스코건설            | 7명        |         |             |   |      |      |         |      |       |      |                  |     |       |     |             |     |       |     |       |     |      |    |      |    |
| (주)대우건설          | 6명        |         |             |   |      |      |         |      |       |      |                  |     |       |     |             |     |       |     |       |     |      |    |      |    |
| 태영건설             | 6명        |         |             |   |      |      |         |      |       |      |                  |     |       |     |             |     |       |     |       |     |      |    |      |    |
| LG화학             | 8명        |         |             |   |      |      |         |      |       |      |                  |     |       |     |             |     |       |     |       |     |      |    |      |    |
| 휴브글로벌            | 5명        |         |             |   |      |      |         |      |       |      |                  |     |       |     |             |     |       |     |       |     |      |    |      |    |
| 아미코트             | 4명        |         |             |   |      |      |         |      |       |      |                  |     |       |     |             |     |       |     |       |     |      |    |      |    |
| 포스코              | 3명        |         |             |   |      |      |         |      |       |      |                  |     |       |     |             |     |       |     |       |     |      |    |      |    |
| 9                | 2014.7.09 | 서울 청계광장 | 현대제철, 대우건설  | <p><b>살인기업 명단</b></p> <table border="1"> <tr><td>현대제철</td><td>10명</td></tr> <tr><td>(주)대우건설</td><td>10명</td></tr> <tr><td>대림산업</td><td>9명</td></tr> <tr><td>천호건설, 중흥건설, 신한건설</td><td>7명</td></tr> <tr><td>롯데건설</td><td>6명</td></tr> <tr><td>현대건설</td><td>5명</td></tr> <tr><td>서희건설</td><td>5명</td></tr> <tr><td>포스코건설</td><td>5명</td></tr> <tr><td>한신공영</td><td>5명</td></tr> <tr><td>SK건설</td><td>5명</td></tr> </table> <p><b>특별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개혁위원회</li> <li>• 다발하는 산재사고와 각종 안전사고의 책임주체로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선정함.</li> </ul>       | 현대제철 | 10명  | (주)대우건설 | 10명  | 대림산업  | 9명   | 천호건설, 중흥건설, 신한건설 | 7명  | 롯데건설  | 6명  | 현대건설        | 5명  | 서희건설  | 5명  | 포스코건설 | 5명  | 한신공영 | 5명 | SK건설 | 5명 |
|                  | 현대제철      | 10명     |             |   |      |      |         |      |       |      |                  |     |       |     |             |     |       |     |       |     |      |    |      |    |
| (주)대우건설          | 10명       |         |             |   |      |      |         |      |       |      |                  |     |       |     |             |     |       |     |       |     |      |    |      |    |
| 대림산업             | 9명        |         |             |   |      |      |         |      |       |      |                  |     |       |     |             |     |       |     |       |     |      |    |      |    |
| 천호건설, 중흥건설, 신한건설 | 7명        |         |             |   |      |      |         |      |       |      |                  |     |       |     |             |     |       |     |       |     |      |    |      |    |
| 롯데건설             | 6명        |         |             |   |      |      |         |      |       |      |                  |     |       |     |             |     |       |     |       |     |      |    |      |    |
| 현대건설             | 5명        |         |             |   |      |      |         |      |       |      |                  |     |       |     |             |     |       |     |       |     |      |    |      |    |
| 서희건설             | 5명        |         |             |   |      |      |         |      |       |      |                  |     |       |     |             |     |       |     |       |     |      |    |      |    |
| 포스코건설            | 5명        |         |             |   |      |      |         |      |       |      |                  |     |       |     |             |     |       |     |       |     |      |    |      |    |
| 한신공영             | 5명        |         |             |   |      |      |         |      |       |      |                  |     |       |     |             |     |       |     |       |     |      |    |      |    |
| SK건설             | 5명        |         |             |   |      |      |         |      |       |      |                  |     |       |     |             |     |       |     |       |     |      |    |      |    |
| 10               | 2015.4.13 | 광화문 광장  | 현대건설, 현대중공업 | <p><b>10년간 산재사망 50대 기업 명단</b></p> <table border="1"> <tr><td>현대건설</td><td>110명</td></tr> <tr><td>대우건설</td><td>102명</td></tr> <tr><td>GS건설</td><td>101명</td></tr> <tr><td>우정사업본부</td><td>75명</td></tr> <tr><td>현대중공업</td><td>74명</td></tr> <tr><td>삼성물산(주)건설부문</td><td>69명</td></tr> <tr><td>대림산업</td><td>62명</td></tr> <tr><td>롯데건설</td><td>61명</td></tr> </table>  | 현대건설 | 110명 | 대우건설    | 102명 | GS건설  | 101명 | 우정사업본부           | 75명 | 현대중공업 | 74명 | 삼성물산(주)건설부문 | 69명 | 대림산업  | 62명 | 롯데건설  | 61명 |      |    |      |    |
| 현대건설             | 110명      |         |             |   |      |      |         |      |       |      |                  |     |       |     |             |     |       |     |       |     |      |    |      |    |
| 대우건설             | 102명      |         |             |   |      |      |         |      |       |      |                  |     |       |     |             |     |       |     |       |     |      |    |      |    |
| GS건설             | 101명      |         |             |   |      |      |         |      |       |      |                  |     |       |     |             |     |       |     |       |     |      |    |      |    |
| 우정사업본부           | 75명       |         |             |   |      |      |         |      |       |      |                  |     |       |     |             |     |       |     |       |     |      |    |      |    |
| 현대중공업            | 74명       |         |             |   |      |      |         |      |       |      |                  |     |       |     |             |     |       |     |       |     |      |    |      |    |
| 삼성물산(주)건설부문      | 69명       |         |             |   |      |      |         |      |       |      |                  |     |       |     |             |     |       |     |       |     |      |    |      |    |
| 대림산업             | 62명       |         |             |   |      |      |         |      |       |      |                  |     |       |     |             |     |       |     |       |     |      |    |      |    |
| 롯데건설             | 61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     | <p><b>2013 살인기업 선정식</b><br/>2013 Corporate Killing Awards</p> | <table border="1"> <tr><td>포스코건설/건설일괄</td><td>59명</td></tr> <tr><td>사조산업(오룡호)</td><td>53명</td></tr> <tr><td>SK건설</td><td>53명</td></tr> <tr><td>원진레이온</td><td>50명</td></tr> <tr><td>한국철도공사</td><td>47명</td></tr> <tr><td>현대산업개발</td><td>45명</td></tr> <tr><td>현대자동차</td><td>45명</td></tr> <tr><td>두산건설</td><td>44명</td></tr> <tr><td>대우조선해양</td><td>39명</td></tr> <tr><td>동부건설</td><td>38명</td></tr> <tr><td>유성엔지니어링</td><td>37명</td></tr> <tr><td>현대제철</td><td>37명</td></tr> <tr><td>포스코</td><td>36명</td></tr> <tr><td>경남기업</td><td>35명</td></tr> <tr><td>CJ대한통운</td><td>33명</td></tr> <tr><td>한진중공업건설부문</td><td>32명</td></tr> <tr><td>서희건설</td><td>28명</td></tr> <tr><td>두산중공업</td><td>28명</td></tr> <tr><td>한화건설</td><td>27명</td></tr> <tr><td>삼성중공업</td><td>27명</td></tr> <tr><td>금호산업건설</td><td>26명</td></tr> <tr><td>삼성엔지니어링</td><td>26명</td></tr> <tr><td>한신공영</td><td>25명</td></tr> <tr><td>LG전자</td><td>25명</td></tr> <tr><td>기아자동차</td><td>23명</td></tr> <tr><td>한전KPS</td><td>23명</td></tr> <tr><td>코오롱글로벌</td><td>22명</td></tr> <tr><td>삼성전자</td><td>21명</td></tr> <tr><td>극동건설</td><td>21명</td></tr> <tr><td>KCC건설</td><td>21명</td></tr> <tr><td>계룡건설산업</td><td>20명</td></tr> <tr><td>벽산건설</td><td>20명</td></tr> <tr><td>제일E&amp;S</td><td>20명</td></tr> <tr><td>태영건설</td><td>20명</td></tr> <tr><td>쌍용건설</td><td>19명</td></tr> <tr><td>한라건설</td><td>19명</td></tr> <tr><td>KT</td><td>18명</td></tr> <tr><td>한국타이어</td><td>18명</td></tr> <tr><td>교촌치킨</td><td>18명</td></tr> <tr><td>LG화학</td><td>16명</td></tr> <tr><td>고려개발</td><td>16명</td></tr> <tr><td>삼부토건</td><td>16명</td></tr> <tr><td>한라</td><td>16명</td></tr> <tr><td>한양</td><td>16명</td></tr> </table> | 포스코건설/건설일괄 | 59명 | 사조산업(오룡호) | 53명 | SK건설 | 53명 | 원진레이온 | 50명 | 한국철도공사 | 47명 | 현대산업개발 | 45명 | 현대자동차 | 45명 | 두산건설 | 44명 | 대우조선해양 | 39명 | 동부건설 | 38명 | 유성엔지니어링 | 37명 | 현대제철 | 37명 | 포스코 | 36명 | 경남기업 | 35명 | CJ대한통운 | 33명 | 한진중공업건설부문 | 32명 | 서희건설 | 28명 | 두산중공업 | 28명 | 한화건설 | 27명 | 삼성중공업 | 27명 | 금호산업건설 | 26명 | 삼성엔지니어링 | 26명 | 한신공영 | 25명 | LG전자 | 25명 | 기아자동차 | 23명 | 한전KPS | 23명 | 코오롱글로벌 | 22명 | 삼성전자 | 21명 | 극동건설 | 21명 | KCC건설 | 21명 | 계룡건설산업 | 20명 | 벽산건설 | 20명 | 제일E&S | 20명 | 태영건설 | 20명 | 쌍용건설 | 19명 | 한라건설 | 19명 | KT | 18명 | 한국타이어 | 18명 | 교촌치킨 | 18명 | LG화학 | 16명 | 고려개발 | 16명 | 삼부토건 | 16명 | 한라 | 16명 | 한양 | 16명 |
|           |  |   | 포스코건설/건설일괄  | 59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조산업(오룡호) | 53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SK건설      | 53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원진레이온     | 50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국철도공사    | 47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대산업개발    | 45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대자동차     | 45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두산건설      | 44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우조선해양    | 39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동부건설      | 38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성엔지니어링   | 37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대제철      | 37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포스코       | 36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남기업      | 35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CJ대한통운    | 33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진중공업건설부문 | 32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희건설      | 28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두산중공업     | 28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화건설      | 27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삼성중공업     | 27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금호산업건설    | 26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삼성엔지니어링   | 26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신공영      | 25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LG전자      | 25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아자동차     | 23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전KPS     | 23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코오롱글로벌    | 22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삼성전자      | 21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극동건설      | 21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KCC건설     | 21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룡건설산업    | 20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벽산건설      | 20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일E&S     | 20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태영건설      | 20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쌍용건설      | 19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라건설      | 19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KT        | 18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국타이어     | 18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촌치킨      | 18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LG화학      | 16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려개발      | 16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삼부토건      | 16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라        | 16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양        | 16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  | <p><b>2014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b></p>                               | <table border="1"> <tr><td>포스코건설/건설일괄</td><td>59명</td></tr> <tr><td>사조산업(오룡호)</td><td>53명</td></tr> <tr><td>SK건설</td><td>53명</td></tr> <tr><td>원진레이온</td><td>50명</td></tr> <tr><td>한국철도공사</td><td>47명</td></tr> <tr><td>현대산업개발</td><td>45명</td></tr> <tr><td>현대자동차</td><td>45명</td></tr> <tr><td>두산건설</td><td>44명</td></tr> <tr><td>대우조선해양</td><td>39명</td></tr> <tr><td>동부건설</td><td>38명</td></tr> <tr><td>유성엔지니어링</td><td>37명</td></tr> <tr><td>현대제철</td><td>37명</td></tr> <tr><td>포스코</td><td>36명</td></tr> <tr><td>경남기업</td><td>35명</td></tr> <tr><td>CJ대한통운</td><td>33명</td></tr> <tr><td>한진중공업건설부문</td><td>32명</td></tr> <tr><td>서희건설</td><td>28명</td></tr> <tr><td>두산중공업</td><td>28명</td></tr> <tr><td>한화건설</td><td>27명</td></tr> <tr><td>삼성중공업</td><td>27명</td></tr> <tr><td>금호산업건설</td><td>26명</td></tr> <tr><td>삼성엔지니어링</td><td>26명</td></tr> <tr><td>한신공영</td><td>25명</td></tr> <tr><td>LG전자</td><td>25명</td></tr> <tr><td>기아자동차</td><td>23명</td></tr> <tr><td>한전KPS</td><td>23명</td></tr> <tr><td>코오롱글로벌</td><td>22명</td></tr> <tr><td>삼성전자</td><td>21명</td></tr> <tr><td>극동건설</td><td>21명</td></tr> <tr><td>KCC건설</td><td>21명</td></tr> <tr><td>계룡건설산업</td><td>20명</td></tr> <tr><td>벽산건설</td><td>20명</td></tr> <tr><td>제일E&amp;S</td><td>20명</td></tr> <tr><td>태영건설</td><td>20명</td></tr> <tr><td>쌍용건설</td><td>19명</td></tr> <tr><td>한라건설</td><td>19명</td></tr> <tr><td>KT</td><td>18명</td></tr> <tr><td>한국타이어</td><td>18명</td></tr> <tr><td>교촌치킨</td><td>18명</td></tr> <tr><td>LG화학</td><td>16명</td></tr> <tr><td>고려개발</td><td>16명</td></tr> <tr><td>삼부토건</td><td>16명</td></tr> <tr><td>한라</td><td>16명</td></tr> <tr><td>한양</td><td>16명</td></tr> </table> | 포스코건설/건설일괄 | 59명 | 사조산업(오룡호) | 53명 | SK건설 | 53명 | 원진레이온 | 50명 | 한국철도공사 | 47명 | 현대산업개발 | 45명 | 현대자동차 | 45명 | 두산건설 | 44명 | 대우조선해양 | 39명 | 동부건설 | 38명 | 유성엔지니어링 | 37명 | 현대제철 | 37명 | 포스코 | 36명 | 경남기업 | 35명 | CJ대한통운 | 33명 | 한진중공업건설부문 | 32명 | 서희건설 | 28명 | 두산중공업 | 28명 | 한화건설 | 27명 | 삼성중공업 | 27명 | 금호산업건설 | 26명 | 삼성엔지니어링 | 26명 | 한신공영 | 25명 | LG전자 | 25명 | 기아자동차 | 23명 | 한전KPS | 23명 | 코오롱글로벌 | 22명 | 삼성전자 | 21명 | 극동건설 | 21명 | KCC건설 | 21명 | 계룡건설산업 | 20명 | 벽산건설 | 20명 | 제일E&S | 20명 | 태영건설 | 20명 | 쌍용건설 | 19명 | 한라건설 | 19명 | KT | 18명 | 한국타이어 | 18명 | 교촌치킨 | 18명 | LG화학 | 16명 | 고려개발 | 16명 | 삼부토건 | 16명 | 한라 | 16명 | 한양 | 16명 |
|           |  |   | 포스코건설/건설일괄  | 59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조산업(오룡호) | 53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SK건설      | 53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원진레이온     | 50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국철도공사    | 47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대산업개발    | 45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대자동차     | 45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두산건설      | 44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우조선해양    | 39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동부건설      | 38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성엔지니어링   | 37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대제철      | 37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포스코       | 36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남기업      | 35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CJ대한통운    | 33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진중공업건설부문 | 32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희건설      | 28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두산중공업     | 28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화건설      | 27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삼성중공업     | 27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금호산업건설    | 26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삼성엔지니어링   | 26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신공영      | 25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LG전자      | 25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아자동차     | 23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전KPS     | 23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코오롱글로벌    | 22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삼성전자      | 21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극동건설      | 21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KCC건설     | 21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룡건설산업    | 20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벽산건설      | 20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일E&S     | 20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태영건설      | 20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쌍용건설      | 19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라건설      | 19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KT        | 18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국타이어     | 18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촌치킨      | 18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LG화학      | 16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려개발      | 16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삼부토건      | 16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라        | 16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양        | 16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 2016.4.15   | 광화문 세월호광장 | 삼성서울병원 | <p><b>최악의 시민재해 살인기업</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삼성서울병원</li> <li>• 메르스 사전 예방 조치 실패, 역학조사를 방해·지연하여 메르스 사태를 확산함.</li> </ul> <p><b>특별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병관리본부: 전염병을 방지하고 대응 역량 부족으로 메르스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38명 사망, 186명 확진, 16,725명 격리 결과를 낳음</li> <li>• 가슴기 살균제 제조 판매기업</li> </ul>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table border="1"> <tr> <td>가슴기 살균제 판매기업</td> <td>가슴기 살균제 제조기업</td> </tr> <tr> <td>옥시레킷벤치저</td> <td>SK케미칼</td> </tr> <tr> <td>애경산업</td> <td>한빛화학</td> </tr> <tr> <td>롯데쇼핑</td> <td>용마산업사</td> </tr> <tr> <td>홈플러스</td> <td>제터러바이오</td> </tr> <tr> <td>세류</td> <td>산도깨비</td> </tr> <tr> <td>이마트</td> <td>홈케어</td> </tr> <tr> <td>코스트코</td> <td>퓨엔코</td> </tr> <tr> <td>GS리테일</td> <td>아토오가닉</td> </tr> <tr> <td>다이소</td> <td>아토세이프</td> </tr> <tr> <td>엔워드</td> <td>파란하늘 맑은 가슴기</td> </tr> <tr> <td></td> <td>맑은나라 가슴기 살균제</td> </tr> </table>     | 가슴기 살균제 판매기업 | 가슴기 살균제 제조기업 | 옥시레킷벤치저 | SK케미칼 | 애경산업   | 한빛화학 | 롯데쇼핑  | 용마산업사 | 홈플러스 | 제터러바이오 | 세류       | 산도깨비 | 이마트    | 홈케어 | 코스트코 | 퓨엔코 | GS리테일   | 아토오가닉 | 다이소 | 아토세이프 | 엔워드 | 파란하늘 맑은 가슴기 |  |
| 가슴기 살균제 판매기업  | 가슴기 살균제 제조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옥시레킷벤치저   | SK케미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애경산업  | 한빛화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롯데쇼핑  | 용마산업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홈플러스  | 제터러바이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류  | 산도깨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마트   | 홈케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코스트코  | 퓨엔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GS리테일   | 아토오가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이소   | 아토세이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엔워드   | 파란하늘 맑은 가슴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맑은나라 가슴기 살균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 2016.4.27   | 서울 청계광장   | 한화케미칼  | <p><b>살인기업 명단</b></p> <table border="1"> <tr> <td>한화케미칼</td> <td>6명</td> </tr> <tr> <td>한국철도공사</td> <td>10명</td> </tr> <tr> <td>대우조선해양</td> <td>9명</td> </tr> <tr> <td>포스코건설</td> <td>7명</td> </tr> <tr> <td>대우건설</td> <td>6명</td> </tr> <tr> <td>한국철도시설공단</td> <td>5명</td> </tr> <tr> <td>SK하이닉스</td> <td>5명</td> </tr> <tr> <td>아산금속</td> <td>5명</td> </tr> <tr> <td>고려아연(주)</td> <td>5명</td> </tr> </table> <p><b>특별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경제인연합회</li> <li>• 지난 10년간 산재사망 50대 기업 중 39곳이 전국경제인연합회 소속임.</li> </ul> | 한화케미칼        | 6명           | 한국철도공사  | 10명   | 대우조선해양 | 9명   | 포스코건설 | 7명    | 대우건설 | 6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 5명   | SK하이닉스 | 5명  | 아산금속 | 5명  | 고려아연(주) | 5명    |     |       |     |             |  |
|   | 한화케미칼   | 6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국철도공사  | 10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우조선해양  | 9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포스코건설   | 7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우건설  | 6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국철도시설공단  | 5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SK하이닉스  | 5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아산금속  | 5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려아연(주)   | 5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 2017.4.26 | 서울 광화문광장    | 현대중공업 | <p><b>살인기업 명단</b></p> <table border="1"> <tr> <td>현대중공업</td> <td>11명</td> <td>7명 하청</td> </tr> <tr> <td>대우건설</td> <td>8명</td> <td>전원 하청</td> </tr> <tr> <td>대림산업</td> <td>7명</td> <td>전원 하청</td> </tr> <tr> <td>(주)포스코</td> <td>7명</td> <td>6명 하청</td> </tr> <tr> <td>포스코건설</td> <td>6명</td> <td>전원 하청</td> </tr> </table> <p><b>특별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준식 교육부 장관: 1963년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제도가 시행된 이래 2017년 현재까지도 교육부는 학생들의 죽음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하지 않음.</li> <li>• 김기덕 우정사업본부장: 노동기본권과 안전한 노동조건을 보장하지 않고 집배노동자들을 장시간노동으로 내몰아 과로사하게 함.</li> </ul>  | 현대중공업 | 11명 | 7명 하청 | 대우건설 | 8명 | 전원 하청 | 대림산업 | 7명      | 전원 하청 | (주)포스코  | 7명 | 6명 하청  | 포스코건설 | 6명     | 전원 하청 |        |    |        |      |    |       |      |    |  |        |    |       |
|   | 현대중공업     | 11명         | 7명 하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우건설  | 8명        | 전원 하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림산업  | 7명        | 전원 하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포스코  | 7명        | 6명 하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포스코건설   | 6명        | 전원 하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  | 2018.4.25 | 서울 광화문광장    | 삼성중공업 | <p><b>살인기업 명단</b></p> <table border="1"> <tr> <td>삼성중공업</td> <td>6명</td> <td rowspan="10">전원 하청</td> </tr> <tr> <td>GS건설</td> <td>5명</td> </tr> <tr> <td>대림산업</td> <td>5명</td> </tr> <tr> <td>현대엔지니어링</td> <td>5명</td> </tr> <tr> <td>STX조선해양</td> <td>4명</td> </tr> <tr> <td>대림종합건설</td> <td>4명</td> </tr> <tr> <td>현대산업개발</td> <td>4명</td> </tr> <tr> <td>KR산업</td> <td>4명</td> </tr> <tr> <td>현대산업개발</td> <td>4명</td> </tr> </table> <p><b>특별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교통부: 타워크레인을 관리하고 점검하는 주무부처로서 2017년에만 21명의 노동자를 죽음으로 몬 10건의 타워크레인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음.</li> <li>• 우정사업본부: 집배노동자의 격무와 장시간 노동을 해소하지 않고 산업재해를 은폐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임.</li> </ul> | 삼성중공업 | 6명  | 전원 하청 | GS건설 | 5명 | 대림산업  | 5명   | 현대엔지니어링 | 5명    | STX조선해양 | 4명 | 대림종합건설 | 4명    | 현대산업개발 | 4명    | KR산업   | 4명 | 현대산업개발 | 4명   |    |       |      |    |  |        |    |       |
|   | 삼성중공업     | 6명          | 전원 하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GS건설  | 5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림산업  | 5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대엔지니어링   | 5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STX조선해양   | 4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림종합건설  | 4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대산업개발  | 4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KR산업  | 4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대산업개발  | 4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 2019.4.24 | 서울 포스코 센터 앞 | 포스코건설 | <p><b>살인기업 명단</b></p> <table border="1"> <tr> <td>포스코건설</td> <td>10명</td> <td>전원 하청</td> </tr> <tr> <td>세일전자</td> <td>9명</td> <td>4명 하청</td> </tr> <tr> <td>한화</td> <td>5명</td> <td></td> </tr> <tr> <td>대림산업</td> <td>5명</td> <td>4명 하청</td> </tr> <tr> <td>포스코</td> <td>5명</td> <td>전원 하청</td> </tr> <tr> <td>CJ대한통운</td> <td>4명</td> <td>전원 하청</td> </tr> <tr> <td>대우건설</td> <td>4명</td> <td>3명 하청</td> </tr> <tr> <td>두영건설</td> <td>4명</td> <td></td> </tr> <tr> <td>현대산업개발</td> <td>4명</td> <td>전원 하청</td> </tr> </table>  | 포스코건설 | 10명 | 전원 하청 | 세일전자 | 9명 | 4명 하청 | 한화   | 5명      |       | 대림산업    | 5명 | 4명 하청  | 포스코   | 5명     | 전원 하청 | CJ대한통운 | 4명 | 전원 하청  | 대우건설 | 4명 | 3명 하청 | 두영건설 | 4명 |  | 현대산업개발 | 4명 | 전원 하청 |
|   | 포스코건설     | 10명         | 전원 하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일전자  | 9명        | 4명 하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화  | 5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림산업  | 5명        | 4명 하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포스코   | 5명        | 전원 하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CJ대한통운  | 4명        | 전원 하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우건설  | 4명        | 3명 하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두영건설  | 4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대산업개발  | 4명        | 전원 하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특별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서부발전: 고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을 비롯하여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발전 5사 중 한국서부발전에서 가장 많은 산업재해가 일어남.</li> <li>• 보건복지부: 간호사·의사의 연이은 과로사와 과로자살, 일터괴롭힘이 이어짐. 전공의법 시행 이후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이 미비했다는 증거.</li> </ul>   |        |     |        |          |    |       |      |    |       |      |    |       |         |    |       |      |    |          |       |    |       |
| 16       | 2020.4.27 | 세종문화회관 계단 | 대우건설   | <b>살인기업 명단</b> <table border="1"> <tr><td>대우건설</td><td>7명</td><td>전원 하청</td></tr> <tr><td>현대건설</td><td>6명</td><td>5명 하청</td></tr> <tr><td>GS건설</td><td>5명</td><td>3명 하청</td></tr> <tr><td>롯데건설</td><td>4명</td><td>전원 하청</td></tr> <tr><td>한신공영(주)</td><td>4명</td><td>전원 하청</td></tr> <tr><td>수성수산</td><td>4명</td><td>전원 이주노동자</td></tr> </table><br><b>특별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마사회: 고 문중원 열사를 비롯해 14년간 7명의 노동자가 사망함. 기수와 마필관리사를 경쟁으로 내모는 시스템과 단단계 하청구조를 해체할 책임이 있음.</li> <li>• 고용노동부: 2019년 한 해 동안 104명의 이주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함. 고용노동부가 이주노동자의 고용허가제를 하루 빨리 폐기할 책임이 있음.</li> </ul> | 대우건설   | 7명  | 전원 하청  | 현대건설     | 6명 | 5명 하청 | GS건설 | 5명 | 3명 하청 | 롯데건설 | 4명 | 전원 하청 | 한신공영(주) | 4명 | 전원 하청 | 수성수산 | 4명 | 전원 이주노동자 |       |    |       |
| 대우건설     | 7명        | 전원 하청     |        |   |        |     |        |          |    |       |      |    |       |      |    |       |         |    |       |      |    |          |       |    |       |
| 현대건설     | 6명        | 5명 하청     |        |   |        |     |        |          |    |       |      |    |       |      |    |       |         |    |       |      |    |          |       |    |       |
| GS건설     | 5명        | 3명 하청     |        |   |        |     |        |          |    |       |      |    |       |      |    |       |         |    |       |      |    |          |       |    |       |
| 롯데건설     | 4명        | 전원 하청     |        |   |        |     |        |          |    |       |      |    |       |      |    |       |         |    |       |      |    |          |       |    |       |
| 한신공영(주)  | 4명        | 전원 하청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성수산     | 4명        | 전원 이주노동자  |        |   |        |     |        |          |    |       |      |    |       |      |    |       |         |    |       |      |    |          |       |    |       |
| 17       | 2021.4.28 | 세종문화회관 계단 | 한익스프레스 | <b>살인기업 명단</b> <table border="1"> <tr><td>한익스프레스</td><td>38명</td><td>전원 재하청</td></tr> <tr><td>오투기물류서비스</td><td>5명</td><td>전원 하청</td></tr> <tr><td>포스코</td><td>5명</td><td>4명 하청</td></tr> <tr><td>GS건설</td><td>4명</td><td>전원 하청</td></tr> <tr><td>창성건설</td><td>4명</td><td>전원 하청</td></tr> <tr><td>현대건설</td><td>4명</td><td>전원 하청</td></tr> <tr><td>현대중공업</td><td>4명</td><td>2명 하청</td></tr> </table><br><b>특별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쿠팡</li> <li>• 2020년 한 해 동안 4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84명의 노동자가 열악한 노동환경 때문에 코로나19에 집단감염되는 사건 발생의 책임을 물어 특별상 수여.</li> </ul>                               | 한익스프레스 | 38명 | 전원 재하청 | 오투기물류서비스 | 5명 | 전원 하청 | 포스코  | 5명 | 4명 하청 | GS건설 | 4명 | 전원 하청 | 창성건설    | 4명 | 전원 하청 | 현대건설 | 4명 | 전원 하청    | 현대중공업 | 4명 | 2명 하청 |
| 한익스프레스   | 38명       | 전원 재하청    |        |   |        |     |        |          |    |       |      |    |       |      |    |       |         |    |       |      |    |          |       |    |       |
| 오투기물류서비스 | 5명        | 전원 하청     |        |   |        |     |        |          |    |       |      |    |       |      |    |       |         |    |       |      |    |          |       |    |       |
| 포스코      | 5명        | 4명 하청     |        |   |        |     |        |          |    |       |      |    |       |      |    |       |         |    |       |      |    |          |       |    |       |
| GS건설     | 4명        | 전원 하청     |        |   |        |     |        |          |    |       |      |    |       |      |    |       |         |    |       |      |    |          |       |    |       |
| 창성건설     | 4명        | 전원 하청     |        |   |        |     |        |          |    |       |      |    |       |      |    |       |         |    |       |      |    |          |       |    |       |
| 현대건설     | 4명        | 전원 하청     |        |   |        |     |        |          |    |       |      |    |       |      |    |       |         |    |       |      |    |          |       |    |       |
| 현대중공업    | 4명        | 2명 하청     |        |   |        |     |        |          |    |       |      |    |       |      |    |       |         |    |       |      |    |          |       |    |       |



기업살인운동 작은 인터뷰

# 조선소 하청노동자가 사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

전수경 100호 편집위원장



**하창민**  
전 현대중공업 사내 하청노동자

노동건강연대가 기업살인 운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만난 전문가는 현대중공업노동조합 사내하청지회 하창민 지회장일 것이다. 하창민 지회장은 2000년 초반 사내하청업체의 중간관리자로 현대중공업에 발을 들인 후 노동운동을 시작했다. 그는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산재에 대하여 가장 많이 발언한 노동자일 것이다. 노동건강연대는 그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 그는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도록 만드는 착취적 시스템이 대기업의 조선소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조선소의 노동자들이 무엇에 대하여 분노해야 하는지 짚어주는 활동가였다. 노동건강연대는 그가 있어서 하청노동자 사망에 대한 현대중공업의 책임을 묻는 기업감시운동을 펼 수 있었다. 2021년 6월, 울산시내의 카페에서 그를 만났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후 많은 언론이 노동자들의 죽음을 가벼이 흘려보내지 않는다. 사고의 원인을 짚어주고 처벌이 얼마나 낮은지 전문가 코멘트를 듣는다. 작업 현장에서, 어떤 상황에서 사고가 일어났는지 훤히 알고 있는 동료로서 기업살인법을 제정하라고 외칠 때 그 심정은 짐작만 할 뿐이다. 사고가 일어나면 회사 앞에 천막을 치고, 노동부에 달려가 고발을 하고, 서울로 와서 기자회견을 하던 그는 법이 제정된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사실은 법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는지는 궁금하지 않다. 법이 현장을 바꾼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청노동자들의 산재가 여전히 같은 강도로 일어나는 지금 하청노동자들의 현장은 어떠할까. 노동조합에 노동운동에 할 말이 많았던 하청노동자로서 담아두고 있던 이야기를 풀어내라고 재촉을 했다. 그는 이제 현대중공업노동조합 사내하청지회의 지부장이 아니고 채소배달을 한다. 노동조합 활동을 접었다. 어떤 이유에서 인지, 아주 그만둔 것인지 다 묻지는 못했다. 짐작만 할 뿐이다. 그래서 현재의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있기에 잠시 떠나있는 사람으로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익숙한 이야기 같지만, 정면으로 들여다본 적이 있던가 자문하면서, 하청노동자들의 산재를 둘러싼 이야기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억하고자 한다. 하청노동자로서, 하청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활동하던 그 마음으로 원청회사와의 관계, 원청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해서 못다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청했다. 물론 그가 토로한 아쉬움, 한숨 같은 것들을 지면에 다 옮기지는 못하고 덜어낸다.

### 하청노동자에게 산재가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

하청하고 산재를 뿔 수가 없다. 현대중공업에 사망사고가 나면 질문을 이렇게 던지면 좋겠다. '스케줄이 어떡냐?' 안 바뀐다는 것이다. 철판을 사다가 깔고, 중조립, 대조립 도크에 앉히는 걸 거의 다 하청이 하고 있는데. 비도 오고 못할 때도 있으니까 다 댕겨서 한다. 얼마나 살인적이겠나. 스케줄이 핵심이다. 공기 절감하려고 하청을 부리는 건데. 산재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임금, 복지, 산재 다 공기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다. 블록 가공하는 맨아워, 인건비를 계산해서 받는 건데 그 돈으로는 하청업체 운영이 안 된다. 백원이 드는데 중공업에서 받는 건 칠십원, 팔십원이다. 대신 줄을 세워서 생산을 빨리 하면 삼백원을 준다. 맨아워가 120명이라고 되어 있어도 용접, 그라인딩, 검사까지 끝나는데 200맨아워가 나온다. 200명이 필요한 일을 120명이 해야 하니 얼마나 빨리 해야 하겠나?

### 법으로 원청 책임을 강화하면 하청노동자들의 안전에 대해서 관리를 안 할 수가 없지 않나?

현장에서 원청이 안전관리를 하면 상충되는 부분이 생긴다. 하청은 오늘 오다 받은 것은 오늘 해야 한다. 안전관리자가 와서 중단을 시키거나 안전설비를 먼저 하라고 하면 오다에 못 맞춘다. 원청은 건수 챙기느라 단속을 하는 건데, 이들이 오면 하청은 피해버린다. 잔업시간에 해버린다. 안 그러면 내가 힘드니까. 이쪽에서 용접하고 저쪽에서

서 족장 놓고 해야 빨리 한다. 중단시키는 걸 제일 싫어한다. 자발적으로 일에 미치게 만든다. 초단기간 선박 완성 이런 건 정말 역겨운 뉴스다.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왜 자꾸 사고가 나냐, 스케줄을 엄청 빡빡하게 잡는다. 한 시간에 할 일을 삼십분에 끝내는데 안전이 어디 있냐, 사고 난다고 하청한테 불이익 주는 건 허수아비한테 하는 거다. 하청업체에 벌금을 때린다. 무슨 힘이 있냐? 근본적인 걸 건드리지 않는데. 처벌을 하려면 공장 시설물 개보수를 할 권한이 있던가. 하청업체 사장이 왜 독박을 쓰냐? 그러니까 재하도급을 주는 물량팀을 쓴다.

### 하청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가 원청노동자들 안에서 있을까? 물량팀은 이제 없어야 한단다?

최소한 물량팀은 없애자고 하면 원청노조가 '물량팀이 안 보인다, 어디 있지?' 외면한다. 하청업체 입장에서도 엄청난 메리트가 있다. 필요할 때 빨리 하고, 일 없으면 오지 말라고 할 수 있는데 얼마나 편한가. 지금 업체 내에서 70%는 물량팀이다. 드러나지도 않는다. 물량팀으로만 이루어진 업체도 있다. 한 업체가 100명이면 30명짜리 3팀을 두고 관리하는 사람 10명을 둔다. 하도급도 문제인데 재하도급을 주고 있는 거다. 맨아워담당가가, 똑같은 블록을 하는데 정규직들은 성과가 98%라고 나오고 우리는 50%를 넘기기가 힘들다. 우리는 항상 빨리 한다. 정규직은 인사고과에 문제가 생기니까 하청 걸 가져간다. 원청노동자들이 이득을 보는 건데, 손을 대는 사람이 누가 있겠나. 고용구조가 97년 이후에 급격하게 바뀌었다.

내가 2000년 1월 8일 입사했다. 그 때는 한 부서에 하청비율이 3분의 1밖에 안 됐다. 정규직 7개팀, 하청 3개팀 수준이었는데, 4~5년 지나니까 역전됐다. 조선소에 제일 힘든 작업, 조립부터 도장 샌딩까지 다 힘든 거다. 안 힘들고 안 위험한 게 없다. 그 일을 정규직이 하면 정규직도 사망사고가 난다. 조합원의 사망이 하청 사망으로 이름만 바뀐 건데 원청 노동조합이 방관한 건 있다. 정규직이 들어갈 자리를 하청이 하도록 하고 대처를 안 했다.

### 법이 생긴다고 갑자기 현상이 바뀔 리는 없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다. 하청구조를 이대로 두면 산재가 줄 수 있을까? 정규직 노조에서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을 텐데 달라질까?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던데, 하는 건 좋은데 현장까지 잘 안 오니까. 전에 비하면 많이 하려고 하는 건 맞다. 원청이 하면 안전관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높고, 산재가 줄어들기는 할 것이다. 고용구조가 기본 조건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출발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니까. 현대미포, 대우조선, 온산공단의 작은 업체들에서 일해 봤지만 현대중공업이 환경은 좋다. 시설이 낙후해서 사고가 난다



고 생각들 하는 것 같은데, 정규직하고 장비, 시설 같이 쓰고, 보호 장구도 거의 같다. 바깥에는 남 쓰던 거 주워서 마스크필터 같이 쓰는데 현대중공업은 호텔급이다.

### 시설이 더 나쁜 것도 아닌데 하청노동자가 많이 죽는다면 노동조합이 무엇을 놓치는 것일까?

2014년 한 달에 한 번씩 사망사고가 날 때 현대중공업 앞 삼거리에 천막을 치고 분향소를 차렸었다. 정규직 노조가 분향소에 한 번도 안 왔다. 원청노조가 와 주고 분위기를 만들면 효과가 있을 건데 따로 돌아갔다. 경찰이 와도 막을 수가 없었다. 원청노동조합은 상대적으로 하청보다 적게 죽는다는 숫자를 보는 것 같다. 하청 열 명, 정규직 한 명, 이러면 놓치는 것이 있다. 모든 시선이 하청에 쏠린다. 한명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어처구니없는 사고로 사람이 사망했는데. 그런데 사고 나면 뒷수습하는 활동을 할 뿐이다. 노동조합 2년 임기는 한계가 많다. 산재를 줄이려면 긴 시간에 할 수 있는 구조적인 것부터 해야 하는데, 임금도 안 되는데 산재를 어떻게 하나? 생각할 수밖에 없다. 산재만큼은 노동조합 임기가 바뀌든 안 바뀌든 사업을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

### 원청노동조합도 고민이 많을 것 같다

정규직에게 뿔 받으라고 하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 정규직도 많이 받아가지 못한다. 정규직한테 좀 나누라고 하는 건 이해는 하는데 자본가들이 얼마나 벌고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알아야

한다. 현대중공업 노동자 사망이 많은 건 노동조합이 어용이었던 시기와 연관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청이 늘어나는 걸 노동조합이 묵인하고, 직위가 올라갔다고 생각한 면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조금은 달라졌다.

### 비관적인 이야기만 했는데 나아진 것은 없나?

산재로 상담을 하면 살아있으면서 오는 사람이 거의 없다. 해고당하면서 오고, 산재가 해결된다고 해도 못 버티고 나간다. 하청에게 산재는 다 해고로 연결된다. 누가 고장난 물건을 쓰겠나? 반쯤 처리한다. 사고를 은폐하다 걸리지 않을까? 업체들이 두려워하기는 한다. 예전에는 경계가 없었다. 시스템적으로 하청이 바뀔 수는 없다. 지금 하청 조합원이 300명인데 하청구조가 바뀌기 위해서는 2만 명이 다 노동조합 가입하는 수밖에 없다. 하청노동 조합원이 나서서 싸우는 수밖에 없다. 

그는 약속시간보다 많이 늦었고 지쳐있었다. 식당에 식재료를 배달하는데 그날 따라 배달을 멀리까지 가야 했다고 한다. 사내하청지회 노동조합의 지회장 활동을 하던 그는 현대중공업 울타리를 넘어 울산 지역의 비정규하청노동자들의 운동 전반으로 활동영역을 넓혀 갔다. 그는 2017년 민주노총울산본부 선거에 본부장으로 출마하여 세 명의 후보 가운데 3등으로 떨어졌고, 2020년 20대 총선에 노동당의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하였다. 세상은 대기업, 제조업중심의 노동조합 운동이 쇠퇴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울산은 여전히 전통적인 노동운동의 도시다.

그러나 울산의 노동운동에는 비정규직노동자의 목소리가 없다. 하청민 지회장이 생각할 때는 그렇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이 있었고,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이 있었는데도요? 그렇다. 울산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정규직대기업 노동운동의 흐름에 따라 움직일 뿐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 하청민 지회장이 생각할 때는 그렇다. 민주노총울산본부 선거에 출마한 이유다.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이 자기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활동가가 있어야 하고 조직가가 있어야 한다. 활동가, 조직가를 양성하기 위해 전담부서도 있어야 하고 예산도 배정해야 한다.

비정규직노동운동을 위한 예산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른다. 형식적으로 배분해놓았을 뿐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 울산본부장이 돼서 비정규직 사업을 제대로 해보고 싶었다. 국회의원 출마는 왜 하셨어요? 돈도 조직도 없으면서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정치가 바뀌어야죠. 울산에 비정규직하청노동자가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 살리는 정치를 해야죠. 총선에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이유다.

끼니를 놓친 그는 비빔밥을 급히 먹으면서도 울산의 노동운동 속에 비정규직하청의 이야기를 포함하려고 했던 자신의 시간을 돌아본다. 자리를 옮겨 소주를 마시면서 그는 두 번의 큰 선거에 출마하면서 정규직 주류 노동운동의 지원을 받지 못해 서운하던 시간을 다시 돌아본다. 지극히 주관적인 회고의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그에겐.

인터뷰 내내 그가 돌아보고 싶어했던 것은 하청노동자의 산재를 둘러싼 노동조합 활동, 비정규노동운동에 올인했던 시간이었다. 산재 자체보다 좀 더 큰 이야기일 수도 있고, 부분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다. 산재 이야기만 남기고 지워버리기에는 모든 활동은 연결되어 있고, 사람은 기계가 아니지 않은가. 그가 들려준 이야기 가운데 일부를 짚은 후기로 남긴다.

## 특집02

# 노동자건강의 정치경제학 2021

노동건강연대는 2021년 봄 기획강좌로

〈노동자건강의 정치경제학 — 영킨 실을 어떻게 풀 것인가〉를

2021년 3월 4일부터 4월 15일까지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일곱 개의 강좌를 꾸려 한 주에 한 번씩, 총 7주간 온라인으로 여러분들과 만났습니다.

코로나19는 노동건강연대 활동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온라인 기획강좌 역시 그중 하나입니다.

직접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기 어려워진 팬데믹 시대 속에서, 회원들과 나누는 시간을 그리워하며 마련한 강좌에 많은 분이 뜨겁게 호응해주셨습니다. 우리 사실 다 비슷한 마음이었던 걸까요?

쏟아지는 좋은 반응에 힘입어 기꺼이 강사로 나서주신 일곱 분의 선생님 중 네 분에게 강의 내용을 원고로 옮겨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강의 내용을 복기하고 싶었던 회원님들부터 미처 참석하지 못하셨던 회원님들까지 모두 모시고, 다시 한번, 노동자건강의 정치경제학 강의를 시작합니다!

### 강좌 소개

\* 3월 4일은 국민휴일임, 4주일에 해당합니다.

**1강 [3월 4일 화요일 / 오후 7시 30분]**  
**코로나19로 인한 직장일 영킨** : 감염병 시대에 부연대하며, 시민연대연구소 활동가들과 함께 영킨 실을 풀기 위한 다양한 시안과 사례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2강 [3월 11일 목요일 / 오후 7시 30분]**  
**영킨해결방법밖의 영킨 이야기** : 한일배 산업재 안전문화재단의 노조실무는 어떤 모습일까? 어떤 활동가들이 어떤 일과를 하고 있을까? 영킨해결방법밖의 영킨 실을 풀기 위한 다양한 시안과 사례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3강 [3월 18일 목요일 / 오후 7시 30분]**  
**노동시장, 현대, 플랫폼** : 일할 때의 사회적 책임과 노동조합의 역할은 무엇일까? 영킨 실을 풀기 위한 다양한 시안과 사례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4강 [3월 24일 수요일 / 오후 7시 30분]**  
**원칙의 이후회** : 하청노동자 하청민 지회와 부연대하며 영킨 실을 풀기 위한 다양한 시안과 사례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5강 [3월 31일 수요일 / 오후 7시 30분]**  
**플랫폼 노동의 새로운 시대를 위하여** : 영킨 실을 풀기 위한 다양한 시안과 사례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6강 [4월 7일 목요일 / 오후 7시 30분]**  
**산재보험의 정치성** : 울산과 공단에서, 노동건강연대, 산재보험 관련자를 만나보고 영킨 실을 풀기 위한 다양한 시안과 사례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7강 [4월 14일 목요일 / 오후 7시 30분]**  
**한국사회 노동 대시** : 폐기 산업재 유통과 사회적 책임과 노동조합의 역할은 무엇일까? 영킨 실을 풀기 위한 다양한 시안과 사례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 2021 봄 노동건강연대 기획강좌



**노동자 건강의 정치경제학**  
- 영킨 실을 어떻게 풀 것인가

노동 실을 바깥에서와 같지만 속을 풀어야 하는 영킨 실을 풀고 있습니다. 바깥에서는 해결되지 않지만 속을 풀어야 하는 영킨 실을 풀고 있습니다. 영킨 실을 풀기 위한 다양한 시안과 사례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영킨 실을 풀기 위한 다양한 시안과 사례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강좌기간** 2021.03.04 - 04.15  
**수강료** 35,000원  
**신청링크** [http://bit.ly/2021노동건강연대\\_기획강좌신청](http://bit.ly/2021노동건강연대_기획강좌신청)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04-5100-0888(일주)로 노동건강연대, \*한 번만 납부해서 지회 장려 7일분 모두 수강할 수 있습니다.

2021 봄 노동건강연대 기획강좌는 공짜강좌로 운영됩니다. 후원금 후원금으로 후원 받을 수 있습니다. 후원금 후원금으로 후원 받을 수 있습니다. 후원금 후원금으로 후원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의 가치동기 인제에 따라 후원금으로 후원 받을 수 있습니다. 후원금 후원금으로 후원 받을 수 있습니다. 후원금 후원금으로 후원 받을 수 있습니다.

기획 강좌 관련 문의는 노동건강연대 전화(02-460-3979) 또는 메일([labourhealth@kumail.net](mailto:labourhealth@kumail.net))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블평등과 건강 정치  
 김창열\_ (사)시민건강연구소 소장

21세기 한국의 노동 현실과 과제  
 신광영\_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문제는 플랫폼 노동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의 권리  
 남재욱\_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코로나19와 한국 내 이주노동자들의 건강  
 이주연\_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박사과정

# 불평등과 건강 정치

김창엽 (사)시민건강연구소 소장

한국에서 정치는 흔히 현실 정치를 가리킨다. 누구나 선거나 투표를 떠올리고 국회의원과 난장판 국회를 상상하기 쉽다. 사정이 이러니 ‘건강 정치’라는 말은 생소하기 짝이 없다. ‘노동 정치’나 ‘환경 정치’처럼 정치를 비교적 넓은 의미로 이해하는 사람도 “건강에 무슨 정치?”라고 반문하기에 십상이다. 건강을 개인 사정으로, 그것도 의학이나 생물학적 몸과 연결해 생각하기 때 문일 것이다.

## 건강의 사회적 이유

유전으로 타고나거나 태어날 때 결정되어 평생을 가는 체질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틀림없다. ‘인명은 재천’이라는 건강 속명론이 나온 배경이며, 한편으로는 건강을 개인적인 것으

로 이해하는 첫째 이유이다. 통틀어 ‘생물학적’ 요인이라 하면 이는 건강과 수명을 결정하는 한쪽 기둥이라 할 만하다.

이 글을 통해 말하려는 것은 이런 생물학적 요인이 건강과 질병 전부가 아니라는 점이다. 아무리 건강 체질로 태어나더라도 가난하고 영양이 부족하면 일찍 병들고 수명이 짧아진다. 그중에서도 가장 사회적인 질병은 산재를 비롯한 사고다. 사고에 유전자와 건강 체질이 다 무슨 소용이며, 평소의 건강검진과 건강식품 따위도 무력하다. 생물학적 요인은 쉽게 고칠 수 없지만, 사회적인 것들은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점도 덧붙인다.

사실 사고는 건강을 결정하는 ‘사회적 요인’의 한 가지 대표일 뿐이다(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이라는 말을 많이 쓴다). 사고라고 할 때는 비교적 짧은 시간과 외부 충격이라는 의미를 포함하지만, 많은 건강 손상을 ‘느린 사고’라 불러야 할지도 모른다. 느린 사고란 오랜 시간에 걸쳐 건강을 해치는 외부 요인이 몸과 마음에 작용해 질병으로 이어진다는 뜻이다. 산재로 인정받는 근골격계 질환의 이유와 시간을 생각해 보면 ‘느린’이라는 표현에 동의할 수 있으리라.

사회적 요인에서 ‘사회적’이 중요한 이유는 한 마디로 불평등 때문이다. 소득과 빈곤에서 보듯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들은 평등하지 않으며, 불평등한 사회적 결정요인은 불평등한 건강으로 바로 이어진다. 여러 사회에서 연구된 결과를 종합하면, 소득과 빈곤, 교육 불평등, 노동조건, 고용 불안정 등

이 건강 불평등을 초래하는 중대한 요인들이다. 여러 사회적 결정요인은 당연히 서로 맞물려 있는 다차원적 위험이기도 하다.

## 사회적 결정요인의 뿌리

빈곤이나 비정규 노동이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가난한 사람들에서 자살률이 높고 암에 더 많이 걸리며 정신건강이 더 나쁘다. 장시간 노동과 나쁜 노동환경을 피해야 건강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은 이보다 더 명확하다. 이처럼 사회적 결정요인이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명확하고 일관된다.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오래 살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개인 차원의 논리로는 간단하다. 가난을 벗어나 더 부유해지고 학력을 올리고 더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면 되겠지만, 문제는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점에 있다. 한 개인이 비정규 노동을 벗어나고 쾌적하고 위생적인 집에서 살며 안전한 현장에

서 일한다는 대안은 대부분 비현실적이다.

여기서 우리는 사회적 결정요인이 내포하는 두 번째 ‘사회적 인 것’의 의미와 만난다. 사회적이란 한 개인에게 미치는 외부 요인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회 구조 또는 사회 전체와 연관되어 있다는 차원도 있다. “저 사람은 사회성이 부족해”라는 말과 “한국은 권위주의 사회야”라는 말에 담긴 사회라는 말은 서로 연결되되 관점이 다르다. 단순하게 표현하면, 전자는 개인의 속성을 후자는 사회 전체의 속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를 들어 저임금 노동자와 저임금 노동 구조(또는 체제) 간의 관계가 이에 해당한다.

사회적 결정요인이 ‘불건강’의 뿌리라면 한 사회의 구조와 체제는 ‘뿌리의 뿌리’라고 할 수 있다. 원인의 원인 또는 근본 원인이라고 불러도 괜찮다. 위험한 건설 현장이 사회적 결정요인이라면 좀처럼 그런 곳이 줄어들지 않는 해당 기업과 노동시장의 구조가 뿌리의 뿌리, 원인의 원인에

해당한다. 구조의 범위를 넓히면 근본을 해결하는 데 몇 단계 더 심층의 뿌리와 원인을 드러내야 할지도 모른다.

사회적 결정요인이 불평등의 뿌리인 한, 건강과 질병은 의학과 의료, 보건 영역에 머무를 수 없다. 낮은 임금과 소득, 나쁜 주거, 작업환경, 장시간 노동, 비정규 노동과 고용 불안정과 대결해야 한다. 한 걸음 더, 낮은 임금과 비정규 노동이 우연한 개인 사건이 아니라 구조 문제라면 사회적으로는 이 체제를 개혁해야 뿌리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

‘근본’ 개혁은 우리 사회의 해묵은 과제이니 여기서 증언부인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다만, 건강에서 출발하자면 건강 불평등을 드러내고 이를 다른 사회적 불평등과 연결하는 작업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살펴야 한다. 그래야 건강 불평등을 이해할 뿐 아니라 그 뿌리 원인 또는 공통의 원인을 바꾸는 실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불평등의 건강 정치

먼저, 사회적 불평등이 흔히 건강, 즉 몸으로 발현된다는 것을 지적해야 하겠다. 소득 불평등, 교육 불평등, 노동조건 불평등은 잘 알려진 사회적 불평등이지만, 통계를 통해야 포착할 수 있을 정도로 그야말로 사회적이며 그만큼 추상적이다. 임금 수준과 노동조건이 어떠한 하는 추상적인 불평등은 물류센터 노동자의 코로나19 유행이라는 건강(몸과 마음)의 불평등을 통해 비로소 모습을 드러낸다. 소득, 임금, 고용, 노동 불평등이 몸에 새겨져(‘각인’) 감각하고 이해할 수 있는 건강 불평등의 형태로 사회화되는 것이다.

정치적으로는 정의(또는 윤리) 측면에서 건강이 다른 사회적 불평등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소득이나 교육은 그 자체로는 정당함과 부당함, 정의와 부정의의 근거를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는, 일종의 도구적 가치들이다. 이와 비교해 건강은 (부분적이지만) 내재적 가치를

가지는 삶의 한 측면으로 볼 수 있다. 행복이나 안녕, ‘좋은’ 삶과 마찬가지로 건강은 내재적 가치를 구성하는 한 요소로, (도구적) 인간 활동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한 가지 잣대로 쓰인다.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누려야 하는 건강의 권리를 차별한다는 점에서, 건강 불평등으로 이를 초래한 소득 불평등의 부당함과 부정의를 끌어낼 수 있다.

한 가지 유의할 것은 다른 불평등은 건강 불평등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는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만에 하나 건강에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소득과 임금 불평등을 용인하자고 할 수는 없다. 또한, 건강 불평등은 대체로 다른 사회적 불평등이 오래 축적된 후 가장 늦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아직 병이 나지 않았다고 해서 나쁜 냄새나 소음을 참으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며, 건강검진에 이상이 없다고 장시간 근무가 무해하다고 할 수 없다.

불평등이라는 건강 현상을 통해 사회적 요인의 본질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하다. 대표적 예가 비정규 노동이다. 비정규 노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대안으로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말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경제나 고용, 노동만 고려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건강 불평등의 시각에서 보면, 정규 노동과 비정규 노동 사이에는 소득이나 물질적 조건을 비슷하게 맞춘(조정) 후에도 건강 불평등이 나타난다. 비정규 노동의 의미가 상대적으로 더 낮은 임금의 문제를 넘는다는 뜻이다. 건강 현상을 통해 비정규 노동의 본질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이는 비정규 노동을 둘러싼 정책과 실천이 어떠한지도 영향을 미친다.

### 건강 불평등을 ‘정치화’해야

건강과 질병은 개인사일 때가 많으나 건강 불평등과 질병 불평등은 집단과 사회의 현상이라 해야 한다. 누가 누구보다, 어떤 집단이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어떤 사회가 어떤 다른 사회보다 건강과 질병이 어떻다는, 말하자면 적어도 둘 이상을 비교해야 드러나는 분포이자 관계를 가리킨다.

집단과 사회적 현상은 개인이 직접 경험할 수 없다. 내가 당한 사고, 가족이 진단받은 질병, 직장 동료의 검사결과가 직접적이고 경험적이라면, 불평등이라는 집단적 현상은 추상적이고 모호한, 일종의 지식이다. 보통 사람들로서는 피부에 와닿지 않고 잘 느껴지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예를 들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정신건강이 불평등하다는 이야

기를 쉽게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지? 건강 불평등이 흔히 규범, 가치, 이념을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 이런 이유가 아닌가 한다.

건강 불평등은 어렵다! 건강 불평등이 (모두가 중요성을 인정함에) 좀처럼 사회적 과제가 되지 못하고 정책적 동력이 없는 첫째 이유다. 연구가 적지 않고 정부의 정책 목표에도 자주 포함되지만, 바뀌어야 하고 좋아져야 한다는 여론과 운동은 미미하다. ‘정치화’야 말로 불평등을 둘러싼 이론과 실천의 최대 과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때문이다.

정치화를 위해서는, 역설적이지만 지식과 ‘지식 권력’ 확대를 핵심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소득 불평등과 건강 불평등은 지식으로서 비슷한 속성을 지니지만, 지식 권력의 정도는 다르다. 많은 사람이 이해하고 믿으며 실천한다는 것이 권력의 크기를 나타낸다면, 소득 불평등의 지식 권력은 건강 불평등과 비교할 바가 아니다. 건강 불평등의 정치화란, 그리고 그 단기 목표는 소득 불평등의 경우를 선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 21세기 한국의 노동 현실과 과제

신광영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장구한 인류 역사에서 오늘날은 가장 발전된 시대라고 누구나 믿고 있다. 2세기 전까지만 해도 마차를 타고, 말을 타고 이동했던 사람이 그사이에 자동차를 만들고,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만들더니 드디어 인공위성과 탐사위성까지 만들어 우주를 연구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더 나아가 화성에서 드론이 하늘을 나는 동영상도 전 세계에서 볼 수 있고, 달의 흙을 지구로 가져와 분석하는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러한 놀라운 변화에 비해서, 하루하루의 일상은 큰 변화가 없다. 생존하기 위해서 일해야 하고, 일하지 못하게 되면, 생계가 어려워지는 현실. 많은 사람이 일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아 살아가는 현실에서 일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

다.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그들의 노동을 이용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고용주와 고용된 사람들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들이 전 세계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다. 놀라운 과학과 기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노동의 현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21세기 한국의 노동 현실은 어떠한가? 급격한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이룬 한국에서 노동세계는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가?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한국의 노동 현실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이 글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하여 실증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 노동의 현실을 살펴보고, 가까운 미래에 지금보다 바람직한 노동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을 논의하고자 한다.

노동은 대단히 다양한 차원을 지니는 복합적인 사회 영역이다. 특히 산업화를 통해서 임금 노동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체제가 형성되면서, 노동은 개인과 사회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대부분의 사람은 노동을 통해서 생활수단을 확보하고, 노동하기 위해서 십여 년간의 교육을 받고 있다. 그리고 실업이나 은퇴 같은 경우에도, 노동을 통해서 얻는 임금에 근거한 저축, 노령연금, 자산 축적 등이 노후 삶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노동은 거의 모든 사람에게서 삶의 중심을 이루는 요소이다.

노동은 사회적인 수준에서 노동력 공급, 노동에 대한 보상, 권리와 노동력 재생산을 둘러싼 제도, 규범과 행위 속에서 이루어지며, 이를 노동체제라고 부른

다. 노동체제는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요소는 노동력과 임금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노동 시장이다. 노동시장은 가상의 시장이다. 인간의 노동력은 시장에서 교환을 위하여 만들어진 상품이 아니라는 점에서 노동시장은 하나의 가상의 혹은 허구적인(fictitious) 상품의 시장이다. 두 번째 요소는 노동력을 구매하는 고용주와 노동력을 판매하는 노동자들 사이의 집단적

인 노사관계이다. 임금과 노동조건에 관한 교섭을 중심으로 하는 노사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세 번째 요소는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제도이다. 질병이나 실업으로 인하여 노동할 수 없는 경우에 공적인 방식으로 이에 대비하는 사회적 안전망이 전후에 크게 확대되었다. 실업보험이나 산재보험 그리고 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노동자들의 생활

상 안정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들이 도입되었다. 네 번째 요소는 노동시장이나 노사관계의 규칙을 변화시키기 위한 정치 활동인 노동정치이다. 노동시장이나 노사관계 제도 내에서 혹은 제도 자체를 변화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총파업과 같은 집합적 행위뿐만 아니라 저항이나 지지를 목적으로 정부, 정당 그리고 시민단체들을 대상으로 한 활동도 노동정치의 주요 영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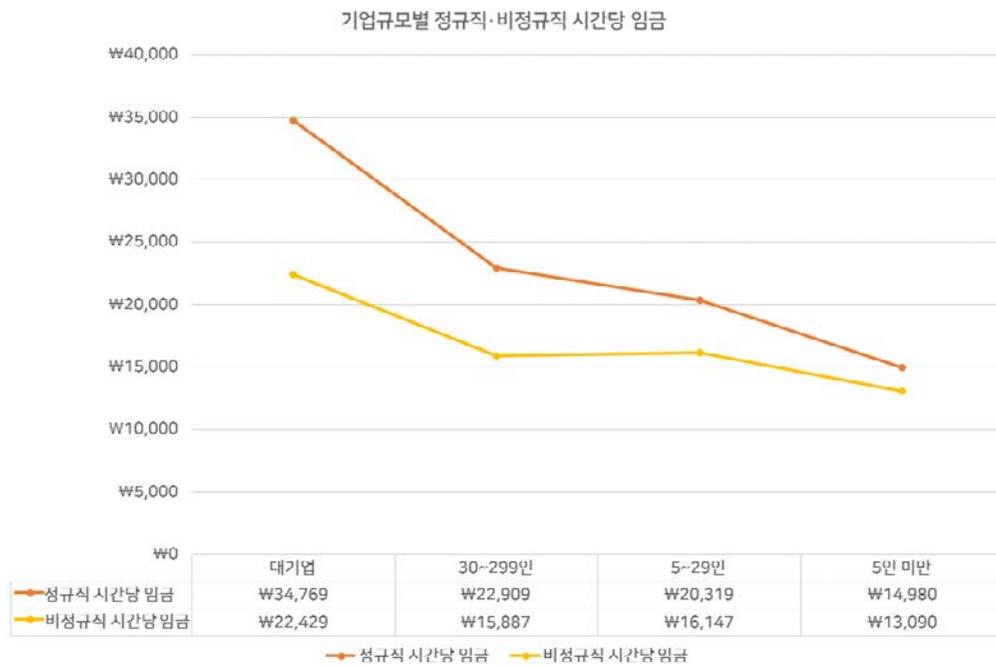
## 노동시장

한국 노동시장의 특징은 한국경제 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산업화에 따른 한국경제의 변화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 체제 형성이다. 외환위기 이후에도 매출액과 고용인력 규모에서 재벌기업 집중이 지속하여 강화되었다. 10대 재벌의 누적 매출액은 2008년 47.18%에서 2010년 51.86%로 더욱 심화되었다. 대기업 집중도가 높아지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사이의

임금 격차도 계속 확대되었다. 2020년 300인 이상의 대기업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은 30~299인 65.5%, 5~29인 60.0%, 5인 미만 43.3%로 기업 규모에 따라서 대단히 큰 격차를 보여주었다. 1980년 노동자 임금은 기업규모에 따른 격차를 보이지 않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는 3~4%에 불과하였다. 산업화의 진전과 더불어 대기업의 급속한 성장이 이루어졌고, 이들 기업은 90년대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면서, 국내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중소기업과의 격차는 더욱 커졌다. 기업 규모에 따른 임금격차는 한국 경제의 성장 방식과 그에 따른 노동시장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기업규모에 따른 차이는 고용의 안정성 차원에서도 큰 차이를 만들어 냈다. 대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근속년수가 길고, 중소기업은 근속년수가 짧다. 2019년 한국 피고용자의 근속년수는 6.7년으로 일본이나 유럽과 비교하여 60% 정



도에 불과하였다. 남성 7.7년과 여성 5.1년으로 여성의 근속기간이 더 짧았다. 이것 일자리 이동이 잦다는 것을 의미한다(참고로 2013년 OECD 국가들 가운데 10년 이상 근속비율은 독일 42.2%, 프랑스 46.7%, 일본 44.5%, 스웨덴 35.9%, 미국 29.1%, 한국 19.7%로 한국이 가장 낮았다). 관리직 평균 근속년수는 14.9년으로 가장 길었고, 그중에서도 공공 및 기업 고위직이 18.4년으로 가장 길었다. 반면에, 단순노무직은 3.9년으로 가장 짧았다. 평균 4년 안에 일하는 곳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다음이 농림어업

종사자로 4.0년이었으며, 판매서비스 종사자는 5.5년이였다. 단적으로 한국의 노동시장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대단히 유연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노동시장의 또 다른 특징은 외환위기 이후에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격차 확대 현상이다. 2003년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수준은 정규직의 71.5%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낮아져서 67.0%에 달하였다. 2019년 통계청 <근로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 300인 이상 대기업의 정규직 시간당 임금은 34,769원이었고, 30~299인,

5~29인, 5인 미만 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각각 정규직의 65.95%(22,909원), 58.4%(20,319원), 43%(14,980원) 수준이었다. 비정규직의 경우도 기업 규모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여서, 300인 이상 대기업의 비정규직은 64.5%(22,429원)로 중기업의 정규직 수준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30~299인, 5~29인, 5인 미만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은 각각 대기업 정규직 시간당 임금의 45.7%, 46.4%, 37.4% 수준으로 대단히 낮았다. 이것은 한국의 노동시장이 기업 규모와 더불어 고용형태에 따라서도 임금 격차가 크게 존재한

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다른 중요한 한국 노동시장의 특징은 젠더에 따른 임금 차이이다. 강한 가부장제 사회에서 나타나는 노동시장의 특징은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가 낮다는 점과 동시에 여성들의 임금이 남성에게 비해서 매우 낮다는 점이다. 2019년 젠더 임금격차는 남성의 시간당 임금을 100%로 했을 때, 여성의 시간당 임금이 평균적으로 69.4%였다. 30% 이상의 격차가 시간당 임금에서 나타났다. 남성 정규직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여성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의 경우 남성의 69.6%, 비정규직의 경우 53.4%에 불과하였다.

마지막으로 두드러진 요소는 학력이다. 이것은 모든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요소이다. 특징적인 변화는 과거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가 현저하게 컸지만,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1980년 고졸자의 평균 임금은 대졸자 평균 임금의 43%에 불과하였으나, 2010년 64.3%로 높아졌고, 2019년에는 65.2%로 약간 더 높아졌다. 대졸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고졸자의 비중은 줄어들면서, 노

동시장에서 학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더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시장에서 학력이 지니는 의미는 과거에 비해서 계속 줄어들고 있다.

### 노사관계와 노동정치

2021년 현재 한국의 노사관계는 긴 역사적 흐름 속에서 형성되었다. 군사정권 하에서 한국에서는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노동조합운동이 불가능하였다. 군사독재 체제 하에서 자율적인 노동조합운동은 탄압을 받았다. 산업화를 내세운 군사정권은 노동조합을 체제를 위협하는 불순한 세력으로 공안 차원에서 탄압하였다. 그리고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노동조합을 내세워 노사관계를 관리하고자 하였다. 남미의 경우처럼, 국가가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정권적인 차원에서 정치 시스템 안으로 노동조합을 포섭하는 것이 아니라, 노조를 정치적으로 배제하고, 노동운동을 억압하는 정책을 지속하였다. 군사정권이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억압하는 정책을 지속하였다.

1987년 민주화와 더불어 노

동자들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노동조합이 결성되기 시작했다. 1987년 여름 자생적으로 대규모 파업이 일어나면서 “민주노조”라는 이름으로 독립적인 노동조합들이 결성되기 시작하였다. 먼저 지역 수준의 노동조합협의회가 결성되고, 이후 1989년 12월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의 결성을 거쳐서 1995년 11월 전국적인 수준에서 민주노총의 창립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과거 기존의 한국노총과 새롭게 창립한 민주노총이 한국의 노동조합운동을 양분하는 상급조직으로 등장하였다. 한국노총은 과거 정권의 지원과 통제를 받았지만, 민주화 과정에서 개혁을 도모하여, 과거의 어용노조에서 벗어나고자 시도하였다. 민주노총의 등장이 한국노총의 내부 개혁을 더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1996년 한국이 OECD에 가입하면서, 한국 정부가 더 이상 민주노총을 배제하거나 억압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그러나 1996년 12월 기존 노동법 개정에서 집권 여당인 신한국당(국민의 힘 전신)은 노동법 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날치기로 처리하였다. 이 노동법 개정안은 정

리해고를 허용하고, 상급단체에 서만 복수노조를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노조의 총파업이 국민적 지지를 받으면서 정권의 위기가 발생하자, 김영삼 정부는 1997년 2월 노동법을 다시 개정하였다. 같은 해 말 1997년 12월 외환위기가 발생하면서, 민주노총도 노동자 대표조직으로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였고, 1998년 2월 노사정협의회에서 이루어진 사회적 협약에 합의하였다. 합의안은 외환위기 이후의 노사관계를 규정하는 제도로 기능하였다. 쟁점이 된 사항은 민주노총이 교원노조를 합법화하는 대신에 노동시장 유연화 조치인 노동자 파견과 정리해고를 받아들이는 합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의 한국 노동체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민주노총 내부에서 1998 노사정 합의안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면서, 민주노총 지도부가 물러나고,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서 탈퇴하였다. 지금까지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 참여를 거부하면서 노사정위원회는 실질적인 기능정지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07년 4월 노사정위원회는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민주노총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다. 2018년 6월 위원회의 명칭을 경제사회노사정위원회로 바꾸었지만, 민주노총은 여전히 이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최근 들어서 민주노총이 가장 큰 노동조합 상급단체가 되면서, 경제사회노사정위원회의 대표성과 사회적 합의기구로서의 기능에서 여전히 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오늘날 한국 노동운동의 특징은 낮은 노조조직률과 둘로 나누어진 노동조합 상급단체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한국의 노조조직률은 1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들이 주로 2개의 노조 상급단체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으로 양분되어 있다. 이들은 중앙수준의 조직이고, 실질적인 노조의 활동은 기업 단위로 이루어진다. 노동조합의 활동이 기업별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기업별 노조가 한국 노조의 근간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단체교섭과 임금교섭은 개별 기업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노조 조합원들은 기업 내의 문제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다른 기업 노동자나 하청업체 노

동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 기업별 노조는 기업 의식 혹은 기업 중심적 사고를 만들어 냈다. 상급단체는 정치에 관심을 갖지만, 단위조직은 임금이나 노동환경과 같은 일터의 이슈에 더 관심을 기울인다.

노동조합의 정치세력화를 1990년대 이래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나, 노동계 내부의 정치적 입장 차이에 따른 이견과 대립으로 통합적인 정당조직을 발전시키는데 실패하였다. 노동자들의 이해를 전국적인 수준에서 정치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한 현실에서 기업별 노조의 역할을 기업 내의 문제로 조합원의 관심을 더욱 집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점은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전국적인 정당의 부재를 더 강화시키는 “부정적인 환류효과”를 지닌다. 전반적으로 노동자가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노동자들의 조직이나 정치적 영향력은 대단히 제한되어 있다. 또한 1990년대 이후 시민운동의 활성화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단체들은 노동조합이 아니라 시민단체들이었다. 양대 노총은 조합원 수에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시

민단체에 비해서 큰 조직이지만, 사회적,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회조직으로 발전하지는 못했다. 2000년대 중반 민주노총이 사회운동 노조주의(social movement unionism)를 내세웠지만, 지속되지 못하여, 사회적 영향력은 크게 줄어들었다. 사회적 의제를 주도적으로 노동조합이 제기하지 못하면서, 노동조합이 조합원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으로 인식되는 현상도 나타났다.

### 사회적 안전망

노동자들의 안정된 삶은 노동을 통해서 보장될 수만은 없다.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실업, 산업재해, 질병, 퇴직 등으로 인하여 노동을 통한 소득이 없거나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노동을 통해서 생계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유일한 노동자들에게 임금 획득 기회의 상실은 개인과 가족에게 치명적인 일이 된다.

노동조합들은 자체적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도를 하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실업에 대비하여 스스로 실업보험제도를 만든 켄트제도이다. 벨기에 켄트에서 시작된 노동자 자율 실업보험제도는 노르웨이를 제외한 북유럽 국가들에서 받아들인 실업보험제도로 정부가 아니라 노조가 실업보험을 관리하고, 관련 서비스를 노조가 책임지는 제도이다.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정부가 실업 보험을 관리하고 있지만, 스웨덴을 필두로, 덴마크, 핀란드와 아이슬란드에서는 실업보험 제도화 초기부터 노조가 실업보험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에서 노동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안전망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다.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도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실제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가입되어 보호를 받는 비율은 대단히 큰 격차를 보인다.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한 노동자들에게 임금 획득 기회의 상실은 개인과 가족에게 치명적인 일이 된다. 2006년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가입률에서 정규직은 90% 이상으로 보여주었지만, 비정규직은 각각 48.8%, 46.8%, 44.1%로 낮았고, 산재보험만 89.1%로 높

았다. 이러한 추세는 강화되어 2019년 정규직의 경우,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가입률이 거의 100%에 가깝게 높아졌지만, 그 사이 비정규직 가입률은 높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정규직과 큰 편차를 보여준다. —고용보험(정규직 94.4%, 비정규직 74.0%), 건강보험(정규직 98.2%, 비정규직 64.2%), 국민연금(정규직 98.0%, 비정규직 61.0%), 산재보험(정규직 97.8%, 비정규직 97.3%)— 비정규직의 경우, 기업규모에 따라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보장에서 가입률이 50%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다. 최근까지 여러 가지 사회복지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실제로 비정규직의 사회적 안전망은 대단히 취약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가운데 임금이 낮고, 고용이 불안정하며, 사회적 안전망을 통한 보호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은 프리캐리아트(preariat)라고 불린다. 2019년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28.5%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절반 정도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도 가

입되어 있지 않았다. 비정규직 판매종사자의 1/3정도가 고용보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생산직 가운데서도 기능원의 2/3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으며, 단순노무자의 40% 정도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비정규직의 27.1%, 건설업 22%, 도소매 판매업 32%, 운수업 23.5%가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실직을 했을 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프리캐리야트이다.

**맺음말**

한국 노동체제의 중요한 제도적 특징과 현황을 살펴보았다. 짧은 기간 동안 한국의 노동체제는 여러 가지 변화를 보여주면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드러냈다. 보다 안정된 노동생활을

통해서 개인과 가족의 삶이 안정되는 것이 바람직한 상태라고 본다면, 최근까지 이루어진 여러 가지 한국 노동체제의 변화는 적어도 세 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고용의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근속년수가 짧은 현실에서 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불안과 걱정을 낮추는 길이 될 것이다. 고용불안은 개인과 가족이 삶을 위협하는 가장 위협적인 요소이다.

둘째,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실제로 사회적 안전망에서 벗어나 있는 광범위한 노동자 집단이 있다. 제도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여 국민 전체의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제도적으로 축소시키기 위한 법적,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

셋째, 한국의 노사관계와 노동정치에서 노동조합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다. 한국적인 상황에서 노동조합과 더불어 시민사회 단체의 역할도 중요하다. 노조조직률이 매우 낮고, 더욱이 양분되어 있고,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당도 제대로 발달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사회 단체의 역할을 더없이 중요하다. 노동조합과 시민사회 단체 간의 연대가 노동조합의 취약한 정치적 기반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노동 NGO뿐만 아니라 인권과 반차별을 내세우는 다양한 시민사회 단체들과의 연대는 중요한 정치적 자원이 될 수 있다. 

## 문제는 플랫폼 노동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의 권리

남재욱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플랫폼 노동 문제는 최근 가장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노동이슈 중 하나다. 한 편으로는 이른바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기술혁신이 노동에 미친 변화 중 가장 먼저 눈에 띈 현상이라는 점 때문에, 다른 한 편으로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종전의 전형적 고용관계에서 벗어나 있어 노동자로서의 권리나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 때문에 그렇다. 비록 현재의 노동인구에서 플랫폼 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지만, 향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 역시 플랫폼 노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요인이다.

**플랫폼 노동이란 무엇인가?**

플랫폼 노동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플랫폼 노동이 무

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플랫폼 노동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중계되는 노동”을 뜻한다. 정의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플랫폼 노동이라는 말은 그 일의 내용이 아닌 일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표현한다. 바꿔 말하면 이는 매우 다양한 성격, 내용, 숙련 수준의 일이 플랫폼 노동의 범위 안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의 플랫폼 노동 논의들은 배달, 대리운전, 퀵서비스 등 지역기반 운송 노동에 집중되어 있지만, 통·번역, IT, 디자인, 법률상담 등 이들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 업종에서도 플랫폼 노동은 증가하고 있다.

‘플랫폼 노동’이라는 동일 범주 안에 포함된 노동의 성격이나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 플랫폼 노동이라는 범주화는 그리 유용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범주화가 사용되는 것은 디지털 기술에 힘입은 등장과 확대라는 “새로움”과 함께 이들이 공유하는 또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들이 고용관계의 밖에 있으면서도, 전형적인 자영업자와 달리 타인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플랫폼 노동의 이 같은 특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대부분이 사용자와 피용자의 지속적 관계, 즉 고용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종속성은 있지만 법적인 고용관계가 아니라는 점은 노동법이나 사회보장법에 규정된 권리로부터 배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플랫폼 노동자가 플랫폼 기업에 종속되는 정도 역시 그 유형에 따라 다양하다. 주요

선진국에서 잇따라 우버 운전자나 음식배달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에 나오고 있는 것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운송 등 지역기반 플랫폼 노동의 종속성은 상당히 높다. 반면 주로 웹기반으로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플랫폼에 대한 종속성보다는 수수료를 수취하는 플랫폼이 수수료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지가 더 문제인 경우도 많다. 후자의 경우 프리랜서로서의 계약적 권리문제가 더 부각되기도 한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매우 불안정한 지위에서 노동하고 있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 플랫폼 노동이 정말로 새로운 문제인가?

그런데 플랫폼 노동의 문제를 이렇게 보면, 과연 플랫폼 노동 문제라는 것이 얼마나 새로운 것인지 질문하게 된다. 배달·운송 부문을 비롯한 지역기반 플랫폼 노동의 경우는 종전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혹은 위장 자영업자 문제에 가깝다. 이들 중 상당수는 실제로

근로자에 가깝지만 법적으로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에서 배제된다.

반면에 웹기반 플랫폼 노동 문제는 프리랜서 문제에 가깝다. 이 경우 종속성 문제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이들의 거래조건이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규정한 법적 장치 자체가 부족하다. 게다가 이들 역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구하고,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상당 부분 일방적으로 결정된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며,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매겨진 평점에 의해 계속 일감을 구할 수 있다가 영향받는다. 이를 고용관계에 준하는 종속성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온전히 대등한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거래 관계와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보면 플랫폼 노동 문제라는 것이 사실 디지털 플랫폼의 등장으로부터 시작된 고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데이비드 와일(David Weil)이 『균열일터』에서 지적한 것처럼

기술발전과 경영전략 변화에 따라 기업이 고용을 외부화하고, 그 결과 고용관계에서 벗어난 노동자들이 불안정에 처하는 문제는 이미 지난 수십 년간 지속되어온 경향이다. 플랫폼 노동은 이 경향의 최신형일 뿐이며, 그 문제의 본질은 유형에 따라 특고의 문제이거나 프리랜서 문제에 가깝다. 물론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함으로써 종전에는 작업 단위로 시장에서 교환되기 어려웠던 미세업무(microtask)의 거래가 확대되는 것이나, 온라인을 통해 외주 업무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은 새로운 현상이다. 그러나 적어도 아직까지 이와 같은 현상이 플랫폼 노동 문제를 종전의 특고, 프리랜서 문제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할 만한 근거가 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플랫폼 노동자 문제의 핵심은 무엇인가?

플랫폼 노동 문제가 생각보다 새롭지 않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 문제의 해법 역시 종전

의 특고나 프리랜서 문제의 해법과 겹쳐진다. 종속성이 높은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사실상 사용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해야 한다. 이른바 오분류(misclassification)의 교정이다. 근로자를 자영업자로 오분류할 경우 기업은 마땅히 자신이 부담해야 할 책임을 사회로 전가하는 것이며, 이는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혁신 기술”로 치장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좀 더 프리랜서에 가까운 플랫폼 노동의 경우 이들이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의 경우 고용관계의 틀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는데, 앞서 언급한대로 기술발전과 기업의 경영전략 변화에 따라 고용관계 안에 있지 않지만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함으로써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이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애초에 사회보험 등 사회보장제도 등장의 배경이 노동력을 판매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이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고려할 때,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에서 고용상 지위와 무관하게 모든 취업자의 사회보장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시대적 요구다. 최근 ‘전국민고용보험’ 논의는 이와 같은 맥락위에 있으며, 이를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사회보험의 보편화를 이루어야 한다.

또 한 가지 시대적 요구는 “누가 노동자이고, 누가 사용자인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방법에 있다. 인적종속성과 경제적종속성을 엄격하게 따져 노동자와 사용자를 정의하는 종전의 방식은 고용형태가 점점 더 다양해지는 현실과의 정합성이 떨어지고 있다. 특히 기술발전이 기업이 기업 밖 노동을 통제하는데 드는 거래비용을 점점 더 낮추고 있어 더욱 그렇다. 미국의 AB5가 고용관계의 표지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입증책임을 사용자에게 부여한 것처럼, 우리도 사용자와 노동자의 표지를 적극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분류 문제든 보편적 권리의 구축 문제든 ‘플랫폼 노동’이라는 범주에 묶여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당연하게도 기업이 노동자를 자영업자로 오분류할 경우 그 오분류된 노동이 플랫폼을 통해 거래된 것이든 그렇지 않은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일하는 사람의 보편적 권리를 확립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이를테면 사회보장을 확대함에 있어서 ‘플랫폼 노동자’를 겨냥하는 것 보다는, 고용형태나 종사상 지위에 무관하게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사회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접근이 바람직하다. 이는 사회보장권이 ‘근로자성’을 둘러싼 분쟁과 무관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뿐 아니라 안전보건, 차별금지, 적정노동시간 등 고용관계와 무관하게 일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보편적 노동권의 목록들을 제도화

하는 것, 누구든 숙련개발을 위해 교육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플랫폼 노동이라는 범주는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하나의 표상(表象)일 뿐이지 변화 전체가 아니다. 따라서 변화에 대한 대응 역 플랫폼 노동이 아닌 일하는 사람의 보편적 권리를 겨냥해야 한다.

플랫폼 노동과 관련하여 초점을 맞추어야 할 하나의 영역이 있다면 플랫폼 기업이 저야 할

책임이다. 플랫폼 기업은 종전의 기업과 달리 자산을 소유하지 않고, 고용하지도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플랫폼 기업이 사회로부터 자원과 노동력을 수취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기업 외부에 대한 의존도는 더 크다. 따라서 플랫폼 기업은 —설사 노동자 오분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신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 만약 플랫폼 노동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사업 네트워크에

속한 기업이 하나가 아니라면 그 사업 네트워크 전체의 책임이기도 하다. 이때 ‘책임’은 단지 막연한 의미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아니라,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보장과 숙련개발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기여나,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해 적어도 부분적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까지를 의미한다. 그것이 플랫폼 기업의 “혁신”이 우리 사회전체의 “혁신”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일 것이다. 

## 코로나19와 한국 내 이주노동자들의 건강

이주연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박사과정

재난은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다. 코로나19는 그 사실을 가혹하게 보여주고 있다. 재난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들 역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1년 2월 말 기준 한국 내 이주민은 201만여 명이며 이 중 최소 70% 이상의 사람이 노동을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소득 감소는 물론, 정보기와 대중교통 이용 등 일상생활의 불편, 의료기관 이용의 어려움과 두려움, 코로나19 관련 정보 부족 등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은 잠재적 전파자로 취급될 뿐 각종 지원에서는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

공적 마스크 구매에 있어서 한국 국적자는 신분증만을 요구받았지만 이주노동자는 건강보험카드 제시를 추가로 요구받았

다. 공적 마스크 제도는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수요의 급격한 증가 때문에 2020년 3월 정부가 공정한 배분을 목표로 도입한 내용이었다. 2019년 7월 16일 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이주민들도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기에 마스크 구매 시 건강보험카드 제시 요구는 명백한 차별이었다. 미등록 이주민은 물론 체류 기간 6개월 미만인 이주민과 유학생 등은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도 없었다. 여러 시민단체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서야 건강보험카드 제시 조건은 철회되었다. 호흡기를 통해 전파되는 코로나19의 특성상 국적에 따른 차이를 두는 것은 방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었다. 방역에서의 차별 문제는 의료기관에서 간병을 하는 돌봄 노동자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현재 간병인은 여성 이주노동자

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 수는 20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은 필수적인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병원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나 병원으로부터 각종 방역 물품 지원, 기초 방역 교육을 받지 못했다. 필수 구성원에 대한 방역 지원 미비는 간병인은 물론 병원과 환자 모두에게 부정적 영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주노동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코로나19 관련 정보는 한정적이었다. 코로나19 기본 수칙 정도만 다누리 홈페이지를 통해 다국어로 전달되었을 뿐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정보 접근성의 한계는 이주노동자들의 불안을 더욱 가중시켰으며 변화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숙지하지 못해 생활

에 큰 불편을 초래했다. 이주노동자들은 자녀를 언제 등교시켜야 하는지 알지 못했고, 원격수업에 대한 공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으며, 생활치료센터 입주 전 주의사항을 다국어로 안내받지 못해 당황했다. 치료 현장에서는 이주노동자와 의료진 간에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곤란한 상황이 빈번했다. 반면 미국은 질병통제예방센터 홈페이지에서 코로나19에 따른 대상별 예방 및 대처 전략을 다국어로 제공하고 있고, 일본은 정부 재난지원금(특별정액급부금) 지원 정보를 12개 언어로 안내했다. 코로나19 상황이 일 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데도 감염 예방을 위한 개인 수칙 외에 변화된 사항에 대한 간단한 다국어 안내문조차 마련하지 않은 점은 건강권을 침해하는 일이며 제한적 정보 접근성의 문제는 이주노동자 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를 곤경에 빠뜨리는 것이라는 점에서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방역에 있어서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사회 구성원에서 선택적으로 배제되었다. 방역 당국은 공적 마스크 지원 및 구매 상황에서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명명하며

배제하였지만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는 체류 단속을 유예하고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다며 권유하는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2021년 3월 8일 경기도를 시작으로 각 지자체에서 잇따라 미등록을 포함한 이주노동자 전체를 대상으로 진단 검사 행정명령을 내린 것이 대표적이다. 진단 검사 행정명령은 같은 직장 및 가족 구성원 내에서도 한국 국적이 아닌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다. 국적에 따른 감염병의 감염 및 전파의 차이에 관한 과학적 근거 없이 각 지자체의 행정명령은 서울을 제외하고는 강행되었다. 또한 소위 '외국인 밀집 지역'에 대한 특별방역 계획을 언급한 것은 인종차별이라는 각 기관의 성명서에 대하여 의도를 곡해하였다고 변명하거나 답변하지 않았다. 감염병의 전파, 치료, 대응에 있어서 이주노동자들이 특별 방역조치가 필요한 대상이라고 주장한다면 재난지원금과 방역물품 지원에서는 배제할 채 진단 검사 행정명령만을 내릴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우선순위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농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을 필수 인력으로 분류하여 1순위로 백신

접종을 진행한 바 있다.

코로나19 진단 검사 행정명령은 인종차별적인 인권 침해와 더불어 대상자인 이주노동자들에게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 보였다.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은 주 5일 근무를 하지 않는다는 점, 평일 근무시간에 진료 등을 위한 외출을 허락받기 어렵다는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이주노동자들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의 부족은 이주민 통합 정책 지수 (Migrant Integration Policy Index, MIPEX) 8개의 항목 중 이주노동자 정책 분야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부분이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 인종차별 철폐 위원회, 아동 권리 위원회 등의 여러 유엔 인권조약 기구는 지속적으로 실질적 의료 서비스 접근성 부족 문제를 시정 권고하고 있지만 좀처럼 달라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주노동자들에게 대한 이해없이 행정명령을 내린 결과 주말 새벽부터 임시 선별검사소 한곳에 검사대상이 모두 몰리는 바람에 거리가 불가능해져 오히려 전파 위험도가 상승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또한 행정명령 후 총 검사자 수는 예상보다 많아 각 지자체가

이주노동자의 수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했음이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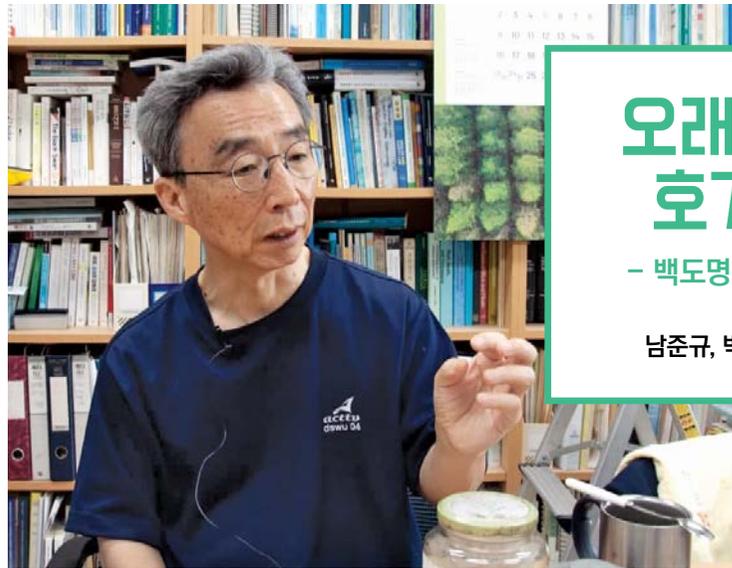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새로운 어려움과 더불어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들도 가시화되고 있다. 2020년 12월 캄보디아 출신 노동자 속행씨가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사망한 후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거주실태가 미디어를 통해 알려졌다. 다수의 이주노동자들은 고용인이 제공한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같은 비주택에서 생활하면서도 주거 환경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거주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고용인이 제공한 숙소에서 지냄으로써 파생될 수 있는 문제들을 지적하며 이것이 노동자에게 바람직하지 않음을 선언한 바 있다. 이주노동자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열악한 주거환경 외에도 의료 서비스 접근성 부족, 열악한 노동환경과 높은 산업재해율 등이 있다. 특히 고용허가제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이동을 금지하는 것은 이주노동자를 고용인에 종속시키고 후발 문제들을 개선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지속적인 비판을 받고 있다.

노동자로서의 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산업 연수생 제도 이후 이주노동자를 정부 주도하에 모집하는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2004년부터 2021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식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에 참담함을 느낀다. 고용노동부가 밝히고 있는 고용허가제의 의의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는 '인력난 완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도입'되는 인력자원으로 간주된다.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이 상당함은 인정하면서도 한 사람의 노동자,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더욱 선명히 드러났다. 코로나19상황이 시작된 후 각국에서 이주민을 대하

는 태도는 달랐다. 포르투갈은 2020년 3월 18일 국가비상사태가 발표되기 전에 거주신고를 한 모든 이주민과 난민 신청자에게 임시 거주권을 부여하여 사회 구성원 모두를 포괄하는 코로나19 방역정책을 펼칠 수 있었다. 싱가포르는 2020년 4월 이주노동자 기숙사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하자 전면적인 환경개선을 실시하였다. 이주노동자들은 선상호텔을 임시 숙소로 제공받았고, 총리는 싱가포르 사회에서 이주노동자의 의미를 강조하며 그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반면 한국은 코로나19 정부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이주노동자를 배제했고, 일부 지자체는 이주노동자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으나 금액에 차등을 두었다. 재난 상황 속에서 한국 내 이주노동자들은 다시 한번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게 되었다. 재난은 한국 사회의 인종차별을 가시화시켰다. 이주노동자의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인종에 따른 차이를 두면서 인종차별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태도는 한국 사회에서 건강 형평성 논의를 훼손하는 일이며 이 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저해하는 일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 오래된 활동가의 호기심과 연결

- 백도명, 어떤 차이와 어떤 공감 -

남준규, 박한솔 노동건강연대 상임활동가

### 백도명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 교수

포스코 광양제철소 태인동 지역주민 건강조사 보고서(2004)

진폐환자 영양관리 실태조사 및 진폐합병증 범위에 관한 연구(2005)

시화·반월공단 주민 건강영향연구(2006)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역학조사(2009)

수정만 stx조선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서 전문가 검토(2009)

제주의료원 간호사 유산 관련 역학조사(2011)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2012)

원전 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2014)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옥시 영국 본사 항의 방문 동행(2015)

라돈침대 피해신고자의 암유병 현황 분석 조사(2020)

날 짜 : 2021년 6월 2일 수요일

장 소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인터뷰 : 남준규, 박한솔 상임활동가

노동건강연대에 들어온 지 한 달 남짓한 때, ‘과학의 이름으로 약자의 곁에서’ 이의 인터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 멋있으며 사무국에서 호들갑을 조금 떨었는데, 인터뷰 주인공이 노동건강연대와 연이 깊은 인물이었다고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병아리 활동가는 ‘근속 1년’을 앞두고 있는데요, 거의 한 해 전에 댄 호들갑의 대가로 「노동과건강」 100호 한 쪽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전 수경 편집위원장이 함께 인터뷰에 가주신다고 해서 덤덤 미끼를 물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 저 혼자였습니다. 베테랑끼리 만나면 인터뷰가 재미있게 나온다나요. 절대 혼자서는 못 갈 것 같아 제 뒷자리에 계신 남준규 활동가를 급하게 찾았습니다. 이렇게 1, 2년 차에 갓 접어든 박한솔, 남준규 두 활동가가 질문과 고민을 안고 백도명 (전)상임대표를 만나고 왔습니다.

백도명 선생을 이야기할 때 따라오는 수식어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노동자들의 의사’, ‘피해자와 함께하는’, ‘대항과학자’ 등 다양한 수식어는 그가 걸어온 길에 붙은 이름입니다. 노동자 건강권이 결국 인권의 문제라고 말하는 그는 2003년에 노동건강연대 상임대표를 맡았고, 그해 여름에 「노동과건강」이 복간되었습니다. ‘복간을 준비하며’라는 쪽지에서 그는 진보와 보수를 구분하는 기준을 이야기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볼 수 있는 열어짐과 자신의 입장에서만 바라보는 닫힘”에 따라 진보와 보수를 나눌 수 있겠다고 말이지요. 20여 년이 흐른 어느 날, 이름도 얼굴도 새로운 활동가들을 마주한 그는 여전히 ‘역지사지’의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서울대입구역에서 5511번 버스를 타고 수의대/보건대학원 앞에서 내리면 됩니다. 전화를 주면 마중 나가 같이 가도록 하면 어떠할까 싶네요.”

백도명 선생이 메일로 보내준 자세한 설명이 무색하게 두 길치 활동가는 정거장을 헛갈렸습니다. 하필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올랐던 날이라 카메라 가방까지 메고 있던 남준규 활동가가 땀을 좀 뺐습니다. 보건대학원 건물 앞에 다다르자 마중을 나와계신 백도명 선생이 보였습니다. 저희 얼굴을 모르시니 인사를 할 듯 말 듯 엉거주춤, 저희도 백도명 선생을 실제로 뵙는 건 처음이라 긴가민가했습니다. 첫 만남의 어설픈 공기를 큰 인사와 꽃다발로 조금 덜어내고, 점심 담소를 엿볼까 싶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한 마디도 나누지 못하고 밥만 먹었습니다. 인터뷰는 식사가 끝난 뒤, 백도명 선생의 연구실로 자리를 옮겨 진행했습니다.



▲ 꽃다발을 건네받으며 의아해하는 백도명 선생의 모습. 동선상 밥 먹는 곳까지 꽃다발을 들고 다니셔야 했는데, 아는 사람을 만나니 꽤 쑥스러워하셨다는 후문.

**백**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이후에 계획하고 계신 것들이 있으세요?

**백** 사실 학교에 있으니까 가르치는 일을 했잖아요? 직업병이든 무엇이든 그게 어떤 것인지는 교과서대로 가르치지만, 우리나라가 겪어왔던 일들이나 좀 다른 점들 내지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 이런 것을 조금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정리하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아마 퇴직하고 1년 정도는 걸려서 해볼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필요한 곳에 가서 조사든 환자를 만나든, 하던 일을 비슷하게 조금씩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백** 보편적인 흐름 외에 한국이 겪은 일들을 정리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던 거예요?

**백** 단적인 예로, 굉장히 분명하게 ‘이건 전형적인 직업병이야’, ‘석면으로 인해서 석면폐가 문제가 됐어’ 그런 케이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단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랬을 때 ‘아, 단순히 교과서대로 하는 게 전부 다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안 되었는지를 생각하다 보면 좀 다른 내용, 필요한 내용을 정리할 필요를 느끼게 되죠.

문제가 해결되려면 원인과 대안이 같이 지목되어야 해요. 원인만 지목하면, 많은 경우 이미 사람들이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문제를 갖고만 있었던 거예요. 직업이나 환경적인 요인 중에 전형적인 건 텍스트에 많이 정리되어있어요. 그런데도 해결이 안 되는 이유를 가만히 보면 결국 그

런 거예요. 대안이 무엇이나는 것이죠. 그냥 사람에게 돈을 주고 도와주면 되는 건지,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건지, 바뀌야 하는 건지 아니면 책임을 묻거나 바꾸는 게 가능하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대안을 같이 고민해야 하더라고요. 원인을 지목하는 것과 더불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게 우리나라 나름대로 정리되어야 할 것 같아요.



▲ 활동가들에게 손수 커피를 내려주고 계신 백도명 선생의 모습. 평소에 혼자 커피를 드실 때는 이 기계를 잘 쓰지 않는다고 한다.

**남** 그 대안이라는 게 기술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노동건강연대에서 말하는 ‘불평등문제’에 기반한 대안일 수도 있을 텐데 어떤 식의 정리를 하고 싶으신 건가요?

**백** 그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출되지 않으면 괜찮아, 더이상 다루지 마’ 또는 ‘밸브 잠그고, 다르게 작업하면 돼’ 이런 것도 대안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노출됐는데 그건 문제가 없는 거야?’ 내지는 ‘앞으로 다시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지?’, ‘이 사람만 그런가? 다른 사람들은 어때?’ 그런 식의 질문이 생기게 되죠.

그게 단순히 우연에 의한 게 아니라 불평등과 구조적인 면 때문이라면, 이번에는 해결이 되어도 다시 상황이 바뀌면 똑같은 식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이런 문제를 일부는 풀어봤다고 생각이 들고, 많은 부분은 아직도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대안을 만들고 풀어나가는 과정도 한 번에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고요. 단계나 계단처럼 올라서야 하는 것 같아요. 해보고 부딪히면 다시 또 올라가서 다시 해야 하는 거죠.

**백** 요즘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삶에서 투입

한 노력에 비례하는 결과가 항상 나오지는 않지만, 운동은 더 그런 듯해요. 선생님께서는 그럴 때 절망감이나 어려움 같은 것들을 어떻게 견뎌내셨나요?

**백** 맨 처음에는 직업병 운동에서 보상만이 대안이었어요. 보상받느냐, 안 받느냐. 그렇게 되면 아주 위험한 사람들은 일부 보상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논란이 많이 돼요. 아직도 위험에 처해있는 사람들한테는 해줄 게 아무 것도 없어요. 문제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계속 있는 거예요. ‘왜 예방은 안 하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사회가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보상’을 하고 나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나머지 사람들에게 대한 문제가 넓혀지는 시점이 오더라고요. 바뀐다는 느낌이 들었던 게 세월호였어요. 그분들이 ‘우리는 보상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원인 조사를 요구한다’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신선했

어요. 재해를 당하고 나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조사해달라는 것은 그전에는 별로 없었던 거예요.

**백** 의학이나 과학이 노동자 건강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적인 것만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동안 활동하신 건가요?

**백** 음... 그런 게 필요한 것도 있죠? 그런데 기술적인 게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정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삼성 반도체에서 백혈병이 생겼을 때 삼성에서는 발암물질을 쓰지 않았다, 측정상 아무 이상이 없다고 주장했거든요. 무엇이 발암물질이고, 그걸 어떻게 측정하는지는 기술적인 논리인데, 발암물질이라는 것이 두부모 자르듯이 딱 끊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물질은 사람한테는 위험성이 잘 조사가 안 되었지만, 동물한테는 조사된 물질도 있고, 동물한테 조사된 것도 근거의 범위들이 다른 것들이 좀 있고. 실제로 전체 스펙트럼을 다 보고, 어떤 식으로 측정이 되었는지 보면 빵꾸가 굉장히 많아요. 이러한 지점에서 기술이 모든 걸 담보하지 못한다는 걸 보여주지만 해도 논리가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 논리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는지에 따라서 다른 건데, 기술을 만능주의처럼 이야기하게 되면 ‘아니다’라고 말하는 역할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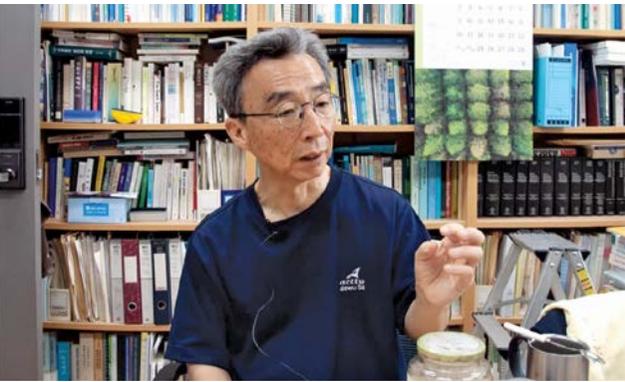
**백** 선생님께서 ‘가치판단에 따른 선택을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걸 본 기억이 나요. 그게 어떻게 어렵지 않을 수 있었어요?

**백** 글썄요. 모르겠어요. 전문가 내지는 지식인의 한계점이라 할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말하는 게 틀리지만 않으면 상대가 누구든지 제대로 말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내가 틀렸다는 생각이 들면 결정이나 의견을 내리는 게 어려워지는데, 판단의 근거를 검토했을 때 내가 한 판단이 맞다고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백** 전문가, 지식인을 언급하셔서 드리는 질문이에요. 전문가 혹은 지식인, 노동조합이 2021년 지금 노동자건강권 운동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백** 우선은 ‘전문가’라는 게 전문가와 비전문가로 딱 구분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조금 더 오래 들여다보았거나, 깊이 할 수 있거나 등 경험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요. 시민과학자 내지는 시민이 직접 조사나 측정에 참여하는 것도 가능한 것 같아요. 측정의 기전이나 표시하는 방식에 전문용어나 수식이 많아서 공유되기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과정에 역할을 담당해서 참여하는 건 누구든 다 가능할 것 같아요. 전문가의 논리가 어떻게 보면 아주 복잡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전문가들의 역할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기 분야를 나누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전문가 역할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다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같이 하는 방식이 되겠죠?

노조하고 전문가의 역할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이었는데 이제 노조가... 뭐라 그럴까. 우리 사회에서 ‘고용’이라는 권력관계가 단순히 노동이나 시간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이거



나 개인적인 삶을 다 지배해요. 그 문제를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우니까 집단으로 노조를 통해 구성원들의 관계를 민주적이고 평등한 관계로 바꾸어 나가는 과정이었죠. 예전의 노조는 단순히 노조라기보다는 노조 활동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구성원 간 관계에 관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새로운 경험보다는 좀 더 이해에 치우친 듯한 활동들이 되어버리니까 한계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직업환경의 유해인자—화학물질이든 부담스러운 활동이든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든 독성 물질과 인체공학적인 문제들과 사회심리적인 스트레스—가 그냥 그 자체로 있는 게 아니라, 사회적 조건과 결부되어요. ‘일’이라고 하는 게 할 수 없이 사회적인 조건과 유해인자가 결부되게끔 매개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조건, 매개하는 조건을 바꾸지 않는 한 상당히 어려운 거 같아요.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집단적인 활동을 통해 노조가 맨 처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바뀌어나가는 작업이 필요하지요. 이런 면에서 전문가나 노조의 역할이 필요한데, 현재 시스템에서 구조적인 문제를 보기보다는 이해관계의 문제만을 다루는 집단이기주의처럼 되니까 전문가도 노조도 욕을 먹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그런 문제는 언제든 있었겠죠?

**박** 과거에는 고용이라는 관계에서 파생되는 모든 문제를 노동조합이 품으려고 했었다면, 지금은 좀 더 조합원을 챙기는 식으로 가는 거네요. 요즘 ‘MZ세대의 새로운 노조’가 기존 노조와 별개로 노조를 만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새로운 흐름은 어떻게 보시나요?

**백** 제가 사실은 정확하게 다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니긴 한데요. 노사 관계가 가지고 있는 힘의 역학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습들과 여러 가지 측면으로 닿아 있다고 생각해요. 차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남녀 간의 문제, 외국인, 지역주의... 그런 모습들과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 사회가 힘의 역학 관계를 평등하게 하는 사회가 아니라, 그냥 기존에 있었던 걸 그대로 인정하거나 그 안에서 작동되는 식으로 끼리끼리 좋은 게 만들어지는 사회였던 것 같아요.

신세대가 그런 면에서 뭐라고 할까요. 좀 이상하게 이야기가 되는데, 평등함, 공정성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게 되잖아요. 페미니스트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남자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교육에서도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많은 논란이 있는데요. 결국은 저는 역지사지를 하면 기존의 힘이나 논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들은 드러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노동에 이 문제를 지적하지만 집에 들어가면 또 권력자예요. 아버지로서, 남자로서, 내지는 그럴듯한 사회적 인물로서 굉장히 큰 권력자예요. 아이들한테 대하는 거라든가 하는 걸 거꾸로 역지사지해보면 내가 밖에서 이야기하는 것의 부당함을 똑같은 지적을 받는 그런 거거든요. (웃음) 그런 면에서 새로운 세대가 노조를 따로 만들고 지적하는 것도 의미는 있

는데, 서로가 역지사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박** 역지사지는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요. (웃음) 페미니즘을 잠깐 언급하셨는데, 노동건강연대는 예전부터 여성노동자의 건강권에 관심이 많았더라고요. 사회적 분위기가 지금과는 좀 달랐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백** 맞아요. 그런 이야기를 꺼내면 소위 반응이, 대안이 뭐냐 하면 ‘모성보호’예요. 여자를 특별하게 취급하는 것이지, 그 환경을 개선해서 남성과 똑같이 일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아니었어요. 다른 후속적이고 더 근본적인 대안없이 모성보호를 하라는 건 일 시키지 말고 집에 가서 쉬게 하라는 말이지요.

**박** 그런 분위기였는데도 계속 여성노동자의 건강 문제를 이야기했던 이유가 있었나요?

**백** 그게 문제니까요. 사실은 지금도 제대로 잘 되고 있진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가령, 유산이나 기형 문제가 어떤 특정 직업에서만 막 높은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문제가 꽤 있는데, 특정 직업으로 보자면 간호사나 병원 내 여러 직종을 보면 높아요. 반도체 종사자도 높아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화학 물질이든 교대근무이든 근무환경이든 문제 될 수 있다는 걸 아는데, 그걸 드러내놓고 바꿔야 한다고 이야기하기까지가... 아직 잘 못하지요. 아까 얘기한 모성보호 식으로 ‘일 시키지 마’ 이렇게 되니까요.

이번에 코로나19도 아프면 쉬고, 이상하면 쉬라는 거 아녜요? 그런데 유급휴가가 없으면서

그냥 쉬고 접촉하지 말라고 하면 그거 뭐 굵어 죽으라는 이야기지요. 쉬에 대한 대안이 없는데 그냥 접촉하지 말라는 건 굉장히 모순적인 대안이 되죠.

**박** 방금 하신 ‘그게 문제니까요’ 이 말 너무 좋네요. 캐나다에서 트뤼도 총리가 구성한 내각에 소수자성을 지닌 사람들이 많으니까 기자가 왜 이렇게 구성했냐고 질문을 던졌을 때 총리가 “지금은 2015년이니까요!”라고 말한 일이 떠올랐어요. 거의 그 느낌이었어요. (웃음)



**박** 너무 저희가 궁금한 것만 여쭙보는 것 같은데, 선생님 최근 관심사 같은 게 있으세요?

**백** 지금 노건연에 들어와서 활동하니까 어때요? 배운 게 뭐가 있어요?

**박** 배운 거요? 배운 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저는 노동이나 해고같이 전형적인 노동운동으로 여겨지는 것들에 주로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다가 노동건강연대에 왔는데, 막상 들어와서 보니까 건강 문제가 훨씬 더 큰 범주고, 복잡한 층위가 있다는 걸 알았고, 계속 배우고 있어요. 더불어서 여기 남준규 활동가는 노무사이시거

든요. 예전부터 노건연에 전문적인 분들이 많이 계셨더라고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직업적인 전문성이 어떤 걸 담보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노건연의 기존 활동 기조가 있으니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뭐가 있을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백** 인권 감수성을 높이면 할 거는 많아요.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는 결국 '인권'의 문제인 거 같아요. 그런 걸 뒤집어보고, 들여다보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 할 일은 굉장히 많아요.

**남** 저도 활동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뭐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불평등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김용균 노동자가 돌아가셨을 때 그 일을 계기로 노동건강연대에 인연이 닿았는데, 처음에는 '노동자가 적어도 일하다가 죽지는 말아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러 선생님이 결국 '건강 문제는 불평등의 문제'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기계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긴 한데, (일동 웃음) '불평등의 문제'라는 말이 와닿았어요. 불평등이 건강에도 영향을 주지만, 여러 불평등과 불평등한 구조가 있다는 걸 근래에 많이 느끼고 있어요. 최대 고민은 이런 상황에서 개인은 어떻게 행동하고 처신하는 게 옳은 것인가에 대한 거예요. 제 친구들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해줄까 이런 고민도 있고요.

**백** 글썸 말이에요. 본인이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든, 불평등에 처하게 하는 것은 뭐가 없는지 부터 이야기를 꺼내면 친구들한테도 훨씬 더 와닿을 거란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모르겠어요.

요즘 '그린뉴딜'이라고 이것저것 하는데, 기존에 갖고 있던 부정의·불평등 중에 환경적으로 다시 봐야 할 것들이 전부 그린뉴딜에 포함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주 선택적으로, 돈이 될 수 있는 것들만 포함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더 문제를 악화시키거나 나 몰라라 하는 느낌이 들어요. 요즘에는 소각장이 도심에는 하나도 없어요. 대개는 아주 한적한 시골 농촌에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좀 참아라' 이거거든요. 모두가 살기 위한 측면에서는 소각장이 돌아가는 게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세대에 환경문제를 넘겨주거나, 다음 세대만이 아니라 우리 세대인데도 농촌에 있는 세대에 환경문제를 넘겨주거나 하는 경우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런 거는 참... 내가 살면서 부끄러워해야 하는 불평등인데. 잘 모르죠. 나 자신도. (웃음)

**백** 밀양 송전탑이 생각나네요.

**백** 그렇죠. 지금 집에 들어앉아서 따뜻하고 유쾌하게 잘 사는 게 사실은 다른 문제를 떠넘기고 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걸 자각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백** 요즘 관심 있는 일이나 사회적 문제가 있으신가요?

**백** 지난번에 가슴기 살균제 무죄판결이 나서 다시 자료를 정리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변호사들과 같이하는데 이야기할 게 많네요. 쉽진 않은데, 그게 지금 해야 하는 거고, 글썸 다른 건 또 뭐가 있는지... (웃음)

**백** 중요한 일을 맡고 계시네요. 무죄판결에 대한 반박 내용을 새로 구성하셔야 하는 건가요?

**백**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재판장이 보기에, 변호사가 보기에 따라 다르게 결론을 내리니까 같은 자료라도 상대방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새로운 자료를 가지고 구성하는 일도 필요하죠. 가슴기 살균제 사건이 꽤 오래되었긴 하지만 안 풀리는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요.

**백** 그렇게 안 풀려서 마음에 담아두고 계신 사건도 많으시죠?

**백** 아, 교훈이 되는 사건이긴 한데 전라북도 남원 내기마을이라고 하는 곳을 조사한 적이 있어요. 조사해서 문제가 있다고 말했지만 결국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돌아보면서 '이게 왜 못 변했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많이 하게 되는데요. 처음부터 대안에 대한 틀을 갖고 가서 채우는 작업 없이, 그냥 원인 조사만 하고 '이게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건 변한 게 있고, 어떤 건 내기마을처럼 하나도 안 변한 것도 있고. 그래서 변한 건 왜 변했을까, 안 된 거는 왜 안 변했을까 그걸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백** 바라던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다음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이유가 있으세요? 이상운 대표님은 오래 운동하려면 희망을 잃지 않되 '비관'을 기본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혹시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키워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 내기마을과 아스콘 공장

전북 남원시 이백면 내기마을에 거주하는 주민 70여 명 중 1999년부터 2013년 사이에 17명이 암 진단을 받고(7명이 폐암), 15여 명이 사망했다. 주민들은 내기마을 인근에 자리 잡은 아스콘 공장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공장 가동 중단을 요구하며 끈질기게 문제를 제기했다. 국립암센터에서 수행한 사전 조사로 내기마을 폐암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자, 2014년 질병관리본부와 남원시가 백도명 교수에게 역학조사를 맡겼다. 2년에 걸친 조사 결과, 아스콘 공장을 비롯한 내기마을의 주변 환경(고압송전탑 등) 요인과 유해 물질이 암 발병 위험요인으로 확인되었으나 남원시는 폐암 발생 위험요인과 아스콘 공장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보도 자료를 발표했다. 남원시는 유해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지만 적절한 방안은 없었다. 다른 대책 역시 가정 내 환기, 금연클리닉 운영 등 위험요인 제거와는 무관한 쪽으로 마련되었다.

**백** 아까 원인 내지는 인과관계를 강조했는데요. 생각대로 안 되었을 때 '왜 그렇지?', '뭘 잘못했지?', '어떻게 다음에는 바꾸지?'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조금 나은 것 같아요.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무엇이 달랐는지 물으면서 배울 점을 찾는 거죠. 인생의 많은 것들을 그런 식으로 볼 수도 있죠. '애인이랑 이번엔 뭐가 달랐을까?' (일동 웃음) 우연이나 개인적인 성향보다는 원인 중에 조금 더 구조적인 면을 들여다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백** 구조적인 문제를 보면서 노동건강연대나 시민 사회에서 활동하던 분들이 많이 정계로 가지 않아요.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백** 논의 자체는 정치권으로, 행정적으로 좀 옮겨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실행되는 과정은 또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논의가 실제 실행된다는 건 그 안의 시스템을 만드는 건데,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훨씬 더 길고 피드백이 훨씬 더 많지요. 올라가야 하는 스텝들을 생각하면서 진행해야 하고, 한꺼번에 쭉 되는 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논의는 됐지만, 실행이 순탄하게 되진 않는 것 같아요.

**박** 처음에 여쭙보려고 생각했던 것들은 웬만하면 다 여쭙봤네요.

**백** 아 그래요? 그런 질문하려고 왔었어요? (웃음)

**박** 네. 그런 것도 하나 해주세요.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노동자 건강권 운동이란?” 이런 거요. 글자 수 제한은 안 드릴게요. (웃음)

**백** (웃음) 글썄요.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나요. 음... 많은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머리에서 가슴으로의 여행이 아니라 가슴에서 발로의 여행이다. 내지는 비를 안 맞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비를 맞고 가는 거라든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나도 건강하고, 나와 너, 우리가 다 건강한 구조를 같이 만들어나가는 일이지요. 이걸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건강’이라고 하는 게 실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 같아요. 많은 경우 노조나 특히 이런 활동하는 사람들이 사는 게 굉장히 불건강해요. 그렇게 본인이 건강하지 못하면 운동도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박** 처음에 연락받으셨을 때 어떤 질문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아마 김명희 선생님이 연락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냥 ‘활동가들이 인터뷰하러 갈 겁니다’ 이러셨던 건가요?



**백** 그런 것 같은데요. (일동 웃음)

**박** 연락받으셨을 때 선생님이 생각하셨던 게 혹시 있으셨어요?

**백** 글썄요. 연락받았을 때는 활동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옛날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거보다는 좀 더 뭐랄까 후기 같은 느낌이네요.

**박** 후기, 소회, 플러스 미래. 이런 질문이었죠. 저희가 궁금해했던 것들이어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했어요. 엄청 오랫동안 계속한 길을 오셨으니까요.

**백** 그렇죠. (한숨)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거라기보다는... 같이 살면서 나누어주는 그런 게 있어야겠지요. 그게 실제 대답일 텐데,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지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박** 계속 말씀하시느라 힘드셨을 것 같아요. (웃음) 아, 가기 전에 혹시 선생님 MBTI 알고 계세요?

**백** 저는 그걸 잘 믿지는 않아요. (남) 해보셨어요? 문항 체크 같은 거) 해봤던 것도 같은데 기억을 잘 못해요. 사실 제가 MBTI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지는 않은데. (웃음)

**박** 저희도 엄청 심각하게 여쭙본 건 아니고요. (웃음) 궁금해서요.

**백** 왜요?

**남** 다른 게 아니라 선생님 인터뷰를 하자고 할 때, 제가 질문을 엄청 많이 고민했거든요. 가장 궁금한 건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꾸준히 활동하실 수 있었어요. ‘개인적인 요인이 있었던 걸까?’ 하면서요. MBTI가 일종의 성격 테스트잖아요. 원체 선생님이 타고 나신 성정 때문인지 궁금했거든요.

**백** 아아

**남** 취미나 좋아하시는 거 있으세요?

**백** 신문에 도서 섹션이 있어요. 한겨레는 금요일이고, 경향은 토요일 아침에 배달된 신문에 있는 도서 섹션을 읽으면서 내 생각과 맞춰보는 걸 해요. 그러다가 책의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거나, 잘못되었다거나,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거나, 궁금하면 그 책을 사서 한번 읽어 보는 게 재밌었어요. 하다 보면 일주일이 쏙 가요. 그럼 다음 주에 또 하고. (웃음)

**박** 선생님 취미도 되게... (웃음)

**남** 그냥 일반적으로 ‘독서’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적극적인 글 읽기 같아요.

**박** 스타일이 드러나는 글 읽기네요.

**남**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을 해주시고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백** 처음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궁금증이었던 거 같아요. 호기심이 어느 순간에는 다른 존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른 존재의 마음이 되어 보고, 다른 존재의 생각을 내가 해보는 것까지도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노동자 건강권의 문제도 맨 처음에는 기술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돈이 없어서인지, 어떤 체계 때문인지 생각하다가, 나중엔 결국 인권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결국은 호기심에서 출발해서 상대의 마음에 가보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살고 있는지를 보는 과정에서 답을 얻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 역지사지네요.

**백** 비슷하죠?

**박** 해주신 답변 중 많은 부분에 역지사지가 묻어나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걸 느꼈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생님.

**백** (힘주어) 예. 알겠습니다. (한숨)

노동건강연대 걸어온

길

2001년

2001. 6. 3.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들, 비정규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보편적 권리로서의 건강권을 위해 활동하고자 노동건강연대 문을 열다. 임상혁, 주영수를 공동대표로 선출하고, 사무실은 '서울시 중구 저동2가 46-8 신원빌딩 6층'에 두다. 당시 사무실은 '전국언론노조 서울지역인쇄노동조합지부'와 공동으로 사용함.

2001. 7. 24.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 논평 발표. 1999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입건한 3,406개 사업장 5,702명의 사업주 중 구속수사 6개 사업장 7명(위반자 대비 구속자수 0.00122%), 2000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입건한 4,391개 사업장 8,124명의 사업주 중 구속수사 5개 사업장 10명(위반자 대비 구속자수 0.00123%). 당시 한 해 2500여 명이 사망하는 상황에서 대우조선에서 한 달에 한 명씩 사망이 일어났는데 대우조선은 각 사망사건에 대해서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벌금 형만 받음.

2001. 7. 25.

서울 성수역 영세사업장 밀집지역 선전전을 진행하다.

2001. 8. 15.

〈급격한 증가를 보이는 산업재해와 미미한 사업주 처벌〉 논평 발표.

8월 6일 현대미포조선에서 작업중 인 선적에서 폭발로 인해 4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화상을 입는 참사 발생. 8월까지 12명의 철도 기능직 노동자가 안전감시자 없이 선로에서 일하다 사망하는 상황에서 7월에 이어 2차 논평 발표.

2001. 9. 14.

〈회원토론회-산재사고 처벌에 대한 특별법〉을 개최하다.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한 기업 처벌 강화를 위해서 특별법의 주요내용과 요구 사항, 법적정운동의 의의와 한계, 가칭 특별법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 회원 토론회를 열다.

2001. 10. 29.

〈경기보조원의 업무상재해 실태 및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토론회〉를 전국여성노조와 함께 열다.

노동건강연대가 조사한 골프장 경기보조원 건강실태와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미적용 문제에 대하여 사회적 공론화 시작.



2001. 11. 5.

〈산재노동자의 재활요구도 조사결과〉를 발간하다.

2001. 11. 9.

〈산재사업장 명단공개하면 기업에 타격에 된다고?〉 논평 발표. 대한상회가 산재다발 사업장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정부안에 대해, 명단 공개 수위를 낮춰줄 것을 요구하자 '산재를 일으키는 기업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치명적 타격을 입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논평.

2001. 11. 18.

산재노동자협의회와 함께 가을 운동회를 열다.

2001. 11. 21.

〈산재보험제도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다.

2001. 12. 2.

서울 종묘공원에서 열린 〈전국민중대회〉에 참석하다. 노동건강연대는 '노동조건 개악 없는 주5일 근무쟁취'와 '비정규직 철폐', '민간의료보험 저지'와 '산재보험개혁'을 요구.

2002년

2002. 1. 22.

회원 MT를 개최하다.

2002. 2. 6.

〈월례토론회-인권의 관점에서 본 노동자 건강〉을 열다.

2002. 3. 19.

〈정책토론회-산재사고 처리 및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서울대 보건대학원 강당에서 개최하다.

창립 이후 제기해온 산재사망에 대한 문제의식을 정리하여 산재사망에 대한 사업주책임과 처벌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제안을 함.

2002. 3. 20.

〈산재보험제도 개혁을 위한 노동사회단체 토론회〉를 열다.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을 제안함. 당시 '산재보험제도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노동건강연대가 집행위원장, 정책기획, 실무 등에 역량을 투입하고 있었음. 토론회는 비정규직노동자, 여성노동자, 장애인, 이주노동자, 보건의료운동의 관점에서 산재보험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제안하는 자리로 마련함.

2002. 4. 10.

〈산재보험제도 개혁을 위한 토론회〉를 노동부와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다.

2002. 4. 23.

〈건설노동자 건강실태 발표 및 산업보건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건설산업연맹과 함께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다.

2002. 5. 30.

〈이주노동자 건강권 조사를 위한 준비세미나〉를 개최하다.

2002. 6. 10.

'노동건강연대 1년 평가를 위한 회원 모임'을 을지로 사무실에서 열다.

2002. 6. 14.

〈산재노동자 인권 탄압하는 대우조선 규탄대회〉를 서울 을지로 대우조선 본사 앞에서 '전국산재피해자단체연합'과 함께 열다.

앞서 구성된 '산재보험제도개혁을 위한 공대위'에 산재노동자협의회를 비롯한 산재노동자 단체가 모여 산재노동자들의 치료제한, 권익침해 등에 대하여 함께 대응함.

2002. 6. 29

노동건강연대 창립 1주년 토론회 및 2차 총회를 서울대 보건대학원 강당에서 열고자 하였으나, 2002 월드컵 한국과 폴란드의 경기가 열려 행사를 연기하다.

당시 월드컵 거리응원은 '천재지변'에 해당한다는 회원들의 판단에 따라 총회 예정일 3일 전에 긴급하게 연기를 결정하였다.

**2002. 7. 6**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1주년 기념 제1차 보건의료포럼> 이 서울 보문동 천주교 노동사목회관에서 열려 참석하다.  
 노동건강연대는 분야별 토론에 '산재보험과 노동자건강'을 주제로 발표함.

**2002. 7. 20.**  
 2차 총회. 6월 29일 월드컵 거리응원으로 연기한 총회 및 토론회를 <노동자건강권 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열다. 성공회대 김동춘 교수, 민주노총, 한국비정규센터 등이 토론자로 참석. 노동건강연대는 노동자건강권 운동이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의료, 인권, 복지, 환경 운동과 공통의 과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제안하고, '노동시간단축', '비정규직,이주,영세노동자의 건강권 보장투쟁', '노동자 건강에 대한 기업과 사회의 책임 확립', '보장성 강화를 위한 산재보험 제도의 전면적 개혁'을 주장.

**2002. 9. 17.**  
 ILO 90차 총회에서 산재, 직업병 의제가 주요안건으로 채택되어 민주노총과 함께 결과 보고회를 열다.

**2002. 10. 10.**  
 <정책토론회 - 2002 대통령 선거와 노동자건강>을 열다.

**2002. 10. 31.**  
 <회원토론회 - 2002 대선 정세와 노동건강연대의 정책제안>을 열다.

**2002. 11. 9.**  
 경희대 노천극장에서 열린 노동자대회 전야제에 산재보험개혁 부스를 설치하고, '산재보상 먼저, 노동자건강 먼저, 사전승인 철폐' 슬로건을 걸다.

**2002. 11. 20.**  
 <정책토론회 - 산별노조와 노동자건강권 운동>을 열다.

고려대 강수돌 교수의 발제와 노동건강연대 정책기획국의 토론.

**2002. 12. 23.**  
 송년회를 열다.  
 노동건강연대 송년회의 전통이 된 '1만 원 안팎의 선물교환'과 회원들을 열광시킨 '369게임'이 2001년에 이어 등장.

**2003년**

**2003. 1. 23**  
 <노동자건강을 위한 노무현 정부의 과제 토론회>를 국가인권위 11층 배움터에서 개최하다.  
 백도명 서울대보건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음.

**2003. 3. 6.**  
 3차 총회. 백도명, 박두용, 임상혁을 공동대표로 선출하고 상임대표로 백도명을 선임하다.

**2003. 3. 6.**  
 <석포제련소의 노동환경·지역환경

문제와 우리의 요구 토론회>를 경북 영주시 교육청 회의실에서 개최하다.

**2003. 3. 12.**  
 <대구지하철 참사 관련 시민사회종교노동단체 기자회견>에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및 안전대책 공청회와 TV토론 등을 요구하다.

**2003. 4. 3.**  
 '산재보험제도개혁을 위한 공대위 수련회'가 대구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열리다.  
 노동건강연대와 보건의료단체연합이 사회보장투쟁의 필요성과 의미, 사업계획 토론 등을 진행.

**2003. 4. 18.**  
 <정책토론회 - 이주노동자 노동안전보건의 실태와 건강권 확보방안>을 노동건강연대 사무실에서 개최하다.

**2003. 4. 27.**  
 <산재노동자-보건의료인 체육대회>를 2002년에 이어서 열다.  
 산재노동자와 보건의료단체연합 의료인들이 모여 2인 3각, 단체줄넘기 같은 운동경기를 진행하고, 아이들과 놀이, 막걸리 뒤풀이를 하였다.



**2003. 4. 29.**  
 <여수지역 건설노동자 건강실태 발표 및 제도개선 공청회>를 전국건설노조와 함께 여수에서 개최하다.

**2003. 5. 17.**  
 <노동자의 손으로 작업장을 바꾼다 - 지역노조와 함께 하는 하루 프로그램>을 열다.  
 노동건강연대는 '성수동 식구들'(노동건강연대, 민주노총서울본부, 서울지역전화노조, 서울경인지역인쇄노조, 성동건강복지센터)이라는 네트워크를 만들어 서울 성수동 영세사업장 밀집지역에서 활동하였는데, 이날 프로그램은 성수동의 제화 작업장에서 진행하였다.

**2003. 6. 17.**  
 <'산재사망은 왜 기업의 살인인가' 토론회>를 민주노총 서울본부 회의실에서 열다.  
 노동건강연대가 창립 때부터 주장한 산재사망 및 반복적인 중대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고 기업의 책임을 확대 강화시켜야만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토론회.

**2003. 9. 19.**  
 상반기 평가와 하반기 계획을 위한 회원 토론회 열다.

**2003. 9. 30.**  
 <정책토론회 - 노동안전보건 관련 정부 예산안 평가 - 산재보험기금, 산재예방기금을 중심으로>를 민주

노총 서울본부 교육실에서 열다.

**2003. 10. 8.**  
 <호주의 비정규직 노동자 건강 실태 및 관련 제도에 대한 세미나>를 노동건강연대 사무실에서 열다.  
 호주의 노동조합평의회가 발표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안전보건 문제의 실제:호주 영역 노동자의 경우>를 검토함.

**2003. 10. 19.**  
 회원 가을나들이.  
 백도명 상임대표와 함께 북한산에서의 가벼운 산행과 삼겹살 뒤풀이.

**2003. 10. 26.**  
 비정규직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하다.  
 "비정규직 죽어간다 건강대책 마련하라", "비정규직도 노동자다 산재보험 적용하라"를 피켓 문구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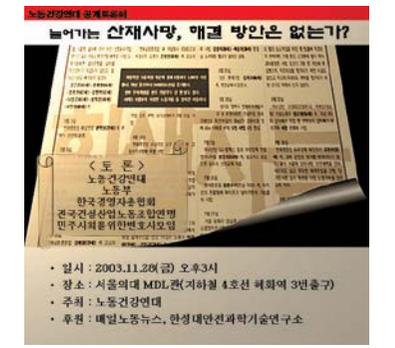
**2003. 11. 6.**  
 손배가압류금지 노동탄압분쇄 보건의료인 기자회견



**2003. 11. 8.**  
 서울 중앙대에서 열린 노동자대회 전야제, 9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노동자대회에 참석하다.  
 '산재사망은 기업의 살인이다' 캠페인 진행.



**2003. 11. 28.**  
 <공개토론회 - 늘어나는 산재사망, 해결방안은 없는가?>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강당에서 열다.



**2003. 12. 4.**  
 <성수동사업 1년 결산 "지역노조, 노동안전보건활동을 만나다" - 성수동에서의 작은 성공 나누기 워크숍>을 민주노총 서울본부에서 개최하다.

2003. 12. 16.

송년회를 충무로 베어가든에서 열다. 1만 원 상당의 선물교환식 역시 진행.

2003. 12. 29.

〈고용허가제실시와 이주노동자의 건강권과 노동권 토론회〉를 성수동 성동건강복지센터에서 열다. 노동건강연대가 '성수동 영세사업장 이주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및 건강권에서 견지할 원칙'에 대하여 백도명 상임대표가 발제.

2004. 3. 24.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함께 비정규직 차별철폐 서울동부지역, 성수동 제화거리를 행진



2004. 1. 29.

〈2004년 노동자건강권운동의 방향과 과제〉 정책토론회를 서울 이화동 보건 의료단체연합 새 사무실에서 열다.



2004. 2. 21.

4차 총회.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4차 총회를 열다.

2004. 2. 24.

〈학교급식 조리종사원의 건강 및 작업환경 개선 토론회〉를 전국여성노조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다. 노동건강연대의 조사 결과 407명 조사 대상자의 34%가 산재를 겪었고, 75% 개인비용 치료, 산재보험은 단 9%라는 결과가 나와 사회적 반향을 일으킴.

2004. 2. 26.

〈2003년 활동을 바라보고 2004년 활동을 준비하는 좌담회〉를 성수동

식구들이 충무로역 지하철노조 회의실에서 열다.

2004. 3. 15.

〈성명 - 노동자 죽이는 기업주를 처벌해야 문제가 해결된다 - 두산중공업 HSD엔진 폭발사고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발표하다. 2004년 2월 경총이 주장한 노동자 과실과 법기준이 기업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반박함.

2004. 4. 25.

산재노동자, 보건의료인, 단체가 모여 연대한마당을 열다.



2004. 4. 28.

〈전쟁 사망자보다 더 많은 이들이 기업에 의해 살해되고 있다 4.28 국제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논평을 발표하다. ※ 4월 28일은 국제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International Workers' Memorial Day)로서 전 세계의 노동자들이 노동절을 앞두고, 산재로 죽은 이들을 추모한다고 국내에 소개하고 추모 논평을 발표.

2004. 5. 1.

114주년 세계노동절 대회에 "산재사망은 기업살인이다 기업주를 구속하라" 플래카드를 들고 행진.



2004. 5. 4.

〈회원토론회 - 노동자건강권운동에서 민주노동당 원내진출의 의미와 과제〉를 열다.

2004. 6. 11.

〈정책토론회 - 사업주 책임강화 방안으로서 형사처벌과 징벌적 배상에 대한 검토〉를 열다. '형사처벌의 이론적 검토와 효과에 대한 검토(강문대 변호사)', '징벌적 배상의 이론적 검토와 효과에 대한 검토(박경신 변호사)' 발제와 토론을 진행.

2004. 7. 12.

〈회원토론회 - 제3세계 노동자의 건강과 국제연대〉를 열다. '제3세계 노동자의 건강문제(김창업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남아공의 경험과 멕시코 사례(김명희 회원)' 발제와 토론을 진행.

2004. 8. 25.

〈참여국감을 위한 민주노동당·시민사회단체 워크숍 - 노동자건강, 경제논리를 넘어 사회적 권리로〉를 열고 참여하다.



2004. 9. 20.

〈근로복지공단은 사회보험기관의 책임을 다하라 - 학습지노동자 산재신청 반례에 붙여〉 성명 발표.

2004. 9. 17.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센터에 관한 간담회〉를 성수동식구들(노동건강연대, 민주노총서울본부, 서울지역일반노동조합, 성동건강복지센터, 서울경인지역인쇄노동조합)이 함께 주최하다.

2004. 9. 22.

〈정책토론회 - 산재보험법 개혁입법의 쟁점〉을 민주노동당, 민주노총과 함께 주최하다.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출에 맞추어 '산재보험 개혁입법안'을 상정하기 위하여 노동건강연대가 창립 후 지속적으로 제안해온 산재보험 개혁입법안과 선보장 후평가 제도에 대하여 발제. ※ 이후 단병호 의원실이 입법안을 제출하였으나 논의되지 못하고 사장되었다.

2004. 10.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이주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시작하다. 언어소통 및 기본 안전지식을 담은 이주노동자 교육 매뉴얼을 영어, 중국어, 방글라데시어로 번역 준비함.



2004. 10. 16~17.

'영세사업장노동자 무료 특수건강검진'을 열어 노동건강연대 비정규노동팀에서 활동하는 의사회원들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성인병을 비롯해 빈혈, 심장, 신장, 간질환, 비만도 검진을 진행하다. 2003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무료 특수건강검진에서 70여 명의 인쇄·제화 노동자들이 검진을 받음.



2004년

2004. 3. 5 ~ 6.

대우조선노동조합의 의뢰로 노동조합 활동가 강사교육



2004. 10. 23.

노동자대회 전야제에서 “산재사망은 기업의 살인이다. 살인기업주를 처벌하라” 캠페인을 진행한다.

2004. 11. 28.

“늘어나는 산재 사망, 해결방안은 없는가” 공개토론회 개최



2004. 12. 2.

민주노총 서울본부 대의원대회에서 감사패를 받다.

“노동자 건강권쟁취를 위한 제도개혁과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투쟁에 적극적으로 연대한” 공로로 수여 받음.



2004. 12. 15.

송년회를 열다. 해마다 진행하여 이미 전통이 된 ‘1만 원 이내의 선물 교환식’을 진행. 책이나 교양에 도움이 되는 물건은 인기가 없다고 안내.

2005년

2005. 1. 13.

안산에서 이주노동자 5명이 노말핵산에 의한 다발성신경장애 직업병이 발병하여 <이주노동자 집단직업병 일으킨 사업주를 처벌하고, 정부는 책임을 다하라!> 성명을 발표하다.

2005. 1. 17.

성수동 영세사업장 활동에 더 많은 역량을 투여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서울시 성동구 성수1가1동 22-5 경동빌딩 2층 성수역원 안’으로 이전.



2005. 1. 28.

「이주노동자를 위한 주머니 속 노동 안전매뉴얼」을 영어/방글라데시어/중국어/한국어 등 4개 나라말로 발행하고, <생생 노동안전교육>도 연간 진행한다.



2005. 1. 30.

<이주노동자를 위한 생생 노동안전교육>을 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에서 유성규 회원이 진행한다. 이주노동자 교육은 부천, 파주, 오산, 서울 등에서 계속 진행되었다.



2005. 2. 4.

<회원토론회 - 노말핵산 중독사건을 통해 본 이주노동자 건강권의 현실과 운동방향>을 열다.

이주노동자 노말핵산 중독에서 나타난 문제와 대응방향을 백도명 대표가 발제.

2005. 2. 19.

5차 총회. 백도명 대표 연임과 함께 임준 신임대표를 선출하다.



2005. 3. 25.

“성수동 영세사업장 노동자 실태조사 사업”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다.

간담회는 성수동지역에 있는 지역노조, 성동희망나눔터, 성수삼일교회, ‘내일의집’과 같은 단체와 함께 진행.

2005. 3. 27.

<이주노동자를 위한 생생 노동안전교육>을 부천 외국인노동자학교에서 강희태 회원이 진행한다.



2005. 4. 20.

<회원토론회-기업의 노동자 감시와 노동자 건강>을 개최하다. 토론회 장소인 보건의료단체연합 강당이 가득 찰 만큼 관심이 많은 주제였다.



2005. 4. 24.

<산재노동자·보건의료인 연대한마당>을 혜화초등학교에서 열다. 총목은 과자따먹기, 물풍선터뜨리기, 인간줄다리기, 단체줄넘기 등.



2005. 4. 27.

‘산재사망 대책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 발족식과 기자회견을 여의도 전경련회관 앞에서 열다.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캠페인단을 구성. 당시 사업계획으로 살인기업 선정식을 통해 산재사망이 많이 발생하는 기업을 ‘살인기업’으로 선정하겠다고 발표.



2005. 4. 28.

산재사망노동자를 추모하는 촛불집회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열다.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주관한 추모제에는 노동조합과 노동건강연대, 산재노동자 등 100여 명이 참석.



2005. 5. 1.

115주년 노동절 집회에 기업살인 부스를 설치하고 참석.

2005. 5. 12.

성수동영세노동자 실태조사 사업 자문과 설명회를 서울 동부여성발전센터에서 열다.



2005. 5. 19.

<회원토론회 - 산재보험제도에서 도덕적 해이, 누구의 문제인가?>를 열고 도덕적 해이 주장의 배경에 대하여 토론하다.



2005. 5. 29.

성남시 남한산성에서 회원야우회를 가지다.

2005. 6. 10.

성수동 영세사업장 노동자 실태조사 조사원 교육을 진행한다.



2005. 6. 20.

“산재예방불량사업장 감시 제대로 하시요!” 산재사망대책공동캠페인단 이름으로 노동부에 돈보기와 도시락을 노동건강연대 임준 공동대표가 전달하다.



2005. 6. 28.

성수동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노동실태와 복지요구조사를 성수동에서 진행한다. 노동자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 대형 부스를 마련하고 설문조사를 진행. 노동상담과 산재상담, 냉커피와 우산도 제공. 조사는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실과 아름다운 제단의 후원을 받아 7월 말까지 성수동 일대에서 진행하여 608명의 노동자가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2005. 8. 10~13.

경기도 매향리 마을회관에서 열린 보건의료학생캠프에 참석하여 첫날 저녁 교육을 진행한다. 대규모작업장에 관한 노동자건강권에 대한 교육, 영세노동자건강권에 관한 교육, 산재노동자에 관한 교육으로 나누어 진행.



2005. 8. 22.

〈비정규직노동자건강권 공동강사교육〉을 전국여성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진행한다.



2005. 9. 9.

서강대 청소년역직 노동자들에게 임형준 회원이 교육을 진행한다.



2005. 9. 21~25.

홍콩에서 열린 ANROAV(Asian Network for the Rights Of Occupational Accident Victims, 작업성재해 희생자의 권리를 위한 아시아 네트워크) Annual Meeting 2005에 상근활동가 이서치경, 윤석진 참가하다.



2005. 10. 5.

〈영세노동자 노동복지 실태와 복지요구도 조사결과 발표회〉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다.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건강실태, 복지요구 등을 망라한 최초의 조사로서 많은 관심을 받았고 내용도 풍부하였다.



2005. 10. 26.

〈성수동 영세사업체노동자 노동복지 실태조사 결과 보고회〉를 성수동 근린공원에서 노동자들과 함께 열다. 조사 결과는 신문으로 제작하여 공장을 돌며 배포하고, 파전과 어묵으로 조출한 잔치를 열다.



2005. 11. 13.

광화문에서 열린 민주노총 주최 노동자대회에 참석하다. “산재사망은 기업의 살인이다” 캠페인 진행.



2005. 11. 25.~26.

‘영세사업장 노동자 무료 건강검진’을 3년째 진행한다. 이주노동자를 비롯하여 43명의 노동자가 검진에 참여. 12월 13일 노동자들에게 검진 결과를 설명하고 교육을 열다.



2005. 12. 2.

〈정책토론회 - 산재예방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검토1 ‘정부조직개편을 중심으로’〉를 개최하다.



2005. 12. 7.

서울 인사동에서 송년회를 가지다. 1만 원 미만의 선물 교환식이 이어지다.

## 2006년

2006. 1. 4.

25년간 벤지디염에 노출된 노동자의 방광암이 직업병으로 인정된 사례를 보면서 “정부는 직업성 암에 대한 관리대책을 마련하라”고 논평을 발표하다.

2006. 1. 12.

〈이주노동자 건강교육과 강사양성사업〉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시작하다.

2006. 2. 1.

〈회원토론회-2006 정세전망〉을 열다.

2006. 2. 3.

조치원 청소년 수련원에서 열린 보건의료학생캠프에 참여하여 임준 대표가 노동자건강권과 보건의료인의 삶에 대하여 강연하다.



2006. 2. 18.

6차 총회를 열다.



2006. 2. 22.

<호텔서비스여성노동자의 건강 및 작업환경 개선 토론회>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전국여성노조 서울지부와 함께 열다. 호텔 객실청소 노동자의 건강실태를 발표.



2006. 3. 21.

서울 문래동 에이스건설 현장에서 빔 4개가 쓰러지면서 3명이 사망, 8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에 대하여 <연이은 참사에는 무능력한 노동부가 있다> 성명을 발표하다.



2006. 3. 27.

'영세사업장 노동복지연대' 발족식을 열고 영세사업장 지역노동복지센터를 준비하기로 하다.



2006. 5. 15.

격주 월요일 저녁에 산재사망에 대한 사업주 처벌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기획세미나>를 4회로 구성하여 진행하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과 노동안전보건 △산재사망 예방을 위한 정책 수단:사업주 처벌 강화vs인센티브 제공 △산재사망을 일으킨 사업주 처벌 강화 제도:선진국의 예 △한국의 상황에서 사업주 처벌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모색

2006. 5. 1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노동건강연대 의견서를 노동부에 제출하여 산재은폐 심화 등에 대하여 우려를 전달하다.

2006. 6. 11.

대학로에서 열린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한미FTA반대! 항의 행동에 참여.

2006. 7. 12.

<회원토론회 - 한미FTA와 노동자 건강>을 열다.



2006. 7. 27.

서울소재 대학교의 약학대에 재학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앙대학교에서 세미나를 진행하다.



2006. 8. 8.~31.

성수동 영세사업장 유해물질 사용 실태를 조사하다.



2006. 9. 1.

노동복지연대 월례포럼으로 <비정규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사회보장 방안>에 대하여 노동건강연대 사무실에서 강의하다.

2006. 9. 16.

회원 가을 여행으로 경기도 여주에서 고구마를 캐다.

2006. 9. 18.

<연속기획워크숍 - 산별노조와 노동안전보건운동>을 10월 23일까지 계속 진행하다.



2006. 10. 26.

경기도 파주·고양 지역 이주노동자지원단체 활동가에게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안전활동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다.

2006. 10. 29.

경기도 용인 지역 이주노동자에게 노동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하다.



2006. 11. 12.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노동자 대회에 참여하다.



2006. 11. 18.

<비정규여성노동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만들기>를 서울대병원 간병인분회와 함께 진행하다. 간병노동자와 함께 하는 건강교육에 80여 명의 노동자가 참석.



2006. 12. 13.

송년회를 열다. 1만 원 미만의 선물교환과 함께 10대 뉴스, 퀴즈 등으로 프로그램을 구성.



2006. 12. 22.

노동부가 발표한 산재예방관리 불량사업장 명단 발표에 대하여 "번지르르한 이미지 뒤의 실체, 노동자를 죽이고 있는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 운운하기 전에 노동자의 생명과 권리부터 보장하라"고 논평하다.

## 2007년

2007. 3. 3.

보건의료단체연합 강당에서 7차 총회를 열다. 백도명, 임준이 공동대표에서 물러나고 주영수, 강문대를 공동대표로 선출하다.



2007. 4. 4.

<정책토론회 - 노동자 건강진단 제도의 근본적 개혁 대책>을 열다.

2007. 4. 27.~28.

영세사업장노동자 무료검진을 진행하다. 검진을 받은 88명의 지역노동자 중 16명이 이주노동자였음.



2007. 4. 28.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이하여 서울 보신각 앞에서 열린 대규모 참여 시가행진!



2007. 4. 29.

〈산재노동자·보건의료인 연대한마당〉을 열다.



2007. 5. 17.

〈석면 피해자 가족 증언 및 석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한·일 공동기자회견〉을 환경재단 레이첼카슨룸에서 열다.

보건의료단체, 민주노동당 단병호의원실, 환경단체들이 공동주최하였고, 이상윤 정책국장이 사회를 봄.



2007. 6. 18.

성수동 영세사업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무료건강검진 결과 보고와 교육을 진행한다.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 지역 단체 소속 노동자, 이주노동자, 의료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 노동자들은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들었다”며 놀랐고, 이주노동자 중에는 2차검진이나 복약이 필요해서 상담한 노동자가 비교적 많았다.



2007. 8. 29.~31.

홍콩에서 열린 ‘직업성 재해자 권리를 위한 아시아 네트워크(Asian Network for the Rights of the Occupational Accident Victims, ANROAV)’의 2007년 연례회의에 참석하다.

노동건강연대가 소개한 ‘살인기업선정식’에 대해서는 이를 벤치마킹하여 자국에서 해보겠다는 활동가들이 많았다.



2007. 9. 27.

〈노동안전보건 대선 정책 요구안 마련을 위한 워크숍〉을 보건의료단체연합 강당에서 열다.

2007. 10. 11.

〈2007 일하는 청소년을 위한 안전교육 실태조사〉와 함께 거리 캠페인을 성수동 일대에서 진행한다.



2007. 10. 13.~14.

“가을 별구경 여행가요~” 회원 야유회를 계룡산에서 열다.

2007. 10. 17.

〈노동안전보건 대선 정책 요구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민주노동당 회의실에서 열다.

이상윤 정책국장이 발제를 맡아 비정규직 노동자 삶과 건강 보호를 위한 원청 사업주 의무 재규정, 현장 노동안전보건 대표제의 도입,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등 5개 영역 14개 핵심 과제를 제시.



2007. 10. 27.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에 다녀오다.

2007. 11. 20.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이야기 -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가 참여하는 건강교육〉을 서울 동부 여성능력개발원 교육장에서 진행한다.

여성노동자들과 ‘사회적인 건강권 알기’, ‘질병을 개인적인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 가장 인기가 많은 강좌는 스트레칭.



2007. 11. 29.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강당에서 3학년 전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1, 2차로 나누어 〈현장실습 학생을 위한 안전교육〉을 진행한다.



2007. 12. 21.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 건강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열다.



2007. 12. 28.

서울 인사동 달의뉘편에서 송년회를 열다. 1만 원 상당의 선물교환.



200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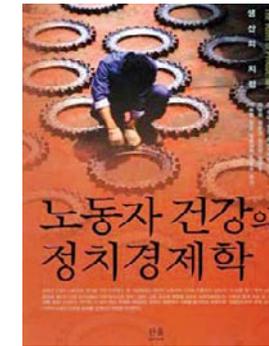
2008. 3. 8.

8차 총회. 총회를 개최하기 전에 한 국타이어 산재사망, 이천 냉동창고 산재사고, 석면문제에 대한 워크숍을 진행한다.



2008. 4. 1.

「노동자건강의 정치경제학」을 한울출판사에서 발간하다. 주영수 대표와 회원들이 공동번역.



2008. 4. 22.

〈성수노동자건강센터 건립을 위한 1차 간담회〉를 열다.

임준, 이상윤 회원이 성수지역 노동운동 30년의 역사 속에서 센터 건립을 제안하는 스토리텔링을 하다.

‘성수노동자건강센터’를 만들자



2008. 4. 24.

「노동자건강의 정치경제학」 출판기념회를 한양대학교 의학관에서 열다. 을지대 예방학교실과 한양대학교 건강사회연구센터가 주최.



**2008. 4. 27.**  
〈산재노동자·보건의료인 연대한마당〉을 서울동구로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열다.



**2008. 5. 23.~24.**  
제5차 '소규모사업장, 비정규노동자와 함께하는 무료 건강검진'을 진행한다. 이주노동자 13명을 포함하여 61명의 성수동 노동자가 참여. 사업주와 자영업자까지 검진에 오다.



**2008. 6. 14.**  
대학로에서 열린 전국비정규철폐 노동자대회에 참석하여 "건강권이 기본권", "여성비정규노동자, 건강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한다.



**2008. 6. 20.**  
성수동 영세노동자 검진결과 설명 건강교육을 진행한다.

검진에 참여한 노동자가 건강교육을 듣기 위해 대거 참석.

**2008. 6. 23.**  
〈정책토론회 - 노동안전보건 규제완화의 문제점과 대책〉을 열다.

**2008. 6. 28.**  
〈보육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교육〉을 서울지역보육분회가 의뢰하여 진행한다.



**2008. 6. 30.**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 개최에 대하여 〈비즈니스프렌들리와 노동자 건강권은 양립할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하다.

**2008. 7. 16.**  
〈성수노동자건강센터추진단 상반기 워크숍〉을 한양대학교에서 열다.



**2008. 8. 5.**  
〈비정규직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의 정신 건강 실태조사 발표회〉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다.

노동건강연대는 비정규직 투쟁 사업장 노동자들 가운데 정신과 의사의 면담이 필요하다고 평가된 이들이 일반 인구 집단보다 7.3배 많다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 이랜드 일반노조, 코스콤 비정규지부, KTX, 새마을호 승무지부 노동자들이 사례발표를 진행.



**2008. 8. 13.**  
“신데렐라 구두를 누가 만들었을까?” 성수동 제화노동자들이 구두 만드는 과정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구두수선, 노동건강연대는 제화노동자를 위한 건강상담 운영.

**2008. 9. 24.**  
〈진폐요양제도 의료지원에서 사회적 요양으로 - '잊혀진' 광산노동자들의 생활건강실태〉 발표를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천주교노동사목과 함께 개최하다.



**2008. 10. 8.**  
〈내 생활의 Lay-Out-출판 인쇄 편집디자이너 실태조사 결과 보고회〉

를 인쇄노조와 열다. 2008년 6~7월 을지로 일대 '인쇄골'이라 불리는 곳에서 9차에 걸친 설문조사 실시함. 총 448부를 분석. 편집디자이너의 64%가 10인 미만 업체에서 일하고 일감이 들어오면 철야작업을 하다시피 하는 불규칙한 노동과 손목, 어깨,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노동자가 80%에 달하였다.



**2008. 10. 22.**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와 함께 〈비정규직노동자 심리적지지 프로그램을 위한 모금〉을 진행한다.



**2008. 11. 11.**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1가 656-533(수련3길 6) 정은빌딩 2층'으로 사무실을 이전하다. 성수노동자건강센터를 세우지 못한 채 서울숲과 성수동상권 개발 속에 성수동을 떠나야 하는 앞날을 예측



**2008. 11. 25.**  
〈경제위기에 노동자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포기하겠다고? - 산재보험료 올린 결정에 반대한다〉 성명을 발표하다.

**2008. 12. 12.**  
〈보육노동자 건강권보장 대책 마련을 위한 워크숍〉을 공공노조 보육노동자분회와 함께 노동건강연대 교육장에서 열다.

**2008. 12. 29.**  
노동건강연대 사무실에서 송년회를 열다. 〈2009년,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 2008 경제,노동위기의 진단과 2009 정치경제 전망〉을 특강으로 듣고, '2008 노동건강연대 10대 닉-우스' 선정과 1만원 선물교환식.

## 2009년

**2009. 2. 3.**  
〈법원 속기사 노동조건 및 건강문제 실태조사〉를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속기분회의 의뢰로 진행한다. 인천대 노동과학연구소와 함께 법원 속기사 612명을 조사.

**2009. 2. 21.**  
9차 총회를 열다.

**2009. 4. 6.**  
〈법원 속기사 노동 및 건강조건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를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개최하다. 속기사들은 근골격계 통증호소율이 철도정비나 자동차공장보다 높게 나와서 국내 평균을 크게 웃돌았고, 직무스트레스는 상위25%에 해당, 청력손실도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2009. 4. 19.**  
〈산재노동자·보건의료인 연대한마당〉을 성곡회대학교 운동장에서 열다.



2009. 4. 21. "제6회 차별없는 서울만들기 대행진 동부지역 행진"에 건강권마당으로 참여하다.

성수동 라성사우나 앞, 어린이 대공원 후문에서 '체지방측정, 음주습관 및 우울증 체크리스트,혈당, 혈압체크 등'을 진행한다.



2009. 4. 27. <'경제위기는 어떻게 노동자건강을 잠식하는가' 토론회>를 국회 헌정기념관과 104호에서 개최하다.



2009. 5. 1. 여의도에서 119주년 노동절 대회 참석하다. 기업살인 현수막을 들고 캠페인 진행.



2009. 5. 25. <특강 - 경제위기는 어떻게 노동자건강을 잠식하나>를 열다.

경제위기와 노동자건강, 사회경제적 요인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성수동 활동가 노동자들에게 강의.



2009. 6. 18. 공장점거 파업을 진행 중인 쌍용자동차 노동자가 5월 27일, 6월 11일 신경성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후 광화문 정부청사 후문에서 <쌍용자동차 노동자 건강권 사수와 정리해고 반대투쟁지지 정부대책을 촉구하는 활동가, 전문가 선언>에 참여하다.



2009. 6. 24. <특강 - 노동의 꿈이 사라진 시대를 건너는 법>을 하종강 한울노동문제연구소 소장이 강의하다.

2009. 7. 9. 공공노조 서경지부에서 진행하는 <대학비정규노동자 조직화 사업>으로 한 달에 한 번 있는 미화노동자 간부 교육에서 건강권교육을 진행한다.



2009. 7. 15. <특강 - 의료민영화는 노동자의 삶을 어떻게 바꿔 놓을까>를 진행한다.



2009. 8. 17. <특강 - 우리는 왜 책을 읽어야 하나>를 진행한다.

2009. 9. 15. <고대 안암 병원 미화노동자 현장조사 및 조합원 모임>을 새벽 5시에 열다. 미화노동자 40여명과 청소년이다 입는 상처에 대한 감염 걱정, 간호사, 간병인들과의 갈등 문제 등을 듣다.



2009. 9. 15. <특강 - 노동자가 알아야 할 부동산의 모든 것>을 진행한다.



2009. 9. 26. 성수동 제화사업장에서 명절 성수기를 맞아 일일 17~18시간 노동을 하는 제화노동자 건강검진을 진행한다.



2009. 10. 19. <특강 - 경제를 알아야 세상을 알죠>를 진행한다. 매월 강좌는 성수동에서의 노동자건강센터 사업으로 진행.



2009. 10. 23. 노동건강연대 하반기 수련회를 경기도 가평 하늘여행 펜션에서 열다.



2009. 10. 29. '성신여대 청소노동자 현장조사'를 오전 8시 30분에 열다. 55명의 노동자를 만나 대기실(휴게실) 문제, 관리자 감시문제 등에 대해 듣다.



2009. 11. 25. <특강 - 신종플루란 무엇인가> 강좌를 우석군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이 진행한다. '개인위생이 먼저인가, 공공의료가 먼저인가?'를 주제로 신종플루 양극화, 백신비용 국민에게 전가 등을 이야기하다.



2009. 12. 17. 인사동에서 송년회를 가졌다. 그림퀴즈와 신문지게임으로 소통지수와 공감정도 확인. 노동건강연대의 소통수준이 높은 것으로 판명.



## 2010년

2010. 1. 29. <성수노동자건강센터 2009 사업평가와 2010 계획을 위한 간담회>를 열다.



2010. 3. 13. 10차 총회를 열다. 주영수 상임대표, 강문대 공동대표를 선출하다.



2010. 3. 22. <월례강좌 - 석면은 왜 시한폭탄이 되었나>를 열다.



2010. 3. 30.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노동안전보건 행정 지방 이양 결정은 비현실적이고 무책임한 것이다> 성명을 발표하다.

**2010. 4. 13.**  
 성수동 공장지역에서 격주로 선전전을 진행한다.  
 유기용제의 독성과 건강에 대하여 홍보. 산업의학 의사 회원들이 노동자들을 만나 대화.



**2010. 4. 27.**  
 <월례강좌 - 장기투쟁하는 노동자로서 살아보니 '집회에서 하지 못한 이야기'>를 열다.

**2010. 5. 13.**  
 '차별없는서울대행진'을 성수동 사고 현장에서 노동자들과 진행한다. 5월10일 성수동에서 사망한 건설노동자 2명을 추모하고 시공사 '코오롱건설'을 규탄함.



**2010. 5. 15.**  
 <산재노동자·보건의료인 연대한마당>을 서울의대 의생명과학관 실내 체육관에서 열다.

**2010. 5. 24.**  
 대한속기협회 속기사를 대상으로 이상윤 정책국장님이 근골격계 예방교육

을 추천 두산라테나리조트에서 진행한다.  
 속기사들 중 상당수가 국회와 지자체의회 소속이었음.



**2010. 5. 25.**  
 월례강좌에서 흠에버 여성노동자들의 510일 간의 파업기록(2007-2008)을 다룬 영화 <외박>을 상영하고 '김미례 감독과의 대화'를 진행한다.

**2010. 5. 25.**  
 <일하는 사람의 건강지킴이> 활동으로 점심시간에 노동건강연대 의사 회원들이 성수동에서 간이 검진과 건강상담을 진행한다.



**2010. 6. 19.**  
 <나의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인가?>를 주제로 현대와 기아차의 카오디오 A/S 노동자 현대웰슨 노동조합 조합원 교육을 진행한다.  
 2년 용역계약으로 제조업 다른 노동자들에 비해 스트레스 호소가 높았다.



**2010. 6. 22.**  
 <월례강좌 - 우리는 왜 보험회사에 건강을 맡기고 있나>를 진행한다.

**2010. 9. 3.**  
 <특강 - 일본의 비정규노동 현실과 한국의 미래>를 진행한다.  
 일본 가나자와대학 고카 가즈미치 교수, 류코쿠 대학 와키타 시게루 교수, 요로이 다카요시 교수를 초대. 스키 아키라 노동건강연대 활동가가 통역.

**2010. 9. 15.**  
 <환영철강 용광로 산재사망 청년노동자 추모 및 정부의 재발방지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청계천 소라광장에서 진행한다.



**2010. 9. 30.**  
 <쌍용자동차 해고자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환수조치 철회 요구 기자회견>에 참석하다.  
 임준 노동건강연대 전 대표가 보험료 환수조치의 문제점을 말한다.



**2010. 10. 7.~8.**  
 GS건설 서울 서교동 자이 건설현장 노동자 사망에 대하여 건설노조, 타 워크레인 노동자들과 함께 아침 출근길 기업살인 캠페인을 벌이다.



**2010. 10. 14.~15.**  
 <노동자와 함께 하는 가을밤 노래자랑>을 성수동에서 지역 노동조합과 일고 노동 상담, 건강상담을 진행한다.



**2010. 10. 28.**  
 <"모든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을 차별 없이 적용하라" -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전면적용을 위한 준비회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하다.

**2010. 11. 5.**  
 '노동자건강의 정치경제학' 저자 찰스 레벤스타인 교수와 동료 크레이그 슬래턴 교수의 강의를 노동건강

연대 강당에서 열다.

**2010. 12. 10.**  
 2월6일 GS건설의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신축공사현장에서 건설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에 대하여 건설노조와 함께 여의도 사고 현장에서 추모시위를 진행한다.



## 2011년

**2011. 1. 21.**  
 <산재보험 개혁 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다.

**2011. 2. 14.**  
 11차 총회를 열다.



**2011. 3. 3.**  
 <쌍용차 노동자 잇단 죽음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야5당 및 법률, 인권, 보건, 노동계 긴급기자회견>에 참석하여 노동건강연대 김명희 회원이 해고와 자살에 대한 사회적 접근을 주제로 발언하다.

**2011. 3. 19.**  
 보건의료단체연합이 주최하는 보건의료진보포럼에서 <특수고용노동자, 사내하청노동자, 요양보호사, 병원노동자와 함께 하는 '무상의료와 노동 - 한국노동자의 삶과 복지 좌담회'>를 주관하다.



일시 2011년 3월 19일(토) - 20(일)  
 장소 전 서울대 보건대학원 (세종로)  
 주최 건강생활실천위원회(보건복지부)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주최 건강생활실천위원회(보건복지부)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후원 연구공동체(건강과학),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의료진단체들과  
 의료진단체연합회(보건복지부)  
 참가비 보건의료인 30,000원, 비유 20,000원  
 학생,사회인 15,000원, 후원 10,000원

대토론회 2011년 3월 19일(토) 오후 7시 30분 ~ 9시 30분  
 한국사회 현실과 무상복지 담론  
 사회 조중훈 (서울대학교 교수, 건강과학자 (대우))  
 의료 김성훈 (연세대학교 교수), 김연경 (영남대학교 교수),  
 주석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 이원규 (한국노동연구원 교수)  
 홍찬희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연구관)

2011년 3월 19일(토) 오후 9시 ~ 9시 30분  
 무상의료와 노동 - 한국노동자의 삶과 복지  
 사회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  
 의료 병영노동자, 김성훈(연세대학교 교수),  
 최정호(보건복지부), 김성훈(연세대학교 교수)

진보강연  
 어느 강연, 3월19일 오후 9시 ~ 9시 30분  
 건강 불평등을 넘어 새로운 '건강생활'으로  
 강연: 병영 노동자, 미국의 죽음의 이윤, 김기태 (보건복지부)가  
 2011년 3월 19일(토) 오후 9시 ~ 9시 30분  
 의료진단체 연합회 주최 특별 강연  
 고창삼, 윤한아 (건강과학자 연합회)  
 2011년 3월 19일(토) 오후 9시 ~ 9시 30분  
 쌍용차 노동자 잇단 죽음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야5당 및 법률, 인권, 보건, 노동계 긴급기자회견  
 김명희 (노동건강연대 회원)  
 2011년 3월 19일(토) 오후 9시 ~ 9시 30분  
 쌍용차 노동자 잇단 죽음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야5당 및 법률, 인권, 보건, 노동계 긴급기자회견  
 김명희 (노동건강연대 회원)  
 2011년 3월 19일(토) 오후 9시 ~ 9시 30분  
 쌍용차 노동자 잇단 죽음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야5당 및 법률, 인권, 보건, 노동계 긴급기자회견  
 김명희 (노동건강연대 회원)

2011. 3. 21. <한나라당 방안으로는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실질적 적용 확대 불가능하다> 성명을 발표하다.

2011. 3. 25. <정책토론회 - 산재보험개혁과제와 개혁의 우선순위 '왜 일부 노동자만 산재보험을 이용할까?'>를 열다.



2011. 4. 19. <특강 - 노동자가 알아야 할 핵발전 이야기>를 노동건강연대 사무실(지하철 7호선 내방역 6번출구)에서 주영수 상임대표가 진행한다.



2011. 4. 19. 서울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따끈따끈 캠페인 - 간병, 요양 노동자에게 따뜻한 밥 한끼와 근로기준법을! 환자와 노인에게 따뜻한 돌봄을!>에 노동자의 건강권을 주제로 이야기하다.



2011. 5. 23. KBS1라디오 <열린토론> '산재보험 실태와 개선과제'에 임준 집행위원장이 참여하다.

2011. 5. 25. <야간노동 없애자는 유성기업 노동자의 요구는 정당하다> 성명 발표.

2011. 5. 27. <정책토론회 - 산재보험 이용률 증가 방안 '몰라서, 복잡해서 이용 못하는 산재보험, 어떻게 쉽게 신청하게 할 수 있을까?'>를 개최하다.

2011. 6. 27. <노동건강연대 열 살 회원의 밤>을 합격역 새움에서 열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노동건강연대 열 살의 자취를 사진으로 함께 감상함. '나의 삶 나의 운동'에 대해 단병호 전 민주노총위원장의 이야기를 나눔.

2011. 6. 27. 참여연대와 노동건강연대 주관으로 <삼성백혈병 사건을 통해서 본 산재보험법 개정방안 토론회>를 국회의정관 105호에서 열다. 임준 집행위원장이 산재보험 신청 간소화 및 수급권 입증 책임 전환 방안을 발표.



2011. 7. 2. 보건의료단체연합 10주년 기념 <한국 무상의료로 가는 길 토론회>에서 산재보험 개혁과 무상의료 세션을 발표하다.

2011. 7. 4. 7월 2일 이마트탄현점 냉동창고 보수작업에서 4명의 하청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연례행사를 하는 정부에 대해서 "잘못된 행사 내용과 걸치레만 가득한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를 건너치우라"고 민주노총, 단체들과 함께 성명 발표.



2011. 7. 6. 이마트탄현점 냉동창고 사망노동자 가운데 아르바이트 대학생이 포함된 것과 관련 청년유니온, 참여연대, 대학 학생회와 함께 <안전조치 위반한 이마트 처벌하고 대학생 등록금 문제 해결하라!> 기자회견을 열다.

2011. 9. 23. <전기원노동자 작업환경 실태 증언대회>를 건설노조와 함께 한국전력 본사 앞에서 개최하다. 한국전력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넓은 시설 교체를 미루고 인원을 축소하여 전기원노동자들의 추락사, 감전사가 이어짐.

2011. 10. 4~25. 4차에 걸쳐 <노동자건강의 정치경제학 세미나>를 열다.

2011. 10. 20. <정책토론회 - 하청노동자 건강권에 대한 원청의 책임강화 방안>을 열다. 사내하청, 파견과 도급 노동자에 대한 발주, 원청 기업의 책임강화 방안을 각론과 종합 토론.

2011. 10. 27~28. 일본 노동자의 정신건강 문제와 한국의 상황에 대한 발표회가 열려 참석하고, 일본의 노동자건강권 운동의 역사 강연을 열다.

2011. 12. 9. <인천공항철도 비정규직 시설 노동자 5명 산재사망, 철도업무 도급화와 인력부족이 핵심 원인이다!> 성명을 시민단체, 노동조합들과 공동으로 발표.

2011. 12. 13. <노동자 산재사망 비정규 하청노동자가 더 많이 죽는다 - 원청 발주업체 책임강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민주노총 정책실에서 열고 외국법 사례와 처벌 결과, 법률안 등을 토론하다.

2011. 12. 14. 서울역 앞에서 <공항철도 비정규노동자 사망책임 외면하는 코레일 규탄> 기자회견을 가지다.



2011. 12. 15. 송년회.



2011. 12. 22. 반올림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와 함께 <업무와 질병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근로복지공단이 증명해야 한다> 의견서를 국회에 발송하다.

2011. 12. 28. 기사자동차 현장실습생이 장시간노동으로 뇌출혈로 쓰러져 깨어나지 못한 사고에 대하여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사자동차 현장실습생 뇌출혈 사고 책임자 처벌과 노동인권 교육법제화 촉구> 1인 시위.



2012년

2012. 1. 4. 동국대의대 학생들의 현장 활동으로 1인 시위와 세미나 참여, 산재노동자 협의회 방문 프로그램을 진행.



2012. 1. 6. 국회 앞에서 열린 <이천화재참사 산재사망자 추도와 건설현장 산재근절 대책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하다. 2012년 노동건강연대는 기업살인 운동에 집중하겠다고 발언.



2012. 1. 27~29.

보건의료진보포럼에 <감정노동과 감시통제 : 노동자의 건강을 잡아먹다> 세션으로 참여하다.



2012. 2. 16.

사업방향 논의를 위한 회원토론회를 열다.



2012. 2. 28.

12차 총회를 열다. <탈핵운동의 시대정신 특강>을 함께 진행한다.



2012. 2. 29.

목포시의회가 주최한 <조선업 중대재해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 참석하다. 유성규 노동건강연대 편집위원장이 기초발제를 맡아 사업주 책임강화를 위한 기업살인처벌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발표.



2012. 3. 22.

총선넷이 선정한 30대 총선 의제에 '산재보험확대와 기업살인처벌법'이 선정되어 총선넷 의제발표 행사에 참여하다.

2012. 4. 24~26.

3일간 <특강 - 당신의 건강과 정의 (Justice)>를 참여연대 1층 카페 통인에서 열다. 강좌는 '1:99의 양극화 비정규직입니까?', '반쪽의 과학 여성입니까?', '홍삼먹고 야근하는 사회 칼퇴하십시오입니까?'로 구성.

2012. 6. 4.

<영리병원 도입저지를 위한 보건복지부 앞 촛불시위>에 발언 및 회원들이 참여하다.



2012. 6. 10.

<산재노동자·보건의료인 연대한마당>을 서울대 의대 실내체육관에서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공차기, 줄넘기, 티셔츠 그림그리기, 스피드퀴즈, 맛있는 음식.

2012. 6. 26.

여의도 국민은행 앞 <화물연대 총파업 지지를 위한 단체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하다. 화물노동자의 안전, 시민의 안전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함.

2012. 6. 27.

서울역에서 열린 <기관사 공황장애 재발방지 및 대책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하다.



2012. 7. 17.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정규직화 투쟁을 지지하는 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다.

2012. 9. 19.

<용광로 사망 막을 수 없었나 - '기업의 노동자살인 개념 도입 중심으로' 토론회>를 국회에서 열다.



2012. 10. 11.

<정책토론회 - 노동안전보건청 더는 미룰 수 없다>를 노동건강연대 사무실에서 개최하다. 대선에 대한 요구안으로 잇따르는 노동자 산재사망에 대하여 독자적인 정책을 입안하고 감시·감독하는 정부를 요구하고자 토론.

2012. 10. 28.

<용광로 사망사고 사업주를 처벌하라> 대법원 앞 1인 시위를 이어가다.



2012. 10. 29.

<차기 대선 후보는 영리병원 허용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성명을 발표하다.

2012. 11. 21.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열린 <다산콜센터 민간위탁 운영실태 및 직접고용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 토론회>에 김명희 회원이 참석하다. 서울시가 성과물은 취하고 비용은 외부화하면서 노동자의 건강불평등을 심화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윤리와 맞지 않는다고 발표.



2012. 11. 30.

울산 동구 인권위원회가 마련한 <노동자 인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방안 정책토론회>에 유성규 회원이 참석하여 노동자 산재사망 해결방안에 대하여 발제하다.



2012. 12. 7.

<안산비정규센터 워크숍>에서 임준 집행위원장이 "노동자 건강권 개념과 한국의 현실"이란 제목으로 강의하다.



2013년

2013. 1. 17.

<노동부는 한우세트 받고 벌금 100만 원 의견 냈나 - 이마트 4명 사망 고발인 노동건강연대의 입장>을 발표하다.

2011년 이마트 탄현점 냉동창고에서 4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으로 노동건강연대가 이마트를 고발한 이후 100만 원의 벌금이 나온 것에 대한 비판.

2013. 3. 17.

보건의료진보포럼에서 <나의 사장은 누구인가?-변화하는 고용구조와 노동자 건강> 세션을 진행한다. 조선소 하청노동자, 대형마트 축적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IT노동자를 모시고 사례 발표.

2013. 3. 14.

대우조선해양 본사 앞 <사내하청 양산·연쇄 산재사망 대우조선해양 규탄 기자회견>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참석하다.



2013. 3. 26.

대우조선해양 비정규직 사내하청 산재사망 고재호 대표이사 고발 기자회견



2013. 5. 15.

하청노동자 5명이 사망한 현대제철 당진 공장 정문 앞에서 단체들과 함께 <현대제철 우유철·박승하 사장 고발 기자회견>을 갖는다.



2013. 5. 23.

'콜센터노동자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공동캠페인단'이 주최한 <콜센터노동자 노동인권보장 촛불문화제>에 참석하다.



2013. 6. 23.

<산재노동자·보건의료인 연대한마당>을 서울대 의대 실내체육관에서 열다.



2013. 6. 25.

'비정규직없는세상네트워크'와 함께 <비정규직노동자 산재실태 조사단>을 모집하다.

2013. 7. 2.

<여름특집 회원토론회 1탄 - 새로운 밑그림을 그리자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하여 상상하자>를 노동건강연대 사무실에서 열다.

'기업살인운동 현재의 지도(정해명)', '산재보험 좌표를 찾아서(임준)', '우리의 문제의식 발전을 위한 제안(이상운)'

2013. 7. 5.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 산재은폐 고발 및 법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국회 정론관에서 열고 울산지역 노동자들과 함께 참석하다.



2013. 7. 10.

'콜센터노동자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공동캠페인단'이 사무금융노동조합회의실에서 <감정노동과 노동자의 건강 워크숍> 개최. 노동건강연대 주영수 대표가 발제를 맡아 "감정노동이란 무엇인가, 감정노동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의 직무스트레스 사례"를 발표하다.

2013. 7. 16.

<여름특집 회원토론회 2탄 - 유럽 3국 노동자건강, 산재재활, 공공의료현장을 가다>를 개최하다.

2013년 6월 5일부터 17일까지 런던, 베를린, 헬싱키를 방문한 결과를 종합.

2013. 8. 8.

보건의료단체연합과 함께 현대차 비정규직 철폐농성 해체에 즈음하여 <비정규직이 적어질수록 노동자들이 더 건강하게 일할 수 있다> 논평을 발표하다.

2013. 8. 12.

<산재노동자 생활실태와 재활 요구도 조사>를 시작하다.

2013. 8. 20.

알바노조 청년유니온과 함께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한 저수지 배수관 공사 도중 사망한 아르바이트 대학생의 사망에 대하여 '한국농어촌공사가 유가족들에게 공식사과하고 보상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하라'라고 촉구하다.



2013. 10. 29.

뉴스타파 취재 초기부터 사건을 검토하고 자문한 <'산재 무혐의'의 비밀 - 사망사건도 무혐의, 7대 건설사 480억 산재보험료 감면>이 방송되다.



2013. 12. 23.

<노동운동을 공격하는 박근혜정부는 '안전한 사회'를 말할 자격이 없다 - 철도사유화를 막는 투쟁이야말로 "안전"한 삶"을 위한 싸움이다!> 성명을 발표하다. 노동자건강의 시민을 위해 일하는 활동가, 의료인, 연구자, 개인들의 명의로 발표.

2014년

2014. 1. 11.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열린 노동자건강권포럼에서 <유럽의 공공의료와 직업안전보건>에 대해 주영수 대표가 발표하다.

2014. 1. 21.

집배원 중대재해 해결을 위한 연대모임 이름으로 <"계속되는 집배원 중대재해 외면하는 우정사업본부와 미래창조과학부를 고발한다" 기자회견>을 열다.

유성규 회원과 활동가들이 참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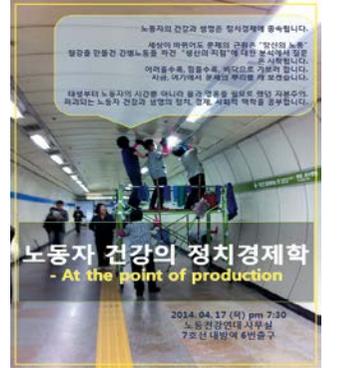


2014. 2. 6.

현대제철 아르곤가스 5명 질식사에 대하여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건에 대해 <"계속된 연쇄사망, 박승하 대표이사를 고발한다" 기자회견>을 열다.

2014. 4. 17.

<기획강좌 - 노동자건강의 정치경제학>을 노동건강연대 사무실에서 열다.



2014. 5. 15.

<"노동자를 죽이는 기업은 사회와 공존할 수 없다" -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잇따른 산재사망에 대한 현대중공업 이재성 김의현 현대미포조선 최원길 현대삼호중공업 하경진 대표이사 고발 기자회견>을 여의도에서 현대중공업사내하청노동자들과 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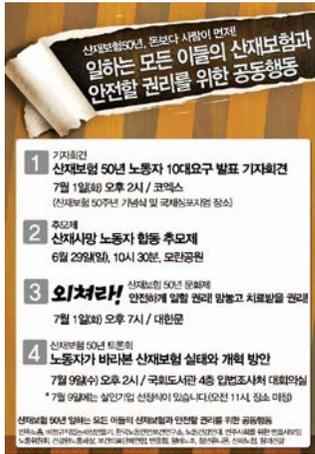
2014. 6. 13.

<기획강좌 - 노동자건강의 정치경제학 "노동 환경의 정치적 사회적 맥락">을 노동건강연대 사무실에서 열다.



2014. 7. 1.

〈산재보험 50년, 돈보다 사람이 먼저! 일하는 모든 이들의 산재보험과 안전할 권리를 위한 공동행동〉에 참여하다.  
산재보험 50년 행사장인 코엑스에 갔으나 행사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2014. 7. 9.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산재보험 50년, 노동자가 바라본 산재보험 실태와 개혁방안 토론회〉에 임준 노동건강연대 운영위원이 발제를 맡다.  
“산재보험 50년 판 갈아엎자”로 프레스미안 기사에 소개.

2014. 9. 2.

광화문 티브로드 본사 앞에서 농성중인 케이블TV 설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의사, 간호사 회원이 방문하여 건강 상담과 간이검진을 진행한다.



2014. 9. 30.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한 〈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하다.  
임준, 유성규 회원이 “산재보험제도 개선과제와 기업의 산재은폐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을 발제.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하였기에 고용노동부, 경총, 양대 노총이 토론자로 나왔으나, 이날도, 이후에도 노동건강연대가 주장해 온 산재보험개혁 방안에 부합하는 안을 도출하지는 못하였다.

2014. 10. 22.

노동건강연대가 내용을 마련한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이인영 국회의원이 발의하다.

법안은 논의되지 못하고 이후 자동 폐기.

2014. 10. 16~17.

서울 삼성동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앞에서 월성원자력발전소에서 사망한 잠수사의 유가족과 연대하고, 발주처 한국수력원자력의 책임을 묻다.



2014. 11. 7~28.

4차에 걸쳐 〈새내기 노무사를 위한 노동자건강의 법과 현실〉 강좌를 개설하다.

노동건강연대 회원들이 아래와 같이

강의와 토크를 진행.

“인체의 신비와 노동자 건강/김명희 (예방의학 전문의)”, “실전! 노동법이 노동자건강에 미치는 영향/유성규 (공인노무사)”, “산업안전보건법 실무, 법보다 중요하게 있다/보납(산업보건학 박사)”, “토크쇼 - 진짜 사장을 찾아서”



2014. 11. 19.

LG유플러스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여의도 LG 본사 트윈타워 앞에서 총파업을 하여 연대방문하다.  
파업 노동자들과 인터뷰를 한 후 오마이뉴스에 기고. 기사의 제목은 〈“비 오는 날 전봇대 오르다 죽어요” A/S기사의 눈물〉.

2014. 11. 26.

광화문 파이낸스 빌딩 전광판에서 고공농성 중인 케이블TV 회사 C&M 비정규직 설치노동자 2인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최규진 회원이 사다리차를 타고 올라가 긴급진료하다.

2015년

2015. 2. 9.

15차 총회를 열다. 〈민간의료보험과 건강보험 : 노동자건강의 정치적 특강〉을 함께 진행하다.

2015. 3. 10.

현대중공업과 울산동구 경찰서가 2014년 4월 26일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정범식의 죽음이 자살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경찰은 즉각 재수사에 나서라!” 기자회견〉을 열다. 기자회견은 국회 정론관에서 유족과 울산지역 노동자들과 진행하였으며, 이 사고는 이후 재판을 통해서 자살이 아닌 산업재해로 밝혀짐.



2015. 4. 6.

세월호 참사 1주기-'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10년. “가장 위험한 기업을 선정해 주세요” 시민참여 온라인 투표를 시작하다.



2015. 4. 13.

현대중공업 해외투자자와 선박발주 기업에 보내는 〈현대중공업 산

재발생에 관한 의견서(A Report On Workplce Injuries at HHI-Hyundai Heavy Industrues)〉를 기업인권네트워크와 현대중공업사내하청노동자들과 함께 발표하다.

2015. 6. 2.

보건의료단체연합과 함께 〈메르스 확산, 공공병원확충과 의료공공성확보가 필요하다〉 성명을 발표하다.

2015. 7. 22.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이름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열다.



2015. 7. 29.

뉴스타파 미니다큐 〈일하다가 사람이 죽는 일〉 방영되다.  
한국의 노동자 산재사망과 노동건강연대의 기업살인운동을 소개. 박혜영 활동가가 5명 하청노동자가 사망한 현대제철 사고의 담당 판사에게 보낸 공개탄원서를 다큐에서 상세히 소개. 다큐의 마지막 자막은 “왜 일하다가 죽기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업의 노동자 살인을 막기 위한 행동에 함께해 주세요.”

2015. 8. 17.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동자들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정몽준 FIFA회

장 출마 반대 기자회견〉에서 “FIFA 부정부패 개혁 공약에 앞서 현대중공업 하청문제 먼저 해결”할 것을 요구함.



2015. 9. 1.

다친 노동자에 대해 119구급차를 부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에버코스 경영책임자를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고발하다.



2015. 9. 3.

서울 강남역 스크린도어 수리 중에 8월 29일 사망한 하청노동자 사고에 대해 원청 서울메트로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발하다.  
노동건강연대는 2013년 성수역의 스크린도어 수리 하청노동자 사망에 대하여 서울메트로 대표이사를 고발 하였으나 무혐의처분을 받다.

2015. 9. 7.

〈서울지하철 사고 관련 대책 촉구 기자회견〉에서 강남역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가 사망한 하청노동자에 대해 서울지하철과 정부가 외주화로

인한 산재사망에 책임지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다.  
노동조합과 단체들이 함께 정부청사 앞에서 함께 개최함.



2015. 11. 11.

하루 동안 한진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삼호중공업의 하청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한 것에 대하여 <“재벌 대기업 하청 산재 사망 언제까지 방지할 것인가?” 기자회견>을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열다.

11월 10일 단 하루,  
3개 대기업 동시 산재사망 발생



2016년

2016. 2. 5.

삼성재벌 하청업체에서 20대 청년 4명 메탄을 급성중독으로 실명위에 처한 사고와 관련하여 <20대 청년 노동자들의 눈멀음 사고로 박근혜 대통령이 깨달아야 할 것>이란 논평을 내다.

논평과 함께 아래 광고를 홈페이지에 실었다.



노동건강연대  
Solidarity for Worker's Health

2016. 2. 18.

<긴급토론회 - 삼성전자 하청업체 메탄을 중독 사건의 시그널 '청년 노동자들의 시각 손상 사건이 의미하는 것'>을 장하나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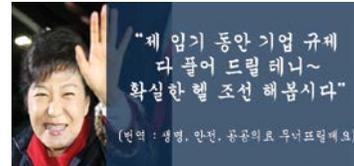


2016. 3. 16.

<긴급토론회 - 20대 청년 4명 메틸알코올 실명, 파견노동의 탓인가 시스템의 부재인가>를 노동건강연대 사무실에서 열어 토론하다.

2016. 4. 25.

보건의료단체연합과 함께 <생명, 안전, 사회공공성 전체를 무너뜨릴 '규제프리존 특별법' 폐기하라> 성명을 발표하다.



2016. 5. 9.

유성기업 노동조합의 거리농성장에서 건강상태를 진단하는 진료소를 운영하다.



2016. 5. 10.

서울NPO센터에서 열린 <UN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방한 맞이 보고대회>에 참석하여 삼성전자, LG전자 공급망 사업장에서 발생한 메탄을 급성중독 사례를 발표하다.



2016. 6. 1.

<회원토론회 - 조선업 일방적 구조조정과 노동자 연쇄사망>을 노동건강연대 사무실에서 열다.  
하청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 지회장이 참석.



2016. 6. 23.

<이젠 정말 기업을 처벌하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다.

2016. 10. 6.

1월 메탄을 실명노동자 4명 확인에 이어서, 10월 2명의 실명노동자를 확인하여 공개하다.  
<메탄을 중독으로 인한 실명 노동자 추가 확인 - 고용노동부의 사건 대응>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

2016. 10. 12.

국회 정론관에서 추가 실명노동자 2명이 직접 참석하여 메탄을 실명 노동자 추가 확인 산재 신청 기자회견을 열다.

조기 대응 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 제조업 파견 시스템이 낳은 사고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다.



2016. 10. 17.

JTBC 8시 뉴스에 <메탄을 실명' 추가 피해자 확인, 350만 원 주고 합의> 보도되다.

2016. 10. 28.

경향신문 <“그냥 알코올”이라더니 그건 독성 메탄올이었다 - 메탄을 실명노동자의 전면 인터뷰> 보도되다.  
메탄을 실명사고는 이후 2017년 3월 28일 MBC PD수첩 <비정규직의 눈물>, KBS 시사기획 창 <일터의 이방인>에서 파견노동, 비정규노동의 문제로 상세히 다루다.

2016. 11. 29.

명동 서울YMCA에서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위한 세 번째 이야기 마당>에서 이상윤 대표가 “20대 노동자들의 집단 실명, 진짜 책임자는 누구인가”를 주제로 이야기하다.



2017년

2017. 2. 19.

17차 총회를 열다.



2017. 2. 23.

시민건강연구소와 함께 「2016 시민건강실록」 발행.

2017. 2. 27.

「스마트폰 제조 하청 사업장 메탄을 급성중독 추적조사 및 사후관리 방안 보고서」를 발간하다.  
삼성, LG 스마트폰 하청공장에서 일하다 실명된 피해자 면담을 통해 사건 재구성, 실명 이후의 생활, 공장에서의 노동, 사회보장제도의 현실을 정리함.

2017. 3. 28~6. 13.

10강으로 구성된 <노동자건강의 정치경제학>을 시민건강증진연구소의 2017 상반기 서리물학당 강좌로 선보이다.

노동건강연대, 시민건강증진연구소를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단체라고 홍보.



2017. 5. 24.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열린 <성장하는 편의점 버려진 알바 노동자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정해명 회원이 참석하여 '편의점 알바 노동자 심야 폭력 예방관리 방안'에 대하여 외국의 사례를 소개하며 발제하다.

2017. 5. 26.

<회원토론회 - 문재인 대통령 시대, 노동자 건강권 운동의 전망을 찾아서>를 노동건강연대 사무실에서 열다.

2017. 6. 9.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UN인권이사회>에 메탄올실명피해자 김OO 씨가 참석하여 한국정부와 삼성, LG원청 기업의 사과와 책임을 요구하다.



2017. 7. 16.

다음스토리펀딩 <토크콘서트 - 누가 청년의 눈을 멀게 했나>를 가톨릭 청년회관 CY씨어터에서 개최하다.



2017. 7. 24.

청년노동자 건강생활 가이드 「알아두면 쓸모있는 노동과 건강」을 발행하다.

인쇄 책자 2천 부를 배포하였으나 수량이 부족하여 PDF파일로도 배포하다. 2만7천여 회 다운로드 됨.

2017. 9. 25.

녹색당 <핵발전소 비정규직 노동과 안전운영 모색 간담회>에 주영수 대표가 참석하여 핵발전소 노동자의 직무, 작업기간, 방사선 노출 등에 대하여 감사와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발표하다.



2017. 12. 5.

<메탄올실명 피해자 추가발견 - 박근혜 정부 노동부장관 고발 기자회견>을 국회 정론관에서 열다.

노동건강연대가 6명의 메탄올 실명 노동자를 발견하기 이전에 이미 실명노동자가 있었다는 것을 밝히고,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 2인을 직무유기로 고발.



2018년

2018. 1. 25.

2017년 다음스토리펀딩 <누가 청년의 눈을 멀게 했나>에 1천 명이 넘는 분이 1,700여만 원을 후원하여 이에 대한 지출보고와 지출예정 내역을 후원 시민들에게 공개하다.

노동자와 가족들의 활동비와 실명노동자들에게 필요한 시각장애인용 스마트폰, 점자학습 물품, 보조기구 구입 등에 사용.



2018. 2.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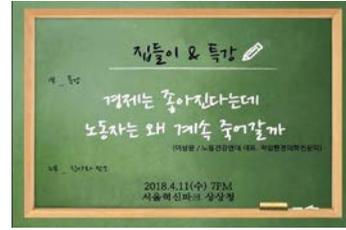
18차 총회를 열다. 다시 기업살인법 제정운동을 다짐하다.



2018. 4. 11.

서울혁신파크로 사무실을 이전한 기념으로 집들이 특강 <경제는 좋아진다는데 노동자는 왜 계속 죽어갈까>를 열다.

집들이에 적합한 강좌와 포스터였을까.



2018. 7. 11.

<특별대담 - 노동자가 되지 못한 노동자>에서 현장실습생, 장애인노동자, 이주노동자의 이야기를 나누다.



2018. 7. 26.

시안화수소 중독으로 인해 23살 청년이 사망한 인천 남동공단에서 노동자들과 보건의료학생들과 공단 안에서 일어난 산재를 알리는 선전전을 진행한다.



2018. 8. 8.

한화케미칼 염수누출로 노동자 6명이 사망한 사고(2016년 최악의 살인기업 1위)에 대한 기업처벌 결과, 기

소된 관련자 모두 집행유예형을 받았음을 밝히다.

2018. 8. 28.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알바노동자 감전사 사고 CJ대한통운 대표이사 고발 기자회견을 열다.



2018. 9. 20.

회원 이야기모임 <어서와 공장은 처음이지? - 직업환경전문의가 말하는 노동자건강의 현주소>에서 김철주 회원이 이야기하다.



2018. 10. 25.

회원 이야기 모임 <기업살인법 제정운동 어디로 가야하나? - 산재사망에서 기업처벌의 세계적 흐름과 합의>에서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형배 회원이 강의하다.



2018. 11. 5.

계속되는 CJ대한통운 물류센터 하청노동자 연쇄사망에 대하여 <반복된 물류센터 사망사고, 이젠 진짜 책임져라 / CJ대한통운 박근태 사장 고발 기자회견>을 연 후 고발을 진행하다.



2018. 11. 5.

서울대학교 교육관에서 「보이지 않는 고통」, 「반쪽의 과학」 저자 캐런 매싱 강연회를 열다. 여성노동자의 건강권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

2018. 12. 8.

석탄화력발전소 비정규직노동자 김용균 사망.

2018. 12. 20.

송년회를 열다. <송년특강 - 재벌개혁운동과 기업살인법>도 함께 진행.



2018. 12. 27.

단체들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개정은 시작에 불과하다 - 실질적으로 노동자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위험의 외주화 금지 투쟁은 계속되어야 한다> 성명을 발표하다.

2019년

2019. 2. 13.

단체들과 함께 <반복되는 사망사고는 살인이다, KCC 산재 사망사고 사업주를 엄중 처벌하고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하라> 성명을 발표하다.

2019. 2. 26.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 유가족과 함께 <한화 폭발사고 유가족 기자회견>을 열다.



2019. 2. 28~3. 28.

<노동건강연대x노동자의벗 기획강연 - 기업살인법을 들이셔야 합니다>를 열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역사적 이해(세명대 강태선 교수) △기업살인 감시운동의 역사와 현재, 외국 사례(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 △기업의 범죄능력 입증, 징벌적 배상 등 한국에서 기업범죄에 대한 동향 (전형배 교수) △노동자 사망과 그 이후-현대중공업, 현대제철 등 사례 중심으로 (박혜영 노무사)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와 기업살인법 제정(유성규 노무사)



2월 28일(목) 산업안전보건법의 역사적 이해
3월 07일(목) 기업살인 감시운동의 역사와 현재, 외국사례
3월 28일(일) 기업의 범죄능력 입증, 징벌적 배상 등 한국에서 기업범죄에 대한 동향

2019. 5. 28.

노동조합과 단체들과 함께 '일하다 죽은 모든 비정규직노동자를 추모하는 문화제'를 개최하다.



2019. 9. 3.

<국민과의 약속이다. 문재인 정부는 위험의 외주화 중단하라! 기자회견>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김용균 시민대책위 단체들과 함께 열다. 이상윤 대표가 시민대책위 공동대표로서 국가의 책임에 대하여 발언.



2019. 9. 18.

안전보건공단 '안전문화 확산 공모사업'으로 '청년노동 서바이벌 직장에서 살아남는 법'을 발행하다.



2019. 9. 25.

<회원특강 - 이주노동자가 처한 위험과 현실>을 열다.



2019. 10. 19.

틀게이트 수납노동자들의 직접고용투쟁 <틀게이트 투쟁 승리! 촛불문화제>에 참석하여 연대발언하다.



2019. 10. 20.

전국이주노동자대회에 참석하다.



2019. 10. 23.

<회원특강 - 어서와 공장은 처음이지? '예방의학 의사가 현장에서 만난 위험들'>을 전태일 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다.



2019. 11. 26.

서울 이주노동자합정센터에서 열린 <도로 위에 지는 삶, 라이더가 위험하다> 라이더유니온 기자간담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다.



2019. 12. 31.

아름다운재단 지원으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형평성 강화를 위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다.



2020년

2020. 1. 21.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LG헬로비전 고객센터 작업환경·노동안전 긴급 실태조사 결과발표 토론회>에 참석하여 박상빈 활동가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다.



2020. 5. 21.

4월 29일, 경기도 이천 모가면 소고리에 신축공사중이던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에 불이 나 38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산재유가족들과 함께 한익스프레스 유가족을 방문하다.

2020. 5. 22.

26세의 지적장애인 노동자 김재순이 폐기물공장에서 분쇄기에 빨려 들어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다. 노동건강연대가 추모사를 언론에 기고하고 기자회견, 추모제 등에 함께하다.

2020. 7. 2.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아프면 쉬수 있어야 합니다 - 상병수당 및 유급병가 휴가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 이상윤 대표와 주영수 회원이 참석하여 발언하다.



2020. 8. 10.

폭염으로 사망한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1주기"를 맞이하여 <비정규직없는 노동자-학생 공동행동>에 참석하여 발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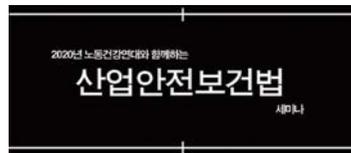
2020. 9. 15.

국회 앞에서 열린 <발전소 안전을 위한 고김용규특조위 권고안 이행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발언하다.



2020. 9. 16. / 10. 7.

<노동건강연대와 함께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세미나> 첫 강의(7/29) 진행 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온라인 세미나로 전환하여 진행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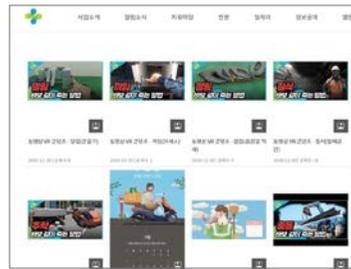
2020. 10. 30.

안전보건공단 '안전문화 확산 공모사업'으로 청년노동자를 위한 가이드북 「첫 노동공략집-알아야 지킨다」를 발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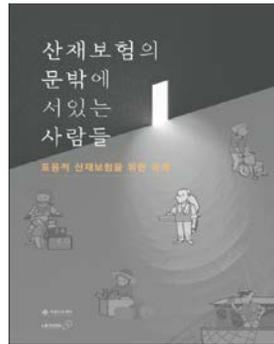
2020. 12. 30.

안전보건공단이 산재를 '바보같은 죽음'으로 묘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교육영상을 제작한 것에 항의 및 언론 기고로 비판하다. 해당 영상은 이후 삭제되었다.



2020. 12. 31.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보고서 「산재보험의 문밖에서 서있는 사람들-포용적 산재보험을 위한 과제」를 발간하다.



2021년

2021. 1. 8.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2021. 1. 13.

이상윤 대표가 회원들에게 드리는 편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 뿐입니다"를 게재하다.

2021. 1. 27~28.

<온라인 공개특강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사회적 의미와 전망에 대하여>를 열다.



2021. 2. 19.

코로나19로 무기한 연기되었던 총회를 온라인으로 열다.



2021. 3. 4.~4.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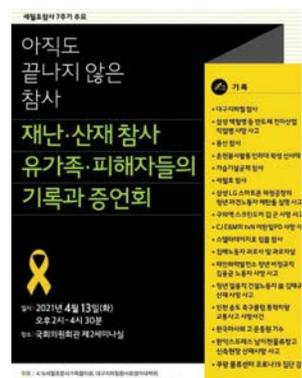
<봄 기획강좌 - 노동자건강의 정치경제학>을 전체 7강으로 개강하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노동과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룸. △코로나19와 건강할 권리(김창엽)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남은 이야기(전형배) △노동시장, 젠더, 불평등(김영미) △위험의 이주화, 이주노동자(이주연) △플랫폼노동의 매듭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남재욱) △산재보상의 정치성(유성규) △한국 사회 노동 다시 짜기(신광영)으로 구성.



2021. 4. 13.

세월호참사 7주기 「재난·산재 참사 유가족·피해자들의 기록과 증언회 기록집」에 삼성, LG 스마트폰 하청공장의 청년파견노동자 메탄을 실명 사고를 기록하다.



2021. 4. 30.

<모든 노동자의 산재보험을 위한 현장 증언 및 제도개혁 토론회>를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열고, 산재보험 제도 밖의 노동자에 대하여 발표하다.



2021. 5. 10.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산재보상 사각지대 해소 지원사업>을 3년째 지속하다. 산재노동자 생계비 지원사업으로 농업노동자, 돌봄노동자들에게 생계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하다.

2021. 6. 22.

한겨레 신문에 이상윤 대표와 박용현 논설위원과의 인터뷰 <“산재사망은 정의의 문제, 죽음을 묵인하던 시대는 갔다”>가 실리다.



2021. 6. 30.

창립 20주년.

# 우리들의 연대, 함께 오래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

2021년 6월 30일은 노동건강연대가 창립한 지 20년 되는 날입니다. 노동건강연대는 기존에 존재하던 '산재추방운동'과 '노동안전보건운동'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새로운 운동의 장을 열고자 하는 포부를 가졌던 20대, 30대 활동가 10여 명이 모여 만든 단체였습니다. 기존 운동의 전통과 열정은 존중하되 새로운 감각으로 새로운 전략과 방향으로 운동을 벌여가고자 했던 패기 넘치는 활동가들과 젊은 전문가·연구자들이 의기투합하여 만든 단체였습니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조합 중심의 활동과 그 노동조합의 현장 활동을 지원하는 전문가라는 다소 도식적인 틀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조직된 노동자 중심의 기존 운동이 포괄하지 못하는 주체, 이슈를 중심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운동을 벌여나가고 싶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년간 비정규직, 소규모사업장, 여성, 이주노동자 등 노동조합이 포괄하지 못하거나 활동을 벌여나가기 힘든 노동자 건강과 안전 문제에 대한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당시로서는 크나큰 도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노동조합의 재정

지원과 도움을 기대하기 힘든 조건 속에서 노동운동 단체를 꾸려간다는 것은 모험에 가까웠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한국의 노동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노동자들을 위한 활동에 재정 지원을 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은 여러 가지 기금이 생겨 상황이 많이 나아졌지만, 20년 전만 하더라도 미조직 노동자 이슈를 중심에 두고 활동을 한다는 것은 노동조합의 지원을 포기한다는 것과 다름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동건강연대는 지난 20년간 정규직 노동조합의 재정 지원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도 이러한 원칙과 방향을 지켜 활동해왔습니다. 조합원이 아닌 이들의 건강과 안전 문제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노동건강연대를 계속 후원하고 지지해 준 정규직 노동조합도 존재했기에 이러한 활동이 가능했습니다.

노동건강연대는 노동자 건강과 안전 문제를 한국의 경제산업구조, 노동시장, 사회보장 제도와 관련지어 큰 틀에서 파악하고 총체적으로 대응하고자 했습니다. 현장의 전투성과 투쟁성은 극대화할 수 있었지만, 해당 이슈를 사회화하고 정치화하여 전체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동력은 부족했던

기존 산재추방운동과 노동안전보건운동의 한계를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노력은 때때로 개량주의, 실용주의, 대중 추수주의 등의 오해를 받았지만, 우리는 더 많은 사람과 소통하며 더 많은 힘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그러한 비판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에 이러한 운동방식을 고수해왔습니다.

노동건강연대는 노동운동과 인권운동을 적극적으로 결합하여 그 긍정성을 극대화하는 데에도 앞장섰습니다. 노동운동과 인권운동은 고유의 역사, 경험, 운동방식이 있습니다. 상호 잘 섞일 것도 같지만 상호 잘 섞이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노동자 생명과 건강이라는 특수한 공공의 가치는 노동운동 방식과 더불어 인권운동 방식도 그것을 지키고 쟁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우리는 판단하였습니다. 인권운동의 방식을 차용하여 노동운동을 활성화하고 대중과의 접점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지금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노동자 건강권' 혹은 '노동자 건강권 운동'이라는 표현도 노동건강연대 활동 초기에는 매우 어색한 말의 조합이었으나, 지금은 많은 이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되었습니다.

구체적 사업으로는 기업살인 대응 운동, 비정규직,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건강권 보장 운동, 대기업 생산 공급사슬 내 노동자 인권 보장 운동, 사회보장 제도로서 산재보험 개혁운동 등을 진행하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은 상상조차 가지 않았지만, 노동건강연대가 창립하여 위와 같은 활동을 노동건강연대만의 방식으로 하려 할 때 우려와 비판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우려와 비판은 새겨두고, 중심이 되는 문제의식과 가치를 놓지 않으며 활동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운동 사회에서 노동건강연대는 작은 단체입니다. 작은 단체이기에 한계가 있지만, 기존의 사고와 관행으로부터 자유롭게 새로운 도전과 실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창립 초기에는 100여 명이 안 되었으나 현재는 320명 가까이 늘어난 노동건강연대 회원들이 그것을 가능하게 해 주셨습니다. 처음처럼 실천하되 20년이라는 시간에 걸맞는 모습을 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길에 처음처럼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들의 연대, 함께 오래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 〈노동과건강〉 창간호 ~ 99호 목차

| 1988년 창간호 / 발행일 : 19880515       |  |
|----------------------------------|--|
| 노동과건강 연구회 취지문                    |  |
| 창간사                              |  |
| 「노동과 건강연구회」에 바란다                 | 인간답게 살아보려는 노동자의 굳센 디딤돌이 되길...<br>남의 일이 아닌 내 일 같이 할 수 있는 마음 자세로<br>노동자들의 건강문제를 사회적 차원의 문제로... |
| 노동과 건강연구회의 발전을 위하여<br>- 그 위상과 책임 |  |
| 한국 산업보건의 실태<br>- 현황, 문제점 및 해결방안  |  |
| 사례를 통해 본 산업재해의 현실                | 성광조명 집단수는 중독   |
| 연재기획/직업병에 대해 알아본다                | 톨루엔 중독<br>세척(탈지)   |
| 산재소식                             | 그린힐 봉제공장의 집단참사사건<br>금속도금업체에서 T.C.E(트리클로로에틸렌) 중독발생  |
| 단체동정                             | 농어촌 건강권 확보를 위한 대토론회<br>우리 노동문제 연구원 발족  |
| 노동과 건강연구회 소식                     | 노동과 건강연구회 창립총회   |
| 부서 활동소개                          | 「노동과 건강연구회」는 이런 일을 합니다   |



| 2호 / 발행일 : 19880820 |  |
|---------------------|--|
| 시사                  |  |
| 논단                  | 사고를 통해서 본 화학공장의 안전문제   |
| 특집기획                | 노동자의 알권리와 지킬권리<br>-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장단기 대책을 보고                                       |
| 연재기획/직업병에 대해 알아본다   | 납중독  |
| 사례를 통해 본 산업재해의 현실   | 직업병 사례에서 드러난 문제점<br>온도계 제조업체에서 46명 집단 수은중독 발생<br>원진레이온 노동자들 이황화탄소에 집단중독발생        |
| 산재소식                | 15세 소년의 수은중독에 의한 사망 - 산업재해 노동자장 치위<br>카드뮴중독으로 사망한 고상국씨 시신부검 - 그러나 산재처리는 지연되고 있는데 |
| 단체동정                | AIDS퇴치를 위한 공청회<br>보건과 사회 연구회 창립기념, 보건의료단체 대토론회                                   |
| 노동과 건강연구회 소식        | 자료집 발간<br>첫 회원 수련회를 갖다<br>문송연군 장례식 참석  |



| 3호 / 발행일 : 19881120 |                    |
|---------------------|--------------------|
| 논단                  | 산업안전보건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
| 회원투고                | 전국 금속연맹 교육을 다녀와서   |
| 특집기획                | 전자업체 노동자들의 생식기능장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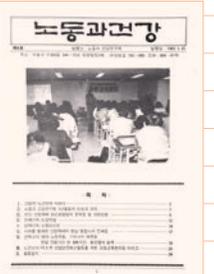
|                    |  |
|--------------------|--|
| 연재기획/작업공정에 대해 알아본다 | 전기도금   |
| 연재기획/직업병에 대해 알아본다  | 석면과 직업병  |
| 사례를 통해 본 산업재해의 현실  | 원진레이온 이황화탄소 집단 중독사례  |
| 산재소식               | 성동금속공업(주) 압연기 이음축에 의한 산재사고<br>신광기업 노동자들 25일에 걸친 투쟁 끝에<br>요충수은치 200µg/1 이상 일팔 산재요양 획득 |
| 노동과 건강연구회 소식       | 전국금속노련 교육에 참여하다<br>직업병 신고 기간에 대한 홍보활동<br>원진레이온 직업병 대책활동<br>교육활동<br>자문위원 간담회 개최       |



| 4호 / 발행일 : 19890125 |                                    |
|---------------------|------------------------------------|
| 시론                  | “산재” 직업병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
| 기획                  | “직업병 이환자 신고” 결과에 대한 평가<br>작업 환경 측정 |
| 사례를 통해 본 산업재해의 현실   | “건강문제” 우리의 손으로!!                   |
| 연재기획/직업병에 대해 알아본다   | 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br>전자회사에서의 직업성암       |
| 산재소식                | 유일계량기 드디어 협상타결<br>2회에 걸쳐 회원강좌를 갖다. |
| 노동과 건강연구회 소식        | 회원 단합 송년회<br>산업재해, 직업병 워크숍 개최예정    |



| 5호 / 발행일 : 19890325     |   |
|-------------------------|---|
| 간담회                     | 노동과 건강연구회에 바란다                                    |
| 노동과 건강연구회 1년 활동의 반성과 과제 |   |
| 논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문제점 및 개정방향                             |
| 연재기획/작업공정에 대해 알아본다      | 도장작업  |
| 연재기획/직업병에 대해 알아본다       | 소음성난청   |
| 사례를 통해 본 산업재해의 현실       | 용접사의 진폐증  |
| 산재소식                    | 10대 노동자들 기숙사에서 떼죽음!<br>한달 잔업시간만 300시간, 황영철씨 숨져... |
| 노건소식                    | 제2차 산업안전보건활동을 위한 공동 교육훈련을 마치고...                  |
| 활동일지                    |   |



| 6호 / 발행일 : 19890630                       |                                     |
|---|-------------------------------------|
| 기획  | 의료보험과 노동자                           |
| 트리클로로에틸렌 작업장 실태 보고서<br>- 경인지역 세척 작업장 중심으로 |                                     |
| 노동조합의 산업안전보건 활동사례                         | 노동자의 힘으로 밝혀낸 직업병 - 구로3공단 나우정밀의 활동사례 |
| 연재기획                                      | 컴퓨터 단말기(VDT) 작업에 의한 건강장애<br>용접      |

|         |   |  |
|---------|---|--|
| 산재소식    | 세원 플라스틱 김석중씨 감전사<br>영전기계 조정식 동지 산재사망    |  |
| 노건소식    | 창립 1주년 정기총회 열리다<br>공개토론회 -산재극복의 대책- 열리다 |  |
| 함께 읽는 시 | 장작을 때며<br>너그들 잠자는 밤마다                   |  |

| 7호 / 발행일 : 19890831 |  |
|---------------------|--|
| 시사                  | 전교조를 지지하며 - “공동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
| 논단                  | 산업재해, 직업병 추방운동의 전망과 노동과 건강연구회의 과제  |
| 연재기획/직업병에 대해 알아본다   | 직업성 피부질환<br>조선업에서의 건강장해  |
| 노동조합의 산업안전 보건활동 사례  | 남일금속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과정  |
| 산재소식                | 폐결핵도 직업병으로<br>문성면 1주기 추모 및 산재추방 결의대회<br>출퇴근시간 재해도 산재보상 받을 수 있다<br>용접폭발의 공포   |
|                     | 직업병 책 드디어 나오다<br>금속노동조합 산재교육 열리다<br>구로, 인천, 안산 복지후생부장 교육 연이어 열리다<br>지역산업안전 보건 활동 실무자 간담회<br>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 활동 및 제안서 |
| 노건소식                |                                        |

| 8호 / 발행일 : 19891115 |  |
|---------------------|--|
| 시사                  | 건설/전노협   |
| 논단                  | 산업안전 개정운동의 성격<br>산업안전보건법 개정운동의 경과 보고<br>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비교<br>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비교표<br>산업안전보건법 개정운동소식<br>산업안전보건법 개정운동 관련 공청회<br>산업안전보건법 개정운동 관련자료 안내<br>알기 쉬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
| 특집기획                |   |
| 연재기획                | 직업성 알레르기<br>주조<br>여천력기공장 또 화재폭발사고  |
| 산재소식                | 고상국씨 이어 부산서 “또 카드뮴 중독”<br>폐렴사망 청소년, 업무상 재해로  |
| 단체동정                | 인천지역 산재직업병 상담실무모임<br>에너지산업의 대표적 5공비리 영광해발전소 11, 12호기 건설반대 100만인 서명운동<br>국민건강 보장하는 의료보장 쟁취하자  |
| 서평                  | 강철군화를 읽고   |

| 9호 / 발행일 : 19900215 |   |
|---------------------|---|
| 서시                  | 시대의 꿈   |
| 기획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내용과 문제점  |
| 연재기획 / 직업병에 대해 알아본다 | 직업성 요통<br>열이나 온도가 인체에 미치는 일반적 영향  |
| 정정기사                | 심문보씨 카드뮴 중독 해설기사  |
| 산재소식                | 계속 발견되고 있는 원전레이온 이황화탄소 중독<br>용접공 진폐, 직업병으로 인정<br>서해공업 이현주씨 600ton 프레스에 압사당하다! |
|                     | 산업안전보건교육 공동평가회<br>산업안전보건법 개정운동에 대한 평가 보고회<br>제3차 산업안전보건활동을 위한 공동교육훈련을 열며...   |
| 노건소식                | 직업병과 산업재해 예방에서 보상까지   |
| 서평                  |   |

| 10호 / 발행일 : 19900425 |  |
|----------------------|--|
| 시사                   | “셋방살이 노동자의 서러움이 싫다” - 노동자와 주택문제 -  |
| 연재기획                 | 봉제업체에서의 건강장해<br>진폐증이란 무엇인가?  |
| 방문기사                 | 현대자동차 작업환경 실태조사를 다녀와서  |
| 특별기사                 | 심문보씨 사건에 관한 의견서 - 일하는 사람의 건강을 위한 의사회 의견서<br>노동과 건강연구회 답변서  |
| 산재소식                 | 한국엔지니어링 방사선폭로사건 - 무방비 무대책의 방사선 폭로<br>건설노동자 산재사망 - 건설현장은 노동자의 무덤인가<br>전기통신공사 납중독사건 - 전기통신공사 정태문씨 납중독으로 사경을<br>안산 대봉전선 연선기 사망사건 - 로울러에 말려 들어간 한 노동자의 꿈 |
|                      | 상담실에서<br>서평  |
| 탐방기사                 | 동부지역 보건의료인회를 찾아서   |
| 노건소식                 |  |
| 알립니다                 |  |

| 11호 / 발행일 : 19900720 |  |
|----------------------|--|
| 시론                   | 산재추방의 결의를 높이자  |
| 논단                   | 노동자 건강의 사회적 보장   |
| 연재기획                 | 유해요인별 건강장해 - 직업성 폐질환<br>업종·공정별 건강장해 - 자동차 제조업종에서의 건강장해 |
| 탐방                   |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산업보건분과<br>유해 위험작업장범위 대폭 축소!               |
| 특별기사                 | 노동부 장관에 드리는 공개질의서<br>산업재해 추방을 위한 7월 공동사업               |
|                      | 납중독 전기통신공사 전담원 정태문씨 위독!                                |
| 산재소식                 | 진폐증 주민 계속 발생!<br>작업중 끊는 기름탱크에 빠져 노동자 사망                |

|        |                          |
|--------|--------------------------|
|        | 90년 1/4분기 산업재해 하루 6명꼴 사망 |
|        | 구로지역 최초로 직업병, 수은중독 발견되다! |
|        | 망간중독! 직업병으로 인정받다         |
| 영화평    | "파업전야"를 보고나서             |
| 상담실에서  | 신나와 잉크를 사용하는 인쇄공입니다      |
| 노건소식   |                          |
| 관련단체소식 |                          |

**12호 / 발행일 : 19900907**

|                       |  |
|-----------------------|--|
| 서시                    | 경동산업 노동자 고사제문 중에서  |
| 시론                    | 민족, 민중이 주체가 되는 통일  |
| 연재기획                  | 유해요인별 건강장해 - 수은중독의 예방과 대책<br>업종·공정별 건강장해 - 건설업에서의 산업안전보건활동 |
| 탐방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산재직업병분과를 찾아서                                   |
| 산재소식                  | 산재사망 43% 증가  |
|                       | 방사선 피폭되었던 비파괴 검사자 임석빈씨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                         |
|                       | 이황화탄소 중독, 현재까지 61명 - 원진레이온과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나                  |
|                       | 또 건설현장 노동자의 죽음   |
|                       | 도장공의 피부염 - 직업병으로 진단된다                                      |
|                       | 정신질환자를 사출기작업에 동원   |
| 서해바다 유조선기름 누출         |  |
| 콘베어 설치도중 440v 감전사     |  |
| 공장 초산가스 누출로 주민들 질식 대피 |  |
| 산재추방결의대회를 마치고         |  |
| 상담실에서                 | 산재, 어떻게 보상받는지요   |
| 노건연소식                 |  |
| 관련단체소식                |  |



**13호 / 발행일 : 19910119**

|             |   |
|-------------|---|
| 시론/새해를 맞이하며 | 올해는 더 이상  |
| 특별기사        | 우루과이라운드와 보건의료<br>기혼여성노동자의 모성보호실태조사                          |
| 연재기획        | 카드뮴에 의한 건강장애  |
|             | 주철·주물공정에서의 유해요인으로 인한 건강장애와 그 대책                             |
|             | 스웨덴의 산업보건제도   |
| 탐방          |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산노협)을 찾아서  |
| 산재소식        | 전기통신공사 전람원 정태문씨 결국 납중독 사망                                   |
|             | 직업성피부염 산재인정 늘어나   |
|             | 원전 세탁부 김철씨 방사선 피폭으로 위독                                      |
|             | 청계피복 영세업체 봉제공장 노동자 화재로 사망                                   |
|             | 유리업체에서도 진폐환자 발생   |
|             | 산재노동자 자살 잇달아 - 산재노동자 자살에 사업주 과실 판정도<br>현재정밀 노동자 2명 「카드뮴 중독」 |



|                  |  |
|------------------|--|
|                  | (주)풍산 안강공장 또다시 폭발화재 발생!                      |
|                  | 포항제철, 발암물질과 유독가스가 허용기준치를 초과                  |
|                  | 원진레이온 노동자 김봉환(53세) 또다시 이황화탄소 중독으로 사망         |
| 노동조합 활동사례        | 더 이상 생명을 저당 잡힌채 살 수 없다! - 대우조선 노동조합 산업안전보건활동 |
| 전국노조간부교육보고 및 결의문 | 제1차 산업안전보건활동을 위한 전국노동조합 간부교육을 마치고            |
| 상담실에서            |  |
| 노건연소식            |  |
| 관련단체소식           |  |
| 관련단체자료집 발간소개     |  |
| 게시판              |  |

**14호**

**15호 / 발행일 : 199107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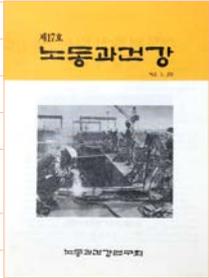
|                |   |
|----------------|---|
| 서시             | 동지여 부활하소서                                   |
| 시론             | 산재추방을 위한 7월 공동사업을 제안하며                      |
| 연재기획           | 유기용제에 의한 건강장해                               |
|                | 동·서독의 산업안전보건제도                              |
| 노동조합의 산업안전보건활동 | 창원 삼미금속노동조합 금속공장 안전대책부                      |
| 특별기사           | 원진레이온 퇴직노동자 고 김봉환씨 137일간의 직업병 인정투쟁의 의의 및 성과 |
| 산재소식           | TCE 중독으로 4명 사망, 7명 중태!                      |
|                | 현대정공 28세의 노동자 과로로 사망                        |
|                | 원진사고 8등급으로 분류                               |
|                | 지하철공사 현장 - 노동자 잡아먹는 지옥철 현장                  |
|                | 노동부, 직업병 예방 종합대책 발표 - 실효성 의문                |
| 탐방             | 마산 노동자 건강을 위한 모임 준비위원회를 찾아서                 |
| 상담실에서          | 하청업체에서의 산재보상                                |
| 노건연소식          |   |
| 관련단체소식         |   |
| 자료집 발간소개       |   |
| 부록             | 산재없는 세상으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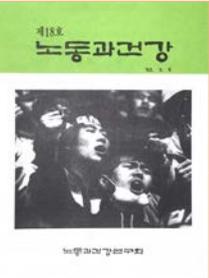
**16호**

**17호 / 발행일 : 19920120**

|           |                     |
|-----------|---------------------|
| 시론        | 노동법 개정운동과 노동자건강     |
| 산재교실      | 진동작업에 의한 건강장애       |
|           | 쿠바의 산업보건            |
| 산재추방의 한길로 |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산업안전부    |
| 건강 한마당    | 허리가 아플 때는           |
| 오늘의 초점    | ILO와 노조의 산업안전보건활동   |
|           | 개정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대해 |
|           | 「산업보건종합센터」 추진사업의 경과 |

|  |  |  |
|--|--|--|
| 지금 현장에는                                | 경인지역노동자 2.2%가 질병에 시달려  |  |
|  | 유해물 취급사업장, “유해그림” 부착해야   |  |
|  | 진폐증 판정 빨라진다  |  |
|  | 리비아 수로공사 유리섬 취급노동자 심한 탈모증                                      |  |
|  | 지하철 공사장, 직업병 발생 가능성 높아   |  |
|  | 전자업체 경건완 장애 많아<br>- 구로공단 7곳의 여성노동자 8.4%가 통증호소                  |  |
|  | 거래처와 술자리로 인한 과로사 “업무상 재해”로 인정<br>인천 전진상사 여성노동자, 잔업하다 전신화상으로 사망 |  |
| 상담실에서                                  | 통근버스 이용시의 재해도 업무상재해  |  |
| 탐방                                     | 성남 노동건강상담소를 찾아   |  |
| 작은글 큰나눔                                | 산재없는 그날까지 - 노동자 건강을 위한 제1차 산업안전보건교실을 참가한 후                     |  |
| 노건연 소식                                 | 조선업에서의 건강장해와 대책, 정리중   |  |
|  | 교육사업 활발히 진행  |  |
|  | 보건의료단체 공동달력, 수첩제작  |  |
|  | 원진직업병 대책 협의회(이하 원대협) 소식  |  |
| 이웃동정                                   | 김성애 열사 4주기 추모제, 경찰의 대회 방해로 무산                                  |  |
|  | 마산, 창원 노동자 건강을 위한 모임 창립대회                                      |  |
|  | 안산지역 산업재해 재활회 발족   |  |
|  | 성남지역, 산재추방노동자 한마당 열려   |  |
|  | 현대 계열사 실무자 모임, 산업안전보건  |  |
|  | 대전, 충남지부 보건의료단체 산재직업병 세미나 개최                                   |  |
|  |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수도권 노동자의 구강건강실태에 관한 학술 발표회 개최                  |  |
|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창립 4주년 기념대회 및 제5차 정기총회                            |  |
| 교회 빈민의료협의회, 제5차 정기총회 및 정기연수회 가져        |  |  |
| 참된의료 실현을 위한 청년한의사회, 한의학을 위한 직업병 안내서 발간 |  |  |
| 새로 나온 책                                | ILO와 산업안전보건  |  |
| 함께 풀어봅시다                               |  |  |

18호 / 발행일 : 19920305

|           |  |  |  |
|-----------|--|--|--|
| 시론        | 노동과건강연구회 4차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  |  |
| 산재교실      | 연마작업에서의 건강장해<br>함께보는 산업안전보건법             |  |  |
| 산재추방의 한길로 | 안산 노동자들의 건강은 우리 손으로... - 안산 산업안전부 모임을 찾아 |  |  |
| 건강 한마당    | 허리를 튼튼하게                                 |  |  |
| 지금 현장에는   | 지하철 노동자 선로순회중 사망 - 노조측 근무형태 변경요구         |  |  |
|           | 유조선 수리중 기름탱크 폭발 - 용접중 노동자 사망             |  |  |
|           | LNG중독 직업병 첫인정 - 택시 운전수 2명 요양승인           |  |  |
| 상담실에서     | 원진 직업병 노동자 강의수시 사망                       |  |  |
| 작은글 큰나눔   | 뇌경색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                       |  |  |
| 특집        | 노동자의 건강할 권리를 되찾자                         |  |  |
| 노건연소식     | 노동과건강연구회 4차년도 사업보고<br>교육사업진행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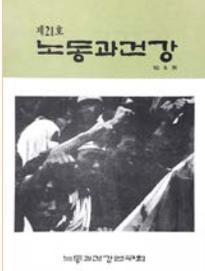
|          |   |
|----------|---|
| 연대활동     | 산업안전보건활동을 위한 제5차 공동교육훈련 열려  |
|          | 원대협 소식  |
| 이웃동정     | 각단체 정기총회  |
|          |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겨울학교 진행   |
|          | 기독교청년의료인회, 월례발표회 진행   |
|          |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인의협과의 만남 및 공개토론회 진행                                    |
|          | 참된의료실현을 위한 청년한의사회, 겨울진료사업진행   |
| 새로 나온 책  | 제5차 산업안전보건활동을 위한 공동교육훈련자료집  |
|          | 91산업재해, 직업병실태 - 신문자료를 중심으로<br>산재없는 세상위해 부활하소서 - 고김봉환 동지 직업병 인정 투쟁 자료집 |
| 함께 풀어봅시다 |   |
| 알림       |   |

19호 / 발행일 : 199205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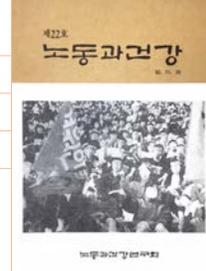
|           |   |   |
|-----------|---|---|
| 시론        | 원진투쟁 승리 2주년을 맞이하며                                       |  |
| 산재교실      | 안전한 전기 작업을 위하여<br>함께 보는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자의 알 권리와 사업주의 알릴 의무” |   |
| 산재추방의 한길로 | 노동자들의 일상적인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   |
| 건강한마당     | 머리가 아플 때  |   |
| 오늘의 초점    | 손가락 접합수술대상 대폭 축소 - 노동계, 보건의료계 대책위원회 구성                  |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등 개정되다                                      |   |
| 지금 현장에는   | 해태제과 19세 노동자 산재로 사망 - 콘베어벨트에 머리말려 즉사                    |   |
|           | 이황화탄소 취급노동자 평생 건강관리제도에서 제외돼<br>- 발암물질11종 취급 노동자에 국한     |   |
|           | 산재로 인한 경제손실액 3천4백19만6천원 - 노동쟁의로 인한 경제손실액의 2배를 넘어        |   |
|           | 보건관리자 선임율, 해가 갈수록 떨어져 - 영세사업장일수록 더욱 저하추세                |   |
|           | 광양제철 노동자 작업중 사망 - 오일교환도중 가스에 질식                         |   |
| 상담실에서     | 노동부 산재통계ILO에 허위, 축소 보고 - 14만여명의 재해자수를 2만여명으로            |   |
|           | 삼미, 작업중이던 노동자 뇌출혈로 사망                                   |   |
| 탐방        | 기침과 가래가 심한데   |   |
| 작은글 큰나눔   |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산보분과를 찾아                                 |   |
| 노건연소식     | 열아홉살 - 고김영미 동지를 생각하며                                    |   |
| 연대활동      | 새로운 임직원을 소개합니다  |   |
|           | 5차년도 각 부서 사업계획을 알려드립니다                                  |   |
| 새로 나온 책   | 산업보건종합센터 설립 추진위 참가단체 대표자 회의 열어                          |   |
|           | 원대협 소식  |   |
| 이웃동정      | 산업재해, 어떻게 보상 받나?  |   |
|           | 전국 지역 활동체 간담회 개최  |   |
|           | 전노협 산업안전보건국, 전국산업안전보건관련 간부 간담회 개최                       |   |
| 함께 풀어봅시다  |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산업구강 보건협의회 창립총회 가져                      |   |
| 알림        |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산업보건종합센터 건립을 위한 호프 한마당' 열려               |   |

20호

21호 / 발행일 : 199209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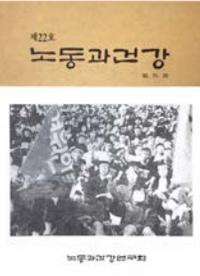
|           |  |
|-----------|--|
| 시론        | 노동부의 현실적인 산업안전보건정책을 촉구하며   |
| 산재교실      | 인쇄업종 노동자의 건강장애<br>안전보건관리규정의 올바른 활용을 위하여  |
| 산재추방의 한길로 | 산업재해와 직업병 없는 세상을 앞당기기 위해 힘차게 일어난 전노협<br>산업안전보건국을 찾아서   |
| 건강한마당     | 한 노동자의 감기 퇴치기  |
| 오늘의 초점    | 업무상 요통환자에 대한 강제치료 종결, 조건부 치료조치는 즉각 철회하라!   |
| 특집        | 92년 7월 '산재추방의 달' 공동사업을 되돌아보며<br>산재보험 가입률 30% 밀돌아<br>- 사업주들 비용부담느껴 (5인이상 업체 확대) 실효 못거뒀<br>과중한 업무수행으로 인한 패혈증 사망, 공무상 재해로 인정<br>- 유가족 연금관리공단 상대로 소송하여 승소판결<br>노조위원장 과로발병 업무상 재해 해당 안돼<br>건설현장 중대재해 급증, 정부 「산업재해 감소 특별대책」 발표<br>- 근본대책없이 노동자에게 책임전가<br>기업주, 안전사고 은폐 많다 - 안전관리자 2/3가 다른 업무 겸직도<br>작년 산재사망, 10만명에 29명 꼴<br>- 노동자 100명중 3.2명은 질병에 시달려<br>면마스크 안쓴 노동자의 직업병, 회사에 부분적 손해배상책임 |
| 지금 현장에는   |   |
| 상담실에서     | 화공약품을 물인줄 알고 잘못 마시는 바람에 죽었는데   |
| 탐방        | 부산노동자의 건강을 위한 일꾼회  |
| 작은글 큰나눔   | 독일오펠 자동차 공장을 돌아보고  |
| 알림        | 산재교실을 마련합니다<br>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산업보건종합센터 설립에 참여합니다  |
| 노건연소식     | 회원 수련회를 다녀와서<br>전문위원 간담회 가져<br>작업환경 측정 실태조사 후, 설명회 열어  |
| 연대활동      | 원진직업병 피해자 통일적인 대응을 위해<br>산업보건종합센터 설립추진위원회, 하반기 사업 준비중<br>건강사회를 위한 보건의료인 연대회의'(가칭) 발족   |
| 이웃동정      | 한반도의 통일과 아태지역의 조직화를 위한 보건의료인 간담회 열려<br>산재, 직업병 한의원 및 연구소 설립추진대회 열어   |
| 새로 나온 책   | 산업안전 보건활동을 위한 제1기 전국 노동조합 간부교육<br>중동부지구 산업안전보건활동을 위한 노동조합 간부 간담회   |
| 함께 풀어봅시다  | 노동과 건강<br>작업환경 측정 실태와 노동자의 참여  |

22호 / 발행일 : 19921130

|           |   |
|-----------|---|
| 시론        | 노동법 개정과 노동자 건강권 쟁취  |
| 산재교실      | 중기조종사의 건강 장애와 대책활동<br>유해 위험 예방조치의 바른 활동을 위하여  |
| 산재추방의 한길로 | 코리아 스파이서 산업안전부 등 인천 지역 '산재없는 일터를 위한 모임' 꾸리다   |
| 건강한마당     | 추운 겨울 동상에 걸렸을 때   |
| 오늘의 초점    | 무재해 운동의 궤도 수정을 촉구하며   |
| 특집        | 중소기업의 일상생활에 대한 간담회<br>진폐로 인한 비관 자살이 산재보험과 무관하다니<br>작업장 감전 사망 급증/올들어 월평균 6.6명꼴<br>대기업일수록 재해도가 높아 사망재해 「현대」가 가장 많아<br>「안전」 뒷전 무리한 작업강요 발파 끝난 뒤 시간 여유 없이 현장투입 '참변' 초래<br>일사병등, 업무상 피해로 새롭게 인정되다<br>직업병 취약 사업장 특별점검 - 중금속, 유기용제 취급 40곳 대상으로<br>노동법 개정투쟁 본격화하다 |
| 지금 현장에는   |    |
| 상담실에서     | 선천성 기형이 있어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데   |
| 탐방        | 산업보건종합센터 설립추진위원회를 찾아서   |
| 작은글 큰나눔   | 회사의 이념공세에 대비하자  |
| 노건연 소식    | 산재없는 그날을 위한 산재 교실 열어<br>실무자 및 회원을 위한 세미나 열어<br>93년도 달력, 수첩제작에 들어가<br>중소기업 노조의 일상활동을 위한 간담회 열어   |
| 연대활동      | 산업보건 종합센터 설립추진 보고대회 열어<br>보건의로 개혁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br>건설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공청회 준비중<br>원대협 소식   |
| 새로 나온 책   | 환기장치에 대한 이해<br>노동자 건강을 위한 제2기 산업안전 보건교실 자료집<br>보건의료 문제, 이렇게 해결해야 합니다/건강사회를 위한 보건의료  |
| 함께 풀어봅시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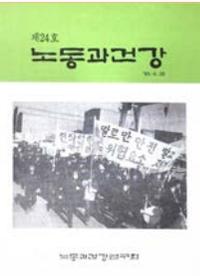
23호 / 발행일 : 19930225

|         |   |
|---------|---|
| 시론      | 산재추방운동의 현황과 노건연의 역할 - 5차년도 사업을 마치며  |
| 산재교실    | 제지공장 노동자의 건강장애<br>노동자의 '유해 위험작업 거부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
| 건강한마당   | 근육의 피로는 이렇게 풀시다   |
| 현장의 소리  | 공상처리 실태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br>TCE탱크에 노동자 빠져 사망<br>상일가구 도장반 노동자, 직업성 천식으로 산재인정<br>한라중공업, 윤기수씨 크레인 사고로 사망<br>중대재해, 추락, 감전사가 많다<br>안전점검 안된 타워크레인에서의 추락사고, 3명의 노동자 사망 |
| 지금 현장에는 |   |

|                  |   |   |
|------------------|---|---|
| 상담실에서<br>작은글 큰나눔 |  | 주말부부, 귀사 - 귀가길 사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다  |
|                  |   | 작업장 사고로 지병악화되면 업무상 질병, 그러나 그 인정사례가 갖는 이중성<br>경보화학, 메탄올 가스유출로 노동자 2명 사망                                |
| 노건연소식            |  | 디스크 환자의 재요양 신청인이 불승인되었는데<br>을지로 아가씨<br>교육사업 계속되다<br>산업안전보건활동 실무자 및 회원들을 위한 세미나 개최되다                   |
|                  |   | 노동조합간부 간담회 열다<br>5차년도, 총회로 마무리되다  |
|                  |   | 93년도, 노건연 각부서의 사업계획   |
| 연대활동             |   | 제6차 산업안전보건활동을 위한 공동교육훈련 열리다   |
| 이웃동정             |   | 산재보상실태에 대한 연구조사 발표회 열려  |
| 새로 나온 책          |   | 뇌혈관 및 허혈성 심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에 대하여<br>1992년 산업재해, 직업병 실태자료집<br>산재보상의 현황과 문제<br>제6차 산업안전보건활동을 위한 공동교육훈련 자료집 |
|                  |   |   |
|                  |   |   |
| 함께 풀어봅시다         |   |   |

**24호 / 발행일 : 19930430**

|                  |   |
|------------------|---|
| 시론               | 새정부의 경제행정규제완화지침과 산업안전보건조치   |
| 산재교실             | 고무 공장 노동자의 건강장해<br>함께 보는 산업안전보건법 - 유해작업의 도급은 금지되어야 한다   |
|                  |   |
| 산재추방의 한길로        | 안산 산재 재활의 집을 찾아서  |
| 건강한마당            | 여성노동자의 고통스런 월례행사  |
| 오늘의 초점           | 산재자들의 보상 불만 이유있어<br>- 노동부의 보수적, 비효율적, 비전문적 행정 개선되어야   |
| 현장의 소리           | 영세사업장의 산업안전 보건활동을 위하여   |
| 지금 현장에는          | 카드뮴 중독 최초로 직업병 인정<br>- 울산 (주)송원산업 심문보씨 5년여의 외로운 투쟁 승리   |
|                  | 추락사고 당한 뇌종양노동자 재판에서 업무상재해로 인정   |
|                  | 개인교통수단 이용 출근 중 사망은 업무상재해 아니라는데  |
|                  | 노동자의 건강은 여전히 뒷전 - 전주지역 건강진단 실시 결과 유병률 증가  |
|                  | 암모니아가스 누출로 노동자 사망 - 회사측 사실은폐 공장장 구속<br>이황화탄소 중독 기준 완화 - 빠른 시일 내에 법적 효력 지녀야  |
| 상담실에서<br>작은글 큰나눔 | 소규모 기업체 안전보건 감독면제라니! - 노동부는 노동자 건강을 포기하는 것인가?<br>대우조선 도장작업 노동자 사망 - 형식적인 안전점검 노동자 사망으로 이어져<br>중소사업장 유해요인에의 노출 심각 - 허용농도 초과 비밀비재<br>정부정책단신 |
|                  | 공상'으로 처리하면 무엇이 손해인가요  |
|                  | 어쩔 수 없지   |
| 노건연 소식           | 현대자동차 교육 진행되다<br>교육 전문위원 간담회 갖다<br>노건연, 감사패를 받다   |
|                  |   |
|                  |   |

|                  |  |   |  |
|------------------|--|---|--|
| 원대협소식            | 지역활동체 대표자 회의가져<br>"노건연을 찾는 사람들"??!<br>조사연구방법론에 대한 세미나 마련 |  |  |
|                  | 이웃동정   |   | 『포항 산업재해 문제 상담소』 문을 열다<br>조용한 전쟁(전노협 산업안전보건국 제작 비디오) |
|                  | 새로 나온 책  |   | 산재보상과 민사배상의 법률지식<br>산업안전보건관련 단체협약<br>주머니 속의 진료실      |
| 함께 풀어봅시다<br>알립니다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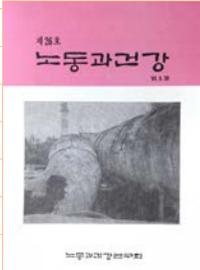
**25호 / 발행일 : 19930630**

|                  |   |
|------------------|---|
| 시론               | 산업재해 추방의 큰 길에 함께하자  |
| 산재교실             | 플라스틱 제조(폴리염화비닐수지) 공정과 그 유해성<br>함께 보는 산업안전보건법 - 산재예방은 산업안전보건교육으로부터   |
|                  |   |
| 산재추방의 한길로        | 대중 속에 깊이 뿌리내리는 '인천 산업사회 보건연구회'가 되고자   |
| 건강한마당            | 노동자들의 "번비" 예방법  |
| 오늘의 초점           |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만들어지기까지<br>개정업무상 재해인정기준 시행령의 내용과 평가   |
|                  |   |
| 지금 현장에는          | 중금속 중독노동자도 장해보상 가능해<br>(주)한양노동자 15명 사망 - 그룹회장 배종렬씨 구속되다<br>제과, 제빵노동자들의 총치, 일반노동자에 2배<br>산재판정뒤 추가중세 업무상 질병 인정되다<br>기업, 추가 산재보상 인식하다 일본의 1/3 수준<br>일부 사업장 산재은폐 - '무재해탑' 수상반납 소동<br>성인병 산재 크게 늘었다 - 지난해 고혈압, 심장병 등 500명 숨져<br>"진폐증 자살" 재해인정<br>노동부, 「업무상 질병」 범위 확대 - 뇌경색·협심증까지 인정키로<br>산안법위반 항고심에서 벌금형으로<br>정부정책단신 |
|                  |   |
|                  |   |
|                  |   |
|                  |   |
| 상담실에서<br>작은글 큰나눔 | 통근재해 보상, 달라진 것이 있나요?<br>"주머니속의 진료실"을 읽고   |
| 노건연 소식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공청회 열려<br>건강상담 전파를 타다 - KBS 제2라디오 가로수를 누비며에서<br>노건연 가족 나들이 가다<br>「우리나라 노동복지의 성격과 문제점」에 대한 세미나 마련<br>교육활동 계속되다<br>「문민정부의 산업안전보건정책, 어디로 가고 있는가?」 - 공개토론회 개최하다<br>VDT 작업에 대한 조사결과 분석중  |
|                  |   |
|                  |   |
| 연대활동             | 직업병연구소 문 활짝 열어<br>원진레이온 고군분투 계속되다   |

|          |                          |
|----------|--------------------------|
| 이웃동정     | 타단체 7월, 산재추방을 위한 공동사업 일정 |
| 새로 나온 책  |                          |
| 함께 풀어봅시다 |                          |
| 알립니다     |                          |

**26호 / 발행일 : 199309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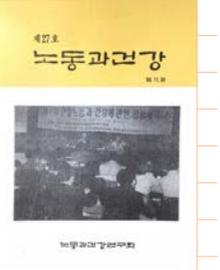
|           |   |
|-----------|---|
| 시론        | 원진은 우리 모두의 십자가이다<br>- 원진 노동자 배제한 '무대책 폐업' 있을 수 없어, 고용보장, 전문병원 설립되어야 |
| 산재교실      | 병원 노동자의 건강, 안전한가?<br>함께 보는 산업안전보건법 - 작업 환경 측정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첫걸음     |
| 산재추방의 한길로 | 직업병연구소 탐방   |
| 건강한마당     | 구강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하나  |
| 오늘의 초점    | 직업병문제와 고용안정을 위한 해결책은 없는가?<br>업무상 재해를 입은 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부가보상            |
| 지금 현장에는   |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첫 행정소송 제기  |
|           | 직장인 암 사망 "재해" 인정 - 공무상 과로와 인과관계 있을 경우                               |
|           | 광원, 매물사고로 5명 사망, 1명 91시간만에 구출                                       |
|           | 택시기사의 호흡기 질환, 사무직 노동자들의 2~3배로 나타나                                   |
|           | 한여름 작업장의 복병, 감전사고로 인부 2명 사망   |
|           | 정부정책 단신   |
| 상담실에서     |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이 바뀌었다는데   |
| 작은글 큰나눔   | 원진레이온 노동자 어디로 가는가?<br>- 생명, 인격, 미래의 취업보장까지 팔지는 않았다!                 |
| 노건연 소식    | 공개토론회 열려 - 문민정부의 산업안전보건 정착 어디로 가는가?                                 |
|           | 영세업체 기혼 여성노동자의 건강실태 조사 계획 중   |
|           | 사슴 산장에 모여 즐거운 1박 2일   |
|           | 작업 환경 개선 시범사업장 견학   |
| 연대활동      | 지역 활동체 대표자 회의 가져<br>원진투쟁, 투쟁!                                       |
| 이웃동정      | 산업보건센터 - '원시인의 직업병 연구' 공연   |
|           | 전국 병원노동조합 연맹, 심포지움 - 병원노동자의 건강, 안전한가?                               |
|           | 인의협 원레 강좌 - 직업병 판정!!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
|           | 안산노동조합 산안부장 모임 - 안산지역 산재관련 기관 인사들과 간담회 가져                           |
| 새로 나온 책   |   |
| 함께 풀어봅시다  |   |
| 알립니다      |   |



**27호 / 발행일 : 19931130**

|        |   |
|--------|---|
| 시론     | 과로사 상담 센터 개소에 즈음하여 - 노동의 인간화와 노동자의 생명 보호를 위하여   |
| 산재교실   | 사무직 노동자의 스트레스<br>함께보는 산업안전보건법 - 건강 진단에 적극적인 참여를 |
| 건강 한마당 | 기호식품, 과영하면 오히려 독(毒)                             |
| 오늘의 초점 | 과로사에 대하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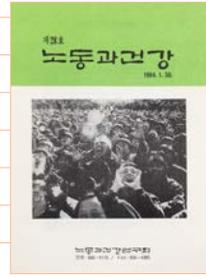
|          |   |
|----------|---|
| 지금 현장에는  | 출장 공무원 돌연 사망 - 공무상 재해 인정                  |
|          | 92년 중대재해 증가 - 2천4백29명 사망, 3만3천5백69명 장애 발생 |
|          | 벤젠 취급 노동자 백혈병 사망, 「직업성 암」 인정 요구 - 국내 처음   |
|          | 「직업성 암」 국내 첫 판정                           |
|          | 직업병, 의학적 입증 없어도 개연성만 있으면 인정해야             |
|          | 지하철 공사 현장, 감독 소홀로 중대재해 증가                 |
| 상담실에서    | 유해물질 취급자 질병발생을 타업종의 2배                    |
|          | 대재별 산업재해 은폐 앞장                            |
|          | 정부정책 단신                                   |
| 작은글 큰나눔  | 과로사를 산재로 인정받으려면<br>소식.7 - 갑수에게            |
| 노건연 소식   | 과로사 문제 해결의 첨병이 될 과로사 상담센터 개소하다            |
|          | 韓日노동과 건강에 관한 공동세미나 열리다                    |
|          | 산업안전보건활동 세미나 열려                           |
|          | 교육사업 활발하게 진행                              |
|          | 제3차 산업안전보건교실'을 엽니다                        |
| 연대활동     | 원진, 폭력 경찰에 의해 집단폭행, 연행, 구속                |
|          | 원진 레이온 직업병 해결을 위한 한일 공동성명                 |
| 이웃동정     | 원진 폐업문제 타결                                |
| 새로 나온 책  | 93 산업재해 추방을 위한 인천시민 문화 한마당' 열려            |
|          | 한일 공동세미나 자료집                              |
| 함께 풀어봅시다 | 과로사란 무엇인가?                                |
| 알립니다     | 노동자 건강을 위한 제3차 산업안전보건교실                   |



**28호 / 발행일 : 19940130**

|           |  |
|-----------|--|
| 시론        | 93년을 되돌아보며   |
| 산재교실      | 제화업체 노동자의 건강장해<br>함께 보는 산업안전보건법 - 노동자의 감시, 감독이 중요합니다 |
| 산재추방의 한길로 | 과로사 상담센터를 소개합니다                                      |
| 건강 한마당    | 고혈압! 그것이 알고 싶다                                       |
| 오늘의 초점    | 산업위생학회 작업환경측정개정안 제안에 관한 내용과 평가                       |
|           | 산업재해 노동자에 대한 치료제한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
| 지금 현장에는   | 외국인 불법취업자 산재보상 판결                                    |
|           | LPG실 폭발... 16명 사상 - 회사측 보험가입도 제대로 하지 않아              |
|           | 노동자 작업여건 악화우려 - 노동부, 산업안전, 보건관리자 선임기준 완화시켜           |
|           | 무재해 포상' 노려 산재은폐 - 의보처리로 허위보고... 각종 혜택                |
|           | 사망 6개월만에 직업병 판정 - 대원강업 정흥순씨 폐결핵으로                    |
|           | 상반기 건설재해사 1만2천여명 - 경제적 손실액 8천억원 달해                   |
|           | 노동부, 과로사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범위 확대해야 - 언론에 선전만, 후속조치 없어     |
|           | 회사야유회중 사고사도 산재로 인정                                   |
|           | 정부정책 단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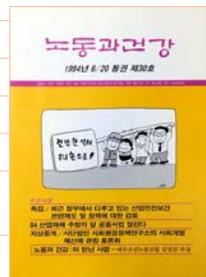
|                      |                              |
|----------------------|------------------------------|
| 상담실에서                |                              |
| 작은글 큰나눔              | 우리의 몸                        |
| 사진으로 돌아보는 93산재추방의 의지 |                              |
| 노건연 소식               | 교육활동전개                       |
|                      | 노동운동과 환경운동' 주재강연 열려          |
|                      | 하종강 교육전문위원 전태일 문하상 논픽션 부문 당선 |
|                      | 회원 송년의 밤' 열려                 |
| 연대활동                 | 정기총회 열린다                     |
| 연대활동                 | 공동교육훈련 열릴 예정                 |
| 새로 나온 책              | 산업안전보건부 일상활동 이렇게 합니다         |
| 함께 풀어봅시다             | 대한산업보건협회 30년사                |
| 알립니다                 |                              |



29호

30호 / 발행일 : 19940620

|  |  |
|--|--|
| 시론   | 산재보상보험재정운영권을 둘러싼 올바른 논의를 위하여             |
| 특집/최근 정부에서 다루고 있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제도 및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작업환경측정 제도 개선안에 대한 의견                     |
|  | 진폐전문의료기관의 민영화 계획에 대하여                    |
|  | 현행 근로자 일반건강검진과 의료보험의 성인병 건강검진과의 통합에 관하여  |
| 「노동과건강」이 만난 사람                                 | 대우중공업노동조합 안전대책부장 김정곤                     |
| 상담실에서  | 직업성요통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책활동                     |
| 94 산재추방의 달 공동사업 열린다                            |  |
| 94년 4,5월 산재동향                                  |  |
| 과로사 상담센터 - 사례 보고                               |  |
| 지상중계   | 사단법인 사회환경정책연구소의 사회개발예산에 관한 토론회           |
| 연대활동   | 원진레이온 투쟁의 현재 - 재취업, 산재병원설립, 기계설비 중국수출 반대 |
|  | 의료보험통합일원화 및 보험적용확대를 위한 범국민연대회의           |
|  | 전국산재추방단체 연대회의                            |
| 새로 나온 책  | 얼룩진 원진레이온 이력서                            |
| 노동과건강연구회 소식                                    |  |
| 알림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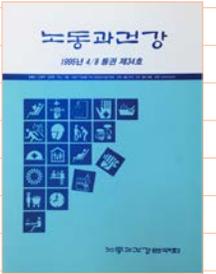
31호

32호

33호

34호 / 발행일 : 19950408

|                |   |
|----------------|---|
| 시론             | 세계화와 증대재해   |
| 특집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
| 「노동과건강」이 만난 사람 | 처음의 의지대로, 노동자 건강을 위해 일하고픈 산업보건의 전문의 - 아주대학병원 산업의학과 장재현 교수 |
| 지상발표           | 조선노협 검진을 마치며  |
| 상담실에서          | 교육지책의 작업중지권, 노동자 하기나름 -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작업중지권 검토             |
| 노동조합의 산업안전보건활동 | 노동자 건강검진 X-Ray, 무엇이 문제인가! - 폐암진단을 통해 본 건강진단의 문제           |
| 95년 2, 3월 산재동향 | 산재소식 및 실태   |
|                | 직업성 암   |
|                | 과로사   |
|                | 정부정책  |
|                | 노동조합의 산재추방활동  |
| 지상중계           | 새로 나온 산업안전보건관련 논문   |
|                | 판례  |
|                | 대한산업의학회 제14차 학술대회   |
| 노동과건강연구회 소식    | 산업보건 학술토론회  |
|                | 제8차년도 정기총회 및 기념식 열리다                                      |
|                | 첫 강사교육훈련 열다   |
| 이웃동정           | 연대활동  |
|                | 조선업종 노동조합협의회 공청회 열다                                       |
|                | 광주노동건강상담소 제5차 정기총회 열리다                                    |
| 새로 나온 책        | 청년한의사회, 산재전문한의원 설립 이달중 문열다                                |
|                | VDT증후군 예방대책을 위한 토론회                                       |
|                | 94산업재해·직업병 실태   |
| 알림             | 노동자는 못말려  |
|                | 블루라운드와 노동의 미래   |
|                | 한국의 산업보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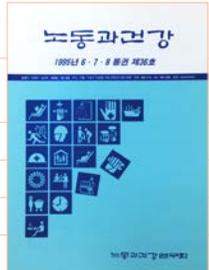


35호 / 4,5월호 통권 / 발행일 :19950530

|                |   |
|----------------|---|
| 시론             | 노동강도와 산업재해 - 한 노동자의 분신사건을 보며                              |
| 특집             | 산재보상보험 무엇이 달라졌나?  |
|                | 조선업종의 산재추방을 위하여 - 조선노협의 95 산재·직업병 추방투쟁 중간평가 및 이후 과제를 중심으로 |
|                | 95산재추방의 달 공동사업 이렇게 펼쳐진다                                   |
| 특별기고           | 일반건강진단이 의료보험조합으로 이관되는데 대한 노동자들의 실천                        |
| 노동조합의 산업안전보건활동 | 산재환자 강제 치료종결 조치에 대한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의 투쟁                        |
| 상담실에서          | 올바른 건강검진을 하려면   |
| 산재동향           | 산재소식 및 실태   |
|                | VDT 증후군   |
|                | 조선업종에서의 산재직업병과 그 대응                                       |
| 정부정책           |   |

|             |                                     |  |
|-------------|-------------------------------------|--|
|             | 노동조합, 보건의료단체의 산재추방활동                |  |
|             | 판례 및 행정해석                           |  |
|             | 산업안전보건 관련 의견                        |  |
| 과로사 상담센터    | 노동자의 건강관리 소홀은 사업주 책임이다              |  |
| 지상중계        | 노동과 건강연구회 정책세미나 - 직업성 요통의 관리방안에 대하여 |  |
|             | 산업위생학회 학술 세미나                       |  |
| 노동과건강연구회 소식 | 봄맞이 가족동반 산행                         |  |
|             | 요즘, 노동자 건강검진제도안에 관한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중  |  |
| 연대활동        | 전국산재추방단체 연대회의의 95년 공동사업 확정          |  |
|             | 산재추방활동 실무자 교육                       |  |
|             | 보건의료단체 대책활동 - 성명서                   |  |
|             | 공개토론회 [지방자치시대의 보건의료 개혁방안] 열다        |  |
| 이웃동정        | (가칭)노동과 건강을 위한 연대회의의 발족하다           |  |
|             | 안산지역 노동조합 산업안전보건상담실 개업하다            |  |
|             | 안산지역에 희망의원이 열렸습니다                   |  |
|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창립하다                      |  |
| 새로 나온 책     | 산업안전보건관련 단체협약 지침서                   |  |
|             | 산재·직업병 사례 모음집                       |  |
|             | 컴퓨터작업자의 경건완장해                       |  |
|             | 선박건조 및 수리작업 안전지침                    |  |
|             | 미나마따의 붉은 바다: 어린이 환경 동화              |  |

**36호 / 6,7,8월호 통권 / 발행일 : 알수없음(35호와 동일하게 적혀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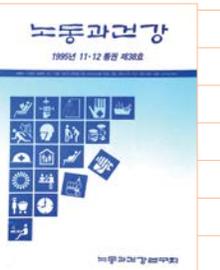
|                |  |  |
|----------------|--|--|
| 시론             | 노동자의 참여가 있어야 참사를 막을 수 있다                               |  |
| 특집             |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장애등급 판정기준 개정내용 검토                          |  |
|                | 개정된 작업환경 측정 규정에 대한 검토                                  |  |
| 노동조합의 산업안전보건활동 | 노동자 작업중지권의 실현 현황과 과제                                   |  |
| [노동과건강]이 만난 사람 | 산재노동자의 희망찬 내일을 위해 뛰는 사람 - 산재노협 사무국장 김학기                |  |
| 특별기고           | 한국통신평사 전화교환원들의 경건완장해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  |
| 상담실에서          | 출퇴근 재해보상 어떻게 달라졌나요?                                    |  |
| 과로사 상담센터       | 제2회 한일공동세미나  |  |
|                | <산업보건사업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관한 공개토론회                           |  |
|                | 노동자 건강진단제도 운영실태와 노동조합의 참여 - 전국산재추방의 달 공동사업추진위원회 주최 공청회 |  |
| 지상중계           | 산재장애인노동자의 취업문제와 사회보장                                   |  |
|                | - 전국산재추방의 달 공동사업추진위원회 주최 공청회                           |  |
|                | 자본의 합리화 전략과 노동자 건강                                     |  |
|                | - 전국산재추방의 달 공동사업추진위원회 주최 토론회                           |  |
| 노동과건강연구회 소식    |  |  |
| 연대활동           |  |  |
| 산재동향           | 산재소식 및 실태  |  |
|                | 정부정책   |  |
|                | 노동조합과 민간보건의료단체의 산재추방활동                                 |  |

|   |                                  |  |
|---|----------------------------------|--|
|   | 판례                               |  |
|   |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각계의 제언                |  |
| 새로 나온 책                                 |                                  |  |
| <b>37호 / 9,10월호 통권 / 발행일 : 19951105</b> |                                  |  |
| 시론                                      | 민주노동건설에 즈음하여 - 산재추방운동의 도약을 기대하며! |  |
| 특집                                      | 95년 국정감사 내용정리                    |  |
| 노동조합의 산업안전보건활동                          | 현대정공 '월 2시간 교육' 활용사례             |  |
| [노동과건강]이 만난 사람                          | 노조 산안활의 새로운 희망을 개척할 현대자동차노동조합    |  |
| 상담실에서                                   | 산재보상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척추장애등급 어떻게 달라졌나?  |  |
| 과로사 상담센터                                | 과로사 사례와 판례                       |  |
| 지상중계                                    | 95년 추계 산업위생학회 학술대회에 다녀와서         |  |
| 노동과건강연구회 소식                             |                                  |  |
| 이웃동정                                    |                                  |  |
| 연대활동                                    |                                  |  |
| 산재동향                                    |                                  |  |
| 새로 나온 책                                 |                                  |  |



**38호 / 11,12월호 통권 / 발행일 : 적혀있지 않음**

|                |                               |  |
|----------------|-------------------------------|--|
|                | 95년 산업재해추방운동을 돌아보며!           |  |
| 특집             | 변화된 제도 - 시행령, 시행규칙 주요내용       |  |
|                | 변화된 제도 - 근로자건강진단관리규정          |  |
| 노동조합의 산업안전보건활동 | 노동조합의 산업안전보건교육 - 삼목강업노동조합     |  |
| [노동과건강]이 만난 사람 | 과로사 상담센터의 새로운 인물 - 김진국 변호사    |  |
| 상담실에서          | 출장중 차사고, 보험처리 어떻게 되나?         |  |
| 과로사 상담센터       | 과로사 사례                        |  |
| 지상중계           | 정책세미나 [급박한 위험에 대한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  |
| 특별기고           | 환경경영 뒤에서 신음하는 노동자들            |  |
| 이웃동정           |                               |  |
| 연대활동           |                               |  |
| 노동과건강연구회 소식    |                               |  |
| 산재동향           |                               |  |
| 새로 나온 책        |                               |  |



**39호 / 1996년 1,2월호 통권 / 발행일 : 적혀있지 않음**

|                           |   |  |
|---------------------------|---|--|
| 시론                        | 96년 산재추방운동의 염원을 담아                                    |  |
|                           | 96년도 산재추방운동의 전망                                       |  |
| 특집/96년 산재추방운동의 전망을 들어본다!! |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일할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투쟁전선에 다함께 참여하자!! |  |
|                           | 한 곳으로 힘을 모아, 건강 투쟁의 선봉에!!                             |  |
| 노동조합의 산업안전보건활동            | 96년도 산업안전보건관련 단체협약안을 알아본다!                            |  |
|                           | - 고려대학교 병원노조, 현대정공노조                                  |  |
| 상담실에서                     | 심사청구기간을 놓쳤는데, 구제방법은?                                  |  |

|                |  |  |
|----------------|--|--|
| [노동과건강]이 만난 사람 | 긴 호흡으로 산업안전보건활동을 일구어나가자!<br>- 주영미 민주노총 산업안전보건부장                          |  |
| 산재리포트          | LG전자부품 역학조사 최종보고서<br>대우조선 유기용제 취급작업자에 대한 건강조사 보고서<br>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  |
| 특별기고           | 산재발생을 1% 미만으로 숨은 의미  |  |
| 삶의 소리          | 1996년 2월 28일 나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br>노동과건강연구회의 전망에 대하여!!<br>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을 읽고... |  |
| 노동과건강연구회 소식    |  |  |
| 연대활동           | "4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법 적용 위한 공동대책위" 구성<br>대전에서 "제9차 공동교육훈련" 열어         |  |
| 이웃동정           | 한라중공업 노동조합 사망사고로 총파업 돌입  |  |
| 산재동향           |  |  |
| 새로 나온 책        |  |  |

**40호 / 1996년 3,4월호 통권 / 발행일 : 19960501**

|                |  |  |
|----------------|--|--|
| 시론             | 4.11총선을 보고                                     |  |
| 특집             | 4.11총선과 산재추방운동<br>산업안전보건관련 96년 단협 쟁점           |  |
| 노동조합의 산업안전보건활동 | 금속연맹, 유기용제 중독사건에 대한 대책사업 시작                    |  |
| 상담실에서          | 민사소송 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                           |  |
| [노동과건강]이 만난 사람 | 산업안전보건활동에 평생을 바치겠습니다!! - 임현택 인천산업사회보건연구회 상담실장  |  |
| 과로사 상담센터       | 과로사와 업무상장애 인정기준                                |  |
| 지상중계           | 과로사 공청회 "쉬었다 합시다!"                             |  |
| 특별기고           | 1996년 산재추방운동의 전망 - 학계의 입장                      |  |
| 삶의 소리          | 서초동에서 보고합니다!!<br>봄의 단상<br>어정쩡한 우리 이십대를 위해, 건배! |  |
| 노동과건강연구회 소식    |  |  |
| 연대활동           |  |  |
| 이웃동정           |  |  |
| 산재동향           |  |  |
| 새로 나온 책        |  |  |

**41호 / 1996년 5,6월호 통권 / 발행일 : 19960705**

|                |   |
|----------------|---|
| 시론             | 7월을 맞이하여  |
| 특집             | 산재추방의 달 7월 사업 이렇게 준비하자!<br>산업안전선진화 3개년 계획안에 대한 평가 |
| 노동조합의 산업안전보건활동 | 중소기업의 산업안전보건의 실태와 개선방향                            |
| 상담실에서          | 척추장해등급 판정기준이 개정되어 상위등급을 받을 수 있다던데!!               |

|                |  |  |
|----------------|--|--|
| [노동과건강]이 만난 사람 | 노동자적 관점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br>- 이은주 마창 노동과건강을 위한 연대회의 사무국장 |  |
| 과로사 상담센터       | 상담 노무사 소개  |  |
| 지상중계           |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 계획에 대한 민주노총 간담회 열려<br>산재보험 발전방안 대토론회         |  |
| 특별기고           | 경견완장애 검진사례 보고와 개선대책                                      |  |
| 삶의 소리          | 빠져죽지 말아야지!!<br>H에게                                       |  |
| 노동과건강연구회 소식    |  |  |
| 연대활동           |  |  |
| 이웃동정           |  |  |
| 산재동향           |  |  |
| 새로 나온 책        |  |  |

**42호**

**43호 / 1996년 9,10월호 통권 / 발행일 : 19961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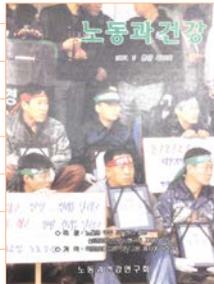
|                |   |  |
|----------------|---|--|
| 시론             | 11월, 다시 전태일을 생각한다<br>만도기계 노동조합의 경견완장애 및 요통 조사사업 결과보고  |  |
| 특집/경견완장애의 실태   | 한국통신번호안내국 노동자들의 경견완장애 실태와 노동조합의 투쟁<br>경견완장애 증가에 따른 법·제도적 대안 모색                                    |  |
| 전망대            | 정부와 보수언론의 전쟁 부추기기<br>- 아이들 싸움같은 불안함   |  |
| 기획             | 산업안전보건교육의 현주소 - 전국 및 지역 단체들의 교육을 중심으로<br>현장활동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생생한 교육으로!<br>- 제6차 노건연 전국산업안전보건교육을 다녀와서 |  |
| 노동조합의 산업안전보건활동 |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산재상담활동<br>- 하청업체 노동자를 위한 산재상담소 개설, 의욕적으로 활동 시작  |  |
| 상담실에서          |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사람이 민사소송을 하려면?   |  |
| [노동과건강]이 만난 사람 | 사람사는 세상을 위해 온몸으로 뛰는 노동자의 일꾼 - 박석운 노동정책연구소 소장  |  |
| 영화산책           | 낮은 목소리 - 아시아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2  |  |
| 삶의 소리          | 바나나와 병원옥상에 대한 기억<br>이 사회에서 아이를 키우며 산다는 건  |  |
| 과로사 상담센터       | 과로로 인한 업무상장애 인정   |  |
| 지상중계           | 산재추방에서 산재피해자들의 역할과 전망에 대한 토론회<br>노동과건강연구회 정책세미나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 계획안에 대하여                              |  |
| 특별기고           | 「원진노동자 직업병 위원회」의 출범과 과제   |  |
| 산재리포트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자료  |  |
| 노동과건강연구회 소식    |   |  |
| 이웃동정, 연대활동     |   |  |
| 산재동향           |   |  |

**44호**

| 45호 / 1997년 3월 |                                     |
|----------------|-------------------------------------|
| 시론             | 원진직업병전문병원설립과 직업병환자보상기금 확보를 위한 기자회견문 |
| 특집/용접작업과 망간중독  | 망간중독일지                              |
|                | 용접작업의 유해성과 건강장해                     |
| 노동과건강이 만난 사람   | 원진노동자직업병위원회 구기일 회장을 만나서             |
| 기획             | 대구지역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                | 교육센터의 필요성과 노건연의 사업계획                |
| 과로사 상담센터       | 작업관련 뇌혈관 및 심장질환에 관한 심포지엄            |
| 노동조합의 산업안전보건활동 | 틀거리 전체를 뒤집자는 산업안전보건활동               |
| 특별기고           | 정부의 산재보험 민영화 방안을 진단한다               |
| 상담실에서          | 사립학교 교사 유족보상금 청구는 민사소송으로            |
| 시사안테나          | 修身齊家治國平天下                           |
| 문화산책           | 허공의 질주                              |
| 짧은 글 긴 여운      | 감초                                  |
| 산재리포트 하나       | 벤젠의 직업병과 유해성                        |
| 산재리포트 둘        | 금속산업노동자 직업성 암 발견                    |
| 지상중계           | 작업 관련 뇌혈관 및 심장질환에 관한 심포지엄           |
| 연대활동           | 산재보험민영화반대대책위원회 활동                   |
|                | 전국산재추방단체회의의 10차 공동교육훈련              |
| 이웃동정           |                                     |
| 노건연 이모저모       |                                     |
| 산재동향           |                                     |



| 46호 / 1997년 5월 |  |
|----------------|--|
| 시론             | 6월항쟁 10주년을 맞이하여                            |
| 특집             | 노건연 부설 교육센터 출범                             |
|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개정안 검토                         |
| 기획             | 기업활동규제완화특별조치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자의 의무고용 폐지에 대하여 |
| 연대활동           | 97 산재추방의 달을 맞이하여                           |
| 노동조합의 산업안전보건활동 | 민주금속연맹노동자들의 상경투쟁                           |
| 노동과건강이 만난 사람   | 노건연부설 교육센터 장임원 이사장                         |
| 과로사 상담센터       | 신임소장의 계획 - 제2의 도약을 위하여                     |
| 상담실에서          | 노조 전임자의 업무상재해에 대하여                         |
| 산재리포트          | 석면에 의한 직업성 암으로 노동자 사망                      |
| 지상중계           | 산재보험민영화 어떻게 생각하나                           |
|                | 택시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토론회                      |
|                | 비정규직 노동자의 보건관리방안마련을 위한 공청회                 |
|                | 중국의 산업위생과 여성노동자의 산업위생실태                    |
| 짧은 글 긴 여운      | 청춘   |
| 노건연 이모저모       |  |
| 연대활동           |  |
| 산재동향           | 원진레이온 노동자들의 전문병원설립투쟁 자료 모음                 |



| 47호 / 1997년 7월 |   |
|----------------|---|
| 시론             | 노동운동과 사회복지  |
| 특집             | 97 산재추방의 달 사업   |
|                |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민영화논의를 중심으로<br>각 지역의 산재추방의 달 사업과 간략한 평가 |
| 기고             | 노동자가 알아야 할 다이옥신의 유해성  |
|                | DMF가 노동자들의 간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와 예방대책                         |
| 노건연 리포트        | 자동차 관련업체에서의 사내하청노동자 산업안전보건관리실태 조사연구부                        |
| 노동조합의 산업안전보건활동 | 현대정공(창원)노동조합의 하청업체업주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 노동과건강이 만난 사람   | 울산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황영모 의장, 김종열 교문을 만나서                            |
| 교육센터           | 최근 노동조합 의뢰교육의 몇가지 흐름  |
|                | 산업안전보건교육에서 교재개발의 중요성  |
| 과로사 상담센터       | 과로사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
| 상담실에서          | (재)요양신청시 청구내용에 대한 자세한 검토를                                   |
| 지상중계           | 소규모사업장 보건관리 기술지원사업에 관한 공청회                                  |
| 문화산책           | 박노해 시집 「사람만이 희망이다」  |
| 짧은 글 긴 여운      | 길은 멀어도 한걸음씩   |
| 연대활동           |   |
| 노건연 소식         |   |
| 산재동향           |   |



| 48호 / 1997년 9월                                 |  |
|--|--|
| 시론   | 15대 대선을 앞두고  |
| 특집/특수건강진단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 노동자를 살리는 특수건강진단 제도를 위하여 | 민주금속연맹 노동자들의 작업환경과 건강실태 - 최근 보고된 몇가지 사안 정리                         |
|  | 민주금속연맹 노동자들의 건강실태에 대한 노동조합의 활동과 이후 투쟁방향                            |
|  | 특수건강진단제도에 대한 문제제기의 흐름과 개선방향  |
|  | 민주노총 주최 「특수건강진단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주제발제 및 정리<br>민주노총의 특수건강진단제도 개선안 |
| 연속기획   | 소규모사업장의 산업보건실태와 개선방향   |
| 특별기고   | 97대선 - 노동자를 위한 산재정책 제안   |
| 노건연 리포트  | 산업재해노동자의 산재처리과정 및 요양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분석<br>산재노동자 직업훈련프로그램 평가            |
| 긴급투고   | 근로복지공단의 장해연금 გადა지급분 환수조치와 대책활동                                    |
| 교육센터   | 노동자가 참여하는 새로운 교육을 위한 몇가지 기법  |
| 노동조합의 산업안전보건활동                                 | 영세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활동  |
| 상담실에서  | 재해보상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 합의에 대하여   |
| 과로사 상담센터                                       | 현행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의 개정을 촉구하며   |
| 지상중계   | 산재보험 민영화 지지와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
| 노건연 소식   |  |



| 49호 / 1997년 11월 |   |
|-----------------|---|
| 시론              | 96 12월을 생각하며  |
| 특집              | 97 제185회 정기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br>국정감사 현장 스케치<br>산업재해, 직업병 관련 자료 정리             |
|                 | 연속기획<br>소규모사업장 보건관리사업의 사회복지적 의미와 국가의 역할                                   |
| 노건연 리포트         | 장해연금환수조치 철회를 위한 산재노동자들의 항의집회<br>제1차 전국 산재노동자 공동교육훈련을 다녀와서                 |
| 교육센터            | 참여하는 교육, 열린교육을 위하여<br>- 2기 산업안전보건활동가 양성과정을 마치고<br>2기 산업안전보건활동가 양성과정을 다녀와서 |
|                 | 노동조합의 산업안전보건활동  |
| 노건연 10주년 사업제안   | 국영유리 노동조합의 작업환경 개선활동  |
| 상담실에서           | 노동과건강연구회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며<br>회사의 관리 지침상 직권면직은 부당하고                           |
| 지상중계            | 노사가 참여하는 특수건강진단제도 개선안(초안)에 대한 공청회<br>경건완장에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               |
| 노건연 소식          |   |
| 산재동향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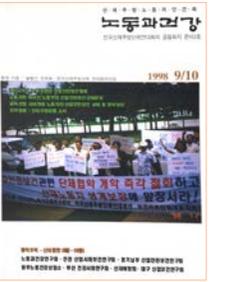
| 50호 / 1998년 1월             |   |
|----------------------------|---|
| 시론                         | IMF 시대의 노동자 건강<br>실제적이고 효율적인 산업안전보건정책을 만들자<br>산업보건 - 정책결정의 민주성부터<br>산업안전 - 자율안전정책을 확대하자<br>산업간호 - 소규모사업장 보건관리의 디딤돌로<br>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상을<br>노동자 우선의 정책으로<br>산재추방의 의지를 노동자에게 보여라<br>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는 정부이길 |
| 특집 - 새 정부의 산업안전보건정책 방향     |   |
| 연속기획 - 소규모사업장의 산업보건 실태와 방향 | 소규모사업장의 산업보건에 대한 정부정책의 흐름   |
| 노건연 리포트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역할과 활동<br>산업재해노동자의 산재처리과정 및 요양실태에 관한 조사결과  |
| 교육센터                       | 제4기 강사훈련과정을 다녀와서<br>현장 산업안전보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br>- 제4기 강사훈련과정의 준비와 평가를 중심으로   |
|                            | 노동과건강이 만난 사람  |
| 상담실에서                      | “감기에서 직업병까지 노동자의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합니다”<br>- 산업의학 전공의협의회 회장 이철호  |
| 지상중계                       | 출근도중 일어난 교통사고를 업무상재해로 볼 수 있는지   |
| 연대활동                       | 일부 망간취근 노동자의 망간노출실태 및 개선대책  |
| 노건연 소식                     | 국민의료보험법 제정 - 의보통합의 출발점  |
| 산재동향                       |   |



| 51호                 |   |
|---------------------|---|
| 52호 / 1998년 7,8월호   |   |
| 편집자의 글              | 공동회지 준비호를 만들기까지   |
| 공동회지를 펴내면서          | 한걸음 전진을 위하여   |
| 시론                  | 김대중정부의 노동정책을 보며   |
| 긴급진단                | IMF 관리체제와 노동자 건강<br>IMF 관리체제 아래 더욱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
|                     | 정책  |
| 산재노동자 문송면 10주기 기념사업 | 대구 시내버스 노동자의 건강실태에 대한 조사보고<br>제4회 산업안전보건교실의 성과와 평가<br>노동조합의 산업안전보건활동 - 대우중공업노동조합<br>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시정요구 투쟁 지침 |
| 지역활동                | IMF 하에서의 산업안전과 노동조합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역할에 대한 토론회<br>산업안전보건정책에 대한 토론회<br>한방산재보험 전면 실시의 필요성<br>과로사와 업무와의 관련성         |
|                     | 지상중계  |
| 기고                  |   |
| 번역                  |   |
| 상담                  |   |
| 산재추방운동 소식           |   |
| 노동과건강연구소에서 알립니다!    |   |



| 53호 / 1998년 9,10월호 |   |
|--------------------|---|
| 시론                 | 우리가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이유   |
| 현장진단               | IMF 시기의 노동조합의 산업안전보건활동<br>-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협약체결 분석을 중심으로                     |
| 정부정책               | 노동자만 죽이는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규제완화   |
| 조사연구               | 금속산업 사내하청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실태 및 정책대안(1)   |
| 노동과건강이 만난 사람       |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고재열 동지<br>- 산재노동자의 재활과 대정부투쟁 모두 중요하다!                          |
| 노동조합의 산업안전보건활동     | 대구 동원금속노동조합 - 밀려나지 않도록 지켜낼 것입니다!<br>안산지역 외국인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산업안전보건실태           |
| 지역활동               | 광주지역 건강검진에 대한 토론회 - 건강진단기관에 대한 노동조합의 질의를 중심으로<br>98 산업재해추방을 위한 시민한마당을 마치고 |
|                    | 특별기고  |
| 기획번역               | 교대근무가 과로사의 발병을 높인다!<br>사회심리적 작업환경이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요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
| 상담실                | 연장근무를 하다 쓰러졌습니다.  |



|           |  |
|-----------|--|
| 산재추방운동 소식 | 민주노총·한국노총·각 지역 (가칭)산재추방운동연합 추진상황보고                   |
|           | 보도자료 -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노동자 불이익조치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요청            |
|           | 성명서 -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분야 규제완화에 앞서 산업안전보건제도의 총체적 개혁을 단행하라! |

**54호 / 1998년 11,12월호**

|                |   |
|----------------|---|
| 시론             | 어깨 다독이며 작은 힘이라도 모으자! - 1998년을 보내며   |
| 특집 / 98 국정감사   | 산재실태 및 정부정책·통계<br>각 의원 질의 및 정부답변  |
| 노동과건강이 만난 사람   | 노동자의 실질적 권리를 만든다 - 한성대 박두용 교수   |
| 노동조합의 산업안전보건활동 | “사고수습만이 아닌 작업환경 개선활동으로” - 아시아자동차노동조합 산업안전보건실 탐방<br>신임 집행부의 다짐 1<br>신임 집행부의 다짐 2 |
| 지금 현장은         | IMF 시대, 노동자가 죽어나간다 - 인천제철 산재사고 대책활동 부심  |
| 정책토론           | 경제체제의 전환과 산업보건의 미래  |
| 조사연구           | 금속산업시대 하청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실태 및 정책대안(2)  |
| 기획번역           | 업무에 대한 노력은 많은데 보상이 적절하지 못하면 과로사의 위험이 높아진다                                       |
| 공청회            | 과로사 판정 행정처분의 문제점과 개선책   |
| 민주노총 활동        | 민주노총 산업안전보건활동의 방향과 과제   |
| 수련회 보고         | (가칭)산재추방운동연합 건설을 위한 2차 수련회  |
| 산재추방운동 소식      |   |
| 설문조사           | 산재추방운동 정보화사업에 대한 노동조합의 요구도와 실태조사  |



**55호 / 1999년 1,2월호**

|                                |  |
|--------------------------------|--|
| 1999년 희망은 있는가                  | 병들어가는 노동자의 몸을 보라<br>투쟁의 성과를 지켜야 한다<br>산재노동자와 연대하자  |
| 노동과건강이 만난 사람                   | 문제제기에서 정책대안으로<br>- 원진종합센터의 직업병연구소 건설과 활동전망을 중심으로, 김록호 서울대 교수<br>노동자의 감시와 참여만이 근로복지공단을 바꿀 수 있다<br>-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노동자불이익조치 저지와 제도개선을 위한 대책회의」가 다시 모일 수밖에 없는 이유 |
| 기획 / 자동차산업 구조조정이 노동자건강에 미치는 영향 | 대우자동차의 노동강도 강화와 노동자건강의 악화  |
| 노동조합의 산업안전보건활동                 | 어렵지만 차근차근 - 안산 에스제이엠 노동조합<br>신임 노동조합 산안부장의 활동 - 아직은 산재에 대한 관심이 작지만<br>신임 노동조합 산안부장의 활동 - 산업안전보건활동을 하면 현장이 살아난다!  |
| 백화점에서 온 편지                     | 우리도 주1회 함께 쉬고 싶다   |
| 지역활동                           |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근로복지공단의 변칙 판정  |
| 과로사 상담센터 보고                    | 과로사가 늘어나고 있다<br>공공근로 노동자들이 위험하다  |
| 정부정책                           | 준비되지 않은 김대중정부의 산업안전보건 정책<br>- 정부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주요내용과 해설  |
| 토론회                            | 산재보험 선진화방안과 정책과제 - 산재보험 급여체계 개선 및 발전방안   |
| 산재추방운동 소식                      |  |



**56호 / 1999년 5,6월호**

|                  |   |
|------------------|---|
| 발간사              | 다시 산재추방운동을 시작하며<br>우리의 꿈을 우리가 현실로 만들자<br>산재추방운동연합의 구성과 주요사업<br>투쟁으로 일군 마창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br>우리의 희망 산추련에 바란다<br>현장에 중심을 둔 산추련이 되어야<br>산재노동자들의 재활과 복지도 함께<br>연대·소통·투쟁의 산파역으로<br>어려움은 많지만 통일성을 높여나가자 |
| 특집 / 산재추방운동연합 출범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산추련의 입장<br>산재보험 한방 요양 전면확대실시에 즈음하여<br>한 여성노동자의 톨루엔 중독으로 인한 전신경화증<br>화학산업 '노동과 환경' Planning Workshop<br>버스노동자의 허리·목 통증 실태 및 관련요인   |
| 정책               | 별종들이 하는 운동에서 모든 노동자의 살아있는 운동으로 - 김정곤 산추련 대표   |
| 활동소식             | 원진종합센터 건설의 의미와 주요사업<br>산재추방운동 정보화사업을 시작하며   |
| 노동과건강이 만난 사람     |   |
| 활동소식             |   |



**57호**

**58호 / 1999년 11,12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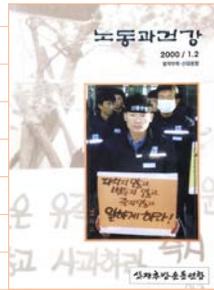
|                            |  |
|----------------------------|--|
| 특집1 - 근로복지공단 개혁·산재보험제도 개혁! | 100일을 넘어서 산재노동자 이상관 자살 산재인정과 공단개혁 투쟁일지                           |
| 특집2 - 99 국정감사              | 근로복지공단 제출자료 정리<br>환경노동위원회 대정부 질의내용                               |
| 노동과건강이 만난 사람               | 노동운동이 어려운 때일수록 산업안전보건을<br>-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
| 활동                         | 인천제철 산재은폐 투쟁기<br>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동실태 설문조사 결과<br>산업재해 부추기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
| 번역                         | 보건·안전·재해보상에 대해 노조가 취해야 할 새로운 전략:<br>캐나다의 최근 동향                   |
| 정보화공부 세 번째                 | 궁금한 모든 것을 풀어주는 「상담·질의응답」   |
| 산재추방운동소식                   |  |
| 별책부록 - 산재동향                |  |



**59호 / 2000년 1,2월호**

|            |  |
|------------|--|
| 하종강의 노동과 꿈 | 무엇이 두려우냐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
| 신년사        | 다시 출발선에 서서<br>모든 노동자가 희망하는 세상을<br>힘은 절로 더해지는 것이 아니기에<br>동지들, 사랑합니다 |

|                           |  |
|---------------------------|--|
| 특집 - 근로복지공단 개혁·산재보험제도 개혁! | 155일간의 산재노동자 이상관 공대위 투쟁을 마치며                     |
| 노동과 건강이 만난 사람             | 새로운 사람들, 열린 이야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사람들                   |
| 현장보고                      | 죽음의 작업장, 언제 끝날 것인가<br>대학실험실, 만성적인 위험상태           |
| 지상중계                      | 산업안전보건정책 평가 심포지움                                 |
| 정책                        | 4대 사회보험 통합 움직임과 운영체계의 변화                         |
|                           | 산재노동자 일하는 세상, 희망이 보입니다<br>최근에 변화된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재보상법 |
| 울산 산추련 첫 정기총회             |  |
| 산재추방운동소식                  |  |
| 별책부록 - 산재동향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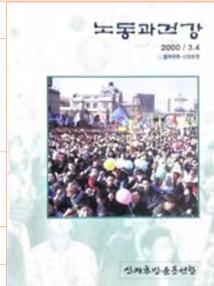
|             |  |
|-------------|--|
| 기고          | 의약분업과 노동자건강<br>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 파업한 제화노동자들                               |
| 성명서         | 여천산단 호성케멕스 화학공장 폭발 참사는 '인재사고'다<br>여천공단 호성케멕스의 발암성물질 MEK-PO 폭발사고에 대한 입장 |
| 보도자료        | 제화노동자들 산재보험 가입요구 파업  |
| 산재추방운동소식    |  |
| 별책부록 - 산재동향 |  |

63호

64호

60호 / 2000년 3, 4월호

|                                       |   |
|---------------------------------------|---|
| 하종강의 노동과 꿈                            | 의사를 찾습니다                                    |
| 특집                                    | 2000년 산추련·회원단체 사업계획                         |
| 기획탐방 - 산안활동을 시작한 연맹을 찾아서<br>① 통합 화학연맹 |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의 접점을 만든다                         |
| 노동과건강이 만난 사람                          | “조직력 강화가 우선입니다” - 울산 산추련 이종선 대표             |
| 현장보고                                  | 경인지역 진동공구 작업자의 수지진동증후군 증상호소율과 관련요인          |
|                                       | 타이어공장 노동자의 유기용제 중독<br>임신노동자가 위험하다           |
| 산재노동자고용지원단 활동                         | 부당함에 맞서 투쟁하는 산재노동자들<br>1/4분기 활동보고 - 희망이 보인다 |
| 지상중계                                  | 비정규노동자 차별철폐 및 조직화방안 - 민주노총 정책토론회            |
| 정책                                    | 산재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산추련 입장                    |
| 산추련 2차 대의원총회 이후 조직의 상황에 대하여           |   |
| 산재추방운동소식                              |   |
| 자료                                    | 민주노총·연맹·지역본부 2000년 산업안전보건 사업계획              |
| 별책부록 - 산재동향                           |   |



65호 / 2003년 8월 / 발행일 : 20030830

|              |   |
|--------------|---|
| 복간을 준비하며     | 새로움과 생소함  |
| 총무로에서        | 노무현 정부가 만든 착시현장<br>산재사망은 왜 기업의 살인인가?<br>신자유주의 대응전략으로서 '기업살인' 운동의 의의<br>호주 기업살인법과 우리 산안법과의 비교를 통한 '기업살인법' 제정의 필요성<br>인터뷰: 노동의 현장에서 본 기업주 책임과 처벌의 필요성 - 건설연맹 강호연 국장 |
| 특집           | 산재보험 책임의 하청전가와 건설노동자 복지   |
| 쟁점           | WTO시장개방과 공공의료<br>고용허가제와 이주노동자의 건강   |
|              | 일터스캐치   |
| 노동과건강이 만난 사람 | “정부가 안전불감증의 주범이다” - 공공연맹 운수분과위원장 김재길  |
| 자료실          | 마우스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   |
| 책방           | 시대를 위해 더욱 자신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
| 노건연 다이어리     |   |



61호

62호 / 2000년 7, 8월호

|  |  |
|--|--|
| 하종강의 노동과 꿈                             | 내가 사립공간을 어슬렁거리는 이유   |
| 특집 - 7월 산재추방의 달 사업, 관성을 반성하자           | 중앙과 지역사업 보고 및 평가   |
| 기획탐방 - 산안활동을 시작한 연맹을 찾아서<br>③ 보건의료산업노조 | 여성노동자의 건강에 더 많은 관심을<br>꺾다놓은 보릿자루, 물질안전보건자료<br>동시대에 비동시대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br>삼미특수강 양영대 동지 산재인정투쟁 경과<br>현대중공업 노동자 2명 망간중독 승소판결 |
| 현장보고                                   | 노동조합 산업안전보건활동 10년 평가와 현시기 활동에 대한 연구결과 토론회<br>산재의료기관 지정 전면확대 및 요양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
| 지상중계                                   |  |

66호 / 2003년 11월 / 발행일 : 65호와 동일하게 적혀있음

|                        |   |
|------------------------|---|
| 복간을 준비하며               |   |
| 총무로에서                  | 노동자가 건강해지는 방법<br>산재사망 증가의 정치경제적 배경                                      |
| 특집1 - 2003, 노동자건강의 현주소 | 노동안전보건 정부예산 0원<br>산재보험기금의 '최우수기금' 선정을 눈물나게 축하하며<br>근골격계직업병 요양투쟁의 흐름과 현재 |
|                        | 특집2 - 2003, 노동자건강권 운동의 주요 흐름  |
| 노동과건강이 만난 사람           | 비정규노동의 문제, 실천과 성찰 함께하자<br>- 조진원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
| 주장                     | 노동과 환경이 만나야 하는 이유   |
| 현장통신                   | “이번엔 진짜로 나가야 되나요?”<br>살아서 좋은 세상 만들자                                     |



|      |  |
|------|--|
| 자료실  | 휴대폰의 안전성과 안전한 사용<br>새로운 전기를 받고 있는 진폐문제와 남은 과제들 |
| 국제소식 | 캐나다 금속노조, 노동자 안전에 대한 기업 책임을 묻다                 |
| 책방   | 『야생초편지』 의미없는 것들의 의미 있음에 대하여                    |

**67호 / 2004년 봄 / 발행일 : 20040515**

|                              |  |
|------------------------------|--|
| 발간사                          | 노동의 모든 측면과 건강의 모든 측면에 대하여  |
| 축사                           | 생체기 난 나무가 오래 가듯이<br>작은 공장 노동자들의 참고서가 되길<br>친형제자매 같다고 느껴왔습니다<br>부시의 재선을 막을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
|                              | 경제위기, 빈곤 그리고 건강  |
|                              | 특집 - 신자유주의와 노동자건강<br>신자유주의 반대투쟁으로서 노동자건강권운동의 전개<br>신자유주의 세계질서에 저항하는 세계 민중들의 투쟁         |
| 노동과건강이 만난 사람                 | "역사는 고통받는 자의 말대로 실현된다" - 하종강 한울노동문제연구소장  |
| 연간기획 - 노동안전보건정책의 구조적 개혁을 제안함 | 제1편 - 익숙한 것으로부터의 결별  |
| 백도명의 생각 나누기                  | 인류의 생존과 안전보건의 진화   |
| 스즈키가 들려주는 노동자 이야기            | 3K'에 시달리는 마치코오바의 이주노동자들  |
| 「노동과건강」 미술관                  | 대나무와 똥   |
| 연구노트                         | 일하는 여성의 건강불평등성 이해하기  |
| 법원의 선택                       | 이익을 향유하는 자가 위험도 부담해야 한다<br>식당아줌마' 학교급식 조리노동자의 건강실태에 대한 보고<br>영세사업장에서는 어떻게 노동안전활동을 할까   |
| 현장에서 글쓰기                     | 아이들의 방학에 노동자 아버지는 학교를 간다<br>주5일 근무와 노동자 건강   |
|                              | 번역연재   |
| 해외소식                         | 아침형 인간'에 담긴 이데올로기  |
| 다르게 보기                       | 일제시대 우리 조상들은 무슨 책을 읽었을까?   |



**68호 / 2004년 가을 / 발행일 : 20041020**

|               |  |                                  |
|---------------|--|----------------------------------|
| 논단            | 의료시장개방의 쟁점과 파장   |                                  |
| 특집 - 왜 사회보험인가 | 왜 사회보험인가<br>자본의 공세에 포위 당한 국민연금<br>건강보험은 노동자계급의 건강을 지켜주는가<br>실업노동자를 지켜주지 못하는 고용보험<br>차별적인 안전망, 산재보험 |                                  |
|               | 연간기획 - 노동안전보건정책의 구조적 개혁을 제안함   | 제2편 - 안전보건에서 '노사참여' 논리의 재구성      |
|               | 노동과건강이 만난 사람   | "따뜻한 사람, 그를 지지한다" -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 |

|                   |  |
|-------------------|--|
| 스즈키가 들려주는 노동자 이야기 | 일본의 파트타임 주부노동자의 사정                               |
| 「노동과건강」 미술관       | 목욕탕 아줌마들   |
| 연구노트              | 여성노동자의 '산업재해', 직장내 성희롱<br>빈곤층 의료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 법원의 선택            | 직업병의 상식을 확인하는 어려운 작업                             |
| 번역연재              | 미국에서는 사업장 사망을 처벌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
| 해외기고              | 일본의 새집증후군: 화학물질 과민증에 대하여<br>- 일반적 상황과 한 노동자의 이야기 |
| 다르게 보기            | 웰빙' 권하는 사회                                       |
| 현장에서 글쓰기          | 산재노동자조직 분투기<br>고임금 노동자의 투쟁이라서 값지다                |
|                   | 책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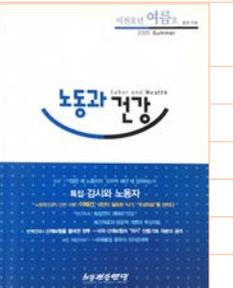
**69호 / 2005년 봄 / 발행일 : 20050330**

|                           |  |  |
|---------------------------|--|--|
| 논단                        | 현실과 통계의 거리를 인정하라   |  |
| 특집 - 비정규노동자의 불건강은 어디서 오는가 | 작동하지 않는 보호기제와 불합리한 사회문화의 결합<br>비정규노동의 나쁜 친구들, 스트레스와 질병<br>자본의 주변부, 부유하는 노동자들 |  |
|                           | 노동과건강이 만난 사람   | 단일 이슈에 빠지는 함정을 피하라 -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 |
|                           | 백도명의 생각 나누기  | 노말핵산중독, 가지판단의 문제                       |
| 스즈키가 들려주는 노동자 이야기         | 개인으로 흩어진 비정규노동자들과 커뮤니티유니온  |  |
| 세계와 노동자건강 - 1편 브라질        | 고용의 악화, 건강의 악화, 우리와 다르지 않다   |  |
| 연구노트                      | 여성빈곤의 개념과 이론적 관점   |  |
| 법원의 선택                    | 업무관련성을 보는 시각차이   |  |
| 번역연재                      | 산재사망을 해결하는 방법 : 사업주를 기소하라  |  |
| 긴급기고                      | 대통령상에 빛나는 KT의 민영화모델<br>- 노동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                                   |  |
| 다르게 보기                    | 생리대, 개인에게 책임지우는 것이 싫다  |  |



**70호 / 2005년 여름 / 발행일 : 20050730**

|              |   |  |
|--------------|---|--|
| 논단           | 기업은 왜 노동자의 '도덕적 해이'에 집착하는가<br>감시의 기원, 감시의 철학  |  |
| 특집 - 감시와 노동자 | 6펜스의 벌금에서 '양심수당'까지 - 노동자감시의 역사적 변천<br>2005년, 한국은 정보파놉티콘 - IT강국 노동자계급의 자화상<br>영혼이 병들어간다 - 감시와 정신건강 |  |
|              | 노동과건강이 만난 사람  | 대안이 필요한 시기, '무상의료'를 던진다<br>- 이혜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
|              | 스즈키가 들려주는 노동자 이야기   | 이윤을 위한 경쟁이 최악의 철도사고를 불렀다                   |
| 「노동과건강」 미술관  | 강길성의 돌멩이  |  |
| 법원의 선택       | 젊은 국어교사의 불치병  |  |
| 연구노트         | 농업인의 재해와 건강<br>보건의료의 공공적 개편과 무상의료   |  |
| 기고           | 사람들, 공동체를 꿈꾸다 - 산재노협 자활공동체 출범에 부쳐   |  |



|          |  |
|----------|--|
| 번역연재     | 산재보험을 둘러싼 전투 ① - 미국 산재보험의 “위기” 만들기과 자본의 공격 |
| 다르게 보기   | 유기농으로 밥상 차리기                               |
| 시장 뒤집어보기 | 유해물질 중독의 정치경제학                             |

71호 / 2005년 가을 / 발행일 : 20051031

|                              |                                |
|------------------------------|--------------------------------|
| 논단                           | 근로복지공단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
| 특집 - 산재노동자와 재할               | 한국의 자본주의 발전과 산재노동자             |
|                              | 산업재해 빈곤 그리고 재할                 |
|                              | 산재보험 재할사업 5개년 계획의 평가와 전망       |
| 연간기획 - 노동안전보건정책의 구조적 개혁을 제안함 | 제3편 - 산업보건체계의 개선 방안            |
| 창과 방패                        | 산업안전부문 국정감사 보고서                |
| 스즈키가 들려주는 노동자 이야기            | Asbestos Shock                 |
| 「노동과건강」 미술관                  | 관계맺기에 대한 회화적 비유                |
| 연구노트                         | 노동안전보건대표자 제도                   |
|                              | 산재사망과 기업에 대한 징벌적 배상            |
| 법원의 센터                       | 타도 근로복지공단                      |
| 번역연재                         | 산재보험을 둘러싼 전투 ② - 자본의 산재보험제도 통제 |
| 시장 뒤집어보기                     |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노동안전보건             |



72호 / 2005년 겨울 / 발행일 : 20051231

|                   |  |
|-------------------|--|
| 논단                | 특수고용직 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을 제대로 적용할 때 우리 사회에 희망이 생깁니다      |
| 특집 - 산재보험 제도 개혁   | 산재보험제도 개선과 관련된 쟁점들                               |
|                   | 산재보험 재정 및 급여체계의 개악과 사회보장의 후퇴                     |
|                   | 누구나 쉽게 치료받게 하라! 제대로 치료하라!                        |
| 창과 방패             | 비정규 관련법안 논의 사항                                   |
| 스즈키가 들려주는 노동자 이야기 | 현장의 힘  |
| 「노동과건강」 미술관       | 시계의 단면   |
| 법원의 선택            | 1심 판결 뒤집기... 한판승!!                               |
| 세계 노동자와 건강        | 야만적인 부의 축적, 병들어가는 아시아 신자유주의에 저항하는 아시아의 노동자건강권 운동 |
| 연구노트              | 산재보험 지정의료기관 전달체계 구축방향                            |
|                   | 산재보험 사회재활의 활성화 방안                                |
| 번역연재              | 산재보험을 둘러싼 전투 ③ - 산재보험제도 개악에 맞선 노동운동의 대응          |
| 현장에서 글쓰기          | 2005년, 뜨거웠던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성수동                      |
| 다르게 보기            | 건강하지 못한 한국의 이주노동자들                               |
| 시장 뒤집어보기          | 경동빌딩 옥상에 자리잡은 것은?                                |
| 진실게임              | 농촌의 산업구조와 농부증                                    |
|                   | 진실과 욕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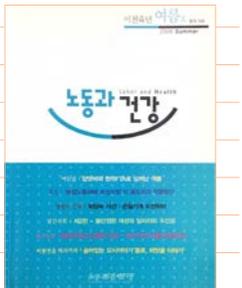
73호 / 2006년 봄 / 발행일 : 20060430

|                        |                                   |
|------------------------|-----------------------------------|
| 여는글                    | 2006년 봄 「노동과건강」을 시작하며...          |
| 특집 - 지역정치와 노동자건강       | 지방자치 10년의 빛과 그림자, 그리고 지역사회        |
|                        | 지역의사결정의 정치구조와 노동자건강권              |
|                        | 영세사업장 노동자 노동안전보건활동을 지역의 의제로 모색하면서 |
|                        | 지역적 네트워크와 노동자의 삶                  |
| 법원의 선택                 | 양총일 사건 : 니네들이 입증해 봐!              |
| 스즈키가 들려주는 세상이야기        | 드라마 공과 일본의 천왕제                    |
| 연간기획 - 여성노동자의 건강권을 말한다 | 제1편 - 왜 여성노동자의 건강을 말하는가?          |
| 세계 노동자와 건강 1           | 짧지만 알찼던 미국 방문기                    |
| 세계 노동자와 건강 2           | 2000-2004 부시정부 아래 미국의 노동보건 평가     |
| 연구노트                   | 뇌심혈관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관한 고찰(2)     |
| 시장 뒤집어보기               | 채테크'라는 이름의 덫                      |
| 현장에서 글쓰기               | 호텔룸메이드 여성노동자의 삶과 건강!!             |
| 노동과건강 책방               | 최장집 편, 「위기의 노동」                   |



74호 / 2006년 여름 / 발행일 : 20060730

|                        |                                |
|------------------------|--------------------------------|
| 여는글                    | 장맛비와 한미FTA로 상처난 여름             |
| 특집 - 농촌사회와 농민건강        | 신자유주의, 농업의 패배, 그리고 농민의 삶       |
|                        | 농업에서의 노동 재해와 농민 건강 실태          |
|                        | 고령화되는 농촌을 위한 지역복지의 모색          |
|                        | 농업노동재해 보상보험'의 필요성과 적용방안        |
| 법원의 선택                 | 최양숙 사건 : 끈질기게 도전하라             |
| 스즈키가 들려주는 세상이야기        | 평택-대추리와 나리타-산리즈카               |
| 연간기획 - 여성노동자의 건강권을 말한다 | 제2편 - 불안정한 여성의 일자리와 주건강        |
| 연구노트                   | 한미FTA와 노동자 건강 - NAFTA의 예를 중심으로 |
|                        | 병원 노동자의 직업성 감염 질환              |
| 이현진을 따라가자              | 숨어있는 도시 이야기 '종로, 피맛골 이야기'      |
| 생각 나누기                 | 일과 생활의 조화 - 핀란드에서의 일주일         |
| 노동건강연대 5돌을 맞이하며        | 혼자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은 없다             |



75호 / 2006년 가을 / 발행일 : 20061030

|                        |                                     |
|------------------------|-------------------------------------|
| 여는글                    | 가을단상                                |
| 특집 - 건설산업과 노동재해        | 건설현장의 하도급 현황과 구조적 문제점               |
|                        | 건설업의 재해 - 통계속에 감춰진 허와 실             |
|                        | 죽거나 혹은 다치거나...                      |
|                        | 걸어다니는 병원신세, 건설노동자의 안전보건 현실          |
| 법원의 선택                 | 건설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방안                |
| 법원의 선택                 | 통근재해,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              |
| 연간기획 - 여성노동자의 건강권을 말한다 | 제3편 - 여성의 눈으로 직업관련 근골격계질환을 바라보면     |
| 연구노트                   |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지역산업보건센터 운영에 필요한 것들 |
|                        | 산업생태학적 관점에서 본 노동안전보건 의제에 대한 의사결정    |



|           |                           |
|-----------|---------------------------|
| 이현진을 따라가자 | 숨어있는 도시이야기 청계천 금속가공골목 이야기 |
| 세계노동자와 건강 | 메콩델타 2006을 참여하고서...       |
| 생각 나누기    | 일과 생활의 조화 - 핀란드에서의 일주일    |

**76호 / 2007년 봄 / 발행일 : 20070430**

|                        |  |
|------------------------|--|
| 여는글                    | 소년의 아버지, 산재노동자   |
| 특집 - 이주노동자와 건강         |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의 현실<br>이주노동자 노동안전보건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         |
| 연간기획 - 여성노동자의 건강권을 말한다 | 성판매여성의 안전과 건강  |
| 법원의 선택                 | 정지원 사건, 산재소송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                               |
| 주장                     | 산별노조 시대의 노동안전보건 운동<br>노동자 참여를 위한 최소 조건, 노동안전보건대표제        |
| 연구노트                   | 우리나라와 독일의 산재보험 재할사업비용 비교                                 |
| 스즈키가 들려주는 세상이야기        | 미나마타병은 끝나지 않았다   |
| 세계노동자와 건강              | 아시아 노동자의 삶과 건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br>- 직업성 재해자 권리를 위한 아시아 네트워크 |
| 기행문                    | 힘든 길이지만 희망의 길을 간다 - 쿠바에서의 열흘                             |
| 이현진을 따라가자              | 옛 것과 현재의 갈림길에서 - 전주 교동 한옥마을이야기                           |
| 생각나누기                  |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한다 - 6월항쟁 20주년을 맞아                            |



**77호 / 2007년 가을겨울 / 발행일 : 표기없음**

|        |  |
|--------|--|
| 여는글    | 1986년 상봉동과 2007년 부산  |
| 특집     | 2007대선에서 우리가 할 일<br>2007대선 노동안전보건정책 요구안  |
| 법원의 선택 | 이상길 사건, 어머니의 눈물에 대한 보답<br>석면투쟁을 준비하자   |
| 기획특집   | 죽음의 섬유, 얼굴을 드러내다 - 석면관련 질환과 보상실태<br>석면운동은 정부, 기업, 세계기구에 대한 투쟁<br>석면피해자와 노동조합이 전개한 일본의 석면대책운동 |
| 연구노트   | 한미FTA와 농업인의 재해보상제도<br>외국인노동자의 사회적 배제원인 분석  |
| 생각 나누기 | 의료급여제도와 할머니의 파스  |



**78호 / 2010년 봄 / 발행일 : 201005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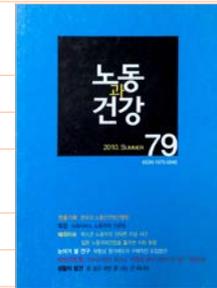
|                              |  |
|------------------------------|--|
| 여는글                          |  |
| 연중기획 - 한국의 노동안전보건행정          | 산업안전보건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결정은 타당한가<br>산업안전보건감독관 대 노동자, 영국의 5배<br>클린산업과 화학물질 사이 - 반도체산업 노동자들과 직업성 암 |
| 특집 - 삼성반도체, 백혈병 노동자, 그리고 쟁점들 | 가난한 노동자들에게 증거를 요구하는 우리의 자세<br>삼성노동자의 작업환경은 역학조사에 반영될 수 있을까<br>역학조사는 만능해결사인가                |

|              |                            |
|--------------|----------------------------|
|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 지난 겨울 너무도 행복했던 여자          |
| 법의 이면        | 과로사 인정은 줄어지고 산재보험 재정은 흑자   |
| 해외이슈         | 누가 광부를 죽였는가<br>일본의 학교석면 문제 |
| 눈여겨 볼 연구     | 조세부담률과 공공지출 낮은 한국, 산재사망 1위 |
| 이야기의 힘       | "자존심이 있어요, 그냥 접을 수는 없잖아요"  |
| 생활의 발견       | 시골생활의 첫 번째 관문, 어둠          |
| 노건연동향        |                            |
| 정부동향         |                            |
| 보도자료 모음      |                            |



**79호 / 2010년 여름 / 발행일 : 20100820**

|                             |  |
|-----------------------------|--|
| 여는글                         | 대안적 노동조합운동을 모색하며   |
| 생각 나누기                      | 내가 경험한 미국의 노동보건 행정관리   |
| 연중기획 - 내가 경험한 미국의 노동보건 행정관리 | 『유럽 근로감독관들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전략적 계획』<br>(Labour inspectorates' strategic planning on safety and health at work)<br>빈곤과 복지시장화에 대응하는 사회서비스 노동의 공공성<br>남을 돌보다 내가 병들다 - 간병 및 보육 노동자의 건강권<br>산소' 같은 노동인데 숨 쉴 권리가 없다 |
| 특집 -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건강권         | "석면이 무서워? 병 안 걸린 사람은 안 무서워" - 중피종 환자 최형식<br>현장에서 바라본 타임오프 "노동조합 말 좀 들어라"   |
|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 팩스콘 노동자의 잇따른 자살 사건   |
| 법의 이면                       | 일본 노동자파견법을 둘러싼 사회 동향   |
| 해외이슈                        | 위험성 평가제도의 구체적인 도입방안  |
| 눈여겨 볼 연구                    | 업무상 질병은 정말 줄어든 것일까   |
| 통계공부방                       | 근로복지공단 갔더니 '이렇게 해야 가입이 안 된다' 알려줘요<br>- 이상한 나라의 산재보험제도  |
| 이야기의 힘                      | 콩 심은 데만 콩 나는 건 아니다   |
| 생활의 발견                      |  |
| 동향                          |  |
| 보도자료모음                      | - 보팔참사·공해수출 캐나다의 죽음의 수출을 멈춰라   |



**80호 / 2010년 가을 / 발행일 : 20101125**

|                                    |   |
|------------------------------------|---|
| 여는글                                | 전태일의 이름 뒤에서 헤아려본다   |
| 시론                                 | 처벌 강화와 경제적 인센티브라는 두 가지 접근법을 살펴보기에 앞서  |
| 연중기획 - 한국의 노동안전보건행정                | 사업주 처벌 강화와 다양화를 통한 법 집행의 실효성 확보 방안<br>유럽에서 직업안전보건 향상을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 방안 검토' 소개 |
| 특집 -〈기업살인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br>간담회 지상중계 | 통계가 말해주지 않는 진실을 알려야 변화가 온다  |
| 논평                                 | 노동부 제3차 산업재해예방계획 소개와 논평   |
| 해외 연구자 초청 간담회                      | 일본의 비정규노동 현실과 한국의 미래<br>미국의 노동안전보건  |

|              |   |
|--------------|---|
|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 "모든 영향을 졌는데 지금 나 몰라라 하는 그것이 잘못됐고" - 진폐환자 김상전의 이야기 |
| 법의 이면        | 법의 '그늘'을 '양지'로 만드는 직접고용투쟁                         |
| 해외이슈         | 말하고, 조직하고, 투쟁하라! - 안로브(ANROAV)를 다녀와서              |
| 해외이슈         | 칠레 산 호세 광산 붕괴 사고, '각본 없는 드라마'?                    |
| 해외이슈         | 일본, 노동안전보건 문제로서의 자살 대책                            |
| 통계공부방        | G20 국가의 건강과 산업안전보건 수준                             |
| 이야기의 힘       | 인권'을 이야기할 때 생각해야 할 두 가지                           |
| 동향           |   |
| 보도자료모음       |   |



| 81호 / 2010겨울 2011봄 / 발행일 : 20110311 |   |
|-------------------------------------|---|
| 여는글                                 |   |
| 시론                                  | 부지런한 악당과 게으른 정의파  |
| 연중기획 [좌담]<br>한국의 노동안전보건정책을 말하다      | 노동자에게 불통 기업주에게 걸림돌, 행정의 현실                                    |
| 특집 - 복지담론 백가쟁명시대,<br>산재보험을 말하다      | 보편적 복지담론 속에서 산재보험개혁전략<br>노동자건강보장 제도의 미래<br>일본의 산재은폐와 사회보험제도   |
|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 내가 싸우는 이유는 현장을 바꾸고 싶은 게 밑바닥에 있기 때문이에요<br>- 박영일 산재노동자협의회 대표    |
| 법의 이면                               | 법적 제재로 중소기업의 산재를 예방할 수 있을까                                    |
| 해외이슈                                | 방글라데시 의류노동자들의 임금인상투쟁  |
| 해외이슈                                | "정의가 대접받을 때까지 우리는 여기 나와 행진할 것이다"<br>- 미국 위스콘신 주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 |
| 눈여겨볼 연구                             | 산업재해정체 원인분석 및 대책 연구   |
| 통계공부방                               | 산재보험 재정운용 현황  |
| 이야기의 힘                              | 전체노동자의 이해 속에 산재보험이 자리잡는 법                                     |
| 생활의 발견                              | 얼음나라에서 배웠다  |
| 동향                                  |   |
| 보도자료모음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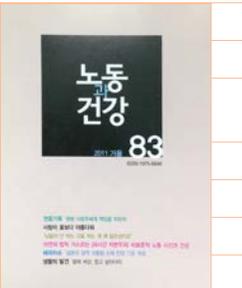


| 82호 / 2011 여름 / 발행일 : 20110622                          |   |
|---|---|
| 여는글   |   |
| 생각나누기   | 이주노동자를 보는 세 가지 시선   |
| 특집 - 핵발전과 노동자   | 노동'의 눈으로 바라본 일본 원전 문제<br>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방사선 건강피해<br>국내 방사선 취급 노동자의 직업병 실태<br>후쿠시마, 녹색운동 그리고 노동자                                |
| 4.28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 기념 프레시안<br>- 노동건강연대 공동기획 복지담론 속 숨겨진 죽음 | [1] 한국사회에서 노동자건강의 사회정치적 성격<br>[2] 실업 - 죽음의 연관성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회<br>[3] 산재사망 1위의 오명, 어떻게 벗을 것인가<br>[4] [좌담] 산재사망 OECD 1등 한국, 왜? |
|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 "후쿠시마 핵사고는 패전이후 최대의 사건" - 일본에서 날아온 '완소남' 스즈키의 솔직 토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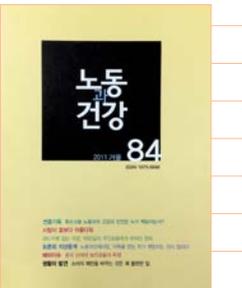
|         |  |
|---------|--|
| 법의 이면   | 노동자가 밝혀내지 못하면 직업병이 아닌가                                   |
| 해외이슈    | 이집트 판 "87년 노동자 대투쟁"<br>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전후의 일본사회<br>해외이슈 그 후 |
| 눈여겨볼 연구 | 캘리포니아 주 간병노동자의 사회적 특성과 노동조건                              |
| 진료실 풍경  | 아주머니 운동 좀 하세요 - 기나긴 노동 시간과 건강                            |
| 이야기의 힘  | 비정규노동자에게 너무 먼 복지이야기                                      |
| 생활의 발견  | 양평에서 서울 오는 길   |
| 동향      | 보도자료 모음  |



| 83호 / 2011 가을 / 발행일 : 20111011                 |   |
|--|---|
| 여는글  |   |
| 생각나누기  | 법, 너 누구냐  |
| 연중기획<br>- 원청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우자                     | 사내하청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br>파견·도급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br>간접고용 노동자 건강과 안전에 대한 사업주 책임 강화방안<br>시간의 주인이 되자 - 비표준적 노동시간의 정치경제학적 의미<br>교대근무는 인간의 건강에 치명적이다<br>일본의 심야, 장시간 노동에 대한 현실과 대책<br>남은 이야기 : 어느 출장검진사의 야간노동<br>"남들이 안 하는 것을 하는 게 제 일관성이죠"<br>- 주영수 대표를 만나다 |
| 특집 - 자연의 법칙 거스르는 24시간<br>자본주의 : 비표준적 노동 시간과 건강 |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에 대하여   |
|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 ILO 가사노동자 협약의 의미  |
| 법의 이면  | 일본의 성적 괴롭힘 산재 인정 기준 개정  |
| 해외이슈   | 1984~1998년 미국 여성의 직업성 폐암  |
| 눈여겨볼 연구  | 벌레 세상, 참고 살아야지  |
| 생활의 발견   | 분석 :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산재 1차 판결, 어떻게 볼 것인가   |
| 동향   | 정부동향  |



| 84호 / 2011 겨울 / 발행일 : 20120113       |   |
|--------------------------------------|---|
| 여는글                                  |   |
| 생각나누기                                | 2012, 간절히 간절히   |
| 연중기획<br>- 특수고용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은 누가 책임지는가? | 1. 간병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방안과 건강문제<br>2. 택배노동자의 건강과 산재보험 적용 방안<br>3. 대리운전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방안                              |
| 특집 - 돌아본다                            | 1. 슬픈 21세기 노동의 자화상<br>2. 그 날 이후 세계가 변했다 - 후쿠시마의 노동자들<br>3. 지난해 내가 들은 가장 정치적인 말<br>4. 노동자들은 싸운다 - 고통과 혼돈의 국제사회 |
|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 레드카펫 없는 극장, 1895일의 주인공들에게 바쳐진 영화<br>- 기륭비정규직 투쟁을 이끈 유희희   |
| 법의 이면                                | 한미FTA는 노동자 권리를 침해한다   |



|                          |  |
|--------------------------|--|
| 눈여겨볼연구                   | 지연 게임: 화학 산업의 규제 회피 전략   |
| 이야기의 힘                   | "월급도 적는데 일하러 오는 의사라면 의식 있는 의사입니다" - 텐요 요시오미 선생                           |
| 토론회 지상중계                 | 노동자산재사망, 이득을 얻는 자가 책임지는 것이 정의다   |
| 노동건강연대<br>-프레시안 공동기획 인터뷰 | 전자산업 노동자 건강권 운동의 산 증인, 테드 스미스를 만나다<br>대만의 전자산업 환경문제 연구자이자 활동가, 웬링 투를 만나다 |
| 진료실 풍경                   | 업무관련성, 애정남이 필요해  |
| 해외이슈                     | 중국 신세대 농민공들의 투쟁  |
| 생활의 발견                   | 소비의 패턴을 바꾸는 것은 꽤 불편한 일   |
| 회원 글                     | 『노동자건강의 정치경제학』 강독 후기<br><국경없는 마을>에 놀러 오세요                                |
| 정부동향                     |  |
| 노동건강연대 동향                |  |
| 성명·보도자료 모음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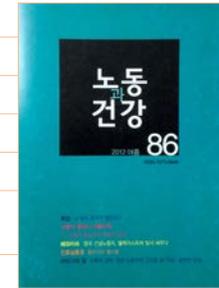
85호 / 2012 봄 / 발행일 : 20120525

|                        |   |
|------------------------|---|
| 여는글                    |   |
| 생각나누기                  | 진보정치, '노동' 없이는 갈 수 없는 길   |
| 기획 - 노동자건강권운동, 전망은 어디에 | 노동자건강권운동, 조직 전망을 고민하며<br>산별노조와 지역활동으로 새로운 운동을<br>우리는 왜 기업살인법을 내걸고 싸워왔는가 |
| 특집 - 기업살인운동 시즌2        | 기업살인법 다시 주목받다 : 외국사례로 본 법의 필요성<br>사업주 책임 강화를 위한 기업살인법 제정의 필요성           |
|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 우리 곁의 타자 돌봄 여성노동자, 그녀를 만나 주인공이 되다<br>- 최경숙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상임이사               |
| 법의 이면                  | 노동시간과 삶의 질  |
| 해외이슈                   | 애플을 둘러싼 미국 시민·소비자운동의 대응<br>일본 지진 피해 지역의 석면 대책                           |
| 눈여겨볼연구                 | 미국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한 다섯가지 규정   |
| 진료실 풍경                 | 초짜 의사의 고뇌   |
| 이야기의 힘                 | 노동건강연대 특강 : 당신의 건강과 정의<br>홍삼 먹고 야근하는 한국사회,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을 보라             |
| 생활의 발견                 | 전원생활의 이면, 자연과 인간관계 사이   |
| 정부동향                   |   |
| 노동건강연대 동향              |   |
| 보도자료 모음                |   |

86호 / 2012 여름 / 발행일 : 201208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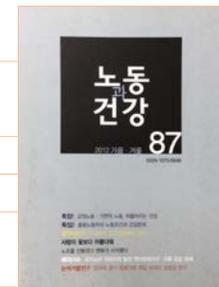
|                    |   |
|--------------------|---|
| 여는글                |   |
| 생각나누기              | 쉽지만 어려운 이야기   |
| 연중기획               | 노동안전보건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br>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노동안전보건            |
| 특집 - 더 많은 휴가가 필요하다 | 경쟁력의 언어에 휩싸인 휴가<br>더 많은 휴가가 필요하다<br>7일의 휴가에 감추어진 진실 |

|              |  |
|--------------|--|
|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 "니 고향이 중심이야 변방은 없어" - <지구인의 정류장> 김이찬 감독                    |
| 법의 이면        | 인간은 쉬고 싶다<br>전기원 노동자 사망과 한전의 법적 책임                         |
| 해외이슈         | 영국 건설노동자, 블랙리스트에 맞서 싸우다                                    |
| 해외판례         | 과로자살'과 회사책임에 대한 일본 법원의 판결                                  |
| 눈여겨볼연구       | 성과급제는 아담 스미스의 의견처럼 산업재해 가능성을 높이는가                          |
| 진료실풍경        | 할머니와 열사병   |
| 이야기의 힘       | 노동건강연대 특강 : 당신의 건강과 정의<br>- 반쪽의 과학, 여성노동자의 건강을 숨기려는 불편한 진실 |
| 생활의 발견       | 집을 사다 - 첫번째 이야기  |
| 정부동향         |  |
| 노동건강연대 동향    |  |
| 보도자료 모음      |  |



87호 / 2012 가을 겨울 / 발행일 : 20121224

|                           |  |
|---------------------------|--|
| 여는글                       |  |
| 생각나누기                     | 무너지지 말고 인정하지 말고  |
| 연중기획 - 노동안전 행정과 사법체계      | 노동안전보건 행정의 문제와 개혁방안<br>산재사망에 대한 법원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함                    |
| 특집1 - 감정노동                | 감정노동 : 가면의 노동, 허물어지는 건강<br>감정노동이 건강을 해친다<br>소비의 지점'과 보건의료노동자의 감정노동 |
| 특집2 - 돌봄노동                |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건강문제<br>은평 돌봄노동자 교육 프로그램 현장 보고                        |
|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 노조를 만들었다 변화가 시작됐다  |
| 법의 이면                     | 노동법 울타리 밖에 있는 천만명  |
| 해외이슈                      | 파키스탄 카라치의 '알리 엔터프라이즈' 의류 공장 화재<br>노동과건강을 위한 국제연대_미국공중보건학회 참가기      |
| 해외판례                      | 은행지점장 전속 운전기사의 과로사   |
| 눈여겨볼연구                    | 영국의 경기 침체기와 자살 사이의 관련성 연구  |
| 생활의 발견                    | 집을 사다 2 - 농촌에 집을 산다는 것   |
| 동향 - 대불산업단지, 하청노동자가 죽고 있다 |  |
| 정부동향                      |  |
| 노동건강연대동향                  |  |
| 보도자료 모음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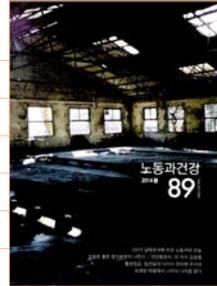
88호 / 2013 가을 / 발행일 : 20130925

|             |   |
|-------------|---|
| 여는글         |   |
| 생각나누기       | 노예처럼 일하는 것 같아요  |
| 기획 - 정책국 노트 | 우리나라의 직업성 암 실태 및 관리제도 개선 방향<br>한국노동자의 정신건강 안녕한가<br>사업장 산업안전보건 감독이 효과를 내려면 |

|                |                                   |
|----------------|-----------------------------------|
|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 우리의 삶은 중간 어디쯤에 -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
| 노동법 이야기        | 노동법 자본의 협력자로 탄생하다                 |
| 눈여겨볼 연구        | 유럽의 직업관련성 정신질환의 인정실태              |
|                | 을이 더 아픈 사회, 하청 노동자의 건강이 위험하다      |
| 해외이슈           |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파견노동자의 알권리에 관한 법'    |
| 해외판례           | 해외 산재 판결 소개                       |
| 활동보고 1 - 유럽방문기 | 베를린 런던 헬싱키, 노동자를 존중하는 사회          |
| 활동보고 2         | 노동자로 인정받는 것이 급하다 - 가사관리자 실태조사 진행기 |
| 활동보고 3         | 고객만족은 어디에서 오는가 - 가사관리사 일일체험기      |
| 생활의 발견         | 할머니의 뒷모습은 왜 똑같은거지                 |
| 정부동향           |                                   |

89호 / 2014 봄 / 발행일 : 20140211

|                            |                                      |
|----------------------------|--------------------------------------|
| 여는글                        |                                      |
| 생각나누기                      | 2014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
| 특집 - 2013 실태조사에 비친 노동자의 오늘 | 1. 농촌으로 간 이주노동자들은 어떻게 되었나            |
|                            | 2. 비정규노동의 최전선 안산시흥, 파견노동의 생일         |
|                            | 3. 재활? 다시 일어서기? 산재노동자를 찾아서           |
|                            | 4. 30가지 업무에 점심시간은 19분 - 가사관리 노동자의 건강 |
| 노동과건강이 만난 사람               | 건강은 좋은 정치로부터 나온다 - 『건강할권리』의 저자 김창엽   |
| 노동법 이야기                    | 통상임금, 법관들이 나서서 정리해주세요네               |
| 해외이슈                       | 삼성전자 납품업체 중국공장의 맨발의 노동자들             |
| 진료실 풍경                     | 건강검진, 기다림의 끝에 오는 허전함                 |
| 생활의 발견                     | 오래된 마을에서 나무의 나이를 묻다                  |
| 동향                         | 기업살인 운동 2014                         |
| 동향                         | 정부동향·노동건강연대 동향                       |



90호 / 2014 여름 / 발행일 : 201408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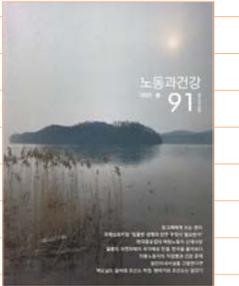
|                 |                                    |
|-----------------|------------------------------------|
| 여는말             |                                    |
| 세월호를 기억하기 위하여   | 세월호를 잊지 않기 위한 싸움                   |
| 생각나누기           | 공장에서 생산하는 시대가 끝나간다면                |
| 기획 - 빈곤과 복지     | 주거 빈곤과 복지사각지대 - (반)지하 주거를 중심으로     |
| 특집 1 - 의료민영화    | 복지가 버린 빈곤 범죄가 접수하다                 |
|                 | 갈 때까지 가려는가, 박근혜 정부의 밀어부치기          |
| 특집 2 - 산재보험 50년 | 영혼없는 산재보험 50년 이대로 가야하나             |
|                 | 레미콘노동자의 산재보험                       |
| 노동법 이야기         | 기업살인법, 법기술 논쟁보다 중요한 것              |
| 이야기의 힘          | 생산과 정치의 눈으로 보아야 보인다 - 노동자건강의 정치경제학 |
| 해외이슈            | UCLA 화학실험실 사고, 교수의 책임을 묻다          |
| 진료실 풍경          | 서는 자리가 바뀌면 풍경도 달라지는가               |
| 하해성활동가의 희망노가리   | 싱겁지만 파란만장 노동조합 이야기                 |
| 생활의 발견          | 우리 마을에는 짐승도 많이 살고 있다               |



|           |                              |
|-----------|------------------------------|
| 기업살인운동 동향 | 하청노동자 5명 사망 현대제철, 벌금 5천만원 판결 |
| 동향        | 2014 살인기업 선정식                |

91호 / 2015 봄 / 발행일 : 20150204

|                                      |  |
|--------------------------------------|--|
| 생각나누기                                | 장그래에게 쓰는 편지  |
| 기획<br>- 국제심포지엄 "침몰한 생명과 안전 무엇이 필요한가" | 정상사고'와 페리여객선 참사: 국제적 관점에서 본 산업재해의 원인과 결과                                 |
|                                      | 공공안전과 기업의 법적책임: 기업살인법의 재난예방효과  |
|                                      | 1. 캐나다에서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br>2. 기업살인법: 호주경험에 대한 소개<br>3. 캐나다와 호주의 경험에 대한 질의응답 |
| 특집<br>- 현대중공업의 하청노동자 산재사망            | 현대중공업의 해외투자자 노르웨이·네덜란드 연기금에 대한 대응활동                                      |
|                                      | 일하다가 사망한 하청노동자, 왜 자살이라 하나  |
| 일본에서 온 편지                            | 일본의 석면피해자 국가배상 판결, 한국을 돌아보다  |
| 해외이슈                                 | 미용노동자의 직업병과 건강 문제  |
| 노동법 이야기                              | 원인터내셔널을 고발한다면  |
|                                      | 어떤 나라의 비정규직대책  |
| 이야기의 힘<br>- 노동자건강의 법과 현실             | 법이 가르쳐주지 않는 것들 - 굴뚝청소부와 미친 모자장수  |
|                                      | 맥도날드 알바와 조선소 하청, 햄버거와 조선소는 닮았다   |
| 하해성 희망노가리                            | 작은 교육 하나가 신선한 바람을  |
| 진료실 풍경                               | 암검진을 받아야하나   |
| 생활의 발견                               | 국수리 할머니들 대담구   |



92호 / 2015 겨울 / 발행일 : 20151210

|                                |  |
|--------------------------------|--|
| 생각나누기                          |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이슈는 노동자 건강 이슈   |
| 특집1 - 위험은 불평등하다                | 고발전문 단체?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일   |
|                                | 살인기업 선정식, 10년을 함께하는 기업들  |
|                                | 현대건설/대우건설/GS건설/우정사업본부/현대중공업/삼성물산/대림산업/롯데건설/포스코건설/사조산업/SK건설/원진레이온/한국철도공사/현대산업개발/현대자동차/두산건설/대우조선해양/동부건설/유성엔지니어링/현대제철 |
| 조선소 잔혹사                        |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사망이 소강하다고?   |
| 연구노트<br>- 위험의 하청화 실태 및 개선방안 모색 | 국가인권위원회 '산재위험직종 실태조사' 연구결과   |
| 기획 - 기업살인법, 만들 때가 왔다           |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기업살인법   |
|                                | 세월호와 만난 영국·호주의 기업살인법(간담회)  |
| 특집2 - 젊다고 건강하건 아니다             | <카드뉴스> 아르바이트 500만 시대! 일을 하다 다친다면?  |
|                                | 잉여와 자립, 그리고 노동 - 2015 서울노동권익센터 '나와 노동' 강연/알바노동 심계명 프로그램 참가 후기  |
|                                | 헬조선시대, 청년의 노동과 건강  |
| 기고                             | 또 발생한 수은중독, 지금은 21세기인데   |
| 노동법 이야기                        | 노동개혁'이 청년 일자리 만든다고?  |
| 하해성활동가의 희망노가리                  | 반말이 존댓말이 되게 한 힘, 기승전 노동조합  |
| 생활의 발견                         | 양평을 떠나다  |
| 진료실 이야기                        | 현명한 건강검진   |
| 2015 하반기 정부동향                  |  |

| 93호 / 2017 겨울 / 발행일 : 20171210 |   |
|--------------------------------|---|
| 사당동에서                          |   |
| 대담1                            | 엮구리 내줄 여유가 있어야지, 각자도생이다 그러면 노조 못 만듭니다   |
| 대담2                            | 『각자도생과 21세기 복지의 풍경』 불안정 고용시대의 사회보장을 다시 생각함  |
| 초점                             | 공론화 이후 더 많은, 더 좋은 탈핵을 이야기하기<br>1981년 만든 법을 그대로 두고 개혁은 어렵다   |
| 현장                             | 메탄올 노동자 6명 사회복지 분투기<br>『그곳에 노동자가 있다』 핵발전 비정규직노동자 실태조사<br>건강할 권리를 헌법에, 건강할 권리를 외치다<br>속깊은 대화 - 앞이 보이지 않게 된 노동자들과 함께 한 1년<br>메탄올 세 가지 키워드 1 제도운영과 정부 - 왜 막지 못한 것일까<br>메탄올 세 가지 키워드 2 파견노동 - 완전범죄를 모의하는 파견노동<br>메탄올 세 가지 키워드 3 산재보험 - 갑질하는 산재보험<br>스토리펀딩과 토크콘서트 후기 |
| 기획 - 기록하다 되짚다                  | 수돗물 오염에 맞선 미국 플린트시 주민들의 투쟁<br>20년 전의 성찰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 김동춘 『사회학자 시대에 응답하다』를 읽고<br>정치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활동하기 위하여   |



| 94호/2018 봄 / 발행일 : 20180425 |  |
|-----------------------------|--|
| 편집위원회로부터                    |  |
| 대담 - 문재인 정부의 노동행정 달라졌나      | 누구 편이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나<br>평판보다 이윤이 중요하다 - 기업살인이 멈추지 않는 잉<br>기업살인'의 렌즈로 본 2017년 산재사망 통계                |
| 기획1 - 기업살인, 기업에 대해 더 많이 말하기 | 기업이 관행이라고 말하니 법원이 이해해 준다<br>- 2015년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1심 판결문 분석<br>영국과 미국은 기업주를 처벌하고 있다<br>노동자의 죽음에 계몽의 슬로건으로 답하다 |
| 기획2 - 환경 지역 건강이 만나는 현장을 찾아  | 산업단지 주변 주민들이 생각하는 환경과 건강<br>문제가 일어난 그곳에서 문체와 씨름한 환경운동가의 탄생   |
| 지상중계                        | 직장인들이 서로를 위로하는 방법 - <직장갑질119> 카톡방에서 일어나는 일들  |
| 해외소식                        | 오바마는 매년 성명을 발표했다, 트럼프는 하지 않았다<br>-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 Workers' Memorial Day  |
| 서평                          | 현장을 바꾸긴 어려워도 현장은 중요하다 - 캐런 메싱 『보이지 않는 고통』  |
| 대표의 편지                      | 감추어진 현실을 더 많이 드러내는 것이 새로운 운동   |



| 95호 / 2018 여름 / 발행일 : 20180813 |   |
|--------------------------------|---|
| 편집국에서                          |   |
| 기획1 - 우리 결의 이주노동자              | 이주노동자, 누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나<br>수단'에서 '존재'로 가는 길 - 고용허가제 폐지를 이야기할 때<br>이론적 평등과 실질적 차별 - 이주노동자의 안전과 건강<br>외국인 건강 보장 정책의 문제점과 이주노동자 차별<br>상추 따고 집을 짓는 수십만의 이주노동자가 있다<br>-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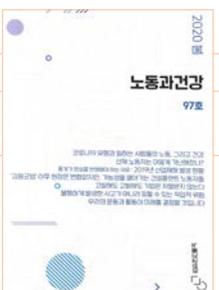
|        |  |
|--------|--|
| 환경대담   | 노동 보건 환경의 올라운드 플레이어, 김신범 부소장                       |
| 대담     | 문송면 30주기 특별대담 <노동자가 되지 못한 노동자>                     |
| 지상중계   |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노동자건강권                                 |
| 해외이슈   | 유독 화학물질이 들어간 페인트 제거제를 퇴출시킨 미국의 시민운동                |
| 현장스케치  |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위원회 활동<br>- 대안을 상상해 본 적이 있는가 |
| 영화     | 공학도의 눈으로 바라본 주라기월드 : 풀른 킴덤                         |
| 대표의 편지 | 이주노동자 건강과 안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



| 96호 / 2019 봄 / 발행일 : 알 수 없음 |   |
|-----------------------------|---|
| 편집국에서                       |   |
| 특집 - 기업살인                   | 기업살인법, 비판과 낙관 사이에서 상상하고 희망을 찾아보다<br>2018년 기업살인 - 원하청 관계에서의 사망을 중심으로 |
| 좌담                          | 미투의 시대, 일하는 여성의 세상에서 본 미투   |
| 해외연구동향                      |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효과가 있었나                                  |
| 해외소식                        | 익 이코노미와 노동자권리, 끝나지 않는 투쟁  |
| 캐런 메싱의 강연을 듣고               | 노동자와 대화하지 않거나, 노동 현장을 관찰하지 않을 때<br>연구자에게 일어나는 일 - 공감격차 줄이기          |
| 영화                          | 국가부도의 날 : 누구의 위기였고 누구의 기회였나   |
| 책                           | 의료영리화가 지워버린 간호사의 목소리 - 『코드그린』 북토크 참가기                               |
| 대표의 편지                      | 김용균의 죽음이 남긴 질문, '안전'이 아닌 '정치'의 의미를 물어야 한다                           |



| 97호 / 2020 봄 / 발행일 : 20200610      |  |
|------------------------------------|--|
| 편집국에서                              |  |
| 특집 : 코로나19 유행과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 그리고 건강 | [지상간담회1] 바빠지고 위험해진 노동자들의 이야기<br>[지상간담회2] 일이 없어졌다고 월급까지 반납하라니?<br>코로나19 2차 유행의 직접적 위험에서 불안정 노동자 지키기   |
| 해외소식                               | 코로나19와 노동운동의 역할 : 캐나다의 경험  |
| 기획01 : 산재보상 사각지대 살펴보기              | 평범한 비극에 직면하기 : 2019 산재 노동자 지원 사업의 지난 이야기<br>산재노동자는 어떻게 가난해졌나?<br>통계가 현실을 반영해야 하는 이유 : 2019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 기획02 : 고 김용균 이후, 오늘의 현장            | 김용균법' 이후 현장은 변함없지만, 가능성을 열어가는<br>건설플랜트 노동자들<br>고발해도 고발해도 기업은 처벌받지 않는다<br>작업장 화재: 불행하게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피할 수 있는 직업적 위험                                     |
| 포토 스케치                             | 2020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
| 지상중계                               | "용균이가 일한 현장에 들어갔을 때 너무 위험한 곳이라는 것을 알았어요"<br>- 알라딘 인문학 스튜디오 『열여덟, 일터로 나가다』 북콘서트   |
| 코로나 시대의 책임기                        | 화장 제모 애교' 여성의 몸에 관한 뼈때리는 수다<br>- 『당신이 숭배하는 혐오하든』<br>이 정도면 별로 과로한 것 같지 않다? 그러다가 죽었다 - 『과로자살』<br>약속한 희망은 오지 않았다 :<br>대량 해고, 개인과 지역, 그리고 삶 - 『제인스빌 이야기』 |
| 대표의 편지                             | 우리의 운동과 활동이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



| 98호 / 2020 여름가을 / 발행일 : 20200925 |   |
|----------------------------------|---|
| 편집국에서                            |   |
| 특집 : 코로나19와 노동                   | 방역 최전선에서의 노동 : 대구 공무원 노동자의 이야기                          |
|                                  | 보이지 않는 노동자 : 농업이주노동자의 이야기                               |
| 기획 : 산업안전보건법 판례 671건을 분석하다       | 4차산업혁명부터 코로나19까지 : 우리가 사회에 던져야 할 질문들                    |
|                                  | 노동건강연대·KBS 공동기획 : 2018-2019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1심 판결문 분석 보고 |
| 연구현장                             | 산업안전보건법과 양형기준   |
| 노동정책 리뷰                          | 기업살인법 운동: 사회변혁적 주체의 진화                                  |
| 서재와 시사실                          |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노동현장은 어떻게 변할까?                              |
|                                  | 21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를 살펴본다                                |
| 대표의 편지                           | 노동자의 실용서 『직장 갑질에서 살아남기』의 저자를 만나다                        |
|                                  | 우리가 만든 세계, 그 다음은? : 드라마 Years and Years(2019, BBC&HBO)  |
|                                  | 유급병가? 상병수당?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 확보를 위해서는                    |



| 99호 / 2020 겨울 2021 봄 / 발행일 : 20210125 |   |
|---------------------------------------|---|
| 편집국에서                                 |   |
| 기획01 : 코로나19는 노동자에게 어떤 상흔을 남기고 있는가?   | 답답해서 직접 연구해본, 코로나19가 노동자 건강권에 미친 영향                       |
|                                       | 콜센터 노동자가 보여준 재택근무의 미래                                     |
|                                       | 감염병의 시대, '혁신' 물류산업이 작동하는 원리                               |
|                                       | 사회적 거리두기와 청소년노동자 고용의 관계                                   |
| 기획02 : 2021 노동자건강권 운동 전망              | 코로나19 한가운데 던져진 돌봄노동자들                                     |
|                                       | 재난의 불평등 앞에 연대하는 시간  |
| 해외소식                                  | 2021 무엇을 할 것인가  |
| 연구현장                                  | 캐나다 보건의료노동조합의 코로나19 대응                                    |
| 노동정책 리뷰                               | 팬데믹과 슈퍼히어로, 프랑스 보건의료노동자들이 직면한 현실                          |
| 노동건강연대 지금                             | 필수노동자'의 등장과 정부대응  |
|                                       | 「첫 노동 공략집」 5천부 완판이 기분 좋아서 쓰는 글                            |
| 노동건강연대X삼우실 인스타툰                       | 인스타그램에 산재이야기 담아내기 : 아름다운재단 <산재보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 콘텐츠 제작 |
|                                       | 사장님이 허락한 산재?  |
| 일하는 당신을 위한 공공서비스                      | 인스타툰으로 보는 청년노동자들의 산재이야기                                   |
| 회원인터뷰 다가간다                            | “'구지역'으로 출근하는 당신, <서울근로자건강센터>에 가보자”                       |
| 영화 읽기                                 | 공학도가 전직하여 노동건강연대를 만나기까지 - 박정준(노동건강연대 회원, 공인노무사)           |
| 대표의 편지                                | 현장실습생의 죽음과 좋은 어른에 관한 질문 : <젊은이의 양지>(2020, 신수원 감독)         |
|                                       | 법 제정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 뿐입니다                                |





**발행일** · 2021년 8월 20일 (통권 100호)

**발행인** · 이상윤

**편집위원장** · 전수경

**편집위원** · 전수경, 김명희, 유성규, 이상윤, 변수지, 안현경, 박한솔

**편집** · 박한솔

**디자인** · 인쇄디자인꿈

**A.** 03371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상상청 303호

**T.** 02-469-3976

**E.** laborhealthh@hanmail.net

**H.** www.laborhealth.or.kr

**S.** www.facebook.com/laborhealthh , www.instagram.com/laborhealth

**후원** www.laborhealth.or.kr/donate